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 호(346)

차 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

동지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우리는 위대한 승리와 력사적사변들로 가득찬 1970년을 보내고 새 희망과 용감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새해 1971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여러 동지들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1970년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뜻깊은 해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위대한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전체 인민의 커다란 감격과 흥분 속에서, 우리 당에 대한 모든 근로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속에서, 우리의 벗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속에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회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고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되였다는것을 세상에 선포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뚜렷이 시위하였습니다. 또한 대회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전투적강령을 내놓았으며 우리 인민에게 더욱 휘황한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당대회를 통하여 우리 당의 전투력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속에서 당의 권위와 신임은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더욱더 허물수 없는것으로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당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 제4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돌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고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공업과 농업의 빠른 발전과 함께 과학과 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되고 우리의 도시와 농촌이 더욱

아름답게 건설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원쑤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이 격화되는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갔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원쑤들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대회가 내놓은 위대한 전망에 고무되여 충천한 기세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것이며 당의 령도밑에 난관에 굴하지 않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결과입니다.

나는 조국력사에 찬란히 기록될 1970년을 돌이켜보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을 비롯하여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보건일군, 작가, 예술인들, 당 및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 그리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우리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전취물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는 영웅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사회안전원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에게 충심으로부터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올해에도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갈라진채 새해를 맞이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파쑈적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자유와 민족적독립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습니다. 투쟁은 점차 확대되고 조직화되여가고있으며 투쟁과정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이 더욱 높아가고 남조선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자라나고있습니다.

나는 헤아릴수 없이 어렵고 간고한 환경속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웅하게 싸우고있는 통일혁명당을 비롯한 남조선혁명가들 그리고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60만재일동포들과 총련의 전체 간부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새해의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내며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맑스-레닌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밑에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아세아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 그리고 세계의 모든 평

화애호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와 전투적인 성원을 보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펼쳐준 강령적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이 과업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한 사회주의나라로 되고 우리 인민의 모든 살림살이는 더욱 넉넉하여질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것입니다.

새해 1971년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수행하는 첫해이며 우리는 올해부터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보람찬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전반적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 첫 전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전당과 모든 국가, 경제기관, 기업소들과 근로단체들, 로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전체 인민이 6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무엇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더욱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도록 하며 그 첫사업으로서 석탄공업부문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탄광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이부문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일뿐아니라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더잘 충족시키기 위한 중대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전당이 석탄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며 기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석탄공업을 적극 지원하여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는 철강재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올해에 흑색야금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철광석생산을 더 빨리 높이고 원료예비처리를 개선하여 지금 있는 용광로들에서 선철생산을 훨씬 늘이며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농촌에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고 경공업에 필요한 화학섬유와 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빨리 늘이며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새로 건설확장된 세멘트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세멘트생산량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기술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기계공업부문에 달려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공작기계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각 공장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더 많이 더 잘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부문과 운수부문에서 요구되는 선박들을 대량 생산보

장하여야 하며 광산들에서 요구되는 대형자동차, 대형불도젤, 대형굴착기 생산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필요한 새로운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빨리 추켜세우는것은 올해에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여 지난해에 새로 일떠선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은을 내게 하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붉은 어로공들은 물고기잡이에서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달동안에만 하여도 30만톤이상의 물고기를 잡았으며 하루에 최고 1만 8,000여톤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나는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적성과를 거둔 당의 붉은 어로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수산부문일군들은 계속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특히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공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랭동, 절임, 말리기, 통졸임을 비롯한 물고기가공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리며 물고기를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수송조직도 빈틈없이 짜고들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계속 농촌경리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지난해에 풍작을 이룩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올해에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알곡증산의 커다란 예비는 밭관개를 실시하며 모를 일찍 내는데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밭관개면적을 빨리 늘이며 랭상모를 더 많이 내고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책임성을 높여 5월 25일까지 모내기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지대별로 과악있는 좋은 종자를 심도록 하며 농촌로력을 농사일에 집중하며 퇴비생산운동을 적극 벌리며 특히 당면한 올해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축산업을 집약화,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축산물생산을 늘이며 과수원의 비배관리를 잘하여 과일생산을 늘이고 그 저장과 가공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전당적, 전인민적인 관심을 돌려 교통운수 특히 철도운수를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올해에 철도전기화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며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지금 있는 철도의 통과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철도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갈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배길을 개척하고 항구와 포구들을 잘 꾸려 수상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며 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이고 수송조직을 합리화하여 자동차로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본건설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입니다. 올해에 기본건설부문에서는 서두수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 웅기화력발전소, 원유가공공장, 김책제철소 강철직장과 압연직장, 황해제철소의 소결로직장과 환원단광직장, 합성고무공장, 탕채기계공장, 5월방직공장과 9월방직공장, 신포항과 류대조선소 건설의 10대건설대상을 비롯하여 이미 시작한 중요대상들의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건설기간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재를 국가와 중앙공업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없애고 모든 지방들에서 벽돌, 기와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생산을 널리 조직하여 지방건재를 가지고 살림집, 학교 그밖에 건설물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설계부문에서는 설계에서 랑비현상을 없애고 건설에 필요한 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더 큰 승리를 쟁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한편 우리는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힘을 넣어야 할것입니다.

국방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모든 군수계획지표들을 넘쳐수행하여 인민군대에 더 좋은 무기를 더 많이 공급하는것입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은 자기들이 맡은 경제과업과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언제나 동원되고 준비된 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연과 후방에서 방어공사를 빨리 끝내여 전국을 더욱 철저히 요새화하며 전략물자의 예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이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긴장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과 전체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건설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물리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며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나아가고있는 청년들은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에서도 계속 앞장서나아가야 하며 특히 새 기술과 현대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적용하여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의 선구자가 되여야 할것입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건설과 생산에서 나서는 기술문제들을 정력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속, 화학, 기계공업부문에서 새 기술을 적

국 도입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긴장된 로력사정을 푸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로력배치를 잘하며 생산조직을 짜고들며 엄격한 질서를 세워 로력을 극력 절약하며 한사람의 로력도 랑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중요한 담보는 지도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국가, 경제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분기별, 월별, 일별 전투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들의 정치사상적, 기술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당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계속 들어쥐고 간부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1971년을 간부들의 자질과 지휘능력을 한계단 더 높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답게 검박하고 긴장하게 생활하며 특히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사상이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 이것이 오늘 당이 제기하는 구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할수 없습니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자만과 답보는 금물이며 우리에게는 오직 투쟁과 전진, 창조와 혁신이 있을뿐입니다.

모두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3대기술혁명의 구호를 높이 들고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를 승리적으로 벌리자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 6개년계획의 보람찬 설계도에서 조국의 륭성발전과 보다 휘황한 래일을 확고히 내다보며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앙양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고있는 환경속에서 승리의 새해, 1971년의 새아침이 밝았다.

우리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더욱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보람찬 진군을 개시한 1971년, 새해를 맞는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여 이 땅우에 민족적번영의 빛나는 새 시대를 펼쳐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신뢰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영원히 수령과 함께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승리의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승리의 새해 1971년을 맞으면서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였다.

수령께서는 신년사에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지난 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 력사적승리를 총화하시고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로력적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여주시였으며 새해에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로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 6개년계획의 빛나는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해의 휘황한 설계도이며 새로운 위대한 전투와 영웅적위훈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부르는 전투적호소이며 새해의 투쟁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0년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매우 뜻깊은 해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위대한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 1970년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들로 가득찼으며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운 해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지난해에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커다란 관심속에서, 국제적벗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속에서 진행된 우리 당 제5차대회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발전에서와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으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승리의 진로를 전면적으로 휘황히 밝혀준 전투적강령으로 일치하게 접수하고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심정을 반영하여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다시금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또다시 모시게 된것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을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륭성번영을 위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

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해에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당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 제4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돌격전에 떨쳐나선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고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하게 올라서게 되였다. 공업과 농업의 빠른 발전과 함께 과학과 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되고 우리의 도시와 농촌이 더 아름답게 건설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한계단 더 향상되였다.

지난해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의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금성철벽으로 다져놓았다.

지난해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위대한 성과들은 진적으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승리이다. 그것은 또한 일편단심 수령께 끝까지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수령께서 가리키신 혁명승리의 한길을 따라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계속 힘차게 달려나감으로써 이룩된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업적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수령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와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모든 전투적과업들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계획수행에서 올해의 첫전투가 가지는 의의와 그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해 1971년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수행하는 첫해이며 우리는 올해부터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보람찬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전반적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 첫전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실현에서 올해 1971년의 전투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해 전투를 어떻게 벌리는가에 따라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은 물론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기한을 훨씬 앞당겨점령하는가, 못하는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중공업, 경공업, 농촌경리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수령께서 밝혀주신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의 첫전투에서부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

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7페지)

3대기술혁명, 이것은 위대한 수령께서 6개년계획기간에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앞에 제시하신 새로운 전투적구호이며 우리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된 다음 기술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밝힌 위대한 사상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창조적사상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과 지향을 전면적으로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인 투쟁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로운 보다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힘차게 고무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력사적인 경제건설강령을 더욱 빨리 앞당겨수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무엇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더욱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도록 하며 그 첫사업으로서 석탄공업부문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석탄공업부문은 인민경제의 그 어느 부문보다도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많은 부문이다. 그러므로 석탄공업부문에서부터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드는것은 이 부문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긴장된 로력문제를 풀수 있게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기술혁명과업을 힘차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석탄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전반적6개년계획수행에서 관건적고리로 되는 나라의 연료, 동력 기지를 강화하고 공업의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을 이룩하게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오늘 공업의 량식인 석탄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때보다도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석탄은 공업의 동력으로, 연료로서뿐만아니라 현대화학공업의 귀중한 원료로서 더욱더 많이 요구된다.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인민경제 다른 모든 부문들에서의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석탄전선, 이것은 현시기 6개년계획의 전반적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돌격로를 열어주는 돌파구이며 전반적인민경제부문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견지하기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이다.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넘어가며 특히 석탄생산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작업의 기계화수준이 낮은 무연탄광들의 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공업과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철강재, 기계설비 등 석탄공업부문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재, 설비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해주며 전군중적인 지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석탄생산을 힘있게 앞세우는것과 함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는 철강재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흑색야금공업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흑색야금공업부문에서는 철광석생산을 더 빨리 높이고 원료예비처리를 개선하여 지금 있는 용광로들에서 선철생산을 훨씬 높이며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2차금속가공

제품생산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화학공업, 건재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특히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공업부문에서 3대기술혁명수행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대형기계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수요에 맞게 철도운수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수송문제를 원활하게 푸는것은 올해계획과 6개년계획의 전반적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46페지)

지금 우리 나라 교통운수부문앞에는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를 벌리고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 요구되는 짐을 어김없이 실어날라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무엇보다먼저 화물수송의 압도적부분을 담당하고있는 철도운수에서 철도를 전기화한데 상응하게 중량레루와 중량화차를 많이 생산공급하며 구내선을 합리적으로 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면서 새 철도건설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배길을 개척하고 포구와 항구를 잘 꾸려 수상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며 수송조직을 잘하고 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이며 상하차작업의 기계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운수사업에 대한 전당적, 전인민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빨리 추켜세우는것은 올해에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여 지난해에 새로 일떠선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은을 내게 하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빨리 추켜세우며 특히 지방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녀성들을 부엌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전반적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올해에 일용및식료공업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공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일용품과 식료품의 가지수와 그 량을 더욱 늘이고 요구성과 통제를 강화하여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한계단 더 높임에 있어서 수산부문이 맡아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 또한 자못 중요하다.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산부문일군들은 물고기잡이에서 일으키고있는 새로운 고조를 계속 견지하여 더욱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리며 특히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동시에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공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랭동, 절임, 말리기, 통졸임을 비롯한 물고기가공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리며 물고기를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수송조직도 빈틈없이 짜고들어 근로자들에게 더많은 물고기가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지난해에 풍작을 이룩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올해에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을 집약화하는것은 정당수확

고를 높이는 기본방도이며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무엇보다먼저 분수식관수를 비롯한 밭관수체계를 널리 실시하여 2모작면적을 빨리 늘이며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다그쳐 농작물의 정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특히 올해의 당면한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금년도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한다. 알곡증산에서 당면한 예비는 모내기를 일찌기 하는데 있다.

랭상모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논갈이를 제때에 하여 모내기를 5월 20일전으로 끝내며 전국이 달라붙어 농촌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알곡, 축산, 과수 등 모든 부문에서 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 기술혁명의 과업이 심화되여 더욱 힘있게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당이 농촌에 파견한 로동계급의 첫부대인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잘할것을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뜨락또르운전수대렬을 더 잘 꾸리고 그들속에서 혁명화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모두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건설부문에서 간석지와 강하천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식수조림사업을 비롯한 국토건설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외화를 많이 버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매우 절실한 과업의 하나이다.

중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도 외화가 필요하며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많은 외화가 있어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외화원천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며 외화를 벌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기본건설부문의 중심과업은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올해에 기본건설부문에서는 건설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계획에 예견된 10대건설대상을 비롯하여 이미 시작한 중요대상들의 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건설기간을 빨리 앞당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건재를 국가와 중앙공업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없애고 모든 지방들에서 벽돌, 기와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생산을 널리 조직하여 지방자재로 살림집과 학교 등을 더 많이 짓도록 하며 설계를 건설에 앞세우고 설계에서 랑비현상을 없애야 한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앞에 나선 모든 과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것과 함께 국방건설분야앞에 나선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70페지)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계속 병진시킬것을 요구하며 그 어느하나도 소홀히 하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령께서 제시하신 혁명적자위로선을 튼튼히 견지하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올해에 모든 군수계획지표들을 넘쳐수행하여 인민군대에 더 좋은 무기를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

군대와 인민은 다같이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더욱 튼튼히 갖추는 기초우에서 인민군대에서는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전투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은 맡겨진 경제과업과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언제나 동원되고 준비된 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요새화를 더욱 철

저히 실현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식량, 기름, 겨울옷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마련하며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금년도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6개년계획의 전반적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분야 앞에 나서는 새해과업들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에 대하여서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이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긴장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과 전체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물리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며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모든 부문에서 계속전진, 계속혁신하여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증산과 절약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 이것은 올해 인민경제계획과 전반적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며 관건적고리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도 바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간고분투함으로써 이룩된것이며 오늘 전반적6개년계획과 올해의 첫전투에서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고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가르치신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앞당겨수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먼저 당면하여 모든 부문에서 《100일전투》를 벌릴데 대한 수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모든 기대, 모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그것을 계속 만가동시켜 생산을 새해 첫전투부터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더욱 발전시키며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인 청년들이 모든 부문에서 앞장서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언제나와 같이 6개년계획의 첫전투에서도 대중의 선봉이 되여 새 기술과 현대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모든 정력을 다바침으로써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올해 인민경제계획과 전반적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함에 있어서 지도일군들앞에 특별히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중요한 담보는 지도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 경제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

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분기별, 월별, 일별 전투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에서 기본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을 깊이 체득하여 그것을 뼈와 살로 만들고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며 경제관리분야에서 수정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하신 수령의 력사적인 보고와 그이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여 그에 담겨져있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또한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공급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은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고조된 혁명적열의에 자재공급사업을 빈틈없이 따라세운다면 어떠한 어려운 계획도, 방대한 전투과제도 어김없이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증시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자재공급사업이 가장 중요한 생산조직사업이라고 하신 수령의 교시를 깊이 명심하고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우에서부터 아래에까지 날라다주고 충분히 대주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고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며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또한 로동행정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로력배치와 로력조절사업을 더 잘하며 긴장한 로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6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첫해 첫 전투부터 승리적으로 수행하자면 지도일군들의 정치사상적, 기술실무적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구호를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올해를 자기들의 자질과 지휘능력을 한계단 더 높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승리에 결코 자만할수 없으며 안일해이할수 없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사는 영웅적인민답게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평화적기분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당대회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분야 앞에 제시한 모든 과업을 어김없이 앞당겨완수하여야 한다.

모두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3대기술혁명의 기치드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거세찬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에서부터 승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가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간고분투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면서 그 근본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 자주로선이 가져다준 위대한 열매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1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해불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과 내용,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며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의식적이며 자각적인것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또한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서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수령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1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우와 같은 책, 11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그이의 혁명사상에 일관되여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전략전술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과학성, 창조성, 혁명성, 전투성 그 필승불패의 힘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그 원천을 두고있으며 거기서 직접 흘러나온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그이의 혁명사상에서 진수를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11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전반에 대한 당과 인민의 근본립장과 태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운명, 당활동의 모든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태도와 립장을 옳게 세워야만 매개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세울수 있으며 력사와 생산력 발전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 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승리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바로 혁명의 주인인 당과 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립장과 태도를 밝힌

것으로서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또다시 주체사상의 본질적내용에 대한 심오하고도 전면적인 규정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책, 111페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은 로동계급의 지향과 그 계급적리익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에 무한히 충실하며 자기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근본원칙으로 삼는다. 주체사상의 두 측면을 이루는 자주성과 창조성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자주성이 없이는 창조성이 나올수 없으며 또한 창조적립장을 견지할 때에만 자주성의 원칙을 관철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된 주체사상은 제국주의의 예속으로부터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위하여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제정신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기앞에 나선 문제들을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확고한 세계관이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일뿐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과 현시대국제공산주의운동,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11페지)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우선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그것을 빛나게 발전시킨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무엇보다 먼저 온갖 착취와 예속, 온갖 반동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체를 완전히 해방하며 세계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할것을 지향하는 로동계급의 높은 당성과 계급성을 체현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온갖 기회주의, 부르죠아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등 반맑스-레닌주의적경향과 사조의 해독을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과 그 지향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사명을 지니고 발생하였으며 온갖 기회주의사상과 부르죠아반동사상, 봉건유교사상을 극복하고 혁명의 리익, 로동계급의 근본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모든것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체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은 또한 세계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해나가는 투쟁의 전과정에서 로동계급의 확고한 원칙성, 일찌기 볼수 없는 높은 책임성,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전면적으로 발휘하여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곧바른 길로, 빛나는 승리의 길로 가장 정확히 이끌어왔다.

실로 주체사상의 발생과 발전의 전력사는 온갖 반동적지배계급들의 사상과 기회주의적사조로부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력사였으며 로동계급의 계급적독자성을 고수하고 그 계급적리념에 따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해나가기 위한 투쟁력사였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가장 견결히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독자성을 가장 철저히 견지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가장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또한 온갖 예속으로부터의 로동계급의 해방, 자유, 사회적 진보와 번영이 오직 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달성될수 있다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가장 훌륭히 체현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운동, 사회혁명은 사회내부의 계급적모순에 기초하여 일어나며 로동계급은 오직 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착취제도를 전복하고 계급적예속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과 사회력사의 발전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진리이며 중요한 원칙이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의 주체적력량이며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것을 가르치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원리의 철저한 관철이며 새로운 발전이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또한 모든 나라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의 정신이며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인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가장 충실한 사상이다.

매개 나라 혁명이 세계혁명의 뗄수 없는 한 고리를 이루고있으며 매개 나라 혁명의 승패여부가 세계혁명의 전망과 그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승리에로 이끄는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당의 민족적임무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국제적임무로 된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견지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은 자기 나라 혁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국제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참다운 국제주의적사상이다. 지금과 같이 국경이 있고 민족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매개 나라가 독자적인 정치적단위로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따라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통일적으로 실현해나가는것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또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성격을 가장 훌륭히 체현하고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학설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자기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매개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러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실천이 제기하는 새로운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며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가장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완성시킬수 있게 한다.

이상의 몇가지 론거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지도사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또한 현시대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발전의 합법

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나온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현시대는 국제적규모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있는 시대이다.

현시대의 조건에서 전개되고있는 세계혁명운동은 맑스주의창시자들이 살던 시대의 그것과는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세계혁명운동은 구라파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국한되여있었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혁명운동으로 되였다.

또한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그 내용과 심도에 있어서 독립국가의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전취하는 문제를 주되는 과업으로 삼았던 지난 시기의 투쟁과는 비할바없이 멀리 전진하였다. 오늘의 세계혁명운동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민족적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투쟁, 새 사회건설을 위한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투쟁,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고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을 자기의 주요과업으로 삼고있다.

뿐만아니라 오늘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은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의 전제조건이 동시에 성숙되여감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이 동시에 일어나 승리하고 사회주의시대가 한꺼번에 열릴것으로 생각하였던 독점전자본주의시대와는 달리 개별적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장기간 대치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새 사회 건설이 진행되며 형성된 사회주의진영이 부단히 확대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있다.

현시대의 국제공산주의운동, 세계혁명운동의 새로운 특징은 국제혁명운동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옮겨놓을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또한 그것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당들이 혁명과 건설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힘에 의하여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세계혁명의 규모가 커지고 그 과업이 다양해졌을뿐아니라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마련되여있는 현시대의 조건에서 그 어떤 국제적《중앙》의 일반적처방으로써는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해결해나갈수 없다. 그것은 오직 자기 나라 실정을 잘 알고 자기 나라 인민들속에 뿌리박고 일하는 매개 나라 당들의 자주적이며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정확히 해결될수 있다.

더우기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나타나고있고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여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매개 나라 당들이 자기 혁명활동에서 창조적립장과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견지할데 대한 요구는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혁명운동의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우리 나라 혁명운동의 구체적조건, 혁명실천의 새로운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

였다.

이리하여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혁명적 인민들은 현시대 세계혁명운동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보편타당성을 가지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였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5차대회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꾸준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회의록 사》)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이것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에서, 근반세기의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가장 위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다.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 활동의 가장 주되는 총화의 하나이다.

조선인민의 40여년간에 걸친 혁명력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발전하여온 력사이며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구현되여 위대한 전변을 가져온 력사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사상은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사상은 오랜 옛날 봉건사회의 통치배들속에서 생겨나 수세기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좀먹었으며 종당에는 망국의 민족적비운을 빚어냈다.

사대주의는 해방후 교조주의와 함께 부식되여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으며 그것은 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와서 더욱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앞으로 더 전진시킬수 없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였다.

우리 인민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사상독소를 청산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숭고한 과업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경험은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고귀한 진리를 제시하시고 혁명활동의 전기간에 걸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현명하고도 정당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특히 우리 당 제4차대회이후 우리 나라의 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조성된 복잡한 사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온갖 기회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리도록 령도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길로 확고히 인도하시였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사대주의,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등 당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도록 하심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속에서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꾸준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였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생활력이 가져다준 가장 고귀한 결실은 우리 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당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110페지)

당의 통일과 단결을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기본문제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이 실현될때에야만 당의 공고발전을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그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전세의 애국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는것을 우리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가장 숭고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나섰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이 과업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오물이 청산되고 그들이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 활동하게 됨에 따라 완전히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의 완전한 실현은 당의 전투력을 비상히 제고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그의 령도적역할을 일층 강화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이 실현된 결과 대중속에서 당의 위신이 전에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가 비상히 강화되고·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확고히 이룩되였다.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이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영원히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의 다른 하나는 우리 인민을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킨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에서 주체확립, 이것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한 사상혁명령역에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우와 같은 책, 113페지)

사상령역에서의 주체확립은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우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지고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외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게 되였으며 그이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확고히 세워졌다. 또한 그들속에서 자기의것은 덮어놓고 깔보고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현상이 없어지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모든것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였다. 사상에서 주체가 철저히 서고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과거사회에서 파묻혀있었던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와 재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였으며 그 기초우에서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일어나고 발전하였으며 기적과 혁신을 가져다준 《평양속도》, 《비날론속도》 그리고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가 창조되였다.

실로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확고한 신념과 무한한 민족적긍지를 안고 자기의 무진장한 창조력과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걸어나가는 위대한 인민으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또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정치, 경제,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위력을 비상히 높이게 한데서 가장 생동하게 표현되고있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에서 자주로선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4페지)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그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힘으로 확신성있게 집행하여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대외관계분야에서도 자주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으며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으로 하여 우리 당은 전세계의 수많은 벗들과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게 되었으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당의 위신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공화국의 지위는 더욱 공고히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경제건설분야에서 빛나게 구현되여 위대한 결실을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쌓아 공화국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였으며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빛

나게 실현하여 자본주의나라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4년동안에 수행하였으며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개진을 자체가 생산한 기계설비에 기초하여 우리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훌륭히 실현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위의 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공화국의 군사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그 어떤 침략자들의 전쟁모험도 일격에 분쇄할수 있는 튼튼한 방위력이 마련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비롯하여 미제의 날로 격화되여가는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그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으며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앞에 지닌 자기의 국제적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빛나게 구현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남조선혁명운동은 지난날의 투쟁경험을 통하여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만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실현을 위한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 남조선혁명운동의 이 발전의 길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 통일혁명당의 창건이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은 남조선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펼치지고있는 승리의 새 시대가 시작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있으며 그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날로 앙양되는 거세찬 투쟁에 의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은 더욱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그들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빛나게 구현되여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원칙,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국제혁명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세계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반제반미투쟁로선 특히 미제의 각을 뜬데 대한 반미투쟁전략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있으며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모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그것이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나온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낳았으며 그 전면적승리가 이룩되였다.

우리 혁명발전의 온 력사적행정에서 그 정당성이 전면적으로 확증된 위대한 주체사상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우리 나라의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그리고 국제적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과 인민에게 찬란한 승리를 가져다줄것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창조적맑스-레닌주의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시키시였으며 그 전면적인 승리를 보장하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와 발전, 그 전면적승리는 맑스-레닌주의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그이의 무한한 충실성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다.

3

오늘 전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자기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있다. 그들은 《주체사상만이 혁명가들의 지도리론과 지도사상으로 될수 있으며 주체사상만이 소여국가의 혁명승리와 나아가서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확고부동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현시대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루는 사상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침으로 삼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사들은 또한 50여개에 달하는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들과 로작출판위원회를 조직하여 로작연구 및 그의 출판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권위가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 수많은 나라의 당, 국가 및 정부 수반들, 각종 대표단들이 우리 나라에 찾아오고있으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경험들을 배워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의 원리와 현단계 국제혁명운동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나온 세계사적사상으로서 세계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확고히 접수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최근년간의 국제혁명과 그 발전의 행정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힘을 실지로 보여주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들이 주체를 튼튼히 세워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간다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진정한 동지적관계를 맺을수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신데 기초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매개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강화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45페지)

오늘 위대한 주체사상이 세계공산주의자들과 형제당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파악됨에 따라 그들속에서는 자주적립장에 서서 현실을 연구하고 자체의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이 강화되고있으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동지적친선관계가 강화발전되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의 투쟁경험은 또한 혁명하는 당과 인민이 사대주의사상을 버리고 주체를 확고히 세워 미제와 맞서 용감히 싸운다면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민족적해방을 이룩할수 있고 쟁취한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험은 아무리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

더라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주체를 세우고 견결히 일떠서 싸운다면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1페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은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무한히 고무되여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있으며 민족적해방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특히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강력한 집단적타격을 주고있다.

오늘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던 수많은 나라들의 인민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에 무한히 고무되여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원조》를 배격하고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길로 확고히 들어서고있다. 생활은 혁명하는 나라 당과 인민들이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국내부원을 적극 개발해나간다면 경제적락후성을 시급히 극복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나라의 경제적번영을 급속히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증시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의의는 그것이 맑스-레닌주의를 가장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고 그 발전의 새 시기를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시대적제약성으로 하여 우리 시대, 현시대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해명할수가 없었다. 이 문제는 오직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완전한 해명을 볼수 있었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서 출발하시여 수많은 불후의 로작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등을 내놓으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반제반미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발전시키시였으며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해명을 기다리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는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찬란한 업적을 쌓으시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혁명뿐아니라 매개 나라의 혁명, 국제혁명을 빛나는 승리의 길로 정확히 인도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의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열어놓았다.

오늘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를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로, 20세기가 낳은 영웅으로 우러러모시면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외국의 한 신문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에 위대한 기여를 하신 김일성수상의 이름은 공산주의세계에서 영원히 빛날 별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음으로 하여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되였으며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부러워하며 따라배우는 위대한 나라로, 《주체의 조국》으로 되였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

어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 영예보다 더 고귀한 영예는 없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혁명해나아가는 긍지보다 더 높은 긍지는 없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생활력을 더 활짝 발양시켜야 한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다그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의 주체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의 세계관으로, 행동의 지침으로 삼도록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더라도 오직 수령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더욱 빛나게 해결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그 위대한 생활력을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밖으로부터 침습하는 반동사상을 막아야 하며 우리의 내부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야 한다.

우리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그것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 혁명과 건설을 옳게 수행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면서 이 위대한 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자부심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한편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기한전에 완수 및 초과완수하며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높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당의 통일단결과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영생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아갈 때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커다란 승리를 달성할것이다.

모두다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가면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무한히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내외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가진 강유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되었으며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천리마조선》,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의 모범》으로 불리우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이 력사적승리와 성과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그를 충실히 계승발전시킨 결과에 얻어진 고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혁명과 건설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그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큰 위력을 나타낼것이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전진시킬수 있으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물리치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더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으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실현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력사적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선렬들의 항일투쟁의 전통을 계승하는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영광이며 승리의 담보입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506페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전통은 혁명을 처음으로 개척한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되며 공고화된다. 따라서 혁명전통에는 그 나라 혁명의 피와 살이 되고 장래발전을 위한 밑천으로 되는 귀중한 재부들이 담겨진다.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그것을 발전시킨다는것은 곧 이 고귀한 혁명의 뿌리를 굳건히 이어간다는것을 의미하며 또 거기에 담겨져있는 혁명적재부들을 밑천으로 삼아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과 그 당은 혁명전통에 튼튼히 의거하여야만 그 어떤 풍파와 시련에도 드떡함이 없이 곧바로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장구한 력사적경험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된 진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

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이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혁명적재부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4페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장기적이며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이 조직전개됨으로써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이 투쟁과정에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유일한 전통이며 이밖에 그 어떤 다른 혁명전통이란 있을수 없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승리한 영광스러운 력사이며 가장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만이 지닐수 있는 탁월한 령도예술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빛나는 력사이다.

우리 당이 계승하고있는 혁명전통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으며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담고있는 전통이기에 세계혁명운동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높은 사상적수준에 있는 위대한 전통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가진 위대한 전통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현을 종국적목적으로 하는 위대한 혁명전쟁이였으며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대중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투쟁이 밀접히 결합된 혁명투쟁이였다. 이 위대한 투쟁행정에서는 해결을 기다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새롭게 독창적으로 풀리여갔으며 불멸의 업적과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들이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인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로부터 당, 인민정권, 근로단체 건설과 그 경험, 혁명무력건설과 통일전선사업, 사회경제적개혁에 이르기까지 보통의 경우에는 수세기를 걸쳐도 이룩할수 없는 불멸의 업적과 경험들을 쌓아올리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또한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것으로 하여 그리고 반제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심각한 혁명실천과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한 영생불멸의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이처럼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위대한 혁명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부단히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만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선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확고히 전진시킬수 있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혁명적립장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계속 견결히 전개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9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충실히 계승발전시켜나아가야만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견결히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투쟁의 승패는 무엇보다먼저 그 나라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혁명을 주체적립장에서 확고히 이끌어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그 나라 혁명운동에 존재하였던 온갖 결함과 제약성을 전면적으로 극복하고 혁명을 유일하게 옳은 길로 인도한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해서 혁명과 건설을 주체성있게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오직 로동계급과 그 당은 혁명전통을 튼튼히 계승발전시켜야만 그 나라 혁명을 시작한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혁명적립장을 굳건히 지킬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계속 견결히 전개할수 있다.

조선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우리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만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우리 당이 계승하고있는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패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의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전통에 일관되여있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계승한다는것을 의미하며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이란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이 땅우에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당의 혁명전통을 충실히 계승하여야만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곳곳이 전진할수 있다.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해야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의 길에서 추호도 물러섬이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포악무도한 일제를 쳐부시는 가장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공산주의운동내에서 발생한 온갖 기회주의조류를 반대하는 첨예한 사상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그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다는것을 의미하며 혁명의 기치를 튼튼히 고수

하시여 줄기차게 앞으로 전진하여 오신 혁명적립장을 계승하여 싸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철저히 계승발전시켜야만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영영 쓸어버릴 때까지 계속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원쑤와 무자비하게 싸워이길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온갖 기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반동사상조류들을 견결히 물리치고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혁명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이처럼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전진할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한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며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꾸리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옳은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져야할뿐만아니라 그것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꾸려야 한다.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당과 인민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야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있어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전통을 충실히 계승하여 그것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속된 전투적인 당으로 튼튼히 꾸리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의 집단으로 만드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선 전당에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직접적구현이며 그이의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적령도가 낳은 귀중한 산물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것은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혁명전통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혁명전사가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수 있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을 력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심오히 체득할수 있다. 또한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고수함으로써만 수령의 혁명일가를 굳건히 보위할수 있고 조선혁명의

최고뇌수이시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신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보위하는 열렬한 혁명전사가 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은 모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게 된것은 바로 그들이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고있기때문이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혁명화에서 기본징표로 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정신적재부들과 그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구현되여있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가장 완벽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는 로동계급이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관점과 립장, 방법이 가장 심오하게 집대성되여있다.

특히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고난에 찬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시고 그것을 부단히 완성하시면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로정, 혁명화의 위대한 귀감이 깊이 아로새겨져있다.

이 모든것들로 하여 혁명전통은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이란 어떻게 세워지는것이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무한히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충실히 계승하여 그것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교양하여야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고 그들을 한결같이 의식적인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충실히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울수 있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더욱 촉진하여 전체 인민을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시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또한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집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64페지)

원래 사회주의혁명은 계속혁명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여야 할뿐만아니라 전세계적범위에서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대를 이어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야 할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이다. 이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과정에서는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며 로동계급과 그 당앞에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계자로 준비시켜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어느 민족을 물론하고 그 민족의 장래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세대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준비되여있는가에 달려있다.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억압을 받

아보지 못하고 혁명적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여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는 참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무엇보다도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전통을 충실히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에 있어서 혁명의 천재적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후손만대에 넘겨줄 혁명의 유산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유일한 동맥이며 우리 혁명에 영원한 생기와 활력을 주는 생명선이다.

혁명전통을 충실히 계승발전시켜야 바로 우리 혁명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후대들이 우리 혁명의 뿌리를 똑똑히 알게 되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신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빛내여나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준비될수 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불러일으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인민경제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항일빨찌산들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커다란 긍지와 책임감을 간직하고 난관과 애로에 부닥칠때마다 그들의 영웅적투쟁업적에 고무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한 애국적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0페지)

혁명과 건설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혁명전통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추동력인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두해도 아니고 15성상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항일유격대를 거느리시고 풍찬로숙하시면서 매 걸음마다 닥쳐오는 어려운 풍파와 시련을 뚫고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구현되여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성은 생동한 감화력을 가지고 만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며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위업을 계승한다는 커다란 긍지와 책임감을 간직하고 난관과 애로에 부닥칠 때마다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항일혁명렬사들의 영웅적투쟁에 고무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한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고있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과 건설을 견결히 수행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끄는 확고한 담보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 *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훌륭히 계승발전시킴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항일빨찌산들이 백두밀림에서 싸우던 그런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93페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일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견결히 고수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큰 영광이며 더 없는 자랑이며 의무이다.

혁명전통을 충실히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투쟁경험과 공산주의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4~65페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은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언제나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해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있는 모든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인식시킬수 있다. 또한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투쟁하게 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에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적가정과 40여년간에 걸친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하며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게 하는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인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신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서 또한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던 항일혁명렬사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혁명렬사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수령의 명령과 지시라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였다. 우리는 항일혁명렬사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를 본받음으로써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

여야 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뿐만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사업과 실천활동에 전면적으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이 풍부하게 다방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해서 무한히 귀중한 밑천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통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그리고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연구체득함으로써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행정에서 그것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고수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에 대한 태도는 수령께 얼마나 충실하며 혁명위업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된다.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수령을 보위하며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가의 립장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그것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이 당의 존망,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전통이라는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고수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견결히 옹호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귀중한 혁명의 뿌리를 거세하거나 유린말살하려는 사소한 현상과도 무자비하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영원히 찬연한 빛을 뿌리게 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간고하고도 장구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자신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이라면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고야마는 참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칠석같이 뭉쳐 그이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과 정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야 한다.

당사업의 기본을 명시해준 력사적문헌

정 탁 선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당사업의 기본을 뚜렷이 명시해준 그이의 천재적로작 《당사업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것이다》의 발표 열돐을 맞이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1년 1월 23일 리현리당총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당건설과 당사업발전에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이다.

그이께서는 이 천재적로작에서 력사적인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이후 1년동안에 농촌당조직들이 당조직정치사업과 경제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만족스럽게 총화하시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활동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이 로작에 일관된 기본사상은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편향을 단호히 반대하고 그것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할데 대한 그이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이다.

당사업의 기본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밝힌 이 천재적로작은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를 비롯한 당사업, 당건설에 관한 그이의 로작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깊이 학습하는것은 우리 당사업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로작 《당사업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것이다》에서 우리 당 건설과 혁명투쟁에서 얻은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것을 천명하심으로써 당사업의 대상과 본질을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당원들은 당중앙위원회를 보위하며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정신으로 계속 꾸준히 교양해야 하며 군중에게 철저히 의거하고 성심성의로 군중을 교양하며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과 단결하며 광범한 군중을 우리 당의 주위에 묶어세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5~26폐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당사업의 기본을 어디에 두어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신것으로서 당조직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사업이란 간부들과 당원들, 광범한 군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다.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에 둘데 대한 수령의 위대한 사상은 우선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 각오를 가진 자각적인 선진투사들로써 이루어진 정치적조직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면

그들이 속한 당조직이 강화되게 되며 모든 당조직이 강화될 때 전당이 강유력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고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과의 사업을 자기 사업의 기본으로 삼게 되는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천명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사명과 본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는다. 이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며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여기로부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시신 첫날부터 대중을 각성시키고 단결시켜 혁명투쟁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당사업의 기본을 뚜렷이 명시해주시였을뿐아니라 당조직들이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일련의 원칙적문제들과 그것을 잘해나가기 위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언제나 우리 당사업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한다.

당의 주인은 다름아닌 당원대중이다. 당조직들이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해야만 그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하나의 규률과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당을 생기있고 힘있는 전투적조직으로 만들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전체 당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당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당단위에서 이룩된 생산에서의 성과와 결함들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그것을 낳게 한 당사업상, 사상상 근원을 밝히고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움으로써 제기된 혁명과업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와 함께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에도 지도일군들이 혼자서 바삐 돌아갈것이 아니라 당조직과 당핵심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회의를 열고 당원들에게 호소하여 그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당을 움직이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되게 하며 모든 당조직들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꾸림에 있어서 당적분공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 당원들에게 분공을 주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사업방법을 견지해야 하며 계속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분공은 반드시 매 사람의 성격과 능력에 따라 적당히 주도록 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페지)

당원들에 대한 당적분공은 당원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며 당을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원들이 고정분공을 잘 수행하도록 지도하면서 매 시기마다 당조직들앞에 제기된 혁명임무에 따라 정치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도록 매 사람의 성격과 능력에 맞게 정치적분공을 끊임없이 주어야 하며 분공을 준 다음에는 그들이 당

적분공을 옳게 수행하도록 일상적으로 지도방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매 사람의 특성에 맞게 분공을 주고 그를 잘 집행하도록 일상적으로 지도방조할 때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고 당조직이 움직이게 되며 우리 당이 움직이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속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학습도 생산보다 못하지 않게 중요한 당원들의 의무라는것입니다. 당원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학습은 꼭 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생산도 잘할수 없으며 혁명과업을 수행할수 없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학습과 생산이 서로 대립되는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학습을 잘해야 생산이 잘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학습을 당원들의 중요한 혁명임무로 규정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학습이 정치활동가로서의 당원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당원들은 온 사회를 개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혁명가들이며 정치활동가들이다. 당원들은 오직 학습을 꾸준히 함으로써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활동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필요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지식을 깊이 체득하여 자신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학습을 잘하지 않을 때 당원들은 자기 사업을 확신성있게 전개해나갈수 없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집행할수 없다. 또한 부단히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썩고 변질되여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무엇보다먼저 학습이 첫째가는 혁명과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배우는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학습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학습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혁명위업에 더 잘 복무할수 있는 학습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과 교시,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그이의 40여년간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를 심오히 학습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국제국내정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당보를 매일 꼭꼭 보는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간부들과 당원들의 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당원들의 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같이 보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가운데도 지주와 자본가를 미워하고 제국주의를 미워할줄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유식한 사람들가운데도 로동계급의 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원들의 문화수준을 가지고 그들의 의식수준을 평가해서는 안됩니다.》(우와 같은 책, 19~2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의 호상관계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람들을 무엇보다먼저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고 평가할데 대한 유일하게 정확한 기준을 밝혀주시였다.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나 그것은 결코 같은것으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매 사람의 혁명성정도를 그 사람의 일반지식수준을 가지고 평가할수는 없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였던 혁명투사들이 다 높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려는 높은 계급의식과 고상한 혁명정신을 가지고있었다. 이처럼 높은 사상의식을 지니고있었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찌기 그 례를 모르는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은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무엇보다먼저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그이께서 주신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집행하며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며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과 강한 계급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이와 함께 자신의 일반문화수준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당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거대한 역할과 우리 혁명발전의 특수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하자는것입니다. 몇사람의 노력과 힘만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백만 근로대중의 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을 이룩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5～6페지)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 위업의 직접적담당자도 인민대중이다.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여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은 자기 대렬을 강화하는 한편 언제나 광범한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랜동안의 일제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 조국해방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에는 많은 복잡성이 조성되였다. 이것은 주민들의 각이한 계층과의 사업을 특별히 신중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일관하게 추진하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신 이후 이 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업인 사람들을 교양하고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고리는 바로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다.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그러하듯이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는 해결될수 없으며 오직 전체 당원들과 대중이 자각적으로 이 사업에 달라붙을 때만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실로 인간개조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대중의 자각적인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인간개조사업에 구현한 가장 독창적인 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이후 인간개조사업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얻은 이 성과는 황금보다도, 몇 100만톤의 쌀보다도 더 귀중한것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군중과의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군중과의 사업방침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적대분자들을 내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군중사업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본군중을 잘 교양하여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어디까지나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매 사람을 평가하며 그들을 믿고 검열하며 투쟁을 통하여 개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간부들과 당원들이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속에 끼여있는, 우리 당을 반대하고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극소수의 의식적인 반동분자들을 제때에 가려내여 강한 독재를 실시하며 그밖에 모든 군중을 다 전취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군중사업방침은 오직 로동계급의 리익과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면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시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각계각층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방침은 원쑤들의 온갖 리간책동을 분쇄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과 혁명의 편에 최대한으로 묶어세울수 있게 하는 주동적이며 진공적인 방침이며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를 만족스럽게 총화하시고 농촌경리의 계획화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작업반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관리위원장이 로동에 참가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 *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당사업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것이다》가 세상에 나온 이후 10년간의 우리 당활동의 경험은 이 문헌이 당

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문헌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당사업의 기본을 명시해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력사적문헌은 우리 당활동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당건설과 당사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계기로 되였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이 자기의 본신사업인 사람과의 사업에 주되는 힘을 돌릴수 있게 되였으며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가 확고히 세워지게 되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로 키울수 있었으며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었다.

우리 당이 강화되고 혁명대오가 튼튼히 꾸려짐에 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탁월한 공헌을 한 력사적문헌이다.

그이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그리고 당건설과 혁명투쟁에서 얻은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에 두어야 한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당사업의 본질과 내용을 명백히 규정해주시였으며 당사업리론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닦아주시였다.

또한 이 문헌은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기회주의적견해에 치명적타격을 주고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을 계속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는것은 우리 당사업의 심화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함으로써 우리 당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혁명의 전위부대로 튼튼히 꾸리고 당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혁명과업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전투적임무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총결기간 당사상사업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투적임무를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결기간 우리 당사상사업은 심화발전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강력히 전개됨으로써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의 통일이 확고히 보장되였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 잔재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이 지배하게 되였다.

더우기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이 활발히 벌어진 결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사상사업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의 전면적발현이며 수령의 령도밑에 당사상사업을 힘있게 전개하는데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혁명임무는 그에 상응하게 당사상사업을 심화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당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힘차게 투쟁할것을 요구하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당사상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6개년계획의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특히 조성된 혁명정세는 당사상사업을 강화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첨예하고 긴장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놈들의 새 전쟁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다. 또한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에 혈안이 되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반동들의 이중의 앞잡이로서 자기 상전들의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부르죠아반동사상과 썩어빠진 반동문화를 침투시켜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다.

이 모든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당사상사업을 강화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은 원쑤들이 임의의 시각에 덤벼들어도 당황함이 없

이 그놈들을 완전히 족칠수 있으며 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 혁명가답지 못한 모든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 내부에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울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당활동에서 사상사업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에서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당사상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사상사업의 방침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조치로서 그것은 변천되는 혁명의 요구와 정세에 대처하여 예견성있게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나아가서 세계혁명위업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사상사업의 현명한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가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3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과 혁명과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기초하여 당사상사업의 중심과업을 천명한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사상사업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당내부사업의 하나이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상사업은 반드시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당사상사업이 당원들속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가야만 당안에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수령의 유일적인 의사에 따라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다. 바로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와 같이 통일단결될 때 맑스-레닌주의당은 전투적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훌륭히 령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떠난 당사상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맑스-레닌주의당사상사업앞에는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보다 더 중요한 과업이란 있을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당사상사업만이 진실로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상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사상사업에 있어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현시대의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그이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되고 발전된 맑스-레닌주의이다.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그렇기때문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가는것은 바로 우리 당사상사업의 중심과업이며 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 나서는 최대의 임무이다.

당사상사업앞에 나선 중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

당정책교양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 교양사업으로서 그것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탁월한 전략전술을 체득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것에 철저히 의거하여 일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자라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창조하신 귀중한 혁명적재부로서 사람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사상교양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수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통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요구로서 당사상사업의 중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힘있게 벌려야 할 중요한 교양사업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과 교시, 특히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학습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수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더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며 당교양망을 통하여 수령의 교시와 천재적로작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사상으로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

립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사상적공세가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온갖 반동적이며 반당적인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더욱 절실하게 나선다. 만일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당의 사상과 맞지 않는 사상이 밖으로부터 침습할수도 있고 안에서 되살아날수도 있다. 때문에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는것은 당안에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있을 자리를 내여주는것으로 된다. 오직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적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32~13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과 함께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사상혁명의 과업이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함께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그들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자기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조국을 무한히 사랑하고 그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원쑤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사업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당이 수행하여야 할 사상교양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의 반동적본질 특히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착취자적본성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수령께서 창건하시고 마련하신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본질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쟁취하고 이루어놓은 사회주의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당사상사업앞에 나서는 특별히 중요한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당사상사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3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과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력사적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당사상사업앞에 내세운 과업으로서 우리 혁명력량을 공고발전시키며 전반적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수정주의는 《정세의 변화》, 《창조적발전》이라는 구호밑에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하고 그 혁명적진수를 거세하려는 반혁명적기회주의사상조류로서 사회주의를 좀먹고 자본주의를 복구하려는 위험한 사상이다.

기회주의사상조류로서의 수정주의는 온갖 반맑스주의적리론을 퍼뜨리며 반동적부르죠아사상과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근로자들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킨다.

수정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향락과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혁명하기를 싫어하며 투쟁하기를 싫어하며 전진하기를 싫어하게 만든다.

수정주의는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당의 령도와 계급투쟁,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부인하고 계급협조와 부르죠아적자유주의를 설교하며 자본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제도간의 본질적차이를 모호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를 분칠하면서 반제투쟁을 그만둘것을 요구하고있으며 피압박민족들과 피착취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반대하고 전쟁과 평화에 대한 해독적인 《리론》을 퍼뜨리면서 제국주의자들에게 평화를 구걸하고 전쟁공포증에 사로잡혀 제국주의자들의 핵공갈정책에 투항하고있다. 이와 같이 수정주의는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면서 사실상 제국주의자들과 반동계급의 리익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수정주의가 외부에서 침습하지 못하게 하며 내부에서도 발생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맑스-레닌주의당이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사업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만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을뿐아니라 나아가서 세계혁명위업에도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

수정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정주의의 사상적독소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 우리 당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부르죠아사상여독을 철저히 뿌리뽑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정주의는 부르죠아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나고 자라나며 그것을 매개물로 하여 널리 퍼진다. 따라서 수정주의를 극복하자면 부르죠아사상여독을 철저히 뿌리뽑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부르죠아사상여독을 뿌

리뽑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수정주의의 부활과 침습을 철저히 막아낼수 있다. 그러므로 부르죠아사상여독을 뿌리뽑는 사상교양사업은 반수정주의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부르죠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여독을 반대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힘있게 벌림으로써 수정주의가 발을 붙이고 자라나지 못하게 그 근원을 철저히 없애버려야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당사상사업부문앞에 제시하신 이 모든 과업들은 맑스-레닌주의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제시된것으로서 당을 공고발전시켜 전반적혁명운동을 추진시키기 위한 전투적과업으로 된다.

*　•　*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의 전투적임무를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를 가장 정확히 수행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35페지)

당사상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틀어쥐고나가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모든 당조직들이 사상사업을 중요한 당내부사업의 하나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전투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상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의 개선, 이것은 사상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된다. 바로 조직지도사업이 선행되고 안받침되여야 사상사업이 체계성을 띠고 목적지향성있게 정상적으로 진행될수 있으며 당사상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옳게 풀려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에서 우선 중요한것은 사상사업을 당원들의 수준과 실정에 맞게 그리고 당면한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사상사업이 대상의 수준과 실정에 맞게 조직진행되여야만 그것이 당원대중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있으며 실속있게 진행될수 있다.

사상사업은 또한 당면한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될것을 요구한다. 사상사업의 성과는 응당 제기된 혁명과업을 훌륭히 실현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은 반드시 제기된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하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실정과 준비정도에 알맞게 사상사업을 더욱 실속있고 깊이있게 진행하며 특히 이 사업을 당면한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당사상사업이 실지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을 각성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결합시키고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을 잘 배합하여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조직하며 그 기동성을 잘 보장하는것이다.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은 당사상사업의 두 측면을 이루며 서로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당사상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이 잘 결합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당사상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잘 배합하여 기동성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 중요하다.

바로 당사상사업의 성과는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며 그 기동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당사상사업은 선전선동수단들을 잘 배합하여 기동성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만 군중을 제때에 옳게 교양할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반동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대중교양의 중요한 수단들인 문화회관과 선전실, 도서실 등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강화하며 영화와 라지오, 텔레비죤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양수단들을 적극 리용함으로써 당사상사업을 실속있게 활발히 벌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영화는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으로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화관람을 중요한 정치생활의 하나로 간주하도록 하며 광범한 군중속에서 영화가 널리 보급되도록 짜고들어야 한다.

당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는것은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개선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포치하고 그 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여 총화하며 다시 포치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사업부문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모든 간부들을 정치사업에 적극 인입하는것이 당사상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부문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며 모든 간부들이 자기 사업과 결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135~136페지)

당사상사업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이 주어진 조건에서 이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사상사업을 담당한 일군들의 활동여하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 당사상사업일군대렬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들의 역할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그러나 당사상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상사업일군대렬을 더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일층 높여야 한다. 당사상사업은 중요한 당내부사업의 하나로서 이 사업을 맡아보는 일군들의 높은 정치적식견과 창발성을 요구하는 어렵고도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사상사업부문일군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유능한 일군들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사상사업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부문일군대렬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더욱 높여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부문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간부들이 례외없이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요구를 훌륭히 실천하자면 모든 간부들이 정치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지고 이 사업에 책임적으로 대하는것이 필요하다. 간부들이 정치사업을 소홀히 할 때에는 필연코 행정실무적사업방법의 낡은 틀에서 벗어날수 없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충분한 준비밑에 가는 곳마다에서 담화, 해설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정책을 대중속에 널리 선전하며 자기 사업과 결부하여 정치사상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대회결정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특히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 제5차대회문헌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대회문헌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그이의 탁월한 전략전술을 깊이 체득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길로 확고히 이끄는 강력한 사상리론적 및 실천적 무기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이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대회문헌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문헌의 전반사상과 그 진수를 똑똑히 파악하도록 하며 특히 보고의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하도록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근로자들이 보고의 전반적내용과 함께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 특히는 자기 부문에 제시된 과업과 수행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파악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이 혁명실천에 훌륭히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자체학습계획을 가지고 학습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특히 그들속에서 매일 2시간이상씩 학습하는것을 생활화하여 독서와 발취 등 방법으로 자체학습을 심화시키며 보고에 대한 강습, 집중학습, 토요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이 먼저 철저히 혁명화되고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더욱 높이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간부들을 혁명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이는 사업에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먼저 간부들속에서 당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모든 간부들이 당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며 특히 그들을 강한 비판속에서 단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당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계속 틀어쥐고 간부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식을 풍부히 소유하고 대중의 모든 혁명투쟁을 훌륭히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당사상사업부문앞에 제시하신 전투적임무를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두가 다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은 수령의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자

김 시 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준엄한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성장하였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대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 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청년들과 그의 전투적조직인 민주청년동맹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위대한 공훈으로 하여 당과 인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97페지)

오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270여만 조선청년들의 강유력한 전투적부대로서 수령께서 맡겨주시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이라도 능히 맡아 수행할수 있는 수령의 근위대, 결사대로 자라났다.

사로청이 걸어온 지난 25년간의 로정에 아로새겨진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전적으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온 결과에 이루어진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은 전체 근로자들과 더불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직접 창건하여주시고 그를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끓어넘치는 충성의 마음을 안고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창립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한다.

*　　*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창건하시고 이끌어주신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난 전투적조직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걸어온 지난 25년간의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전투적로정은 수령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빛나는 로정이다.

모든 사회혁명이 그러한바와 같이 청년운동도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자기의 참다운 력사를 개척해나간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운동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그 진정한 력사가 시작되였다. 그때로부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확한 전투적강령을 가지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한부분으로서 영광스러운 투쟁의 로정을 힘차게 개척해나아갔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20년대초에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됨에 따라 그 반영으로서 청년운동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청년운동은 상층에 맑스-레닌주의를 알지도 못하고 계급적립장도 튼튼하지 못한 소부르죠아인테리들이 들어앉아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투쟁강령도 가지지 못하고 반제적구호도 들지 못하였으며 청년운동은 로동청년들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청년들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청년운동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요람기에 있었던 많은 결함들을 자체내에 가지지 않을수 없었고 그로 하여 투쟁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낼수 없었다.

조선청년운동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게 된 때로부터 비로소 그이의 올바

른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령도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의 참다운 발전의 길을 걷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과 《반제청년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적청년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발전을 위한 튼튼한 터전을 닦아놓았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벌써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로서 조선혁명과 청년운동이 나아갈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시고 혁명적청소년조직들을 조직령도하시여 그것을 반일민족해방투쟁과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운동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 시기에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에서 주체사상체계가 세워지고 공산주의청년핵심이 튼튼히 키워졌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혁명화하여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낸 풍부한 경험과 청년조직건설의 고귀한 업적이 이루어졌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도 항상 청년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청년운동을 유격대의 확대강화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이룩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 이끌고 나가심으로써 이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유격대와 유격근거지, 적통치구역에서 공청단체와 아동단을 직접 조직지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였고 공청조직사업과 선전선동사업, 학생소년사업 등 공청사업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창조하시였으며 청년군중과의 사업에서 나타난 좌우경적편향과 관료주의적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을 세우시였다.

실로 조선청년운동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청년운동의 이 빛나는 전통과 풍부한 경험을 이어받음으로 하여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수령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갈 위대한 운동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해방후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청년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곧 그의 전투적후비대인 민주청년동맹을 창건하시였다.

민주청년동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청년운동은 통일적이며 대중적인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 청년들은 처음으로 자기의 혁명적조직체를 가지고 정치적조직생활을 할수 있게 되였다. 민청은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광범한 청년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켜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우며 민주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함으로써 당의 전투적후비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청년운동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고쳐주시였다.

민청이 사로청으로 고쳐진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사회정치적처지에서, 정신도덕적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와 그들앞에 나선 새로운 사회적임무를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에서의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로청사업을 친어버이의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조직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명시하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계급적관점이 확고하며 정치리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사로청간부들을 꾸려주시고 그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보살피시였으며 사업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시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여 그들이 우수한 일군들로 자라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이후 청년운동의 중요사명은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혁명위업을 이어나갈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다는 사상을 천명하시고 이로부터 청년동맹은 사상교양단체로 되여야 하며 청년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사상교양사업을 집중시켜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청년운동의 대중적성격으로부터 공산주의적청년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며 각계각층 청년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키며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에 전반이상의 힘을 돌리고 학생들을 유능한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내며 청년들을 혁명과 건설의 앞장에 세워 그들을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킬데 대한 문제 등 청년동맹건설에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방침들을 명시하여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방침들은 청년동맹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리론을 새롭게 풍부화시킨 독창적인 방침들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청년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왔으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줄기찬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지며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는 보람찬 로력투쟁에서와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집단적영웅주의와 높은 희생성을 발휘하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올렸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 혁명앞에 어렵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도 언제나 수령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대렬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전동맹이 오직 하나의 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만 숨쉬고 행동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오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조선청년들의 강유력한 혁명적조직으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전투적후비대로 장성발전하였으며 우리 나라 모든 청년들은 주체사상의 기발아래에서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나라 청년들이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진정한 아들딸로서, 외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제도를 창설하는 젊은 혁명전사로서, 뒤떨어지고 가난하던 자기 조국을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나라로 만드는 젊은 건설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우와 같은 책, 99페지)

오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우리 나라의 모든 청년들은 자기들의 실생활을 통하여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전진할 때 어떤 난관도 시련도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다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영광찬란한 승리의 대로를 따라 충천하는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계속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수령의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청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맞게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의 전투적조직으로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적극적인 방조자입니다. 조국의 앞날과 혁명의 전도는 결국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3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당과 인전대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현시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위치와 역할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히신 강령적교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혁명위업수행과 당의 강화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사로청은 당 다음가는 중요한 정치조직이며 우리 당의 후비대라고 가르치시였다.

사로청은 자라나는 새세대들로써 당대렬을 부단히 보충하며 당 및 국가 간부의 후비를 계통적으로 길러내며 혁명의 대를 이어갈 계승자들을 키워내는 혁명적조직체이다.

당대렬은 혁명사상으로 무장되고 단련된 사람들로 끊임없이 보충되여야 질적으로 확대강화발전할수 있다.

사로청은 바로 우리 당의 후비대, 당대렬을 보충하는 저수지, 당원후비를 키워내는 학교로서의 역할을 담당수행한다. 사로청생활과정은 사로청원들에 대한 입당전교양과 체계적인 조직적훈련과정으로 되는것이다. 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사로청생활을 거쳐서 당원이 갖추어야 할 정치사상적 풍모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사로청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을 더욱 강철같은 당으로 만드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사로청은 우리 당의 후비대로서 당원의 후비를 양성하며 당대렬을 보충할뿐아니라 당 및 국가 간부후비를 키우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간부대렬은 부단히 보충되고 교체되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준비된 우수한 젊은 간부들을 더 많이 길러낼것을 요구한다. 사로청은 바로 간부후비를 많이 길러내여 당 및 국가 간부대렬을 부단히 보충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그러므로 사로청사업을 강화하여 청년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당원의 후비로, 혁명의 지휘성원들로 더많이, 더잘 키우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로청은 우리 당의 후비대인 동시에 그의 적극적인 방조자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군중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교양개조하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반석같이 꾸려야 하며 수령이 내놓은 혁명위업수행에 군중들이 목적의식적으로 동원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

한 사업은 당의 지도밑에 근로단체들이 수행한다. 사로청은 바로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에 따라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조직진행하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청년들을 적극 조직동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로청조직들의 사상교양자적역할을 높이는것이 특히 중요한것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이며 새 사회의 주인공들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국의 앞날과 혁명의 전도는 결국 새 사회를 대표하고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이 어떻게 교양되고 단련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청년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날 때 우리 혁명위업은 계속 힘있게 전진할것이며 조국은 더욱더 륭성하고 번영할것이다.

사로청원들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유일한 대중적혁명조직인 사로청조직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우리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갈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된다. 따라서 사로청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조성된 정세와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수령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는 견결한 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음모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 정세하에서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우리 강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하루빨리 완수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을 요구하는 영예롭고도 무거운 혁명과업이다. 사로청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청년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만 그들의 혁명적열정과 청년다운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박차고 돌격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 청년들과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동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3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년들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로청조직들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이다.

청년들과 학생소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기본은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투쟁하는 혁명적인 청년조직이다.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지도적지침으로 삼을 때라야만 청년운동을 확신성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은 사로청조직들의 사상사업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

로, 사로청의 모든 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그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게 하여야 한다. 특히 사로청원들과 청년학생들 속에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보고를 구절구절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통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언제나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사업하며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수정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사상독소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더잘 준비시켜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또한 수령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청년들속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에게 수령의 혁명적가정, 그이의 40여년간의 혁명력사와 빛나는 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전면적으로 체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수령에 대한 항일혁명렬사들의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게 하며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청년들과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계급적 원쑤를 미워하며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미일반동의 2중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며 수령께서 마련하신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며 그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과업은 그들속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로청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한편 그들에게 수정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그들속에 수정주의독소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또한 청년들로 하여금 수정주의의 매개물인 부르죠아사상과 퇴폐적인 반동문화와 그리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조금도 침습하지 못하게 투쟁하도록 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게 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로청원들과 학생소년들 속에서의 정치사상교양사업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로청조직들은 정서가 풍부하고 정열이 끓어넘치는 청소년들속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조직진행할수 있도록 선전선동체계를 바로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강연회와 학습회, 영화감상회, 책읽기, 이야기모임 등을 광범히 조직하며 혁명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고 혁명적인 소설을 많이 읽게 하며 혁명적인 문예작품창작사업에 광범한 청년들을 인입시키는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과 학생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청소년들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사

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성스러운 사업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미래에 대한 혁명적락관주의 정신을 가지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살며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이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함과 함께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입니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6페지)

사로청조직생활은 청년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수양과 사상단련을 적극적으로 실속있게 할수 있는 훌륭한 학교이다. 사로청원들은 혁명적인 조직생활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더 잘 무장할수 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려는 그들의 혁명적각오가 확고해지게 되며, 조직과 조직생활에 대한 인식, 동맹생활규범에 대한 옳은 교양을 받을수 있으며, 당의 후비대의 한성원이라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로청조직은 청년들의 조직생활을 높은 정치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로청조직들은 사로청원들이 자기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동맹조직규범에 따라 사로청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충실히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에게 분공을 빠짐없이 주어 그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로청총회와 동맹생활총화를 높은 정치적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개조하는 당의 혁명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사로청원들이 끊임없이 혁명화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은 사로청앞에 나선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조직들은 특히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32페지)

오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거의나 다 학교에 다니고있으며 그들이 모두다 학교를 거쳐 사회로 나가는 사정은 학생사업을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학생사업을 강화해야만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조직적으로 단련시키며 높은 정치지식과 선진과학기술지식을 가진 준비된 혁명가로 키워 사회에 진출시킬수 있다. 이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를 촉진시키는데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로청조직들은 학생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학습을 잘하도록 지도하며 그들의 일체 과외활동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그들의 년령과 수준, 특성에 맞게 지도함으로써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지식있고 유능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다른 하나는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과 조국보위사업에서 청년들의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청년들이 언제나 우리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사업과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32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조국보위사업의 앞장에 서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전투적기풍이며 자랑이다.

사로청조직들은 무엇보다도먼저 6개년계획수행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청년들을 계속 집단적으로 진출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힘있고 생기약동하는 청년돌격대활동을 비롯한 청년작업반, 사로청호운동 등 여러가지 창발적인 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생산과 건설을 계속 앙양시키며 청년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의 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국보위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롭고 신성한 의무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준비를 더잘 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정세에 대처하여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잘 무장시키며 원쑤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막아내고 놈들을 일격에 소탕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조직해주신 붉은청년근위대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준비시켜 일단 유사시에는 수령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각급 사로청위원회들의 전투적기능과 자립적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로청위원회들은 내부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명심하고 동맹조직사업과 사상교양사업, 학생청소년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하며 사로청조직들을 혁명하는 전투적조직으로, 산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급 사로청위원회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지식있고 용감하며 청년다운 기질을 가진 우수한 핵심들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사로청간부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특히 사로청원들의 조직생활의 거점이며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적단위인 초급단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역할을 높이며 핵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사로청위원회들은 당의 지도밑에 초급단체위원장을 비롯한 동맹초급간부들을 잘 꾸리고 핵심들과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초급단체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모든 일을 자립적으로 해나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사로청위원회들의 전투적기능과 자립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동맹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로청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는 사로청의 힘의 원천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수령의 교시, 우리 당 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사업해야 하며 항상 당에 의거하여 그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하며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서 매 시기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정확신속히 관철하며 사로청사업을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사로청조직들은 사로청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청소년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남조선인민들이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남조선혁명승리의 근본요구

김 창 혁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와 경험,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은 그이의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운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의 혁명적 령도를 따라 나아감으로써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고 앞으로도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지난 기간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온갖 시련을 뚫고 투쟁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할수 있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미제와 그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이 견지하여야 할 유일한 사상적기치이며 승리의 근본요인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이 수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아가는것은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 *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남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다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한다는것을 말한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진수를 체득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혁명활동을 전개하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우선 그들이 남조선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명확히 알고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만이 혁명하자는 사상이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내몰고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혁명을 완성하자는 가장 정당하며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과 세계혁명에 가장 충실한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수할 때까지 싸우자는 사상이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쓸어버릴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자는 견결한 혁명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현시대적요구를 가

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는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따라서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불굴의 혁명정신과 높은 혁명적책임감을 발휘하여 혁명도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과 조직적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시며 통일단결의 유일중심이시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심장이시며 뇌수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지난 시기 혁명실천에서 그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력력히 검증되였으며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인도할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인도하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자체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서만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천명하시고 독자적으로 혁명의 길, 조국광복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을 광복하시였으며 조국에 개선하신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촉진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능숙히 조직령도하여오시였으며 이 땅우에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를 마련하시고 《주체의 조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구출하고 민족적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사상이며 남조선혁명의 완성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조선혁명에서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떠나서 그 어떤 다른 지도사상을 생각할수 없으며 조선혁명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남조선혁명에서도 주체사상외에 그 어떤 다른 지도사상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7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의 예속밑에 있는 우리 나라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남조선혁명은 우리 나라에서 착취없고 압박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전체 조선인민이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며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진행되는 지역혁명이다.

따라서 남조선혁명도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과 마찬가지로 오직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에 의해 지도될 때만이 조선혁명의 중요구성부분인 남조선혁명이 승리할수 있고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혁명의 전국적승리도 이룩될수 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사상적기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북반부의 혁명과 건설을 남조선혁명과 밀접히 결부시켜 통일적으로 령도하시면서 매 시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과 투쟁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수령께서 내놓으신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대상과 동력에 대한 규정, 혁명의 주타격방향, 혁명력량의 편성과 배치 방침, 혁명의 준비기와 결정적시기의 기본방침들과 그 관철을 위한 전략전술적지도의 제원칙 등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이며 맑스-레닌주의전략사상을 가장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9~8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남조선혁명이 반드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되여야 하며 그래야 남조선에서 반제민족해방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을 계속 발전시켜 사회주의의길로 나아갈수 있다는것을 밝혀주고 있다.

남조선혁명은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당면하게는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이며 그것은 전조선혁명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주의혁명과 직접 잇닿아있는 혁명이다. 인민민주주의혁명만이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식민지파쑈통치를 때려부시고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의 인민민주주의적성격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남조선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남조선인민들의 사활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명확한 투쟁강령과 그 실현을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침략자들과 그 더러운 주구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철저히 때려부셔야 한다는 정확한 투쟁의 과녁과 방도를 찾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대항할 준비를 갖출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원쑤들이 반혁명적폭력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 남조선실정에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이와 함께 수령께서는 혁명의 매 단계와 시기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앞에 나서는 투쟁과업을 정확히 제시하심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이 어려운 시련을 뚫고 투쟁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이렇듯 남조선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으며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이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는것으로 된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함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은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관건적문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제때에 물리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88페지)

남조선혁명의 승리의 결정적담보는 전체 남조선인민들을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결속하는데 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남조선인민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혁명가로 만들겠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혁명이 아직 승리하지 못한것도 결국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만일 남조선혁명가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였더라면 남조선혁명은 이미 승리하였을것이며 나라의 통일은 이룩되였을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어떤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는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며 혁명력량은 하나의 불패의 전투대오로 꾸려지게 된다.

남조선인민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 투쟁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할수 있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지나온 혁명운동과정이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 기간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자유와 해방을 위한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운동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실패도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희생과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포악한 적들과는 오직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점차 깨닫게 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81페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오는 과정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내외의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류혈적인 탄압책동과 반혁명적인 파괴책동으로 말미암아 쓰라린 실패와 희생을 여러번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에서 8.15후 당건설과 혁명운동에 끼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엄중한 해독행위, 전후시기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정당인 진보당의 적극적인 활동과 그에 대한 원쑤들의 류혈적인 탄압, 4.19인민봉기와 그를 계기로 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사회대중당의 조직정치활동 및 그에 대처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조작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남조선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투쟁이 탁월한 수령의 유일한 사상과 로선, 방침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할 때에는,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지 못할 때에는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오늘 남조선에서 적들의 반동공세가 전례없이 우심한 역경속에서도 로동계급의 진정한 정치적참모부로서의 통일혁명당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하고있는것은 당의 지도핵심이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참된 공산주의자들이며 그 강령과 선언에 명백히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통일혁명당이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리념으로 삼고 그에 의하여 확고히 지도되고있는데 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투쟁이 정확한 지도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고 인민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할수 없으며 투쟁도상에서 제기되는 온갖 시련을 극복할수 없다. 생활은 정확한 지도사상에 의해서만 혁명의 매 시기 정확한 전략전술적과업을 제기할수 있고 인민대중을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조직하고 동원할수 있으며 투쟁을 승리에로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남조선혁명이 지도될 때에만 혁명적당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수령의 탁월한 전략전술을 구현하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이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 이것은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구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 그들은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될수 있고 혁명투쟁에서 주동적역할을 놀수 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남조선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사상적각오를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혁명수행에서 그들의 주인된 자각을 높이고 원쑤들의 반동적사상공세도, 투쟁도상의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끝까지 견결히 싸울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지어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91폐지)

원래 혁명은 계급사회의 내부모순에 의하여 일어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 현상이며 그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사회내부의 혁명력량이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억압과 착취 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북반부인민들도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적인 조선혁명의 한부분인 남조선혁명을 적극 지지성원할 임무와 책임이 있지만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이다. 더우기 미

제의 남조선강점으로 국토가 량단되여 있는 조건에서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주인된 자각을 높이고 투쟁에서 주동적역할을 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남조선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인 남조선인민들자신이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 그들은 혁명투쟁에서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게 되며 복잡한 혁명정세를 제때에 정확히 판단하고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게 된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이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에라야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고 원쑤들의 온갖 반동적사상공세를 성과적으로 짓부셔나갈수 있다.

혁명은 대중자신의 의식적인 투쟁이며 그것을 통하여서만 승리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도 없고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도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인 미제와 같은 가장 침략적이며 흉악한 원쑤를 대상으로 혁명을 하고있으며 놈들이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기 위해 반동적사상공세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 계급적각성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남조선에서 《반공》사상과 숭미사대주의, 외세의존 사상과 민족허무주의, 미국식생활양식, 왜색왜풍 등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감행하고있는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주체의식과 자주정신을 높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자기의 힘을 믿고 자체로 혁명을 해나가려는 주체의식과 혁명적자각을 높여주는 귀중한 혁명적량식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수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때 온갖 반동적인 사상을 뿌리뽑고 어떠한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투쟁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러 모시고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심으로 가슴 불태우면서 원쑤들의 가혹한 폭압을 박차고 용감히 싸우고있는것은 바로 그들이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우려는 확고한 혁명적각오가 되여있기 때문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예이며 자랑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수령의 혁명전사로서 그이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나가는 길, 이길만이 자기 세대앞에 맡겨진 임무를 다하는 길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고 자신의 참된 삶을 위한 가장 보람찬 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의 불후의 로작과 교시,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 특히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에 정통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5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것으로서 그것은 철두철미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수령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에 정통하여야만 그이의 주체사상의 본질과 위대성, 창조성을 심오히 파악하고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울수 있으며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모르고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할수도 없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에는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귀중한 리론실천적경험들이 체계적으로 분석개괄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과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제시되여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과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을 깊이 연구할 때 그들은 사회발전법칙과 계급투쟁법칙을 옳게 인식할수 있으며 남조선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혁명활동의 정확한 방도와 대책을 세워나갈수 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혁명의 천재적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체득함에 있어서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로작들과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은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량식으로 되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간고한 적구환경에서도 비합법적인 독서회, 연구소조 등을 조직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을 체득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절대화하는것을 생활의 철칙으로, 확고부동한 신조로 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는 이와 함께 혁명전통교양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이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혁명적재부입니다.》(우와 같은 책, 6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이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가장 귀중한 재부이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깊은 뿌리를 알고 수령에 대한 흠모와 존경, 충성심을 더욱 굳게 할수 있으며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아 싸운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에 충만되여 굿굿이 싸워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풍부한 투쟁경험과 공산주의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통을 이어받아 남조선현실에 맞게 다양한·투쟁 형태와 방법을 능숙히 배합하여 당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정확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고 근로인민의·참다운 애국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고있으며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장기간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그 생활력이 실증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적혁명사상에서 기본핵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로동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견결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주되는 투쟁대상인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높이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주체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는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조선혁명에 관한 위대한 구상과 그이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구현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옳게 인식할 때 그들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주체사상의 불패의 위력을 깊이 깨닫게 될것이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인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북반부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동경하고 그러한 사회제도하에서 살게 될 자기들의 앞날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우게 될것이다. 그들은 또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행위와 부패한 남조선사회제도를 끝없이 증오하고 그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주체의식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은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특히 남조선에서 반동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실천투쟁과 결합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투지를 단련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을 키워나가며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불굴의 투쟁정신은 미제와·그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민족허무주의, 숭미사대주의, 《반공》사상을 반대하는 실천적투쟁을 통해서만 더욱 확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주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반혁명세력과 그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될 때 그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을 리론실천적으로 깊이 파악하고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불굴의 혁명가로 자라나게 될것이다.

⁂ ⁂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영생불멸의 기치이다.

오늘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개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은 더욱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놈들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줄기찬 투쟁을 벌려야 할것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힘찬 전진운동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줄기차게 싸워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와 헌군사파쑈독재를 쓸어버리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제 1 호 (루계 34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1년 1월 1일　　발행 • 1971년 1월 5일

ㄱ—03691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 호(347)

차 례

프로레타리아독재와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를 고수하자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이다.

로동계급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자기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떠나서는 계급투쟁, 혁명투쟁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현시기 맑스-레닌주의당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고수하고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며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튼튼히 수호하는것이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문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전반적문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며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며 그 불패의 힘과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함에 있어서 직접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는 동시에 내부와해의 흉악한 전략을 추구하면서 정치사상적공세를 강화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에게 매수된 어용선전수단들을 동원하여 사회주의제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헐뜯기 위한 악의에 찬 중상과 비방을 퍼부으면서 이른바 《친선》과 《문화교류》의 미명밑에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침투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받아들이는 길잡이역할을 하고있다. 이것은 우연하지 않다.

력사적으로 수정주의자들은 그 본성으로 하여 부르죠아지들의 《교리》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뒤꼬리를 따라다녔으며 부르죠아지들이 하는 모든것을 모방하며 그들을 비호하였다.

오늘 혁명을 배반하는 수정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집요하게 반대하면서 이른바 《자유화》와 《민주주의적발전》의 구호밑에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 부르죠아민주주의의 계급선을 흐리게 하며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되살리려고 여러모로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와 수정주의의 해독적작용으로 말미암아 오늘 일부 나라들에서는 그 피해를 받고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밖으로부터 침습해들어오는 부르죠아사상문화와 부르죠아생활양식이 류포되고 그 영향밑에 각종 부르죠아적요소들이 되살아나고있으며 개인주의, 리기주의등 낡은 사상이 더욱더 조장되고있다. 이리하여 나중에는 당과 정부를 반대하는,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있을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나타나고있다.

사실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세하고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끌어들이는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않는다면 부르죠아적요소가 널리 퍼질수 있으며 결국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망쳐먹게 된다.

그러므로 온갖 적대적요소의 침습으

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끌어들이는 수정주의의 사소한 표현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튼튼히 고수하여야 한다.

실로 프로레타리아독재,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는 오늘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투쟁,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와의 투쟁의 가장 날카로운 문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나서고 있다.

1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이룬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인정하는가 거부하는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고수하는가 포기하는가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와 기회주의, 혁명적립장과 반혁명적립장을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공공연한 적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은페된 적인 기회주의자들에 이르는 온갖 원쑤들은 언제나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말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공격의 화살을 돌리면서 그것을 허물어버리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내에서의 맑스-레닌주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가장 위험한 적은 맑스-레닌주의의 탈을 쓰고 그에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서는 수정주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배신한 수정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함에 있어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치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부르죠아독재로,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부르죠아민주주의로 바꾸어놓으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는 력사적으로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와의 투쟁에서 중심문제로 되여왔다.

수정주의의 조상이며 제2국제당 수정주의의 대표적인물이였던 베른슈타인으로부터 프랑스의 내각주의파, 영국의 페이비안협회, 로씨야의 합법적맑스주의자들과 경제주의자들, 멘쉐위크들에 이르는 모든 기회주의적, 수정주의적 조류들은 례외없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찬미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기 위하여 들고나온것은 이른바 《민주주의》였다. 그들은 언제나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민주주의를 말살한다는 구실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여나섰다. 일찌기 제2국제당의 수정주의두목의 하나인 카우쯔키는 《독재란 말은 민주주의의 청산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섰다. 그는 또한 로씨야에서 10월혁명이 승리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수립되자 볼쉐위크들이 자기의 헌법과 모든 정책에서 《민주주의》를 위반한다고 떠벌이면서 가소롭게도 《독재적인 방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적방법》으로 계급적원쑤들을 대하라고 설교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제창한 《민주주의》란 결국 사회의 모든 성원을 위한 《민주주의》 즉 로동계급의 원쑤들에게까지 《관용》과 《자비심》을 베풀것을 요구한 《민주주의》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다름아닌 부르죠아민주주의였다.

수정주의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일반》을 옹호하고 《독재일반》을 반대하는체 하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옹호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였다.

레닌이 지적한바와 같이 《…〈민주주의일반〉을 론하는체 하면서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옹호하며, …〈독재일반〉을 반대하는체 하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여 울부짖는것은 사회주의를 직접 배반하는것이며, 부르죠아지편으로 사실상 넘어가는것이며, 자기의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수행할 로동계급의 권리를 부인하는것…》이다. (《레닌전집》, 28권, 조선문

판, 1959년, 582페지)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치시키는 수정주의자들의 《리론》은 그들이 고안해낸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죠아지의 사상적무기고에서 가져다가 분칠해놓은것이였다. 이자들의 반동적인 사이비《리론》은 레닌과 로씨야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파산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세계대전후에 나타난 수정주의자들은 자기 선행자들의 파산된 《리론》을 각색하여 다시 들고나왔다.

그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민주주의의 제한》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순수한 민주주의》와 《완전한 자유》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황당무계한 《리론》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한사코 반대한 제2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의 《리론》의 현대판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리론》은 제국주의자들의 비위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개작하며 그의 혁명적 진수를 거세하려는 반혁명적본질에 있어서 베른슈타인, 카우쯔키 등 선행수정주의자들의 《리론》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은 실로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내에 나타난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조류와의 투쟁속에서 고수되고 발전되여왔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기회주의자들의 외곡으로부터 철저히 수호하며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맑스-레닌주의당들 앞에 중요한 임무로 나선다.

오늘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사회주의는 이미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전환되였다. 더우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고 혁명실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된 오늘의 력사적조건은 새롭게 풀어야 할 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고수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원칙과 방도,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 새로운 조건이 제기하는 원칙적문제이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실천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그리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전반적문제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옳게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이 국내외적으로 끊임없는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때로부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과도기과업을 수행하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전기간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고수하여야 한다는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

설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6페지)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과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제기되는 그의 임무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시기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중요임무와 그 수행을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를 처음으로 명확히 밝혔다. 사회주의하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임무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계급투쟁, 사상혁명, 경제건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기회주의적편향도 철저히 극복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튼튼히 견지하면서 그 력사적임무를 옳바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하에서 독재와 민주주의,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킨데 대한 방침을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면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분리시키거나 대치시키는 온갖 경향을 반대하고 량자를 정확히 결합시켜나아가고있다.

우리 당은 부르죠아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가장 높은 민주주의로서의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혁명적 본질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언제나 계급적선에 확고히 서서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동시에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옳게 발양시켜나가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하고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과학리론적으로 새롭게 해명되고 정연하게 체계화되였으며 실생활에 훌륭히 구현되고있는 프로레타리아독재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프로레타리아독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고수하고 그것을 혁명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우리 당의 창조적인 사상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그에 의거하여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철저히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힘과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2

력사상에 존재한 모든 형태의 독재가 그러한바와 같이 민주주의 역시 철저히 계급적성격을 띤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냐 아니면 부르죠아민주주의냐, 둘 가운데 하나이며 제3의 초계급적인 《순수한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철두철미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력사상 처음으로 억압받고 착취받던 근로대중에게 진정으로 최대한의 자유,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가장 높은 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인민은 나라와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이며 나라의 모든 물질문화적재부들은 전적으로 근로인민을 위하여 쓰여지고있다. 근로인민을 위하여 실시되는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뿐만아니라 물질적으로 완전히 담보되여있는것이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을 영원히 청산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뿐만아니라 행복

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49페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은 우선 그것이 사회정치생활에서 근로대중에게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는데 있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을 영원히 청산하는 한편 근로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국가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주권을 실제로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게 한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하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직접 참가하며 또한 자신이 직접 선거받을수 있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건설적 의견과 의사를 자유롭게 발표할수 있는 언론, 출판, 집회 등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된다. 당과 국가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계급적 리익과 지향의 진정한 옹호자, 대표자로서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요소와 경향도 용납하지 않으며 그것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도록 모든 조건을 완전히 보장해준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은 근로자들을 온갖 착취와 빈궁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준다는데 있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근로대중을 착취로부터 해방하고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빈궁의 사회적근원을 영원히 없애고 로동의 결과가 전적으로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게 한다. 뿐만아니라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빨리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인다. 특히 당과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으며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상적인 배려를 돌린다.

그리하여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밑에서 근로대중은 날을 따라 더욱더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된다.

력사에는 일찌기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밖에 근로대중의 의식주문제를 책임지고 완전히 해결하며 실업을 없애고 근로대중에게 로동과 휴식, 교육 등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그 어떤 민주주의도 없었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온갖 계급적 대립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한다.

사회주의사회의 기초는 집단주의이며 사회주의사회관계의 기본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온갖 계급적 대립과 함께 사회에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는 온갖 적대적요소들을 청산하는 한편 근로자들속에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개성의 자유로운 전면적발전을 보장함으로써 집단과 개인, 전체와 개인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고 근로자들사이의 자원적이고 동지적이며 공고한 단결과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참다운 우월성, 그 위대한 생활력은 오늘 우리 나라 현실에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움으로써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언론, 출판, 집회 등 모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모든 국가사업

에 주인답게 적극 참가하고있다.

우리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된 력량에 의거하고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권이다.

우리 나라에서 각급 주권기관들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진정한 대표로 구성되여있는 사실, 전체 인민대중이 비상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밑에 국가사회생활과 사회주의건설에 몸바쳐나서고있는 사실 등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사회주의공업화로선 그리고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향상시킬데 대한 방침 등 제반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들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아들딸을 공부시키고 병을 치료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근심걱정도 하지 않게 되였으며 그들의 생활은 고르롭게 빨리 향상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옳바른 시책에 의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과 농민들의 수입이 계통적으로 높아지고 물가는 끊임없이 떨어져 그들의 실질수입이 늘어나고 생활이 날로 유족해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로동에 의하여 분배받는 밖에 국가의 막대한 사회문화시책비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커다란 혜택을 받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국가비용으로 정, 휴양소에서 즐겁게 쉬고있다.

또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고아들도 국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국가 및 사회적 부담으로 탁아소, 유치원에서 행복하게 자라고있으며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일할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고있으며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들에서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나가는 공산주의적미풍이 온 사회에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근로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되고 있다.

특히 독재와 민주주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대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되였다.

실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찬란히 개화발전되고있으며 그것은 날로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부르죠아독재,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을뿐만아니라 서로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철두철미 착취자, 억압자인 부르죠아지를 위한 민주주의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억만장자들에게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여 치부하며 그들을 억압할 자유를 주지만 근로대중에게는 헐벗고 굶어죽을 자유밖에 주지 않는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부르죠아지의 정치적지배를 유지공고화하며 그들의 무제한한 착취와 치부를 보장하는,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반동적인 통치형태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착취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는 반동적인 부르죠아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엄페물,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극악한 파쑈독재에 매달리면서 더욱더 《민주주의》의 외피를 뒤집어쓰는것은 무엇보다도 지난날 히틀러파시즘과 일본군국주의의 잔인성과 악랄성을 체험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제국주의파쑈독재에 대한 극도의 증오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교묘하게 리용하려는것이다.

그러나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찬미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결코 력사상 가장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며 철저히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근로대중에 대한 형식상의 정치적권리의 선포와 실제상에 있어서의 정치적권리의 박탈,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외피로 위장된 부르죠아민주주의의 내막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민주주의정치》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그 《표본》처럼 내세우는 《일반선거권》의 기만성은 이미 여지없이 드러났다. 부르죠아지들은 한편으로 《일반선거권》을 표방하면서 다른편으로는 성별, 지식정도, 거주년한, 선거세, 재산소유정도, 년령 등을 비롯한 수많은 제한조건들을 붙여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부르죠아 《량당제도》를 《민주주의적》통치방법으로 묘사하고있으나 사실에 있어서 그것은 부르죠아지가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번갈아 타고가는 《쌍두마차》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인민대중을 기만하는 한편 자기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두개 부르죠아정당으로 하여금 서로 번갈아 집권케 하면서 진보적인 정당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진보적세력의 진출을 가로막고 부르죠아반동통치를 실시하고있는것이다.

현대부르죠아국가는 한줌도 못되는 억만장자들, 독점체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독재기구이다. 여기에서는 모든것이 국가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고있는 독점체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있는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의 모든 《정책》은 부르죠아대변자들이 떠벌이고있는것처럼 국회에서 작성되는것이 아니라 국회밖에서, 부르죠아지들의 뒤골방에서 꾸며지고 그 앞잡이들로 구성된 부르죠아정부에 의하여 집행되고있는것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 존재하고있는 국회는 다름아닌 부르죠아통치에 《대의제》의 간판을 붙여 그에 《민주주의》와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꼭두각시의 역할을 놀따름이다.

설사 로동계급의 당이나 기타 진보적정당들이 부르죠아국회안에서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부르죠아독재의 도구로서의 그 계급적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며 또 달라질수도 없다.

부르죠아국회에 진보적정당들의 대표들이 들어가는것은 그 어떤 민주주의의 표시도 아니며 민주주의가 보장되여 그런것도 아니다. 제국주의통치배들은 바로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적정체를 가리우며 민주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의 진출을 무마하기 위하여 달갑지 않지만 진보적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오는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것이며 이른바 《민주주의적》인 《정당정치》의 간판밑에 근로대중을 기만하면서 자기의 독재를 유지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부르죠아지들은 어느때나 진보적정당들의 활동과 진출을 봉쇄할수 있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부르죠아의회제도는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적본질을 엄폐하는 병풍이며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의 장식물이다. 따라서 부르죠아의회제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대도 가질수 없다. 더우기 로동계급의 정당이 부르죠아의회제도를 통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한듯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대한 그릇된 환상에

사로잡히게 하며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길에서 물러서게 하는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할것이다.

오늘 부르죠아지들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하여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한 기만이다.

자유는 결코 말만으로는 보장될수 없다.

어떠한 자유도 그것은 실제적인 조건들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도 없다. 사실 건물, 극장, 집회장소, 인쇄소, 종이, 통신보도수단들이 모조리 부르죠아지들의 수중에 장악되고있는 자본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와 권리는 한갖 공담인것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의 위선적정체와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면모는 부르죠아지들이 자기들의 독재통치가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형식적으로 선포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마저 모조리 집어던지고 인민대중에 대한 공공연한 파쑈적 테로와 폭압을 감행해나서는데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파쑈독재는 부르죠아민주주의의 위기의 산물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종래의 방식으로는 더는 자기의 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을 때 불가피하게 매여달리게 되는 극도의 반동적인 정치적폭력이다.

미제의 어용선전기관들이 이른바 《자유세계》의 《본보기》라고 광고하는 미국에는 오늘 《맥카란법》, 《스미스법》, 《타프트-하틀리법》을 비롯하여 공산당과 진보적력량, 로동운동 등을 언제든지 탄압할수 있는 악명높은 각종 파쑈악법들이 수많이 있으며 《미중앙정보국》, 《미련방수사국》, 《비미행동조사위원회》와 군대화한 테로단인 《3케이단》을 비롯한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과 폭압기구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미국에서는 저주로운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사회적평등을 위한 흑인들의 투쟁, 미제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인민대중의 반전투쟁, 민주주의적권리와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 등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운동이 가장 야수적인 테로와 파쑈적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안으로는 근로대중과 진보적력량에 대한 발악적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밖으로는 《자유의 수호》라는 미명밑에 윁남,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인민들에게 류혈적참극을 강요하고있으며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며 민족적독립을 교살하고있으며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있다.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략탈자인 미제국주의는 정의와 진보, 민주주의와 자유의 극악한 원쑤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하에 있는 남조선에서 그 추악한 진면모를 날날이 드러내놓고있다.

바로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직접적인 지휘조종밑에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극악한 군사파쑈통치가 조작된 첫 몇달동안에 수십개의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강제로 해산되고 수백개의 언론, 출판 기관들이 폐쇄되였으며 수십만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무참히 검거, 투옥, 학살되였다. 오늘도 놈들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로동자, 농민들, 학원의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에게 야수적인 테로와 폭압을 가하고있으며 지어 민족적념원인 조국의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한가지 리유로 《반공법》에 걸어 《국시위반죄》로 가혹하게 처형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자본주의어용출판물까지도 《민주주의가 침식당한 폐허》, 《공기없는 천지, 즙이 없는 땅, 빛이 없는 세상》으로 묘사하고있는 테로와 학살, 기아와 빈궁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이것이 미제가 광고하는 《민주주의진렬장》인 남조

실의 오늘의 현실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사회정치생활에서뿐만아니라 사회경제생활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보장하지 않으며 또 보장할수도 없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지주, 자본가 등 소수의 특권계급에게는 호화로운 생활과 향락을 보장하지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에게는 실업과 빈궁, 굶주림과 질병, 죽음만을 가져다준다.

오늘 자본주의의 변호론자들은 현대 자본주의국가가 마치 자본을 《제한》 또는 《감독》하며 그것이 어느 한 계급의 특수한 리익이 아니라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인민적》인 《복지국가》로 되고있는듯이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의 계급적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독점자본의 도구로서의 그의 반인민적반동성은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독점자본가계급은 바로 국가권력의 비호밑에 그리고 그것을 직접 리용하여 《맨몸뚱이》밖에 없는 임금로동자들의 피땀을 잔인하게 짜내여 살찌고있다.

자본주의하에서 로동자들의 취업상태는 그들의 생활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오늘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완전실업자수는 축소하여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만도 매년 상시적으로 500만명을 넘으며 여기에 반실업자군까지 합치면 그 수는 실로 1천만명을 훨씬 넘는다.

미제국주의우두머리들이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른바 《빈궁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도리여 실업자와 빈민층이 계통적으로 증대되고 대중의 빈궁과 령락이 심화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부르죠아민주주의,현대독점자본주의하에서 근로인민의 복리를 도모한다는것은 한갖 기만적인 공담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 빈번히 닥쳐오는 혹심한 경제적 침체와 파산, 만성적인 인플레,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물건값과 늘어나는 세금부담 등은 주민들의 구매력을 극도로 떨구고 근로자들에게 더욱더 심한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전쟁정책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어깨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전쟁부담이 덮씌워지고있다.

교육문화 및 보건 기관들 그 모두가 독점자본의 치부, 모리 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은 고등교육은 물론 보통교육도 받을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며 현대의학과 의료기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질병속에 신음하고있다.

실로 자본주의제도는 돈있는자에게는 《천당》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지옥》일뿐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부식시키고 그들을 부화타락케 하며 정신적불구자로 되게 한다.

부르죠아생활양식, 그것은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이 지배하는 현대자본주의의 잔인성과 퇴폐몰락하는 그 부패상을 반영한 세기말적생활풍조이다.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산 현대독점자본주의는 정신도덕생활에서 극도의 비애와 절망, 부화와 타락, 방종 등 썩어빠진 생활풍조를 사람들에게 부식시킨다.

모든 사회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순전히 금리관계로 맺어지고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부르죠아사회에서는 건전한 리성과 미덕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패륜과 패덕이 사회를 지배한다.

오늘 부르죠아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동물적인 쾌락과 퇴페적인 취미에로 충동하며 그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는 모든것이 장려되고있다.

부르죠아생활양식에서도 병들고 썩을대로 썩은 미국사회를 집중적으로 반영한 《미국식생활양식》은 그 전형으로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인간증오사상과 배타주의를 고취하고 비애와 염세, 고독과 애수

를 자아내고 동물적인 광증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퇴폐적이며 색정적인 영화, 연극, 춤과 노래들이 사회에 범람하여 사람들을 인간에 대한 배타적인 증오와 멸시감, 극단한 쾌락과 병적인 취미에 물젖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무시무시한 깽과 살인절도행위, 인간의 륜리도덕을 짓밟는 각종 방종, 패덕행위들이 일상사처럼 되고있다.

부르죠아생활양식은 자본주의사회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자유주의의 극단한 발현이다.

부르죠아적자유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며 향락을 누리려는 더러운 짐승과 같은 생활을 추구하며 극단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고취하고 근로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단결을 파괴한다.

부르죠아지들은 각종 수단과 저들의 어용 《리론가》들을 동원하여 이 모든 썩을대로 썩은 생활양식을 찬미하고있으며 그것을 널리 류포시키고있다. 부르죠아지들이 이렇게 하는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항거할줄 모르는 무기력한 존재로, 영원히 자본의 지배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려는데 있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그 계급적 기초와 내용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르죠아독재이며 오직 부르죠아지에게만 필요한것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결코 어떠한 환상도 가질수 없다.

서로 상용될수 없는 두 계급인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상반되는 립장과 리해관계를 표현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부르죠아독재,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결코 량립될수 없는것이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 부르죠아민주주의의 계급선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되며 더우기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부르죠아민주주의를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3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에 의하여 보장되는 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국가인민들이 진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하려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떠나서는 사회주의국가인민들의 그 어떤 진정한 자유와 권리도, 행복한 생활도 생각할수 없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소수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진압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이 두 측면을 옳게 결합하여나간다는것은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과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착취계급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하며 그것을 통해서 실현된다. 착취자들, 계급적원쑤들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면 할수록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는 그만큼 더잘 보장된다. 반대로 착취계급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준다면 그것은 그만큼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박탈하는것으로 된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민주주의의 제한》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가일층의 확대》를 주장하는것은 수정주의이다. 오늘 《수정주의적민주주의》는 곧 사회주의사회에 끌어들인 부르죠아민주주의이다. 그 해독성은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제도를

좀먹고 자본주의복구의 길을 열어놓는데 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기전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계급투쟁은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착취계급이 계급으로서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그 잔여분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파괴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내부의 적대분자들과 결탁하여 승리한 혁명을 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접수할수 있는 《순수한 민주주의》와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계급적원쑤들과 반혁명분자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주자는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계급적성격을 띠고있으며 따라서 초계급적인 《민주주의》, 《순수한 민주주의》란 있은적도 없고 있을수도 없다. 만일 프로레타리아독재보다 더 높은 그 어떤 민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민주주의가 아니다.

《순수한 민주주의》란 계급적원쑤들과 그 사환군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헐뜯고 말살하기 위하여 꾸며낸 허튼소리이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철두철미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사회주의하에서는 오직 혁명적계급의 리익, 혁명의 리익의 범위내에서만 말하고 행동할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하고 사회주의하에서 누구나 다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할 자유를 준다면 그것은 곧 반혁명분자들과 반사회주의적요소들이 활개치고 준동할 《자유》를 주는것이며 사회주의사회에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끌어들이는것이다. 최근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복잡한 사태들을 빚어내는것은 바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줴버리고 이른바 《순수한 민주주의》와 《완전한 자유》를 고창하면서 부르죠아민주주의를 허용한 결과인것이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옳게 발양시키자면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집단주의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일치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전체의 리익가운데 개인의 몫이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매 개인도 행복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진정한 자유의 사회적기초가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조직과 집단을 떠난 개인이란 있을수 없으며 집단의 리익을 떠나서는 개인의 그 어떤 진정한 자유와 행복도 생각할수 없다.

근로인민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있으며 근로자들이 착취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과 자기의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다같이 일할수 있게 되는데 있다.

만일 사회주의하에서 나라와 집단의 리익을 떠난 《완전한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자유인것이 아니라 부르죠아적자유이며 방종이다.

이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생활이다.

혁명시대에 사는 사람이 혁명을 하지 않고 혼자만 잘 살겠다고 리기주의를 부리며 일하기 싫어하고 안일부화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실상 돼지와 같은 보람없는 생물체의 생활이나 다를것이 없다.

프로레타리아적자유와 대치되는 부르죠아적자유와 방종은 착취계급의 사상인 개인주의, 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또 그것을 조장시킨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기초는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도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오래동안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사상교양을 하지 않으면 되살아나며 조장될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하지 않고 부르죠아적 자유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적기초인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게 할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부르죠아반동사상독소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침습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며 사상전선에서 치열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3페지)

사상문화적침투는 로골적인 폭력과 함께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반혁명적공세의 중요한 일환이며 숭미반공사상과 《서방화》, 《자유화》를 고취하여 제국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흉악한 책동이다.

특히 반동적문학예술을 침투시키는것은 문학예술이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청년들을 끌기 쉽다는것과 작가, 예술인들이 낡은 사상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있다는 점으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이 쓰는 사상문화적침투의 전통적수법으로 되고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생활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사상개조와 단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처럼 생각하면서 안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줴버리며 밖으로는 《친선》이니, 《문화교류》니 하고 서방음악만 듣게 하고 부르죠아반동영화와 문예작품만 보게 하는것은 잘못이다.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문화예술로써 자본주의의 퇴폐적인 문화예술을 압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고 특히 자본주의의 퇴폐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혁명적인 비판과 분석과 투쟁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 침투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문화건설, 나아가서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위업에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서방부르죠아문화에서 《배울것이 있다.》는 주장은 문화의 계급성을 부인하는 황당한 궤변이며 사회주의문화를 말살하려는 반혁명적책동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고 부르죠아반동문화를 끌어들여 사회생활을 《자유화》, 《서방화》하고있는데서는 불피코 자본주의적요소가 자라나고 부르죠아반동사조와 양풍이 조장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지 못하고 부르죠아서방에 대한 환상적동경이 생기게 되며 사람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정신은 마비되고 적아도 가리지 못하게 된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검박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과 동지적 협조와 우애의 고상한 정신이 없어지고 퇴폐적인 부르죠아기풍이 수많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과 인테리들을 휩쓸게 되며 개인리기주의, 향락주의, 자유주의적 경향이 걷잡을수 없이 자라나게 된다. 또한 자기 나라에도 좋은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부르죠아나라것을 덮어놓고 숭배하면서 모방하고 끌어들이게 된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영화도 부르죠아서방을 모방하여 상품화하고있으며 혁명적인것을 다 버리고 순전히 팔아먹기 위하여 허구로 일관된, 비사회주의사실주의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고있다. 심지어 민족적인 노래와 춤 그리고 미풍량속마저 줴버리고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은 썩어빠진 부르죠아독소에 오염되어 심히 어지러워지고 건달군, 장돌뱅이, 망나니 등 사회주의하에서는 있을수 없는 부패한 현상이 조장되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범죄행위를 범람케 하며 지어는 명문의 딸라에 눈이 어두워 사회주의조국을 배반하는 반역행위까지 빚어내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와 부르조아생활양식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에 부르조아생활양식, 이것은 비유하여 말하면 소대가리에 말꼬리를 맞추자는것과 같은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그에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본성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나가야 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주의사회에 낡은 부르조아적인것,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양식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지 않는것이며 부르조아민주주의에로 되돌아가는것이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의 허용은 사회주의나라를 《서방화》하는데로 이끌어가며 제국주의침략의 척후병들과 반혁명분자들에게 마음대로 준동할 길을 열어줌으로써 나중에는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마저 위험한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다.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하며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조직생활과 자각적인 혁명적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야 하며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와 혁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증오하고 멸시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기본요구의 하나는 근로자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것이다.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나라가 당면한 인민생활향상에만 힘을 넣으면 다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세계는 혁명의 도상에 있다. 먼저 혁명을 하였다고 하여 혼자만 편안하게 잘 살자고 해서는 안된다. 먼저 승리한 혁명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정치경제군사적힘으로 세계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많은 힘을 이에 돌려야 한다. 그러면서 인민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잘 살수 있게 그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계통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있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이다. 이 합법칙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현실화되게 된다.

사회주의대규모경제가 빨리 발전할수 없다는것은 이러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무시하는 수정주의적경제리론이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자유화》니, 《민주주의적발전》이니 하면서 근로자들을 교양하지 않아 그들이 사상적으로 해이되여 날라리를 부리면서 일을 잘하지 않는데로부터 기술이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는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자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적발전》과 《자유화》를 고창하면서 사회주의경제관리에 자본주의적기업관리방법을 끌어들이는 수정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고 정치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를 길러주고 순전히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그들의 집단적영웅주의와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따라서 기술혁명과업도 경제건설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

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이 본질적우월성을 발양시키자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온 사회를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야 하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리윤체계》를 도입하고 물질적자극 일면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경제관리운영의 기본방법으로 내세워 사람들을 돈밖에 모르며 오직 돈을 위하여 일하게 한다면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사업방법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자본주의적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마비시켜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말살하고 생산을 침체와 답보 속에 몰아넣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고사하고 당면한 인민생활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결국 근로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은 원래 날라리를 좋아하지 않으며 혼자만 안일하게 살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늘 일부 나라들에서 나타나고있는 혼자만 잘 살려는 개인리기주의, 민족리기주의적 경향은 사회주의의 본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오직 수정주의의 발생근원으로써만 설명될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수정주의발생의 내적근원은 부르죠아사상잔재이며 외적근원은 제국주의의 위협공갈앞에서의 투항이다. 특히 제국주의의 위협공갈앞에 겁을 먹은 수정주의자들은 세계혁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혼자만 편안히 잘 살려는데로부터 계급협조와 제국주의와의 타협정책을 실시하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증과 염전사상, 부르죠아평화주의를 고취하여 인민들의 혁명정신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킨다.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사회주의나라안에 서방의 부르죠아적자유, 부르죠아민주주의가 들어오며 그 길을 따라 부르죠아문화와 부르죠아생활양식이 침투해들어온다. 그리하여 사상령역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 조성되고 적아도 가리지 못하게 되며 경제분야에서도 사상사업을 동반하지 않는 순수한 경제실무주의로 떨어진다.

결국 수정주의는 혁명을 포기하고 혼자만 잘 살려는데로부터 생겨나는것이다.

그러므로 수정주의를 반대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혁명을 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근본리익도, 그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도 보장할수 없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보장하자면 당과 국가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이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불가분의 두 측면을 이루고있다.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는 광범한 대중의 의사에 기초하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지혜와 지방의 창발성은 중앙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원만히 발양될수 있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인위적으로 대치시키고 이른바 《민주주의》를 발양시키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중앙집권적지도를 거부하고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를 일면적으로 내세우는것은 당의 통일단결과 당 및 국가 규률을 파괴하고 당의 령도와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마비시키며 결국은 민주주의도 발양시킬수 없게 한다. 특히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원칙을 거부하고 기업의 《분권화》, 《자유화》를 실시한다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마비시키고 생산의 무정부성과 사회적혼란을 가져오며 나아가서 사회

주의국가의 경제적기초인 사회주의적소유를 파괴하게 된다.

정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에 대한 반맑스-레닌주의적견해를 철저히 배격하고 당과 국가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서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하며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고 독창적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당 및 국가적 지도와 경제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았으며 이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하에서의 당 및 국가 사업, 경제사업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지도방법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세우고 그의 전반적고리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은 다같이 근로자들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들이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련결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이룬다.

로동계급의 선봉대이며 최고조직인 맑스-레닌주의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향도적력량이며 국가정권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당의 외곽단체이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국가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만 로동계급은 사회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하고 그것을 그 어떤 초계급적인것으로 바꾸어놓거나 당사업과 국가관리를 《사회화》, 《민주화》한다고 하면서 당의 전투력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근로단체들을 《대중오락단체》로 전락시키는 그 어떤 시도도 그것은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거부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마비시키며 맑스-레닌주의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으로부터 물러서는것이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하에서는 아직 계급적 차이가 남아있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으며 더우기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이 계속된다. 이런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계급적성격을 거부하고 당사업과 국가관리사업을 《사회화》, 《민주화》한다면 당을 대중속에 용해시키고 그 전투력을 마비시키며 당내에 소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을 증대시켜 당을 변질시키게 될것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오가잡탕들을 국가관리에 끌어들여 계급적원쑤들이 준동할 길을 열어주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려면 당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과 국가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당

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합법칙적요구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그 령도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매개 고리들이 움직이게 함으로써만 모든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행동상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근본리익을 대표하고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할수 있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새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요구와 지향도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인민들이 진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하려면 무엇보다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여야 한다.

최근년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사회주의하에서 이른바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인민들에게 부르죠아민주주의와 노예적자유를 강요하는것이며 사회주의전취물을 빼앗고 자본주의복구의 길을 열어놓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악랄한 책동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에 대하여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정주의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이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인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고수하여야 하며 그것을 부인하는 수정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튼튼히 틀어쥐고 내외의 원쑤들의 침략과 파괴암해 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시는 한편 광범한 군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뒤떨어지고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나라를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 그리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선진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결코 만족할수 없다. 우리는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더욱 빨리 달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한 6개년계획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할 우리 당의 위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할것을 요구하는 웅대한 설계도이다.

우리는 계속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완수함으로써 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계에 떨쳐야 한다.

모두다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튼튼히 틀어쥐고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 방법의 철저한 구현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하시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신 때로부터 11년이 지나갔다.

지난 열한해동안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사업에서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변이 이루어졌으며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이룩된 위대한 업적들을 만족스럽게 총화하시면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구현하여 거둔 자랑찬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시였다.

참으로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사업발전을 가로막던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극복하고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고히 세웠으며 당사업전반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경험은 수령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야말로 당 및 국가, 경제 사업, 근로단체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지도방법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1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사업체계, 사업방법이 차지하는 위치와 우리 당건설과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당 및 국가, 경제 사업,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위대한 지도사상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였다.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당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당의 활동방식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당사업의 성과여부가 크게 달려있다.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옳게 세울 때 당활동이 정연하게, 실속있게 전개되여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풀릴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긴밀히 하고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수 있다.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바로 세우는것은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한 주요담보로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히 세워져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지 못하고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에 의거한다면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는것이다. 실로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당이 자기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인것만큼 그것은 당활동의 주객관적조건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완성될 때 응당한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활동의 전과정에서 발전하는 현실과 당앞에 나서는 혁명과업, 당원들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완성하는데 시종일관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이 집권당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권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언제나 경계할것은 당세도와 관료화되는 경향입니다.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틀을 차리며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커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이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야 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4~115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집권당의 활동이 가지는 특성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요구를 천재적으로 밝힌 고전적정식화이다.

원래 맑스-레닌주의당에 고유한것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이다.

당이 정권을 잡은후에 이러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전당과 전사회에 보급일반화되여 지배적인것으로 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한편 이와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당세도와 관료화의 경향도 나타날수 있다. 그것은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을 확고히 세우지 못한 일부 일군들이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커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활동의 전과정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당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고 그것을 개선완성하는데 큰 힘을 넣어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건설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완성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집권당으로 되였을뿐아니라 급속히 대중적정당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따라서 군중공작경험이 어리고 혁명적단련이 부족한 일군들이 적지 않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근로단체의 간부로 등용되게 되였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군중로선을 어기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게 되었다. 게다가 당안에 기여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널리 퍼뜨리고 적극 조장시켰으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이 당사업에 전면적으로 구현되는것을 방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당으로 하여금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반대하고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세우도록 하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완성하는것은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서고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와서 더욱 날카로운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여 선진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리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며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졌으나 일군들의 능력과 수준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였으며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이에 맞게 미처 개편되지 못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새 환경에

데는 맞지 않게 되였으며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없고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는것을 제때에 명철하게 포착하시였다.

한편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나타난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면서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분야에도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던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인 령도방법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절박하게 나서는 객관적요구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건설과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제기하는 이러한 요구들을 깊이 통찰하시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완성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지도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생동한 전형을 마련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으로서 거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요구하는 당적령도방법의 모든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고 정연하게 체계화되여있다.

그러므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이 현단계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 확고히 틀어쥐고 구현하여야 할 항구적이며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령도방법으로 된다.

2

전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개선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우와 같은 책, 114페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를 세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구현하여 이룩하신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사업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다. 그러므로 당내부사업이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나 할것없이 모든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여야 하며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적인 조직정치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당사업의 이러한 본질적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세워야만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그것을 산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혁명적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기풍을 확립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구현함으로써 빛나게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그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혁명적군중로선을 초석으로 삼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법칙적으로 요구할뿐아니라 이 요구를 관철할수 있게 하는 근본

방도들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구현함으로써 사람과의 사업 즉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를 확고히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에는 간부들을 선발배치하고 그들을 일상적으로 료해하고 교양육성하며 후비간부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간부사업체계와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규범에 따라 당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며 언제나 당적분공을 받고 늘 움직이도록 하며 그들의 당생활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는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섰다. 또한 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과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군중을 교양하여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묶어세우며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되였다. 우리 당은 전당에 정연하게 세워진 이 힘있는 사업체계에 의거하여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심으로써 당의 지도작풍과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도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총결기간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당의 지도작풍과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으며 당사업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우와 같은 책, 115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우리 당이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였으며 혁명적사업 방법과 작풍 확립의 합법칙적과정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도록 우리 당을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적사업 방법과 작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먼저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그대로 두고서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체득할수 없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일군들의 사상의 표현이다.

관료주의, 형식주의, 명령식, 행정식 사업 방법과 작풍도 결국은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공명주의, 출세주의, 고용자적노예근성 등 낡은 사상 잔재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그것은 하루이틀사이에 없어질수 없고 오랜 기간에 걸친 심각한 사상투쟁과 꾸준한 사상교양을 통해서만 극복될수 있다.

우리 당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의 해독성과 표현형태를 깊이 인식시키고 그 사소한 표현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기풍을 세웠다.

한편 우리 당은 수령께서 가르치신대로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답게,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참된 충복답게

오직 수령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확고히 지닐수 있다. 일군들이 이러한 품성을 가질 때에만 혁명적사업방법의 진수를 깊이 체득할수 있고 그것을 실천에 철저히 구현할수 있다.

우리 당은 일군들과 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세차게 벌림으로써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였다.

이처럼 우리 당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기본적으로 청산하고 일군들이 혁명가다운 품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들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극복하고 일군들이 혁명가다운 품성을 가지게 하면서 혁명적사업방법의 기본요구들이 사업행정에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인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웃기관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우와 같은 책, 115페지)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과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일군들의 지도수준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며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켜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지도대책을 세워 가장 과학적인 지도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사업방법이다. 그것은 또한 우로부터의 중앙집권적지도와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가장 밀접히 결합시킬수 있게 하는 힘있는 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 사업방법의 우월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중앙이 도를 도와주고 도는 군을 도와주며 군기관일군들은 리에 늘 내려가 리일군들과 함께 일하면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그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도록 하는 체계를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방식상학, 시범상학, 이동강습 등 독창적인 사업형식들을 통하여 아래일군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교양하는데 특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방식상학, 시범상학을 널리 조직하여 아래일군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것은 수령께서 이미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시기에 창조하시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널리 활용하시면서 그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하부지도방법이다. 이 지도방법의 우월성은 생동한 모범으로 아래일군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능숙히 결합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며 아래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우리 당은 이 지도방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일군들의 사업수준을 높이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당앞에 나선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수령께서 창조하신 이동강습의 새로운 형식을 리용하여 군중을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함으로써 모든 초급당조직들과 그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더 잘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초급일군들을 교양하고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의 정치실무

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은 수령께서 마련하여 주신 방식상학, 시범상학, 이동강습과 같은 독창적이며 우월한 사업 형식들과 방법들을 구현하는 행정에서 당사업과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었을뿐아니라 전당에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정연한 체계와 사업방법을 확고히 세울수 있었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사업방법을 확립하도록 우리 당을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우와 같은 책, 11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을 끊임없이 깨우쳐 혁명과업수행에로 목적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수백만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지혜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의 요구를 구현한 혁명적사업방법이다. 그것은 또한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고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며 그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요구를 구현한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언제 어디서나 대중에게 당정책의 본질과 내용, 그 수행방도를 깊이 해설침투시킴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가지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정치사업을 전당적, 전군중적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러하지만 특히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군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모두다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은 몇몇 지도일군들의 힘만으로는 풀릴수 없으며 오직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동원될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당은 한사람이 열사람을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움직이고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며 이렇게 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움직이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견지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16페지)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며 이렇게 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다 움직이게 하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원칙이며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군중적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이다.

수령께서 가르치신대로 우리 당은 먼저 간부들과 핵심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당원들을 교양하고 도와주도록 하였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과 핵심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만 당원들을 교양하여 모두다 자각적인 공산주의적혁명투사로 준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언제나 간부들과 핵심들을 교양하며 그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

다. 이에 기초하여 당은 간부들과 핵심들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무엇보다먼저 당원들을 교양하여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언제나 군중과 함께 살며 일하는 당원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놀게 함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실속있게 교양하여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정치사업은 전당적, 전군중적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으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미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는 방법, 모든 사업의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를 포착하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 한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며 그것을 일반화하여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하는 방법 등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들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우리 당을 이끌어주시였다.

이렇듯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당은 과거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기본적으로 청산하고 전당에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세울수 있었다.

3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지난 열한해동안 우리 당사업과 혁명실천에서 실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당안에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또 동지들사이에 서로 도와주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당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사업에서 거둔 매우 귀중한 성과입니다.》(우와 같은 책, 11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우리 당사업에서 발휘하고있는 불패의 생활력에 대하여 심오하게 일반화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당사업에 구현되여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틀이 마사지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우선 당사업이 산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섬으로써 수령의 의도가 아래에 거침없이 들어가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전당에 지배하게 되였다.

수령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웃사람과 아래사람 그리고 당원들, 혁명동지들 사이의 원칙적인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당앞에 나서는 모든 혁명과업들을 상하가 합심하고 동지호상간 서로 도와 성과적으로 해결하여나가는 공산주의적미풍이 흘러넘치게 되였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또한 당사업에 대한 당원들의 주인다운 자각이 더욱 높아졌다. 모든 당원들이 당사업발전을 위한 창발적의견들을 적극 내고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건실적의견들을 허심하게 받아들이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불패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가진 혁명적인 당으로, 움직이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구현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향도력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사업에서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신이 일어났으며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참으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당사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강유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고 전당에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고히 세워주심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불후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사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객관적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적령도방법의 탁월한 전형으로 된다. 이리하여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당은 령도방법을 개선완성하여나가는데서 위대한 본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당적령도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령도방법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였다. 특히 국제공산주의운동이 해결을 기다리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집권당의 사업체계, 사업방법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은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특출한 공헌으로 된다.

이 모든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방법분야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온 기회주의적사상조류에 대한 치명적타격으로 되며 당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그러기에 오늘 세계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공명과 지지를 표시하고 거기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있으며 이 위대한 령도방법의 창시자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그처럼 열화같이 흠모하여마지 않는것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위대한 령도방법을 창시하신 인류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청산리방법을 실천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관건적고리로 되는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령도방법에 구현된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진수를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현실에 옳게 구현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령도방법 특히 그이의 현지지도방법을 꾸준히 따라배우는것은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령도방법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그것을 몸소 구현하시는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이 위대한 모범을 꾸준히 따라배우는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할 때 우리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결정관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길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과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

주 봉 기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탁월한 령재이시며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로력적앙양으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남호두회의 서른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남호두회의는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규모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인민은 남호두회의 서른다섯돐을 맞이하면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주체의 나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한결같이 수령의 40여년간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2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를 소집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의 일대 앙양을 가져오기 위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호두회의방침은 그이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그후 수년간의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투쟁성과와 고귀한 경험에 토대하여 구상하신 현명한 방침이였으며 국내외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였다.

당시 조성되였던 국내외정세는 복잡하고 긴장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됨으로써 그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었다. 또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민족해방투쟁이 강화되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독점자본가들과 나라의 파쑈화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었다.

이 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1929~1933년간의 세계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세계자본주의경제는 여전히 부진상태에 있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은 파국적인 경제공황에서의 출로를 파쑈독재의 수립과 타국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발광하였다.

당시 일제는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전쟁준비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우리 나라를 대륙침략의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경제를 더욱 군사화하였으며 인적물적자원을 모조리 략탈해가는 한편 조선인민에 대한 극악한 파쑈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민과 일제침략자들간의 민족적모순과 계급적모순은 더욱더

침예화되였으며 광범한 대중속에서는 반일감정이 일층 강화되였다. 이러한 정세발전은 보다 광범한 대중을 반일투쟁에 더욱 튼튼히 결속하며 전반적인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릴것을 요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는 튼튼한 주체적혁명력량을 마련하여놓으시였으며 고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창건초기부터 밖으로는 일제의 발광적인 군사정치적공세를 물리치고 계속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시는 한편 안으로는 온갖 기회주의, 종파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며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유격근거지를 보위하기 위한 투쟁, 유격근거지내에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마련하는 사업과 인민혁명정부를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 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등 반제민족해방혁명과 유격전쟁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였으며 이 투쟁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온갖 기회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는 극복되고 주체적인 조선혁명의 로선은 확고히 고수되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수령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 천재적인 전략전술이 있음으로 하여 1930년대 전반기에 조선혁명은 간고한 투쟁로정을 뚫고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으며 이러한 투쟁행정에서 그이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들과 고귀한 경험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전반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1930년대 전반기에 우리 혁명앞에 새롭게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와 이미 쌓아올리신 확고한 토대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를 소집하시고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모든 애국력량을 망라한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급속히 확대발전시키며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진출시켜 적들에게 보다 심대한 타격을 주며 백두산일대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창설하고 나아가서는 국내깊이에 무장투쟁을 확대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더욱 고무하며 조선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였다.

당시 일제의 가혹한 파쑈적탄압과 략탈정책은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반일감정을 극도로 격화시켰으며 이러한 정세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보다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할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조선인민자체의 힘에 의하여 조선혁명

을 수행해야 할 혁명의 요구로부터 로동계급을 선두로 그의 동맹자들간의 계급저련계를 강화하며 일제 반일력량을 총동원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우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실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주되는 적에게 투쟁의 예봉을 집중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의 기본요구일뿐만아니라 당시 조선혁명앞에 조성된 혁명정세로부터 필연적요구로 제기된 문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정확한 반일민족통일전선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오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반일민족통일전선사업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국내외의 광활한 지역에 수많은 합법적 및 비합법적 대중단체들이 출현하게 되였으며 광범한 혁명적군중들이 반일조직에 망라되여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규모에서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로대가 꾸려지게 되였다.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와 반일민족통일전선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보다 광범한 범위에서 반일애국력량을 결속하며 개별적으로 분산되여있는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대중단체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남호두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일련의 원칙적인 문제들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할것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에 로동계급의 정당은 물론 그 어느 계급의 정당이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가진 반일단체도 없었던 조건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체는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져야 하며 통일전선운동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는 혁명조직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통일전선내에서 로동계급의 확고한 령도를 보장하며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각계각층 반일대중을 더욱 조직적으로 결속할수 있게 하며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방침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급속히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통일전선의 사회적지반을 급속히 확대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이 망라될수 있도록 그 하부조직들의 조직 형식과 명칭들을 지방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탄압이 혹심한 조건하에서 통일전선조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의 구체적실정, 주민들의 준비정도를 고려하여 각이한 명색으로 모든 반일력량을 포섭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의 하부조직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일제의 가혹한 폭압속에서도 비합법적활동과 합법적활동을 능숙하게 결합하여 진행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을 위한 전략에서 기본문제의 하나로 여기시고 가장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보다 많은 군중을 쟁취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고 혁명을 전국적규모에서 더욱 적극적

으로 전개할수 있게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또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적인 맑스-레닌주의당창건준비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유격투쟁과 반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로동자, 농민, 혁명적인테리들중 선진분자들을 더 많이 당에 인입하여 당조직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유격대오내에서와 동북일대에서만 진행할것이 아니라 국내에까지 들어가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준비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항일유격대와 혁명조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는 투쟁을 계속하면서 국내에 당조직을 포치하고 여기에 선진적 로동자, 농민, 혁명적인테리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국내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조직사업은 우로부터 내려갈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특수한 주객관적정세와 조건에 맞게 아래로부터 올려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이 방침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혁명적근로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을 점차 혁명화하며 그들중에서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선발하여 당조직에 받아들여 튼튼한 강철의 당조직을 만들수 있게 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였다.

국내에 당조직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적극적인 방침은 당창건준비사업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 이 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본격적으로 벌려나갈 웅대한 구상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국내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확대하고 당조직을 강화하여 그 령도적역할을 높임으로써만 국내에로 무장투쟁을 확대해나가는 문제도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장성발전시켜나가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데서 당조직생활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핵심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여기에 토대하여 여러곳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것이 절박한 문제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된 핵심이 튼튼하게 꾸려짐으로써만 장차 그들을 골간으로 하여 당을 창건하고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며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위한 투쟁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킬것을 강조하시였다. 이것은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통일전선운동을 확대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키워내여 당조직에 받아들이며 대중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침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은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전국적규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게 함으로써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혁명의 책원지로서 백두산일대에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하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국내에로 진출시킬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요지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였다.

…만일 우리가 국내에 진출하지 않는다면 국내공산주의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결속시키는것도, 로동계급속에서 공산주의대오를 육성확대하는것도,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조직확대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궐기시키는것도 불가능하게 될것이다. 때문에 금후 인민혁명군의 활동중심방향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국경연안지대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투쟁범위를 국내에 확대하는 한편 국내혁명운동을 직접 조직지도하여야만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백두산근거지창설방침은 장차 이 근거지를 랑림산맥에까지 확대하고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여기에 전인민적항쟁을 배합할데 대한 웅대한 전략적구상에 기초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대강화하며 암담한 처지에서 신음하던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줌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적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일대에 새로운 혁명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구체적대책들을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혁명근거지는 일제의 반악적공세가 극심하던 당시 형편에서 응당 조선혁명을 전반적으로 조직지도하기에 유리하며 인민혁명군이 마음대로 류동하고 넓은 지대에 걸쳐 자유자재로 활동할수 있는 지대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대산림지대가 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지대는 그 지형과 위치 및 주민구성으로 보아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며 조선인민의 전반적혁명운동을 지도하기에 매우 유리한 곳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창설되는 백두산근거지는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와는 달리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대산림지대의 유리한 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밀영을 설치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광범한 지역의 혁명적군중속에 뿌리박은 혁명조직들을 련결함으로써 류동성을 띤 비밀근거지형태를 취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백두산근거지창설방침은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일층 촉진시키며 조선혁명을 더욱 앙양에로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조치로 되였다.

실로 적들이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한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을 때 적의 종심깊이에 혁명근거지를 창설한다는것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수 없는 문제였다. 그것은 오직 새로운 유격근거지창설이후의 적의 움직임까지 미리 천재적으로 예견하시고 그 어떤 발악적공세속에서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일제에게 보다 큰 타격을 줄 전략전술적방도를 사전에 짜시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제시하시고 빛나게 실현하실수 있었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예견성과 통찰력, 천재적전략전술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위대한 방침들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조선인민자신의 힘

으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려는 철저하게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으로서 조선혁명을 새로운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가장 정확히 조직령도하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1936년 5월 동강회의를 소집하시고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도들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들앞에 제기되고있는 중심과업은 조선국내에 혁명적핵심조직체인 당조직들을 내오는데 있으며 일체 반일요소를 총집결한 반일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국내외의 모든 반일군중들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발동시키는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와 동강회의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체계와 조직형식을 가진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동시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일체 애국력량을 단합하여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장기간에 걸쳐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발전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력사적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친솔하시고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시여 백두산근거지의 창설을 지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근거지창설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일대는 조선혁명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데 아주 유리한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두산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국내에로 무장투쟁을 확대하며 각계각층의 군중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집결하여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와 동강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광활한 지대에 새로운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조국광복회망을 급속히 확대하고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을 묶어세워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그리하여 백두산근거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짓부시고 적극적이며 기동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와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그이의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령도를

일층 강화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근거지를 거점으로 하여 백두산서남부와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진출시키시여 강력한 군사활동을 벌리게 하심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주시였다. 특히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는 항일유격대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조선인민에게 해방의 서광과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겨주었다. 조선인민은 보천보에서 타오른 조국광복의 홰불과 간삼봉을 비롯한 국경지대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의 련속적인 승리를 통하여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반일혁명전선에 더욱 결연히 일떠나 싸웠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남호두회의에서 제시된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사업을 전국적규모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켜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시던 첫시기부터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사업을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시고 일제의 폭압과 각종 기회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이 극심하였던 환경속에서도 당창건을 준비하고 혁명력량을 꾸리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오시였다.

그이께서는 1930년대 후반기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적극 추진시키시기 위하여 국내공산주의자들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그들속에서 외세에 의존하여 당을 창건하려는 사대주의적편향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당창건을 위한 정확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그들에게 당소조를 조직할데 대한 구체적임무를 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실천투쟁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일상적인 교양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내 당 및 공청 조직들이 대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시였으며 몸소 관하부대들에 수시로 내려가시여 대원들을 교양하시기도 하고 당회의에 참가하시여 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세심하게 가르쳐주시기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창건준비를 위하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에 기초하시여 공산주의자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관철하는 투쟁행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간고한 무장투쟁의 시련속에서 수령과 혁명 앞에 무한히 충직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수많이 자라났고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이 튼튼히 꾸려졌으며 공산주의자대렬은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되였다. 또한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을 다지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으며 그들속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혁명투쟁을 통하여 조선공산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시였으며 조선혁명을 더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서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은 그이의 불면불휴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 전반적조선혁명은 전례없는 일대 앙양을 가져오게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은 승승장구하게 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호두회의방침은 당시 조성된 정세하에서 계속 주도권을 틀어쥐고 일제침략자들에게 더욱 큰 군사정치적타격을 줌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앞당기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였다.

남호두회의방침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국내깊이에까지 진출하여 무장투쟁과 정치활동을 가일층 강화하고 조국광복회망이 국내외에 널리 뻗치게 됨으로써 보다 광범한 대중을 반일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면적이고도 통일적인 령도를 더욱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이 방침이 실현되는 행정에서 주체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으며 각종 기회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가 극복되고 조선혁명은 전국적판도에서 새로운 앙양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게 되였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와 그후 조선혁명의 발전은 국제적으로 파시즘이 대두하고 침략전쟁의 위협이 날로 커가고 있을 때 국제파시즘의 주력의 하나였던 강도 일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여 국제파시즘의 붕괴를 더욱 촉진시켰으며 반파쑈, 반제혁명력량편성에서 위대한 실천적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조직지도하신 남호두회의는 조선혁명운동에서 주체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회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천명하신 당창건방침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그리고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은 해방후 우리 당 창건과 당의 통일전선정책, 민주기지창설로선의 력사적뿌리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조선혁명과 우리 당력사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혁신과 혁명적기백으로 들끓고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고계신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남호두회의 서른다섯돐을 맞이하면서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여주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훌륭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자위적군사강령

리 두 찬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이룩한 찬란한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조성된 국내외의 혁명정세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혁명전쟁과 현대전쟁의 법칙과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당의 자위적국방건설방침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자위적국방건설방침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군사강령이며 국방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방침에 따라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온 나라를 요새화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자위력을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27페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과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다 무장하고 총을 다룰줄 알게 되였다. 온 나라 모든 지역에 철옹성같은 방위시설이 쌓아졌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도 다 요새화되고 강력한 자립적국방공업기지가 마련되여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자체로 만들어낼수 있게 되였다.

국방건설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오직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독창적인 필승불패의 군사사상과 자위적국방건설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는 국방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자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나라의 방위체계를 전면적으로 완성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긴장된 정세하에서 수령께서 제시하신 자위적국방건설방침의 진수를 파악하고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전취물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 국방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다시금 뚜렷이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이 이미 내놓은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견지하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70페지)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탁월한 자위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적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전쟁의 법칙과 특성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전쟁의 모든 경험들을 집대성한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군사전략사상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군사로선의 기본내용으로 되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은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에 기초한것이며 국방에서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국방에서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방분야에 구현한것으로서 수령의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자위적국방건설방침의 근본초석으로 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국방에서의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립장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혁명적인 군사전략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혁명과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국방문제를 결코 남의 힘에 의존하여 해결할수는 없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국방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한다.

국방건설에서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들이 제국주의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오직 자체의 힘을 위주로 하는 확고한 자주적립장,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군사리론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할줄 아는 창조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불의의 사태에 대처해서도 주동적으로 적들을 격멸소탕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게 하는 필승불패의 자위의 군사사상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국방에서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은 또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보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함으로써 세계혁명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군사전략사상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승리하고 점차 사회주의진영이 확대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나라들이 혁명과 건설을 민족국가단위로 진행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의 위협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에서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매개 나라들이 자위의 국방력을 강화하여야만 제국

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자기 나라를 믿음직하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점차 사회주의진영을 확대강화발전시키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시킬수 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국방에서의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은 또한 세계혁명정세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폭풍우시대의 가장 탁월한 군사전략사상이다.

국방에서의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은 매개 나라들이 자체의 힘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반제적립장이 견결치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안으로부터 와해시키며 하는 한편 혁명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전략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정치적자주성과 민족의 존엄,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할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국방에서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은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침략자들의 팔다리를 뜯어내고 머리를 잘라버리며 놈들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주는 전투적기치이며 사회주의국가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세계적체계에로의 전환의 길, 전반적세계혁명발전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하는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군사전략사상이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에 기초하시여 우리 당의 자위적국방건설의 구체적방침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민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군사훈련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한손에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손에 총을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면서 적들이 일단 덤벼들 때에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자들을 소멸할수 있도록 언제나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0페지)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자위적국방건설방침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군사분야에 구현한것으로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한 가장 현명한 군사강령이다.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혁명적으로 각성된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일뿐아니라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철벽의 요새에 의거하여 혁명적으로 각성된 전체 인민이 다 무장하고 전체 인민이 다 적을 미워하며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울 때에는 어떠한 원쑤도 전멸시키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민무장화방침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전민무장화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현할수 있다.

주권과 생산수단이 착취계급의 손에 있으며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치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전민무장화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을 무장시

킨다는것은 곧 착취계급들자체의 멸망을 의미하는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의 손에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전민무장화를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마련된다.

전민무장화는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튼튼히 무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반석같이 이루어졌을뿐아니라 현대적인 자립적민족경제와 국방공업이 마련되였을 때에만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될수 있으며 그 필승불패의 위력이 확고히 담보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무장화방침은 또한 현대전쟁의 법칙과 특성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가장 위력한 군사전략적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대전쟁은 전선과 후방, 싸우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따로 없는 립체전이다. 최신과학기술의 모든 성과들이 도입되고 대량살륙무기와 원거리타격수단들이 동원되는 현대전쟁은 방대한 인적 및 물적 수요를 전제로 하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데 커다란 전략전술적의의를 부여한다. 이런 조건에서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야만 전선에 전투원들과 간부들을 질적으로 량적으로 보장할수 있으며 언제, 어떤곳으로, 어떤 형태로 적들이 덤벼들어도 모조리 잡아치우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데 대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은 이와 같이 언제나 자체의 무궁무진한 군사력의 원천을 마련하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고 총검의 숲으로 뒤덮게 함으로써 어떤 원쑤들이 덤벼들어도 단매에 쳐부시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위력한 군사전략사상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무장화와 함께 우리 당의 혁명무력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할 구체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사회주의전취물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위할 사명을 지닌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적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 직면하더라도 제때에 섬멸적타격을 가하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격멸할수 있도록 언제나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완성하며 그에 따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1페지)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를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간부군대로, 필승불패의 혁명군대로 만들기 위한 가장 위력한 군사전략적방침으로서 전쟁승리의 필수적요인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과 무기, 진지 등 전쟁승리의 필수적요인들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달려있다.

전쟁승리의 필수적요인들가운데서도 사람은 주되는 요소이다.

인민군대를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방침의 혁명적본질은 군대의 사상의식, 전투의식의 역할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한다는데 있다.

군인들의 정치사상의식, 전투의식은 전쟁과정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적들의 기술적우세를 제압하며 전술적우세를 보장하고 급격히 변동하

는 정황을 능숙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 용감성과 대담성 등 정신적 및 육체적인 모든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원천이다. 따라서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군대의 특성과 우월성을 발양시키고 무기와 전투기술기재, 진지의 위력과 훌륭한 군사예술과 능란한 전법을 쓸줄 아는 능력을 최대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무력강화에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을 연구완성하며 그에 따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전법을 연구하고 완성하며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국방력의 성격, 혁명군대의 사명과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계급도, 정치적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의 국방력과 상비적인 혁명무력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어디까지나 자체를 보위하며 외래침략자로부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혁명군대는 무엇보다먼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전법을 연구하고 완성하며 무장장비를 현대화하여야 한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미제국주의침략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끊임없이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전법을 연구하고 완성하며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전법을 완성하며 무기를 현대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혁명무력건설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성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독창적인 자위의 사상이다. 그것은 적아간의 력량관계, 군대의 무장장비와 정치사상상태, 모든 전쟁경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것이며 대부대전과 소부대전, 정규전과 유격전, 산악전과 야간전 등 다양한 투쟁 형식과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환경에 생소한 침략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모조리 때려잡을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군사전략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자기 나라의 경제발전수준, 자연지리적환경 그리고 자기 민족의 체질에 맞게 무기를 현대화하며 현대적무기와 재래식무기를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구현한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현대전쟁에 대처하여 군사장비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군사기술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게 할뿐아니라 무장장비의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현대화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게 하는 천재적군사전략사상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 전쟁준비를 다그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어떤 뜻밖의 시각에 원쑤들이 쳐들어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할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마련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개편하며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고있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73폐지)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칠저히 무장시키며 국가의 군사적위력과 무장력의 전투적기능의 기초로 되는 후방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침으로서 전쟁승리의 항구적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정치사상적요인과 물질적요인 그리고 군사적요인들은 전쟁승리의 항구적요인들이다. 전쟁승리의 항구적요인가운데서 어느 요인을 근본요인으로 설정하는가 하는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방침의 혁명적본질은 정치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한다는데 있다.

전체 인민과 군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는것은 전쟁승리의 항구적요인을 튼튼히 마련하는데서 결정적담보로 된다. 전국을 요새화하고 인민경제를 전반적으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며 전쟁에 필요한 물자예비를 조성하고 중요한 군사행동지대를 잘 꾸리는 등 이 모든 방대하고 어려운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전체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조직화된 군중, 전쟁의 정의적성격과 전쟁의 목적,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인식한 인민대중은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튼튼히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최대한 발휘할수 있다. 사람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안일해이하며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사상독소에 물젖을 때에는 튼튼한 후방을 마련할수 없으며 이미 쟁취한 승리마저 말아먹을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안일해이한 현상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 사상독소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과 표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원쑤들이 덤벼들 때에는 맞받아나아가 싸우겠다는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온 나라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군사사상, 전략전술적방침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생기발랄하고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전투지대로, 전쟁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후방공급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으며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우리의 국방력은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어디까지나 방위적성격을 띤다는것을 밝히시면서 우리 인민은 누구를 먼저 다치며 하지 않지만 그 누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도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침략자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칠저히 소탕해버릴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문제를 혁명과 건설에서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혁명리론과 함께 로동계급의 혁명적군사 사상과 리론, 혁명무력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제기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전면적

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자위의 군사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자위적 군사 사상과 리론, 혁명무력건설과 국방건설 방침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혁명정세의 객관적요구와 함께 철저한 반제반미적립장,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립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국내외의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간의 력량관계, 혁명군대의 전략전술의 특성과 우월성, 침략군대의 전략전술의 모험성과 파산의 불가피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전쟁의 경험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이것으로 하여 수령께서 창시하신 자위적국방건설방침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신구식민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백과전서적군사교범으로 된다.

우리 당의 국방건설방침은 또한 군사문제해결의 원칙적이며 유일하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있으며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싸워이기려는 가장 철저한 반제적립장,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온갖 기회주의적군사리론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된다.

실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쟁과 현대전쟁에 대처한 국방건설의 위대한 자위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여기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방침, 방도 등 현시대가 제기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군사 사상과 리론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으며 그 보물고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 *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와 폐회사에서 자위적국방건설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며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폐회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이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께서 창시하신 천재적 군사 사상과 리론에 정통하는것이 중요하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전체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동시에 온 사회의 혁명화와 로동계급화를 더욱 촉진시키며 그들을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박정희괴뢰도당과 세계의 온갖 반동들을 극도로 미워하는 불타는 적개심으로, 원쑤들이 덤벼들 때에는 언제든지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우겠다는 전투적기백과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정치군사간부로 키울수 있으며 인

민군대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하고 훌륭한 군사예술과 능란한 전법을 쓸줄 아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할수 있다. 또한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만 현대전에 대처하여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고 총검의 숲을 이루게 하여 원쑤들이 언제 어느때 어떤 형태로 침략하여와도 모조리 때려잡을수 있으며 사회주의전취물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더 많은 물자예비를 마련하며 전시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물질적준비를 더 잘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쟁취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전시에 필요한 물자예비를 충분히 마련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요구되는 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미 마련한 군수공업의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여러가지 군수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며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개편하고 전시에도 군수품생산과 함께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중공업제품, 소비품, 농산물 등을 중단없이 생산할수 있도록 그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국방에서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을 더 잘 관철할수 있으며 어떤 불의의 사태에 처하더라도 당황함이 없이 적들을 주동적으로 때려부실수 있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방건설에서 각급 당위원회의 역할 특히 군대와 로농적위대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국방건설에서 각급 당위원회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자위적국방건설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만 군대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정치적 문제들을 다 해당단위의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에 따라 일하는 사업체계를 세울수 있으며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로농적위대와 붉은 청년근위대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만 그 대렬을 튼튼히 꾸릴수 있고 그들속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군사정치훈련을 강화할수 있으며 전투준비와 지휘체계를 더욱 완성할수 있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며 전당과 인민이 달라붙어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이 모든 방대하고 어려운 사업도 오직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만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위적국방건설방침의 진수를 보다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지방공업의 보다 급속한 발전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절박한 요구

장 명 금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지난해 2월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의 강령적교시를 주신 때로부터 한해가 지나갔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올해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환경속에서 수령께서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교시 한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수령께서는 강령적인 교시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대규모의 중앙경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특히 지방의 예비와 대중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촉진시킬것을 다시금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대규모의 중앙경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관철하여 이룩한 거대한 성과와 빛나는 업적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6개년계획기간에 인민소비품생산분야앞에 나서는 새로운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7개년계획기간에 새로운 현대적중앙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중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방공업의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무르익히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대한 위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첫날부터 현대적경공업기지를 창설하시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의 매 단계마다에서 지방공업발전에 세심한 지도와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전후 사회주의기초건설이 급속히 진척되고 인민생활이 빨리 향상됨에 따라 절실한 문제로 나섰던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

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58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공업의 경제기술적특성과 우리 나라 경공업의 구체적실정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대규모중앙경공업에 병행하여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고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공업의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1958년 6월전원회의이후 우리 나라 지방공업은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으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전국도처에 지방산업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되였으며 더욱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면서 우리 나라 인민소비품생산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수행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우리 나라 지방공업발전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에 기초하시여 지방공업을 더욱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지난해 우리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여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을 비롯한 1,760여개의 현대적지방산업공장들을 또다시 일떠세우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중앙경공업과 함께 전체 소비품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방공업이 창설되였으며 한해동안에 무려 4억메터이상의 질좋은 천을 생산할수 있는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하여 모든 경공업생산부문들이 다 갖추어졌으며 옷감으로부터 문화용품에 이르기까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만일 우리가 지난 기간 천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지 않았더라면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없었을것이며 오늘과 같은 소비품생산의 거대한 장성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었을것이다.

이 모든 성과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대규모중앙경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의 정당성과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특히 지난해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신 대규모중앙경공업에 병행하여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 지방공업발전이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가지는 의의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을 짧은 기간에 중공업에 따라세우기 위하여서는 중앙경공업만 발전시켜가지고는 안됩니다. 중앙경공업만 발전시켜 소비품생산을 추켜세우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령님의 이 교시는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방의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임으로써 경공업은 물론 전반적인

민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당 제5차대회에서 6개년계획기간 소비품생산분야앞에 제시하신 과업은 실로 방대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전망계획기간 사회주의공업화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도록 하는 한편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에서 달성하여야 할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이에 따라 인민소비품생산분야에서는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5억～6억메터의 천과 수천만켤레의 신발을 비롯하여 방대한 량의 여러가지 일용품과 식료가공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비품의 값을 30%이상 낮추고 특히 대중소비품의 값을 50%이상 낮추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월평균로임수준을 90원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몇해어간에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자면 중앙경공업만 발전시켜가지고는 안된다.

원래 소비품생산은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널려있는 여러가지 원료를 리용하여 가공하며 모든 지방의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중앙공업만 가지고는 이러한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없다. 원료산지에 접근하고 소비지와 직접 련결되여있는 지방공업을 발전시켜야 지방에 숨어있는 많은 원료와 자재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늘어나는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지방산업공장들은 돈을 적게 들이고도 짧은 기간에 많이 건설할수 있으며 생산을 빨리 시작할수 있다.

그러므로 6개년계획기간 인민소비품생산분야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이 부문에서 보다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앙공업의 위력을 충분히 리용하는 한편 지방의 창발성,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그래야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에 상응하게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현시기 지방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것은 6개년계획기간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더욱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지방공업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가일층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원래의 계획보다 더 빨리 향상시킬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큰 투자없이 지방의 유휴 원료와 자재, 유휴로력을 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을 거대한 규모로 빨리 늘이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할뿐아니라 나라의 축적을 급격히 장성시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과 대규모중앙경공업,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발전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중소규모지방산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소비와 축적을 다 같이 증대시키며 인민경제부문간,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설정하면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게 하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데 대한 과업을 예견된 기간보다 훨씬 앞당겨 수행할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현시기 지방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는것은 6개년계획의 기본방향으로 되는 3대기술혁명의 수행 특히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력사적인 경제건설강령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7페지)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된 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기술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특히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의 과업은 봉건적, 자본주의적 압박에서 영원히 벗어난 우리 나라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훌륭한 일군으로 만드는 길, 사회주의하에서 녀성해방의 종국적실현을 위한 뚜렷한 길을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준 창조적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비품생산부문이 빨리 발전되여야 녀성들을 부엌에서 해방하는 과업도 실현할수 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그들을 모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훌륭한 일군으로, 혁명가로 키울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질좋고 다양한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여러가지 부식물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물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한다면 녀성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매우 간편하게 할것이다. 이와 함께 일용품공업을 발전시켜 가정용 랭동고와 세탁기, 전기가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면 녀성들이 시간을 얼마들이지 않고도 부엌일과 가정일을 할수 있게 되며 앞으로 밥까지 공장에서 지어 공급하게 된다면 녀성들을 부엌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을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에서 지방공업이 놀아야 할 역할은 실로 크며 중대한것이다.

현시기 지방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6개년계획기간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며 특히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4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지방산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것이 나라의 모든 지방을 고르게 발전시키는데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전망계획기간에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앨데 대한 거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지방공업은 바로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산업공장들은 주로 지방원료로 소비품을 생산하여 군내의 농촌에 공급하는 동시에 도시에도 공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여러가지 농산물과 부업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고 농업생산과 농촌부업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게 된다. 그것은 특히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과 생산문화,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며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 영향을 주는데서 큰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방공업의 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을 강화하고 공급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더욱 높이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 그리고 기술, 문화, 사상 령역에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빨리 없애며 나라의 모든 지방, 모든 군들을 다같이 발전하게 하고 로동자나 농민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다같이 높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앞당기게 할것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방산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것은 공장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었던 농촌지대에까지 사회주의공업의 기지를 창설하고 로동계급의 진지를 더욱 확대강화하게 한다. 이것은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사회주의 공업의 지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전반적경제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물질적조건을 성과적으로 마련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시, 군 소재지에 거주하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부양가족을 널리 생산에 인입함으로써 그들을 로동계급으로 만들며 지방산업공장로동자들을 통하여 농민대중속에 정치적영향을 직접 줄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많이 조성한다. 그리하여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더욱 촉진하게 할것이다.

현시기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직접 맞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냥이 같은 원수들이 우리를 침공할 기회를 늘 노리고있다는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우와 같은 책, 34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도처에 지방산업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발전시켜야 전시에도 능히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이 모든것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대규모중앙경공업에 병행하여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과 방침이 경공업의 자체발전에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 전반을 촉진하는데서 지방공업발전이 가지는 거대한 전략적의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지방공업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

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내놓으신 위대한 사상이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더욱 앞당기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라는것을 힘있게 실증하고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대규모중앙경공업에 병행하여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과거 사회에서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할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력사상 처음으로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풍부화하는데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이 혁명적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지방공업발전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인민경제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앙양시키며 우리 당과 인민의 새로운 전투적강령,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지방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빨리 추켜세우는것은 올해에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여 지난해에 새로 일떠선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은을 내게 하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령님의 이 교시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특히 지방공업발전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현시기 지방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무엇보다도 지금 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이 다 은을 내게 하는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먼저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 설비를 빈틈없이 놓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일군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이 지방공업을 창설한 본의에 맞게 지방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래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 지난 기간 수많이 건설된 지방산업공장들이 다 은을 내게 할수 있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높은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이 부문 일군들이 질좋은 소비품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게 하는것이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진심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며는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서 하나하나의 제품생산에 정성을 쏟아붓는다면 모든 소비품의 질을 짧은 시일안에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을것이다.

수출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것은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전문수출품공장

도 더 늘이고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서 한가지이상의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며 온갖 원천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더 많은 외화를 벌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소비품의 질을 국제적수준에로 높일수 있으며 더 많은 외화를 얻어 현대적설비들과 원자재들도 더 많이 사올수 있으며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이 부문 일군들이 짜고들어 본보기공장들을 부문별로 하나씩 잘 꾸리고 그 모범을 일반화한다면 지방산업공장들을 짧은 기간에 경제기술적으로나, 위생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울수 있으며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을것이다.

현시기 지방산업공장들이 다 은을 내게 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특히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방공업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이 교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지방공업의 현실적요구와 지방공업이 인민소비품생산과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노는 커다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지방공업지도체계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특히 도인민위원회 지방산업관리국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지방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해당 성, 경제기관들이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그에 알맞는 생산과제를 주며 될수록 생산지표를 고정시켜 모든 공장들에서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도 질좋은 소비품을 생산하도록 지도와 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규격과 가격을 제때에 똑바로 제정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체에서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를 잘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여주며 지방공업발전에서 지방의 창발성이 최대한으로 발양되도록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지방공업을 잘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또한 지방공업발전에 상응하게 이 부문의 기술일군들과 관리일군들의 대렬을 꾸려야 한다. 그러자면 더 많은 일군들을 키워내는것과 함께 지금 지방산업공장들에 있는 기술자들과 고급기능공들을 고착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지방산업공장에 보내주는것이 필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지방공업을 적극 지원하는것이 또한 인민소비품생산을 혁신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 과업은 이 부문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풀기 힘든 매우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며 오직 전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 전사회적인 지원을 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습니다.》

지방공업에 대한 전국가적, 전사회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도를 가르쳐주고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전체 인민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며 따라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지방공업을 적극 지원하는것은 마땅한 의무로 된다.

무엇보다먼저 중공업부문에서 지방공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지방공업을 위한 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줌으로써 지방공업이 자체로 식료 및 일용품 공장들의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소비품생산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단능설비들과 부속품들을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큰 공장들에서는 쓰지 않고있는 기계설비들을 동원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해당 성, 국들과 과학연구기관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힘있게 지원하며 필요한 금속공장, 화학원료직장, 지방건재생산기지들을 잘 꾸려주며 기술력량을 동원하여 기술적방조를 적극 주는것이 필요하다. 운수부문에서도 지방공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이 다 은을 내게 하는것과 함께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하여 새로운 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결심하고 달라붙어 군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한다면 지방산업공장들을 새로 꾸리는데 필요한 로력, 설비, 원료들은 지방자체로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 유휴 로력과 원료, 자재, 설비를 동원하여 새로운 지방산업공장들을 널리 건설하며 인민들이 요구하는 제품이라면 무엇이나 더 많이 만들며 그 가지수를 적극 늘여야 한다. 제지공장, 신발공장, 전등알공장, 연필공장, 유리병공장을 비롯하여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여러곳에 많이 내오는것은 소비품의 량을 늘이기 위해서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며 군사전략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모든 군들에 과일 및 남새 가공공장, 고기 및 물고기 가공공장을 빨리 꾸며 철을 따라 많이 생산되는 여러가지 식료품을 제때에 가공하며 지방의 원료를 리용하여 일용품공장들도 계속 많이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부문앞에 나선 이 방대하고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지방공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특히는 지방공업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들을 체계적으로 더욱 깊이 학습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지방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서와 같이 대안체계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의 지혜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지방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있는 로력과 설비,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며 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

모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계속 높임으로써 수령께서 지방공업부문앞에 주신 영예로운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며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남조선괴뢰악당의 매국배족적정체

로 금 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와 현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4페지)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박정희괴뢰악당을 타도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를 쓸어버리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요구로 나선다.

미제와 그 괴뢰도당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여야 하며 미제국주의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고있는 박정희와 같은 매국노들을 타도하여야 한다.

박정희괴뢰악당은 미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충실한 번견이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미제의 극악무도한 하수인이며 식민지통치의 추악한 도구로 복무하는 졸개의 무리들이다.

그러므로 미제의 충실한 주구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적정체를 철저히 폭로하고 놈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 *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악당이 괴뢰정권을 타고앉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10년동안 저지른 범죄행위는 미제의 흉악한 신식민주의적통치의 본성과 미제의 부추김을 받는 괴뢰들의 매국배족적정체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흉악무도한 괴뢰인 박정희악당의 매국배족적정체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으며 동족상쟁의 전쟁도발에 미쳐날뛰며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남조선경제와 인민생활을 파멸에로 몰아넣고있는데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제의 손때묻은 주구인 박정희도당은 무엇보다도 제놈들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민족적리익을 짓밟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나서고있는 민족반역자의 무리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충실한 앞잡이인 남조선의 괴뢰도당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조국을 통일하려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민족적숙원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5페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분렬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자기들에게 들씌워지고있는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결코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절실히 깨달았다. 전후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으며 4월인민봉기를 계기로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영웅적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섰다. 이리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게 되고 조국통일의 기운은 더욱 높아가고있었다.

박정희괴뢰악당은 바로 이 성숙되여가는 자주통일기운을 가로막기 위하여 미제상전의 부추김을 받아 괴뢰정권을 가로챈 군사깡패로서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직접 집행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대하여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 감행하고있는 극악한 민족반역자이다.

박정희괴뢰악당은 남북반부의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을 한사코 반대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민족반역행위를 아무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이 반역도당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세울데 대한 방안,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나서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안, 남북조선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무력을 축소할데 대한 제안,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조치로서 편지거래와 인사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제의 등 조국통일과 그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덮어놓고 반대하면서 남조선에서 평화적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바로 평화적조국통일을 주장하였다 하여 남조선에서 진보당, 사회대중당과 같은 민주주의적정당들이 해산당하고 그 지도자들이 검거, 투옥, 학살되였으며 수많은 언론출판기관들이 폐쇄되고 애국적인민들이 류혈적폭압의 대상으로 되였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박정희매국도당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승공통일》이니, 《유엔감시하의 선거》니 하는 망발을 념불처럼 되뇌이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떠벌이는 《승공통일》이란 하늘의 별따기를 꿈꾸는 자들의 가소로운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모두 공산주의사상을 접수하고 그 기치밑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자기들의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고있는 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나라를 통일하겠다는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자는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것이다. 또한 놈들이 떠벌이고있는 《유엔감시하의 선거》란 사실에 있어서 전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손에 내맡기자는 술책밖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의 간판을 들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25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침략적인 전쟁정책을 다그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실현에 각종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요즘 박정희괴뢰도당이 새삼스럽게 떠들어대고있는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허위적인 정치적모략선전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말만하여도 《국시위반》이라고 날뛰며 총칼을 휘두르고있는 매국노가 갑자기 《평화통일구

상》이라는 넉두리를 늘어놓은것부터가 뻰뻰스럽고 가증스럽기 짝이없는 일이다. 박정희도당의 넉두리는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평화통일지향을 무마하고 제놈들의 천추에 용서못할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우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는것이다.

모든 사실은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매국노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역적정체를 명백히 보여주고있으며 이놈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도저히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여지없이 확증하여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현대의 가장 흉악한 야만이며 우리 인민의 100여년의 피맺힌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채 내맡긴 매국노로서 력대괴뢰들중에서도 가장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만고역적이다. 박정희역도는 조국과 민족을 등지고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려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놈들에게 남조선을 송두리채 팔아넘기는 죄행을 본업으로 삼아왔다.

이 반역도당은 괴뢰정권을 가로채고 들어앉기가 바쁘게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체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사이의 모든 매국적《조약》과 《협정》들을 충실히 집행할것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을 더욱 철저히 미제의 식민지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매국 《조약》들과 《협정》들을 개악 또는 새로 조작해냈다.

매국역도놈들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과 미제의 무제한한 략탈행위를 감싸준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더욱 로골적으로 개악하였으며 지어는 미제침략군의 치외법권적지위를 규정한 《한미행정협정》까지 꾸며냄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거침없이 략탈과 야수적살인만행을 감행할수 있는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하였다.

뿐만아니라 외래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조작해냈던 종래의 모든 악법들을 《단일화》하여 《외자도입법》이라는 류례없는 악법을 꾸며냈다. 그리하여 형식적이나마 규정하여놓았던 외래자본에 대한 제한조치마저 철폐하고 외국독점자본가들의 자본투하의 무제한한 《자유》와 최대한의 리윤획득을 허용하였다.

박정희역도들은 《합영기업》이니, 《합작투자》니 하는 각종 명색밑에 광산, 철도, 운수, 체신, 은행 등 남조선의 모든 경제적 리권과 자원을 외래독점자본에게 깡그리 팔아먹었으며 남조선경제의 기본명맥을 미제침략자들이 더욱 철저히 거머쥐도록 보장하였다. 오늘 남조선공업이 중요한 원자재의 80∼100%를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돌아갈수 없게 되고 더욱더 외래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되게 된것은 바로 박정희괴뢰악당의 이러한 매국배족행위때문이다.

박정희괴뢰악당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것으로도 부족하여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여 남조선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만들고있는 만고역적이다.

박정희매국역적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를 《돌격대》로 내세워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침략적지반을 지탱해보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복무하면서 《정권》에 들어앉은 첫날부터 일본군국주의와의 군사, 정치, 경제적 결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놈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에 미쳐날뛰였다. 이 악당은 남조선의 력대괴뢰들도 감히 성사시키지 못하였던 《한일회담》을 타결하기 위하여 《제2의 리완용》이가 되더라도, 《역적의 소리를 듣더라도 이것만은 꼭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해나서면서 끝내 《한일협정》을 조작해내는 천추에 용서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역도가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일치한 배격을 무릅쓰고 조작해낸 《한일협정》은 지난 시기근 반세기동안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고 착취략탈하여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피맺힌 원쑤 일본군국주의의 식민지통치의 죄악을 감싸주는 매국배족의 《협정》이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던져주는 몇푼안되는 《대일청구권》자금마저도 과거 죄악에 대한 배상금으로서가 아니라 《경제협력》을 위한 《원조》와 《차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남조선어장까지 놈들에게 넘겨준 굴욕적인 《협정》이며 군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의 길을 열어준 범죄적《협정》이다.

사실상 남조선은 《한일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급속히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되는 길을 밟게 되였다. 이것은 바로 박정희역도가 미제침략정책의 가장 충실한 집행자로서 상전의 리익과 제놈들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민족의 그 어떤 극악한 원쑤와도 서슴없이 결탁하며 끌어들이는 철저한 매국노라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남조선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팔아먹고있는 만고역적 박정희괴뢰악당은 또한 미제의 새 전쟁도발정책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는데 미쳐날뛰고있는 악랄한 범죄자이다.

오늘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칠성판에 오른 제놈들의 운명을 구원해보려고 망상하면서 아세아에 침략의 창끝을 돌리고있으며 특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미친듯이 강화하고있다.

박정희매국역도들은 《정권》에 기여든 첫날부터 미제의 이러한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갖은 범죄적책동을 다 감행하여왔다.

미제의 으뜸가는 전쟁머슴군으로 발벗고 나서고있는 박정희매국역도는 미제의 그 어느 추종국가들보다도 선참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병력을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남부웰남침략전쟁터에 밀어넣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아세아괴뢰들의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음모책동에 그 어느 주구보다도 더 열을 올려 참여하고있다.

특히 박정희매국역적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나발에 발맞추어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놈들에게 내맡기고있으며 미제의 지령에 따라 전쟁준비를 더욱더 다그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최근년간에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지시에 따라 괴뢰군병력을 늘이기 위하여 새로운 전투부대를 편성하고 예비사단을 전투사단으로 개편하고있으며 예비역을 현역으로 끌어들이고있다. 뿐만아니라 괴뢰군제대자들을 중심으로 《향토예비군》을 조작하여 거기에 200여만의 청장년을 강제로 끌어들이고 군사훈련을 강요하고있으며 그 무장화를 서두르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지령에 따라 괴뢰군장비를 현대화하며 군사기지들과 군사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고있으며 지어 제주도를 일본의 오끼나와대신 미제의 전략적핵기지로 내맡기려는 용납못할 범죄적책동까지 감행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동원태세》를 강화하고 실전에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군사도발과 무장공격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박정희역도는 미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적수요를 현지조달하며 미제의 군사전략적기지로서의 남조선의 군사적잠재력을 늘이기 위하여 이른바 《근대화》의 미명밑에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하

고 남조선의 모든 자원을 털어내여 군사적의의를 가지는 부문들을 발전시키기에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의 전쟁정책과 그를 충실히 집행하고있는 박정희매국역적의 죄행으로 하여 남조선은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되고 모든것이 전쟁정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대 병영으로, 새 전쟁 도발을 위한 현병장으로 전변되였고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박정희괴뢰악당은 또한 남조선 경제와 인민생활을 파멸에로 몰아넣고있는 극악한 범죄자이며 남조선인민들에게 악랄한 파쑈테로통치의 올가미를 들씌우고있는 포악한 교형리이다.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경제의 군사화와 그를 뒤받침하기 위한 외래독점자본의 급격한 침투는 남조선경제의 전면적파산과 예속을 더 한층 심화시켰고 인민생활을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었다.

박정희역적이 괴뢰정권을 타고앉은이래 남조선공업은 더욱 전면적으로 파괴되였다. 오늘 남조선의 공업생산수준은 1945년 당시의 85%수준에 머무르고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1968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중요 공업생산지수는 70%로 떨어졌다. 농촌경리도 혹심하게 파탄되였다. 알곡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1968년에는 1936~1940년간의 년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절반밖에 안되는 230만~250만톤에 불과하며 지난해에는 폐농상태에 이르렀던 1969년보다 더 혹심하게 황폐화되였다. 남조선에서 곡물의 대외의존도는 1950~1959년간의 년평균 17%로부터 오늘은 30~40%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어제날의 곡창지대였던 남조선은 완전히 만성적인 기근지대로 전락되었다.

날로 강화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의하여 해마다 엄청나게 불어나는 군사비를 메우기 위하여 박정희매국역적놈은 인민들에 대한 조세수탈을 미친듯이 강화하였다. 놈들은 1961~1969년간에 무려 8,300여억원에 달하는 조세를 수탈하였는데 이것은 1949~1960년간의 조세수탈총액의 8배를 훨씬 넘는 방대한 수자이다. 그밖에도 각종 《공채》의 발행, 지폐의 란발, 공공료금의 인상 등 재정체계를 통한 수탈과 부등가교환을 통한 수탈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극도로 령락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그들을 령락시킬대로 령락시켰을뿐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족을 외국에 노예로 팔아넘기는 죄행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놈들은 괴뢰정권을 가로챈 첫날부터 이른바 《인력수출》이란 매국적구호를 내걸고 남조선인민들을 외국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의 종신노예로 팔아넘기는 천추에 용서못할 죄악을 계통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참을수 없는 민족적 모욕과 멸시를 받고있으며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수 없는 끝없는 불안속에서 살고있다.

박정희괴뢰악당은 전례없이 횡포하고 야만적인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고 그들을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횡행하는 생지옥속에 몰아넣었다.

이 악당들은 남조선전역을 살벌한 군사, 경찰, 정보, 특무 망으로 뒤덮어놓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체포투옥학살하고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이 매국역적들은 날로 장성강화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막아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면서 통일혁명당《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에 관련시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잔인무도하게 학살처형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손때묻은 가장 추악한 2중주구이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만고역적이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교살하며 인민탄압과 살인만행에 날뛰는 극악한 교형리로서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계급적원쑤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　　*

오늘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저지르고있는 범죄행위는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박정희괴뢰악당의 매국적, 예속적, 반인민적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필연적산물이다.

미제의 조종밑에 총칼로 괴뢰정권을 가로챈 박정희악당의 매국배족적죄행은 무엇보다도 괴뢰정권의 철저한 매국적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응당한 귀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괴뢰정권에 들어앉아있는 현위정자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자들도 그의 모든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날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남조선의 현통치배들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이나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피어린 투쟁을 하고있을 때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으며 반일투쟁에 나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는 상전을 바꾸어 미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였으며 바로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강도적인 수법으로 〈정권〉을 가로챈 군사깡패들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6~77페지)

현남조선괴뢰정권에 들어앉아있는 박정희악당은 남조선의 모든 력대괴뢰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매국노이며 민족반역자들이다.

특히 박정희놈은 친일배족의 족속에서 생겨난 천성적인 매국노이며 살인, 강도, 사기협잡 등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진 군사깡패이다.

박정희역적놈은 갑오농민전쟁 때 투쟁에 떨쳐나선 농민들을 피바다에 잠근 피비린내나는 봉건교형리를 애비로 하여 생겨났으며 그후 미제의 고용특무면을 녀편네로 정하였으며 《한일합병》을 성사시키는 《공로자》였고 일제의 조선침략원흉의 한놈인 이또히로부미로부터 추천을 받아 일본황족과 귀족의 자식들을 교육하던 《가꾸슈잉》(학습원)에서 잔뼈가 굳은 친일주구놈을 가시애비로 섬기였다.

극악한 반역자의 피줄을 타고난 박정희역도는 어려서부터 친일주구의 길에 발을 들여놓고 《혈서지원》으로 일제의 대륙침략의 앞잡이를 기르는 《만주국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거기에서 일제《천황》에 대한 《충성》의 《모범》으로 하여 다시 일본 《륙군사관학교》에 편입되였으며 그후 《황군》장교로 선발되자마자부터 피에 주린 살인마로 행동하였다. 이 역적놈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는 15성상의 간고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을 때 일제가 쥐여준 총칼을 휘두르면서 애국자들에 대한 《토벌》작전에 무려 110여차나 참가하여 민가들과 마을에 불을 지르고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잔악한 역적놈은 8.15후 재빨리 미제의 충실한 주구로, 특무로 변신하였으며 미제가 쥐여준 총칼로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학살한 살인귀이다. 미제의 고용특무로서의 박정희놈의 본색은 특히 1948년 10월에 려수, 순천군인폭동시에 애국적군인들을 내랍밀고하여 학살하는 《특출한 공로》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박정희는 당시 괴뢰륙군

참모총장이란놈이 미군사고문단장 로버트에게 《박정희가 아니였더라면 려수, 순천 반란사건은 그 귀추가 어떻게 되였을지 모른다.》고까지 보고할 정도로 극악한 주구로서의 뛰여난 솜씨를 인정받게 되였다. 교활한 박정희놈은 이것을 출세의 좋은 기회로 삼고 계속 미제의 고용특무로서의 《충성》을 다하여 마침내 미제의 부추김으로 야밤삼경에 한강다리를 건너와 괴뢰정권을 가로챘던 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극악한 매국배족행위는 이와 같이 그 놈이 피줄을 타고나고 잔뼈가 굳어질 때부터 배운 천성적인 매국과 역적 행세의 연장이다.

다음으로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의 죄행은 괴뢰정권의 철저한 식민지적, 예속적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이른바 〈정권〉은 철두철미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인 〈정권〉입니다.》(우와 같은 책, 77페지)

《…이 〈정권〉은 하나로부터 열까지 모두 미국강점자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며 그들의 전쟁정책을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것을 송두리채 내맡기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8페지)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에 의하여 조작되고 미제의 총검과 딸라에 의해서 유지되며 미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철두철미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인 《정권》이다.

8.15후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은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제놈들의 《군정》을 선포하였으며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미제는 《군정》이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치게 되자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미군정청》간판을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로 바꾸어달았던것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괴뢰정권은 우리 인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작되였으며 따라서 이 《정권》은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이다.

사실상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군사적강점을 《합법화》하고 그 식민지통치를 가리우는 병풍으로 존재하여왔으며 놈들의 침략전쟁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로 복무하여왔을뿐이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는 남조선에 대하여 일관하게 그를 식민지예속화하며 아세아침략의 군사전략적교두보로,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적부속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미제의 침략적본성이 변할수 없는것과 같이 놈들의 반동적정책의 본질도 결코 변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국제개발처》, 《주한미공보원》, 《주한미군사령부》 등 현지지배기구들을 배치하여놓고 남조선괴뢰정권과 그 주구들을 직접 장악통제하고있다. 따라서 남조선괴뢰정권에는 오직 미제의 충실한 주구만이 들어앉게 되며 괴뢰정권에 들어앉은 놈은 아무런 독자성도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만들어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손때묻은 주구인 박정희악당의 이른바 《정책》에서 나올것이란 오직 나라를 팔고 민족을 배반하는 범죄행위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있을수 없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죄행은 또한 괴뢰정권의 철저한 반인민적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괴뢰정권의 반인민적성격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

는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라는 사실도 더는 숨길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이른바 <정책>은 모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안일과 향락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인민들을 략탈하고 착취하는데 돌려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8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인민의 원쑤들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앞잡이들이다.

매국배족은 력사적으로 착취계급에게 고유한 속성이였다. 오늘의 남조선의 지주, 예속자본가는 미제의 부추김으로 제놈들의 안락과 영화를 누리게 되였고 미제의 비호를 떠나서는 한시도 명줄을 이어갈수 없는 무리들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반동계급은 미제에 나라를 팔아먹고 놈들에게 아부굴종하는데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박정희괴뢰악당의 매국배족《정책》은 남조선의 지주, 예속자본가 등 반동계급의 매국적본성과 배족적지향을 반영한것이며 놈들의 계급적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정체는 놈들의 사회정치적, 계급적 바탕에 기초한것이다.

남조선혁명의 승리,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는것과 함께 우리 인민의 극악한 계급적원쑤인 박정희괴뢰악당을 타도하여야만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탁월한 영재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에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이란 생각할수 없다.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현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진보적세력들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전개하고 있는 당면한 모든 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악당을 타도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게 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반부의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순조롭게 실현될것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싸워나아가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반드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박정희괴뢰악당을 타도하고야말것이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투쟁전략

고 송 일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현국제정세의 중요한 특징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국제무대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현시기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히 벌려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강조하시고 특히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을 좌절시킬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투쟁방도들에 대하여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한 탁월한 전략적방침들은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짓부시고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이 굳게 단합하여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0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할데 대한 위대한 전략적방침이 구현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전투적단결을 강화하여 미제에 집단적반격을 가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그이께서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고계시는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적원칙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는것을 이미 명백하게 가르쳐주시였으며 그것을 우리 당의 반미투쟁에서 중요한 전략적방침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의 반제력량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이루고 공동으로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다.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바로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제를 타승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반미

투쟁전략의 중요한 한 고리로 된다.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이 전투적단결을 강화하여 미제에 집단적타격을 가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전략적방침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더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은 아세아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하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으며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들을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흉악한 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이와 같은 악랄한 침략정책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아세아지역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웰남과 인도지나전역에서 범죄적침략전쟁을 강화하고있을뿐아니라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혈안이 되고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다. 한편 놈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재생재무장시켜 조선과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는데로 끌어들이고있으며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을 비롯하여 대만의 장개석도당, 남부웰남의 티우―키도당, 캄보쟈의 론놀―시리크마타크도당을 적극 부추겨 동족상쟁의 범죄의 길로 내몰고있다.

현실은 미제의 악랄하고 교활한 《새 아세아정책》에 대처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며 단합된 힘으로 미제에 공동으로 타격을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은 오늘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습니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 있는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조성된 정세의 필연적요구이며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공동전선을 펴고 미제에 집단적타격을 가함으로써만 놈들의 흉악한 각개격파전략을 힘있게 짓부셔버릴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오늘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혁명적나라들은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 있으며 이 나라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짓부시고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하며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공동의 적을 때려부시고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으며 그들속에서는 반미투쟁의 기치밑에 더욱 굳게 단합하여 미제에 집단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지향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이 지역에서 반제반미혁명력량을 더욱 위력한것으로 되게 하며 반미투쟁에서 불패의 힘을 낳게 한다.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

에 굳게 결합되여 미제에 공동으로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한다면 놈들은 남조선과 대만에서, 남부윁남과 라오스, 캄보쟈에서 그리고 미제침략자들이 발붙이고있는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배겨내지 못할것이며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침략책동은 파탄되고야말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 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이와 같이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과 이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조성된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아세아혁명적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인 전략적방침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이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또한 오랜 기간의 반제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아세아나라인민들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전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아세아에서 미제침략자들을 힘있게 때려부시게 하는 탁월한 전략적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세아나라인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함께 싸워이긴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웠고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웠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조성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이웃나라 공산주의자들과 광범한 반일력량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위대한 혁명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국제적으로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운동을 벌리는데서 선구자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혁명투쟁에서 국제혁명력량의 단결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실제적인 투쟁을 통하여 중국인민과의 광범한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시였으며 그것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심으로써 일제침략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적인민들로 하여금 우세한 힘으로 놈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시하시고 몸소 빛나게 실현하신 반제공동전선의 탁월한 전략적방침은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우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함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반제공동투쟁의 빛나는 전통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도 훌륭히 발휘되였다. 두 나라 인민들은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어깨걸고 함께 싸워 놈들의 코대를 꺾어놓고 미제침략자들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인도지나인민들도 프랑스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오랜 기간 함께 싸워 승리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다.

아세아혁명적나라들의 반제투쟁의 력사적과정은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떨쳐나선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이 무비의 힘을 낳으며 반제공동전선에 굳게 단합된 혁명적인민들의 위대한 력량앞에서는 그 어떠한 흉악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패배를 면치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속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강화발전시킴으로써 미제의 지

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미제의 악랄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힘있게 분쇄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전략적방침이다.

오늘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많은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더욱 굳게 결합되고있으며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이 위대한 력량앞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이 전면적으로 파탄되여가고있는 현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탁월한 전략적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밝히시면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전략적방침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을 좌절시키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매우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01페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입니다.》(우와 같은 책, 103페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은 현시기 미제의 아세아전략과 미일간의 호상관계,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책동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우고있으며 미제의 부추김밑에 급속히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는 대가로 저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아세아에 대한 공통된 침략적야망으로 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반동적결탁은 더욱더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일본은 아세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전쟁의 온상으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아세아에서 또다시 새 전쟁의 길에 나서고있는 정세하에서 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수 없으며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힘있게 짓부셔버릴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재침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으로 되며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침략적결탁,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나 해외팽창의 길에 나서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침략적본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일치한 행동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야망을 꺾어버려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기대도 가질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04페지)

원래 생겨날 때부터 가장 강도적인 침략성과 야수적인 잔인성 그리고 비길데 없는 교활성을 가지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흉악한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그것은 어제날의 패망을 앙갚음하려는 복수심으로 하여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특히 오늘 일본반동지배층들은 지난날 아세아인민들앞에 저지른 피문은 죄악의 력사로 하여 아세아인민들속에서 의연히 강하게 살아있는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교활하게도 《평화》의 탈을 쓰고 제놈들을 아세아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면서 해외팽창의 길에 나서고있다.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침략적본성을 철저히 발가놓고 놈들의 재무장과 해외팽창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적인 미일결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켜야 한다.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정의의 투쟁에 일떠선 일본인민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견결히 벌려나아갈 때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은 파탄을 면치못할것이며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신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앞잡이로 충신히 복무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재침책동을 철저히 분쇄함으로써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며 일본군국주의를 《돌격대》로 내세워 아세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제의 악랄한 침략정책을 성과적으로 저지파탄시키게 하는 혁명적인 전략적방침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며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6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 미제에 공동으로 타격을 주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적방침이 구현되여 있다.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 그리고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힘있게 짓부시며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으며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미제가 발붙이고 있는 세계의 모든곳에서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미제의 각을 뜨면 놈들의 힘은 그만큼 분산약화될것이며 힘을 집중하여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미투쟁은 미제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당하고있으며 미제와 맞서 싸우고있는 조선과 웰남 그리고 인도지나 인민들을 비롯하여 싸우는 아세아인민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주며 아세아인민들의 반미투쟁의 승리를 더욱 촉진하여준다.

혁명하는 나라,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련대성을 강화하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미제의 각개격파전략에 혁명적인민들의 단결로써 대처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을 가는곳마다에서 손발을 얽어매놓음으로써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를 아세아에서 그리고 놈들의 침략의 마수가 뻗쳐있는 세계의 모든곳에서 때려눕힐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고

진공적인 전략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한 모든 전략적방침들은 현시기 아세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전반적인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탁월한 전략적방침들은 현시기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는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을 힘있게 짓부셔버리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더욱 앞당기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오늘 아세아는 국제적인 반제혁명투쟁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아세아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은 세계혁명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치렬한 투쟁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는것도 바로 이 지역에 혁명하는 나라들, 싸우는 나라들이 많고 이 지역에서 반제혁명운동이 치렬하게 벌어지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반이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는 사정과 관련됩니다.》(우와 같은 책, 9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거세찬 혁명적폭풍이 휘몰아치는 지대로 전변되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혁명전선의 전초지로 되고있다.

오래동안 식민지대륙으로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당하여온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전변을 가져왔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후 아세아에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이 출현하고 아세아의 수억만인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지반은 더욱더 축소되였으며 아세아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간의 력량관계는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는 더욱더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에는 더욱더 불리하게 변화되였다.

아세아의 반제혁명력량은 더욱 위력한것으로 되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폭풍은 막을수 없는 힘으로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실로 아세아는 혁명의 대륙, 투쟁의 대륙으로 물끓고있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에 의하여 아세아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종국적청산은 일정에 오르고있다.

세계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방대한 자연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아세아대륙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미제의 세계침략전략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있으며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전반적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를 때려엎을 때 세계적범위에서의 반제반미투쟁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될것이며 세계혁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국제혁명전선의 전초지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는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을 좌절시키는것은 세계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아세아인민들은 세계혁명앞에 나서고있는 이 어려운 과업을 담당하여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맞서 가장 치렬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는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투쟁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아세아인민들의 반제반미혁명투쟁의 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는 명백한 방도를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한 탁월한 전략적방침들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 치렬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과 미제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에게 무한한 고무를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에게 반제반미투쟁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고있다. 또한 이 전략적방침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및 모든 반동들을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게 함으로써 놈들을 커다란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전략적방침은 날이 갈수록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오늘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지지파탄시키며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다그쳐나아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마당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어떠한 제국주의세력도 아세아인민들을 정복할수 없으며 그들의 단결된 힘을 깨뜨릴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05페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반제반미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멸망하여가는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이 악랄한 침략책동에 매여달리면 달릴수록 놈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으며 혁명적인민들의 투쟁대렬은 더욱더 늘어가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이미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제놈들의 처지를 구원할수 없다.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위대한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더욱 굳게 단결하며 그들과 함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아세아와 세계 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때려엎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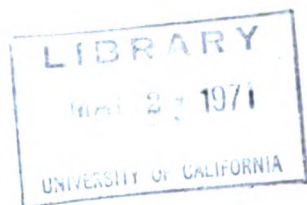
근로자 제2호 (루계 347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1년 2월 1일　　발 행 • 1971년 2월 5일

ㄱ—14037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3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348)

차 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새 단계와 3대기술혁명과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전면적으로 펼쳐주시면서 그 기본방향의 하나로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새로운 투쟁단계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강령적과업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인 투쟁구호이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을 더욱 명확히 밝혀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인력의 본질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고전적인 사상이다.

지금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의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실현하며 특히 그 돌파구를 여는 올해 계획수행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100일전투》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희천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열어놓으시였다. 희천지구에 대한 수령의 현지지도는 지난 5개년계획수행에서 강선에 대한 현지지도가 그러했던것처럼 또한 7개년계획수행에서 함흥지구에 대한 현지지도가 그러했던것처럼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실로 력사적인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수령께서 지펴올리신 새 기술혁신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고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다같이 현대적인 최신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고 그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숭고하고 보람찬 과업이다. 이것은 결국 힘든 로동을 헐하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로동으로 전변시키며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로 접근시키며 녀성들의 가정과 부엌일을 간편하게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헐하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그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들자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원리와 우리 나라 기술혁명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있는 강령적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4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기술혁명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로 규정하시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이 탁월한 정식화는 리윤추구의 수단으로, 가혹한 착취의 도구로 복무하는 자본주의적기술도입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의 본질과 사명을 뚜렷이 밝혀준것이다. 특히 이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이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구속에서 근로자들을 벗어나게 하는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명시한 고전적사상이다. 이것은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원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사상이며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한없이 높은 공산주의적 덕성이 반영되여있는 천재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천재적인 사상은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일관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도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원리를 반영하고있는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기술혁명은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혁명과업입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미 근로자들을 지주와 자본가의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하는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이것만으로는 안됩니다. 그와 함께 높은 생산력수준을 이룩하고 힘든 로동과 헐한 로동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0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순차적인 과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모든 인민을 온갖 사회적억압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다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행정에서 모든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사회적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 근로자들에게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온갖 착취와 억압 관계가 청산된 다음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사회에도 남아있는 계급적차이를 점차 없애는 한편 특히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이것은 과거 착취사회의 유물인 힘든 로동과 헐한 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나감으로써만 해결할수 있는 과업이다. 인간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령역인 로동에서의 이러저러한 차이들을 점차 없애나가야만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계급적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도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 사는 공산주의사회를 더빨리 실현할수 있다.

3대기술혁명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인 근로자들의 로동에서의 차이들을 없애나가는데 직접 이바지하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그것은 우선 모든 근로자들의 로동을 최신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육체로동에서의 차이들을 점차 극복할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조건을 조성할수 있게 한다. 육체로동에 남아있는 이러저러한 차이들은 모든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전반적으로 최신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만 없앨수 있는것이며 또한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도 모든 육체로동을 매우 헐하고 능률적인 로동으로 만드는 기초우에서만 점차 극복할수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3대기술혁명과업은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과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인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그들에게 더욱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원리로부터 제기되는 강령적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나서는 3대기술혁명을 사회주의적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새로운 혁명적로선으로, 투쟁구호로 규정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어떤 로선, 어떤 구호를 제기하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당이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새로운 력사적 조건과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옳은 투쟁로선을 제때에 제기하여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할수 있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된 위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경제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로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과학적인 로선이다. 그것은 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커다란 성과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는 로선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기술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로선이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 기술혁명수행에 앞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함으로써 기술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쌓으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닦아놓았다. 이에 의거하여 7개년계획기간에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면서 전면적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리 당은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전행정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견지하여왔다. 이 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며 기술혁명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당의 혁명적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공장들의 종합설비들도 마음대로 생산할수 있는 자립적인 기계제작공업이 창설되였으며 그를 핵심으로 하는 완비된 중공업기지가 닦아졌다. 또한 위력한 자체의 중공업기지에 의거하여 경공업, 농촌경리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장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어렵고 힘든 로동은 많이 덜어졌다.

3대기술혁명과업은 바로 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된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제기된 과업이다.

지난 시기까지 수행한 기술혁명과업도 다같이 결국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나 지난 시기까지에는 아직 육체로동분야에 남아있는 차이들을 훨씬 줄이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수 없었다.

식민지농업국가의 락후한 생산력을 물려받았고 그것마저 전쟁의 혹심한 피해를 입은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에 착수한 우리 나라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력사적과업을 수행하자면 우선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수천년동안의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인 육체로동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과업은 그에 상응한 물질기술적조건이 축성되는데 따라 점차적으로만 해결할수 있는것이다.

오늘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되여 경제와 기술의 세기적락후성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라서게 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육체로동분야에서 차이를 훨씬 줄이는 문제는 성숙된 과업으로 나서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이러한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당의 일관한 로선을 계속 견지하는 기초우에서 3대기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3대기술혁명로선은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제기된 혁명적로선이다.

3대기술혁명과업은 그 심도와 폭에 있어서 선행시기와 구별되는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이다.

이는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위력에 의거하여 최신 기술수단들과 생산공정들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널리 도입함으로써 힘들고 비능률적인 로동을 헐하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로동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혁명과업이다.

3대기술혁명은 또한 힘든 로동이 남아있는 모든 부문, 모든 공정을 포괄하는 기술혁명이며 생산부문뿐만아니라 인민들의 가정생활에서까지 기술문명을 활짝 꽃피우게 하는 혁명이다.

이 보람차고 위대한 혁명은 기술발전의 역할과 의의를 비상히 확대하며 그 효과성을 훨씬 높이게 한다.

육체로동분야에 남아있는 차이를 훨씬 줄이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3대기술혁명과업은 이와 같이 우리 나라 기술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이다.

뿐만아니라 3대기술혁명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절박한 요구들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려면 아직도 경제건설분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공업을 더 잘 정비하고 그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 마련된 현대적공업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39페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의 실현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상응하는 물질기술적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자립적체계가 선 우리의 현대적공업을 더 잘 정비하고 그 자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기술적진보를 끊임없이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수 있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바로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된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그것은 이미 창설된 현대적공업의 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기 위한 근본문제이다.

3대기술혁명은 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의 성과에 확고히 의거하여 아직 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 또는 공정들을 포함한 인민경제전반에서 현대적인 높은 기술을 반

아름이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 잘 완비하며 그 자립성을 더욱 높이는데도 적극 이바지한다.

이리하여 3대기술혁명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더 빨리 점령할데 대한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또한 기술혁명은 당면한 로력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서도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실업이 완전히 근절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부문들과 공장들이 일떠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늘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된다. 특히 새로운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을 수많이 창설하며 대자연개조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우리 나라에서 오늘 로력문제는 매우 긴장성을 띠고있다.

3대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면서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법칙적으로 제기되는 로력의 긴장성을 푸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특히 3대기술혁명은 주로 손로동과 낡은 기술이 비교적 많은 부문에서 기술적변혁을 일으키는 사업으로서 당면한 로력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로력예비를 가장 훌륭히 동원하는 적극적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이렇듯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본질적요구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강령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수행을 위한 구체적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서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시였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수행을 위한 여러 부문들의 중심과업과 방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 남아있는 힘든 로동의 구체적형태들과 근로자들의 각이한 로동조건, 인민경제 각 부문의 생산기술적특성과 도달된 기술수준 등에 대한 전면적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힘든 로동을 없애기 위한 중심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7페지)

공업, 기본건설, 운수 등 인민경제부문들에 남아있는 힘든 로동의 주되는 형태는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과 고열 및 유해 로동이며 그것을 없애는 기본방도는 기계화, 자동화를 널리 실현하며 생산공정을 기술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수령께서는 이미 우리 나라 공업에서의 기술발전의 기본내용과 그 수행방도를 명확히 규정하시고 지난 7개년계획기간에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인민경제 각 부문의 힘든 로동을 많이 줄일수 있게 하시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오늘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과 고열 및 유해 로동을 헐하고 안전하고 능

툴적인 로동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기계화수준이 아직 낮은 부문에서는 기계화를 빨리 완성하고 전반적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와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의 기술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채취공업, 기본건설 부문과 그리고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부문 등에 있는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과 흑색 및 유색 야금공업, 화학건재공업 등에 있는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각이한 조건의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하여 아직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이 그 어느 부문보다 많은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우선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6개년계획수행의 첫 돌파구로 되는 석탄공업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면서 광업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시하고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넘어가며 림업에서의 기계화, 수산업에서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 중심문제로 나선다. 또한 기본건설과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에서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고열로동부문에서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하고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도록 하며 유해로동부문에서 기술적개조를 다그쳐야 한다.

이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로동은 모두 헐하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로동으로 전변시켜 나가야 한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방침은 기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그 현실적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것으로서 기술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성과적으로 극복하는 가장 옳바른 길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부문에서 힘든 로동을 없애기 위한 중심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농촌로력을 많이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9페지)

농촌경리부문에서 힘든 로동을 없애는 기본방향은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로 접근시키는것이며 이것은 주로 기계화와 화학화를 통하여 실현된다.

수령께서는 일찌기 농촌기술혁명의 기본내용을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로 규정하시고 농촌기술혁명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천재적인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지난 기간 우리 나라 농촌기술혁명에서는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였으며 특히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로 접근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노는 기계화와 화학화에서도 획기적성과가 달성되였다.

수령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오늘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화학화의 범위를 더욱 넓혀 김매는 일을 화학의 힘으로 대신할수 있게 할것을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있는 농기계들을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능률적인 현대적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도입하는 한편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기초우에서 관수체계가 들어간 2모작밭들과 대리과를 하는 논들로부터 시작하여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

또한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살초제를 널리 리용하여 농촌에서 가장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하나인 김매기를 화학적방법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농업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조건에서도 가까운 앞날에 정보마다 투하되는 로력을 평균 논에서는 60~80공수, 밭에서는 20~30공수로 낮추어 한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8~10정보이상

다룰수 있도록 농업에서의 로동생산능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농민들의 로동을 더욱 헐하게 하고 농촌로력을 많이 절약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촌에서도 점차 8시간 로동제를 실시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기 위한 이상과 같은 방침은 농촌경리의 생산기술적특성과 농촌기술혁명의 의의와 역할, 우리 나라 공업토대의 위력과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농민들의 로동조건에서 결정적인 전변을 일으키며 농업생산을 전반적으로 공업화하는 력사적과업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의 무거운 가정적부담을 덜어줄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녀성들을 가정일에서 해방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혁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1페지)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는것은 인구의 절반을 힘든 로력적부담에서 해방하는 과업으로서 이는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없애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께서는 이 중대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료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시였다. 이 방침은 바로 녀성들의 무거운 가정적부담의 근원과 함께 우리 인민들의 현실적생활조건, 우리 나라 공업의 발전수준 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이다.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은 바로 인민들의 소비생활과 관련된것이며 이것은 경공업 특히는 식료가공 및 일용품 공업의 역할을 높임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따라서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부식물과 주식물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대대적으로 공급하는것이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또한 일용품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현대적인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녀성들이 가정일에 바치는 시간을 훨씬 줄이고 그들의 가정과 부엌 일을 헐하고 간편한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수령의 방침은 우리 인민들의 가정과 부엌 살림에까지 현대적기술문명을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들며 모든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이 혁명과 건설에 참가하여 자기의 재능과 지혜를 훌륭히 발휘할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것이다.

이와 같이 3대기술혁명에 관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휘황한 목표를 뚜렷이 밝혀주었을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과 방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가르쳐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은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새로운 투쟁단계에서 점령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명마루와 거기에로 나아가는 대로를 환히 밝혀준 천재적인 사상이다.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전반적과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강유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며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과학적공산주의 리론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발전풍부화

시킨 탁월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을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구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모든 기술혁명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면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들며 비능률적인 로동에서 해방되고 모두가 일을 안전하고 헐하게 하면서도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낼수 있게 될것이며 그들의 생활은 더욱 넉넉하여질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2페지)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에는 바로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하루빨리 해방하여 그들에게 더욱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의 위대한 구상과 우리 인민에 대한 한없이 크고 뜨거운 사랑이 일관되여있다. 또한 이 탁월한 방침은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 헐하게 일하면서도 더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과 지향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실로 3대기술혁명과업의 실현은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것이다.

또한 3대기술혁명의 실현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초하여 매우 높은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전면적으로 시위할것이며 그 완전한 승리를 더욱 튼튼히 담보하여줄것이다.

이리하여 3대기술혁명의 웅대한 목표와 그 빛나는 전망은 우리 근로자들을 한없는 흥분과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6개년계획의 완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고 이끌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은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도상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도 가장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기초우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낳은 물질적근원으로 되는 농촌의 기술적락후성을 청산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반적과업의 실현을 촉진한다. 특히 그것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훨씬 줄이고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로 접근시키는데 직접 이바지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3대기술혁명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조건을 조성하는 담보이다.

3대기술혁명은 락후하고 수공업적인 기술을 현대적기술로 전면적으로 개변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의 로동을 선진적인 기계기술로 장비함으로써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더 빨리 없애고 근로자들을 높은 조직성과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한다. 특히 그것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을 혁명적조직생활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하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할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3대기술혁명은 온갖 계급적차이가 없고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높은 기술문화수준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과업을 더 빨리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는다.

참으로 3대기술혁명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방침은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 대중의 지향을 예리

하게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제때에 가장 정확한 투쟁방침과 전투적인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과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최대한으로 촉진하여 나아가시는 그이의 명도의 현명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탁월한 사상이다.

수령께서 밝히신 3대기술혁명과업과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방침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에 관한 리론의 가일층의 발전으로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기술혁명문제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리론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사상문화혁명문제와 함께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중심과업에 관한 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전제를 창조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여있는 문제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문제는 선행한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에 의하여 해명될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문제로서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제기하시고 밝혀주신 문제이다.

우리 시대의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많은 고전적로작들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의 사명과 기본내용, 그 수행 원칙과 방도 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기술혁명에 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창시하시였다.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바로 수령께서 처음으로 창시하신 기술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리론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된 다음단계의 기술혁명의 방향과 방도를 처음으로 명백히 천명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기술혁명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을 고전적으로 정식화하였다. 또한 그것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 계급적차이소멸, 낡은 분업의 청산문제들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과업을 통일적으로 풀어나가는 길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혀주었으며 기술혁명을 생산령역에서뿐아니라 소비생활분야에서까지 힘든 일을 없애기 위한 문제로 제기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기술혁명이 놀아야 할 역할을 더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주고있다.

실로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기술혁명의 사명과 본질, 그 기본내용과 수행원칙뿐아니라 매 발전단계의 중심과업과 그 구체적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전일적으로 더욱 체계화된 고전적리론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은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는 합법칙적과정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분업과 로동의 질적차이를 점차 없애는 로정에 대해서도 선행한 고전가들은 구체적인 해답을 줄수 없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길을 천재적으로 밝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하시고 낡은 분업의 잔재와 온갖 로동의 질적차이를 없애며 모든 근로자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합법칙적로정에 새로운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리론은 녀성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모든 사회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을 본질적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녀

성문제는 과학적공산주의리론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행정에서도 녀성문제를 옳게 풀어야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고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다할수 있다.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력사에서 처음으로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에 관한 리론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리론을 새롭게 내놓으심으로써 녀성해방문제를 사회적해방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해방하는 문제로 심화시키시였으며 녀성들에게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꼭같은 조건을 지어주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남녀평등을 보장하며 그들을 더빨리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는 과학적인 길을 밝히시였다. 이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불평등에서 녀성들을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문제, 사회주의하에서의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발전시킨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문제들에 천재적인 해답을 준 3대기술혁명리론은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과 철저한 계속혁명의 립장에 서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성숙된 요구들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장래요구까지 과학적으로 통찰하시면서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창시될수 있었다.

실로 3대기술혁명에 관한 탁월한 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이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예리한 통찰력과 과학적예견성의 집중적구현으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천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특히 그것은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더욱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의 위대한 구상과 그이의 천재적인 혁명리론, 독창적인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전면적으로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전당과 인민이 이 위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령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달라붙어야 한다.

3대기술혁명과업은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며 긴장된 투쟁을 요하는 과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있는 지혜와 창발성을 다 내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뚫고나가며 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대진군운동을 벌려야 한다. 이르는곳마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 힘든 로동이 헐하고 능률적인 로동으로,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꾸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의 탁월한 방침은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을 미래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열정으로 불타게 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우리 시대의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3대기술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의 더 빠른 실현을 위하여,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빠리콤뮨의 위업은 영생불멸할것이다

프랑스로동계급이 빠리콤뮨을 선포한 때로부터 백돐이 된다.

자본의 지배를 전복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을 위해 일떠선 빠리로동계급은 1871년 3월 18일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 반동적인 부르조아독재기구를 뒤집어엎고 새형의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인 콤뮨을 수립하였다.

빠리콤뮨은 혁명적폭력으로 낡은 부르죠아국가기구를 때려부시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세우기 위한 로동계급의 위대한 첫 시도였으며 19세기의 국제로동운동에서 프랑스로동계급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맑스는 콤뮨을 평가하면서 그것은 《본질상 로동계급의 정부였으며》 《로동계급이 사회적창발성을 발휘할수 있는 유일한 계급으로 공공연하게 인정된 최초의 혁명이였다.》(《맑스 엥겔스 선집》, 제1권, 585, 587페지)고 말하였다.

콤뮨은 부르죠아독재기구를 마사비리고 근로인민의 물질문화적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커다란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였다.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으로서의 콤뮨의 성격을 특징짓는 모든 시책들과 콤뮨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들은 국제로동계급을 각성시키고 그들에게 무한한 고무를 주었으며 프랑스의 반동적부르죠아지들과 국제반동세력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레닌은 콤뮨의 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콤뮨의 사업은 사회혁명의 사업이며 근로자들의 완전한 정치적 및 경제적 해방의 사업이며 전세계프로레타리아트의 사업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것은 영구불멸한것이다.》(《레닌전집》, 제17권, 163페지)

빠리콤뮨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그 혁명적영향력에 질겁한 프랑스의 반동적부르죠아지들은 콤뮨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악랄하고 흉포하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국내의 반동세력들을 규합하는 한편 프로씨야침략군까지 끌어들여 반혁명련합세력을 형성하고 콤뮨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콤뮨의 투사들은 내외원쑤들의 반혁명적인 공격을 물리치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기 위한 결사전에 용감히 일떠서 영웅적으로 싸웠으나 력량상 우세한 원쑤들의 발악적인 무장공격과 야만적인 백색테로를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콤뮨은 드디여 실패하고 말았다.

빠리콤뮨은 비록 72일간이란 짧은 기간 존재하고있었으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고귀한 경험과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빠리콤뮨은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적인 당과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승리의 결정적담보는 혁명력량을 꾸리는 것, 다시말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7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피착취근로대중의 혁명투쟁을 조직하고 령도하는 참모부이다. 혁명적당이 있어야 로동계급은 조직된 력량으로 될수 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울수 있다.

혁명적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지도하에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정치적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의 방도를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 멀리 내다본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며 정확한 투쟁구호를 제시하며 혁명투쟁의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자기 수령의 유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만 혁명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적당의 통일적인 령도하에서만 혁명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수행해나갈수 있고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콤뮨이 선포된 때에 프랑스로동계급은 자기의 정치적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으며 혁명적당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때문에 빠리로동계급은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혁명투쟁을 철저히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지 못하였다.

혁명적당의 령도가 없음으로 하여 콤뮨은 혁명투쟁에서 농민의 역할을 그릇되게 평가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혁명에서 로농동맹이 가지는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콤뮨은 농민을 혁명투쟁에 끌어들이지 못하였고 그들과의 동맹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광범한 농민대중을 반혁명세력들에게 리용되게 하였다.

또한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의 령도가 없음으로 하여 콤뮨은 대렬내에 끼여든 각종 기회주의자들과 우연분자들을 철저히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혁명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콤뮨의 경험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의 령도하에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 끌어들이며 대렬내에서 각종 기회주의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대렬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빠리콤뮨은 또한 혁명적폭력에 의해서만 로동계급이 낡은 부르죠아독재기구를 파괴하고 자기 손에 정권을 잡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정권전취의 방도를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페지)

반혁명적폭력은 착취계급이 의거하고 있는 필수적인 통치수단이다. 착취계급은 폭력기구에 의거하여 근로대중을 탄압하고 저들의 지배를 유지해나간다. 착취계급은 언제나 반혁명적폭력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류혈적으로 탄압해나선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계급은 결코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오직 혁명적폭력에 의해서만 반혁명적폭력을 때려부시고 정권을 잡을수 있다.

력사상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였던 빠리콤뮨은 로동계급이 혁명적폭력에 의해서만 낡은 부르죠아독재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오늘 수정주의자들은 빠리콤뮨의 력사적교훈에 의하여 이미 오래전에 파산된 《의회투쟁》을 통한 정권전취의 기회주의리론을 다시 들고나오면서 로동계급의 정권전취의 유일한 방도인 혁명적폭력을 반대해나서고있다. 수정주의자들은 희생을 피한다는 구실밑에 《평화적이행》의 궤변을 들고나옴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일떠서고있는 인민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켜 혁

명의 길에서 물러서게 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결국 혁명을 포기함으로써 인민들을 자본의 종신노예로 얽매두려는 투항주의적인 반혁명적책동인것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력사는 아직까지 그 어떤 식민지통치자나 반동지배층도 혁명적폭력에 의하여 타도됨이 없이 스스로 인민대중에 대한 저들의 지배를 포기하고 정권을 내놓은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빠리콤뮨과 그후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은 혁명적폭력이 없이 그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민들이 주권을 쥘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빠리콤뮨이 남긴 중요한 력사적교훈은 또한 로동계급이 피로써 쟁취한 정권을 지켜내고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계급투쟁을 강화하여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것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로동계급의 손에 쥐여져있는 혁명투쟁의 강력한 무기이며 그것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만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페지)

콤뮨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전복된 착취계급들은 저들의 옛지위를 되찾으려고 파괴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나선다.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은 서로 모순과 알륵으로 하여 대립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탄압하는데서는 서로 야합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기대도 가져서는 안되며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계급투쟁을 강화하여 내외원쑤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

그러나 빠리콤뮨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지 못하였고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하게 진압하지 않았으며 혁명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지 못하였다.

콤뮨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본성을 철저히 간파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지나친 《관대성》을 베풀었으며 내외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지 못하였다.

콤뮨은 국내전쟁을 피하려는 《선의》로부터 계급적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우유부단하였으며 혁명을 중도에서 멈춰버렸다.

당시 콤뮨은 오직 빠리에만 국한되여있었고 광범한 지방에 파급되지 못하였다.

콤뮨은 이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원만히 발휘하지 못하고 계급투쟁을 철저히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내외원쑤들이 반혁명세력을 수습할수 있는 가능성과 시간적여유를 주었으며 결국 반혁명련합세력의 공격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력사적인 경험과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며 그것을 고수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의 배신자들은 언제나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는것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오직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를 고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만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다.

콤뮨은 비록 짧은 기간 존재하였으나

혁명경험을 풍부히 하고 혁명리론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빠리콤뮨의 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한데 기초하여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켰다. 그들은 콤뮨의 경험에 기초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오직 낡은 부르죠아국가기구를 청산한 기초우에서만 수립된다는것을 확증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대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와 엥겔스의 학설을 가일층 발전시키였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리론을 로씨야의 혁명실천에 구현하여 세계최초의 로동자, 농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였다.

빠리로동계급이 력사상 처음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콤뮨을 선포한 때로부터 국제로동계급은 멀리 전진하여왔다.

자본의 지배를 뒤집어엎고 피착취근로대중의 해방을 위한 간고하고도 피어린 투쟁속에서 국제로동계급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그것을 우리나라의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 집대성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백과전서적인 맑스-레닌주의문헌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앞길을 가장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전면적으로 가르쳐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우리 시대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여나아가시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달려나갈수 있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주권에 관한 문제를 혁명의 근본문제로 제기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직 무장을 통하여서만 우리 나라에서 일제의 가혹한 파쑈적폭압기구를 때려엎고 정권을 전취할수 있다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히시고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항

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의 해방과 주권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이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민정권의 창건을 위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사업경험이 축적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우리 나라에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유격근거지들에서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의 깊고도 억센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해방후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세우시고 그것을 점차 사회주의혁명의 요구에 맞게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발전시키시였을뿐만아니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악랄한 파괴책동을 물리치시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로동자,농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이 없었던 탓으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나아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냈으며 우리 나라의 위력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경험을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심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고수하고 발전풍부화시킴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과 그 전취방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와 그 수행방도,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현시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력사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의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의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국가가 수행해야 할 력사적임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부터 출발하

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은 계속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1페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반항은 없어지지 않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은 계속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사회주의국가앞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국가는 오직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함으로써만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건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만약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필연성을 무시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킨다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내외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도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는것은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되며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호상관계문제에 대하여 가장 원칙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혁명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과도기가 끝나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계속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른 다음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는 제국주의의 위협을 면치 못할것이며 외부의 원쑤들과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도 면할수 없을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국가는 조락될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의연히 남아있어야 할것입니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1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승리하고 점차 사회주의나라들이 확대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개별적사회주의나라들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전세계적규모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없어지고 전세계적범위에서 공산주의위업이 승리할 때까지 결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킬수 없으며 반대로 그것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혁명을 한

나라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아가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혁명투쟁을 적극 도와주어 세계혁명의 전반적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로동계급은 세계혁명앞에 지닌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필연성을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는데서 제기되고있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갖 착취자들의 독재는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독재이고 그들의 민주주의는 오직 소수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반대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착취계급에 대한 독재이고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부르죠아독재는 로동자, 농민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계급적성격을 띠며 프로레타리아독재만이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사회주의국가인민들이 진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하려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고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자유》를 준다면 그것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계급적성을 모호하게 하고 계급투쟁을 약화시키게 되며 사회생활에서 부르죠아지의 부식작용을 막아낼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온갖 적대적요소의 침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며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튼튼히 고수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내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험은 당의 유일적인 지도밑에서만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행동상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36~137페지)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지도적, 향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다.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의 령도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로동계급의 모든 조직들이 혁명과 건설을 통일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해나갈수 없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당의 령도

는 수령의 유일적인 혁명사상에 기초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다. 수령의 통일적령도를 떠나서는 당이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령도적역할을 보장할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가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없다. 따라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당을 강화하고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모든 조직들이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수령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여나가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강화하는 근본원칙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내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강화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모든 독창적인 리론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혁명운동의 실천적과정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새롭게 발전시키시였으며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나라 혁명을 령도하시는 실천적행정에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모시면서 그이께 다함없는 존경과 높은 신뢰를 표시하고있다.

* *

빠리꼼뮨이 선포된 때로부터 100년동안 프로레타리아혁명은 온 세계에 타번져 오늘 사회주의는 세계적체계로 전변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있다. 지구상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전세계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날은 더욱더 다가오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 보고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력사적기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나라의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수정주의사상, 부르죠아사상 등 온갖 반동사상의 침습을 철저히 반대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다그처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혁신하고 계속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날에날마다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반제공동전선의 빛나는 전통

현 순 권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제5차대회보고에서 현시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에 대처하여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반제반미통일전선을 실현하며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반제공동전선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세아나라인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함께 싸워이긴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0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웃나라 인민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반제공동전선형성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이 빛나는 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미제국주의가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되고있으며 특히 미제의 아세아침략이 이 지역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는 현시기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 놈들의 아세아침략야망을 꺾어버리고 미제를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전략적주공방향인 일제를 격멸소탕하는데로 민족의 모든 반일력량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함과 함께 공동의 적인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웃나라 공산주의자들과는 물론 민족주의세력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들이 공동의 적인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는 투쟁에 있어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비단 반일부대뿐만아니라 중국의 광범한 인민대중들과의 공동전선을 확대강화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중요한 관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의 결정적승리는 결국 혁명력량의 튼튼한 준비에 달려있다. 오직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국제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단합시켜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우세를 보장하면서 적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함으로써만 승리를 거둘수 있다. 비록 그것이 불철저하고 견고치 못한 력량이라도 더 많은 동맹자를 쟁취하여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고 그를 부단히 확대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에서 하나의 기본원칙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적범위에서의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며 특히는 공동의 원쑤를 상대로 하여 싸우는 이웃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 나아가서는 민족주의적무장력과의 공동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방침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호상관계, 혁명발전에서 주체적혁명력량과 국제적혁명력량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에 기초한 창조적방침이며 당시 조성되였던 국내외 혁명정세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던 첫 시기의 혁명정세는 국제적범위에서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결속하여 반제투쟁을 강화할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 자본주의국가들을 휩쓴 파국적인 세계경제공황으로 인하여 제국주의모순은 더욱 격화되였다. 독점자본가들은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조성된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반동적인 파쑈독재의 수립과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정책에서 찾으려고 발광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은 급속히 앙양되였다.

당시 동방에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가장 야만적인 군사파쑈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한편 대륙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었으며 드디여 1931년에는 만주를 강점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제국주의자들의 파쑈적인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여 국제적범위에서의 모든 반제반파쑈력량의 단합을 요구하였다. 특히는 놈들에게 직접 침략을 당하였거나 그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에서 반제혁명력량들이 공동전선을 펴고 공동투쟁에 나설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웃나라 인민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의 실현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웃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물론 민족주의세력과 그 무장부대들과 굳게 단결하여야만 반일력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일제침략자들을 더욱더 고립시킬수 있었으며 놈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주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반제공동전선형성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것은 또한 이웃나라 민족주의세력의 무장부대인 반일부대들이 항일유격대와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적대시하면서 투쟁의 앞길에 난관과 복잡성을 조성하고있었던 사정과도 관련되고있었다.

반일부대는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 구동북군중에서 항일구국의 기치밑에 일어난 이웃나라 민족주의자들의 무장부대들이였다.

당시 반일부대들은 동만, 남만, 북만의 각지방에 흩어져있으면서 일제의 세력이 뻗치지 못한 중소도시들과 농촌지역을 차지하고있었으며 그 수는 수십만에 달하고있었다.

반일부대들의 하층병사들은 주로 로동자, 농민 출신이였으므로 애국적인 량심과 구국의 뜻이 어느 정도 강하였으나 그의 상층은 지주, 부농, 토호 등 자산계급출신들로 구성되여있었다. 이러한 상층의 지도를 받는 반일부대는 본질에 있어서 지주, 자본가의 리익을 대변하는 민족주의군대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계급적본질로부터 반일투쟁에서 매우 불철저하였으며 일제의 반동적인 정치군사적공세앞에서 동요하면서 점차 와해와, 쇠퇴의 길을 걷고있었다.

반일부대상층은 일제의 교활한 민

족리간책동으로 인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고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반일적요소를 전혀 무시하고 그들과의 단합을 홀시하거나 배척하여서는 반일력량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울수 없었다. 더우기 그들이 일제에게 투항한다면 그만큼 적의 력량을 보강해주는것으로 되며 혁명의 편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따름이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공산주의자들앞에는 반일부대의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그들의 반일적요소를 조장발전시켜 반제공동전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는것은 그들과 서로 련결되고있던 이웃나라의 민족주의적세력들과 수많은 반일군중들을 반제공동전선에 이끌어들이는데도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일부대들과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는것은 반일부대들이 혁명의 앞길에 조성하고있던 난관들을 없애고 무장한 반일력량과 힘을 합쳐 일제를 더 성과적으로 쳐부실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는 더 많은 이웃나라 인민들을 반제공동전선에 끌어들이게 하는 실로 중대한 문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반제공동전선로선은 국제적규모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광범한 반제혁명력량을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공통한 목적에 기초하여 최대한으로 결속할데 대한 가장 철저한 반제혁명로선이였으며 반제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공동의 원쑤를 때려눕히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전략적로선이였다. 이 로선은 또한 공동의 원쑤인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눕힘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의 혁명위업을 완수하는데 광활한 길을 열어줄뿐아니라 이웃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에도 유리한 국면을 열어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새롭고 독창적인 반제공동전선로선에 따라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이웃나라의 광범한 반제력량과 단결을 강화하며 단합된 힘에 의하여 공동의 원쑤인 일제의 멸망을 촉진시킬수 있는 명확한 길을 찾게 되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공동전선로선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반제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맑스-레닌주의전략사상의 창조적발전의 빛나는 모범이다. 따라서 이 로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기치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웃나라 인민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전기간 항일유격대원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확고히 서서 이웃나라 공산주의자들 및 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공동의 적인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모든 반제력량들과의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그 진두에 서시여 반제공동투쟁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특히 반일부대들과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는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이룩할데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현재 항일구국군은 정치적락후성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반일투쟁을 리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살해까지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과 접촉하여 일제의 교활한 민족리간정책을 폭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제야말로 조중인민의 극악한 공동의 원수라는것을 잘 리해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자신의 행동과 실지투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산 모범을 보

여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따라올것이며 우리의 투쟁을 본받아 일제와 잘 싸우게 될것이다.…

항일구국군과의 통일전선은 능히 가능하며 또 해야 할 혁명과업인데 곤난이 있다고 하여 손을 뗀다면 이것은 진정한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부대와 공동전선을 실현하는것이 우리 혁명발전의 관건의 하나라고 가르치시면서 반제공동전선실현에 가로놓인 난관도 일신의 위험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손수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항일유격대창건을 준비하시던 시기에 조성된 난국을 풀어나가시기 위해 몸소 안도에서 반일부대 두령과의 담판을 진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담판에서 반일부대 두령들을 인내성있게 설복하여 반일공동투쟁에 나서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편 조선청년들로 별동대를 조직하여 그들의 군사활동을 직접 방조하도록 하시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철저한 반제혁명정신과 실천적모범을 보여주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실지투쟁을 통하여 반일공동전선의 우월성을 체득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안도에서의 반일부대와의 담판은 당시 조선인민과 반일부대간에 조성되였던 난관을 극복하고 항일무장투쟁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또한 동요성이 많던 전체 반일부대들을 반일공동전선에 인입하는 시초를 열어놓은 중대한 사변이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가 반일부대들과의 반일공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일제침략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새로운 난국이 조성되였다.

적들은 한편으로는 반일부대에 대한 무력적공세를 강화하여 그들의 사기를 저락케 하며 다른편으로는 정치사상적공세를 강화하여 반일부대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만보산사건》과 친일주구단체인 《민생단》을 조작하고 《민생단》으로 하여금 《간도에서의 조선인자치》를 떠들게 하는 등으로 조중인민사이의 불화를 조성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해나섰다.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도 때를 같이 하여 《구국군》병사들에게 《지주, 자산계급인 장관들을 타도하라》, 《반변을 일으키고 항일유격대에 참군하라》 등의 극좌적구호를 들고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와의 재휴를 방해하여나섰다.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은 해방지구인 완전유격근거지들에서 실정에도 맞지 않은 《쏘베트》구호를 들고 중국인지주, 부농은 물론 중농의 토지까지 무조건 몰수하는 망동을 벌림으로써 조중인민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바로 이러한 시기 종파분자들이 저지른 《김명산사건》은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긴박한 정세하에서 조성된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혁명을 난국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진두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몸의 위험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반일부대두령들과 라자구에서 다시금 담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담판에서 반일부대와 그 상층들이 품고있는 항일유격대와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깨우쳐주시고 반일공동전선결성의 필요성을 설복시키시였다.

완고한 반일부대두령들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정연한 론리, 대담한 포용력과 감화력, 비범한 혁명적지략에 감탄하였으며 마침내 그이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반제공동전선로선을 지지하여나섰다.

이 담판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일부대들과의 공동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이때로부터 반제공동전선로선은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되였다.

이 담판이후 각지에 분산되였던 반일부대들은 항일유격대와 힘을 합쳐 공동의 원쑤인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

공동전선운동에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원칙을 창조하시고 그를 능숙하게 적용하심으로써 광범한 반제혁명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웃나라 인민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반제공동전선은 공동의 적을 반대하는 공통된 리해관계에 기초해서 이루어진것이며 그것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을 더 잘할것을 목적하고있다.

반제공동전선은 자체의 사명으로 보아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을 허용할수 없다.

자주성이 확고하게 보장될수록 매개나라 혁명력량과의 단결과 협조가 더욱 강화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떠한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언제나 반제공동전선실현의 전략전술적원칙을 견지하시고 그것을 능숙하게 풀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초기에 직접 교양육성하신 견결한 조선의 공산주의자였으며 별동대장으로 공작하던 리광동지가 반일부대인 동산호부대에 의해 살해되였을 때 동지들은 희생된 그의 복수를 주장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문제는 통일전선의 실현에 있는것이지 한개 동산호를 성급하게 복수하는데 있지 않다. 우리가 련합을 목적하는 전체 반일부대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동산호를 치는것은 그들전체와 맞서는것으로 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통일전선을 위한다는 구실하에 동산호부대를 규탄하는것을 아주 반대하는 편향도 있다. 이 역시 옳지 않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공동전선실현에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이 깨여질까바 겁나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묵과하려는 우경적편향과 반일부대와의 통일전선을 무시하고 그들을 일률적으로 일제와 같은 원쑤로 간주하는 좌경적편향을 다같이 반대하시면서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능숙하게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부분적련합으로부터 전면적련합에로,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부터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가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반일부대와의 사업에서 하층통일과 상층통일을 분리시키여 그 어느 한면에만 치중하는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시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반일부대병사대중과의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상층통일을 옳게 배합하며 그들 상층의 이중성을 명백히 갈라보고 투쟁과 단결을 결합하는 전술적원칙을 제시하시고 능숙히 적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반일부대내의 상층의 동요성과 일제와 결탁한 악질분자들을 엄격히 구분하시고 이자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타격하는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반제공동전선의 형성과 강화에서 제기되는 전략전술적원칙을 창조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반제공동전선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각이한 사회세력과의 반제공동전선실현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가르치시고 반제공동전선의 실현을 주체적력량을 꾸리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부르죠아지와 통일전선을 하는데서도 역시 우리 힘이 강해야 합니다. 항일빨찌산투쟁시기에 우리는 여러 종류의 부르죠아민족주의군대들과 통일전선을 하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산당의 유격대가 약할 때에는 이들이 우리와 통일전선할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의 력량이 강대해지고 그들의 력량이 약화되여 우리와 통일전선을 하지 않고서는 견디여 낼수 없게 되였을 때에야 그들은 우리와 통일

전선을 하자고 나섰습니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13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적혁명력량의 튼튼한 준비가 없이는 반제공동전선을 전면적으로 형성하고 공고화할수 없으며 반제력량을 주동적으로 이끌고나갈수도, 활동에서 독자성을 보장할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와 혁명적인민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튼튼히 뭉치게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항일유격대의 전투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됨으로써 반일부대를 비롯한 광범한 반제혁명력량이 공동전선형성을 적극 지지해나섰으며 반제공동전선은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되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공동전선을 일제를 반대하는 실제적인 공동투쟁과정에서 공고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그것은 반일공동전선 그자체가 투쟁을 위한것이며 또 투쟁을 통해서만 반제공동전선의 생활력과 그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줄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형성한데 뒤이어 동녕현성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대소련합전투들을 손수 조직지휘하시였다.

이 전투들은 반제공동전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시위하여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확대공고화하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녕현성전투의 의의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녕현성전투는 처음으로 중국반일부대와 통일전선을 형성한 정치적 및 전략적 의의가 큰 전투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지휘하에 동녕현성전투의 승리는 항일유격대에 대한 반일부대상층의 그릇된 인식을 없애고 광범한 하층병사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어 동요하던 반일부대들이 반일의 기치를 고수하게 하였으며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를 호상리간대립시켜 반일무장력량을 각개격파하려던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다.

이리하여 반일무장력량을 전면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실로 이 전투의 승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반일부대와의 통일전선운동에서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고 공고화하는 투쟁을 조직지휘하시면서 반일부대들에 수많은 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그들을 교양개조하시였으며 반일투쟁에 나서도록 하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반제공동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강화발전과 전세계인민들의 반제공동투쟁에서 실로 귀중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이것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맑스-레닌주의적식견, 그이의 탁월한 전략전술, 한량없이 넓고 깊은 위대한 도량과 포용력, 혁명을 위해서라면 한몸을 아낌없이 바치시는 그이의 고결한 헌신성에 의해서만이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공동전선을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을 한층더 강화발전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항일유격대의 정치군사활동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고 일제침략자들에게 보다 큰 정치군사적타격을 줄수 있게 되였으며 전반적 우리 나라 혁명운동의 발전을 더욱 추진시킬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음으로 반제공동전선을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국제반파쑈인민전선운동에서 선구자적모범을 보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공산주의자들과는 물론 지어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인 무장한 다른 나라 민족주의사회정치세력들과도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고 군사활동에서

행동통일을 이룩하는 전인미답의 험난한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반제공동전선의 빛나는 모범은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국제적으로 대두한 파쑈즘과 침략전쟁의 위협에 대처하여 어떠한 립장과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는 탁월한 귀감으로 되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반제공동전선실현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전통은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힘의 원천의 하나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반제공동전선의 빛나는 전통은 해방후 그이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간고한 환경속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시는 한편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미제가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에 광분하고있으며 특히 아세아에 대한 침략에 미쳐날뛰고있는 조건에서 놈들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은 오늘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습니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윁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00페지)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서는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힘을 합쳐 미제침략자들에게 집단적인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아지역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세아인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공동으로 싸워이긴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일본제국주의자들과도 함께 싸워 승리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도 승리하였다. 윁남, 라오스, 캄보쟈인민들은 프랑스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싸워 승리하였으며 지금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공동으로 싸우고있다.

이 훌륭한 전통을 살려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미제의 침략책동은 파탄을 면치못할것이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공동전선에 관한 위대한 혁명사상과 투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특히는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저지파탄시키고 놈들의 멸망을 가일층 촉진시키며 나아가서는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선결조건

리 동 희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당사업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화보고에서와 1971년신년사에서 현시기 우리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선결조건은 간부들의 자질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중요한 담보는 지도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특히 간부들의 정치사상적, 기술실무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당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계속 틀어쥐고 간부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1971년을 간부들의 자질과 지휘능력을 한계단 더 높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간부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철저히 준비되기 위하여 제일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할 혁명과업이 무엇인가를 명시해준 강령적 교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반세기동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의 자질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간부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취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당 제5차대회보고를 비롯한 천재적인 로작들과 최근 교시들에서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간부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1971년을 자기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한계단 높이는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9페지)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 이것은 현시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우와 같은 책, 12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

신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간부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 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국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해결됩니다.》(우와 같은 책, 11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들은 우리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다.

당대렬을 강화하며 그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결국 당핵심진지를 어떻게 꾸리는가에 달려있으며 특히 당핵심구성의 결정적부분인 간부들에 달려있다.

우리 당의 기본핵심력량인 간부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수준이 높아야 전체 당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와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과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려 그를 칠저히 극복할수 있으며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또한 광범한 군중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반석같이 다질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실로 당의 핵심력량인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 당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들은 당의 핵심력량일뿐아니라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당원들과 군중 속에 침투시키는 것도 간부들이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는것도 간부들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국 당 및 국가적 지도의 결정적력량인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여도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간부들이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이 높지 못하면 수령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의 본질을 똑똑히 체득하지 못하게 되며 그를 리론적으로 전개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도 바로세울수 없다. 또한 사업에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게 된다.

간부들이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야 수령의 의도와 그이께서 내놓으신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정확히 침투시킬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킬수 있다. 또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다.

현시기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간부대렬이 좋은 사람들로 꾸려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그들의 자질이 낮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론 우리의 간부들은 다 좋은 간부들이며 우리는 간부대렬을 기본적으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군들로 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부들의 준비정도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그들의 자질은 당의 요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19~120페지)

오늘 우리의 간부대렬은 기본적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경애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굳은 각오를 가진 견실한 일군들로 꾸려졌다. 그러나 간부들의 지도수준은 빨리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대중의 높은 혁명적기세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그 주되는 원인은 아직도 간부들이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지 않고있는데 있다.

적지 않은 간부들이 일이 바쁘다는 구실밑에 공부도 잘하지 않고 당생활도 잘하지 않는데로부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진수, 그 독창성을 깊이 체득하지 못하며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자질을 높이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간부들을 혁명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일데 대한 요구는 특히 혁명과 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고 특히 사상혁명이 더욱더 심화되여가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준비된 간부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12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고 특히 사상혁명이 더욱더 심화되여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의 경제는 지난날에 비할바없이 그 규모가 방대해지고 기술장비가 강화되였으며 부문간의 련계도 매우 복잡하여졌다. 또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창조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도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처럼 높은 발전단계에 이른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인 6개년계획을 수행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선 사회주의경제를 정확히 관리운영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는데서 관건적고리는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현시기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특히 사상혁명이 더욱더 심화되여가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그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되게 되였다. 또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개인의 리익을 버리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그들의 혁명적열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상혁명을 더욱 심화시켜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야 할 절실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그러자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자신이 철저히 혁명화되고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이렇

게 하여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수 있으며 사상혁명을 그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그리고 그들앞에 나서는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능숙하게 조직진행할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한계단 높이는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간부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여 간부들을 혁명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여주시였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데서 우선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당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먼저 간부들속에서 당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험은 어떤 간부를 막론하고 당생활을 게을리 하고 당적통제에서 벗어날 때에는 례외없이 안일해이해지고 교만해지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여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121폐지)

간부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의 자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과 간부들을 혁명화하여 참다운 혁명가로 만드는 훌륭한 학교이며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다.

간부들은 당생활과정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을수 있으며 집단과 전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공산주의적정신을 키울수 있다.

또한 간부들은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규약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그리고 일상적인 당적비판을 통하여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나갈수 있는 확고한 계급적립장,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당정책집행에서의 완강성과 견결성, 시작한 사업은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을 부단히 배양해나갈수 있다.

간부들은 또한 당생활에 참가하여 당조직의 결정과 당적분공을 실행하는 행정에서 자신의 실무수준을 높이고 지도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세련시킬수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풍모를 갖출수 있다.

만약 간부들이 당생활에 적극 참가하지 않고 당적통제에서 벗어날 때에는 정치적으로 암둔해지고 사상적으로 해이되고 작풍에서 교만해지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여나갈수 없게 된다.

실로 간부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혁명화하여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 기본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간부들속에서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경향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모든 간부들이 빠짐없이 당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간부들은 언제나 당조직에 의거하여 일하고 생활하며 당조직과 당원대중의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간부들을 강한 비판속에서 단련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비판은 온갖 낡은것을 극복하고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수단이며 그들을 교양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비판을 강화하여야 간부들의 혁명화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이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할수 있다.

간부들속에서 원칙적인 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비판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은 자

기의 결함을 제때에 스스로 비판할줄 알며 당원대중의 비판을 허심하게 받아들일줄 아는 혁명가적품성을 지니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당조직들은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개조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비판을 벌려서 투쟁을 하고 투쟁을 통하여 개조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도이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속에서 비판사업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강한 사상투쟁속에서 간부들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사업을 계속해나갈수 없습니다.》
(우와 같은 책, 121～122페지)

간부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워 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인다는것은 결국 그들을 혁명화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열렬한 혁명가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변혁하는 로동계급의 계급적 관점과 립장, 태도와 방법을 가장 심오하게 구현하고있는 혁명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심오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지도적지침이며 투쟁강령이다.

그이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리론들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혁명의 객관적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심오한 과학적기초를 가지고있다. 간부들은 꾸준하고 심도있는 학습을 통해서만 수령의 위대한 사상에 담겨있는 혁명적진수와 그 심오한 내용을 옳게 파악할수 있다.

또한 학습을 꾸준히 해야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을 폭넓게 소유한 기술실무적으로,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혁명가로 될수 있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정책학습과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당정책학습을 강화함으로써만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독창성, 창조성을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를 확고히 지닐수 있다.

우리 당정책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다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그것을 자로 삼아 모든 문제를 재보고 정확한 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사업을 능숙하게 전개하여 당이 내세운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또한 수정주의를 비롯한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현상들을 제때에 가려내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모든 간부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된 조선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되며 첫째가는 과업으로 된다. 당정책을 학습함에 있어서 형식주의적이며 실천활동과 동떨어진 학습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당정책의 진수와 전반사상, 그 정당성을 심도있게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 부문

과 자기 초소 앞에 나서는 혁명과업을 수령의 요구와 의도에 맞게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수령의 근반세기에 걸치는 혁명력사학습을 강화하여야 수령의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 령도의 현명성을 전면적으로, 력사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할수 있으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수준을 소유함이 없이는 발전된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오늘 간부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임무의 하나이다.

학습은 누구나 다 하여야 하지만 특히 책임간부일수록 더 많이 하여야 한다. 책임간부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의 직책상 임무가 크며 또한 그것이 아래사람들의 학습기풍을 세우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당조직들은 책임간부들의 학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그들속에서 자각적인 학습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당이 취한 모든 조치들을 정확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간부들을 위한 한달강습체계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간부교양방침이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가장 우월한 학습체계이다.

모든 간부들은 한달강습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며 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함으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은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기본단위의 간부들의 역할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일군들가운데서 직접 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일군들로부터 간부양성기관에 보내여 재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지사업과정을 통하여 간부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방식상학을 널리 조직하여 아래일군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시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널리 활용하시여 그 생활력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보여준 힘있는 간부교양방법이다.

이 방법의 우월성은 간부들에게 실지사업에 필요한 리론실무적문제들을 생동한 현실과 결부하여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어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빨리 높이게 하는데 있다.

당조직들은 전형적인 단위들에 체계적이며 실속있는 지도를 주어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간부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간부들에 대한 개별교양체계를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개별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간부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지도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간부들을 늘 료해하면서 꾸준히 개별교양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웃간부가 아래간부들을 교양하고 교양받은 간부가 또 자기의 아래간부들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모든 간부들이 늘 교양을 받으면서 남을 교양하는 전당적인 정연한 간부교양체계를 세워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22~12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데서 개별교양체계가 가지는 의의와 개별교양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주신것으로서 당조직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지침이다.

개별교양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진행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교양방법으로서 간부들에 대한 힘있는 교양형식의 하나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간부교양방법이다.

간부들은 그 준비정도와 성격, 취미가 서로 다르며 그들의 사업환경과 생활조건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간부들을 실속있게 교양하자면 집체적방법에 의한 일반적교양과 함께 개별교양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들에 대한 개별교양은 그들의 준비정도와 성격, 사업능력과 작풍, 취미, 사업과 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간부들이 가지고있는 결함을 철저히 고쳐줄수 있으며 그들의 사상의식과 사업 수준을 더욱더 높일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개별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밑에 지도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간부들을 늘 료해하면서 정상적으로 개별교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웃간부가 아래간부들을 교양하고 교양받은 간부가 또 자기의 아래간부들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모든 간부들이 늘 교양을 받으면서 남을 교양함으로써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이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위원회는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는 정치적지도기관이다. 그러므로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만 원만히 보장될수 있으며 간부들의 당생활지도를 비롯한 모든 사업의 성과적수행여부도 다름아닌 당위원회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당위원회들은 간부들과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그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기 위하여 당내부사업을 담당하고있는 부서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세포는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직접 침투하고 집행하며 옹호관철하는 전투단위이며 모든 당원들이 소속되여 당생활을 진행하는 기층조직이다.

간부들의 사업과 생활에서의 우결함을 잘 아는것도, 그들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교양대책을 세울수 있는것도, 간부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혁명적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킬수 있는것도 바로 당세포이다.

그러므로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간부들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혁명화하여 자질을 높이는데서 관건적고리로 된다.

당조직들은 전투단위이며 기층조직인 당세포의 역할을 높여 간부들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도록 하며 그들의 자질을 일층 높여야 한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천재적으로 천명하신 간부들의 자질을 높일데 대한 방침들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지침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적과업을 실현하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어렵고도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한 담보는 모든 당조직들이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며 사상정치적으로나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되고 혁명가적품성을 가진 우리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키워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길수 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자

과 두 식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지도하신 전국뜨락또르운전수대회가 지난 2월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번 뜨락또르운전수대회는 수령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그이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6개년계획의 첫해 첫돌과구를 열어제끼는 《100일전투》를 힘차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영광스럽게도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열린 전국적회의이다.

이것은 우리 뜨락또르운전수들에 대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사랑과 신임의 또하나의 명백한 표시로 된다.

대회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붉은 기계화초병들과 전체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보여주고 당 제5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확고한 결의를 표시하였으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그들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회의전반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으며 우리 나라 전체 뜨락또르운전수들에게 또다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당은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임무를 뜨락또르운전수들에게 책임지운다는 높은 신임을 표시하여주시였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칠수 있는 휘황한 전망과 구체적방도를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대회에서 주신 력사적인 교시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특히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며 전체 농촌기계화초병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하고 그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에로 부르는 전투적호소이다.

전체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업부문일군들은 이번 대회에서 주신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획기적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지난 기간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를 분석하시고 6개년계획기간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전망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뜨락또르운전수들이 놀아야 할 역할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건설의 현실은 수령의 붉은 농촌기계화초병들인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제4차대회가 내놓은 방침과 특히 1964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놓은 길을 따라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커다란 힘을 돌렸으며 이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페지)

지난 기간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눈부신 전진을 이룩하였다. 농촌에서 수리화와 전기화

의 력사적과업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기계화와 화학화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다.

우리 당은 특히 7개년계획기간 기계화를 농촌기술혁명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가까운 몇해어간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놓았다.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뜨락또르와 농기계 생산이 훨씬 늘어났으며 모든 시, 군에 농기계작업소들이 창설되고 전국각지에 토지건설사업소가 조직되였으며 현대적인 련결농기계공장들과 뜨락또르부속품공장들이 건설되고 뜨락또르수리기지와 농기구공장들이 튼튼히 꾸려졌다.

1961～1970년사이에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는 3.5배, 화물자동차대수는 7배로 늘어났다. 우리 나라는 농촌경리의 기계화장비도에서 이미 세계 선진국가들의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지난 기간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며 그 위대한 승리이다.

수령께서 이번 대회에서 다시금 강조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바로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해결의 유일하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밝혀준 위대한 강령이다. 우리 당은 수령께서 밝혀주신 테제의 길을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오늘과 같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지난 기간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는 또한 수령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가져온 위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와 같은 어렵고 복잡한 과업의 수행은 오직 자체의 위력한 중공업토대가 있어야만 성과적으로 수행시킬수 있다.

특히 산이 많고 논농사가 위주로 되여있으며 대부분의 밭이 비탈져있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술혁명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전후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위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바로 이와 같이 하였기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될수 있었으며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기술개조 특히 그 종합적기계화를 위한 앞길에는 새로운 넓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지난 기간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에 기초하여 가까운 몇해사이에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수령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공업화실현이후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며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에서의 차이를 [illegible] 없애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과정을 촉진할수 있는 길을 밝힌 혁명적사상이다. 우리의 이 사상은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에서 인류의 일치한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위

대한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로선을 제시하시면서 6개년계획기간 농촌경리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매우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농촌로력을 많이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관수체계가 실시되는 2모작밭들과 벼직파를 하는 논들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점차 그 성과를 확대하여 가까운 앞날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49~50페지)

6개년계획기간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한 과업은 현시기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그것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간의 차이를 줄이며 농업생산의 공업화과정을 촉진하는 보람찬 혁명과업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것은 특히 6개년계획기간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농업부문의 중심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농촌기술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로부터 우리 당은 6개년계획기간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할데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에서 단연 세계에서 가장 앞선나라의 대렬에 들어서게 될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농촌기계화일군들의 대렬이 그만큼 더 빨리 늘어나게 될것이며 농업생산의 거의 모든 일을 뜨락또르운전수들이 맡아하게 되고 그들이 농사의 주인으로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들이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혁명가들입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들이다》, 2페지)

지난날 우리 로동계급앞에는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에서 근로자들을 해방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오늘에 와서 로동계급앞에는 착취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기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들이며 우리 당이 농촌에 파견한 첫 로동계급이다.

우리의 모든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수령께서 파견하신 농촌기계화의 붉은 초병으로서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빨리 덜어주는가 못주는가, 농촌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이 좌우된다.

현시기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농민의 로동계급화과정을 촉진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모든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 농민들에게 혁명적영향을 강하게 주어야만 농민들의 사상을 더 빨리 개조할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만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기업관리, 생산문화를 농촌에 성과적으로 보급할수 있으며 농민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실현할수 있다.

모든 사실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농촌기술혁명 특히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과업수행과 전반적사회

주의농촌건설, 농업생산의 성과여부가 뜨락또르운전수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우리 나라 농촌에서 종합적기계화의 휘황한 전망은 먼 앞날의 일이 아니라 산 현실로써 눈앞에 직접 펼쳐지고있다.

이것은 오직 오랜 세월 고역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려는 어버이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 육친적배려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그 옳은 해결을 위하여 투쟁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농촌문제해결을 위하여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농촌이 나아갈 먼 앞날을 확고히 내다보시고 이미 토지개혁을 실시한데 뒤이어 중요 농촌지대들에 첫 농기계임경소를 을 조직하여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농촌경리기계화의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한 빛나는 모범이였다. 수령께서는 또한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시기에도 농기계임경소를 더 늘이도록 하시였으며 더 많은 뜨락또르를 농촌에 보내시여 전시 농업생산을 보장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농촌경리의 기술개건에 앞서 농업협동화를 실현하시여 농촌기술혁명 수행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중세기적인 뒤떨어진 기술에 기초하고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가 거의 없이 협동화가 실현되였다. 그리하여 농촌기술혁명은 협동화된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4폐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협동화가 끝나고 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체없이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대주의자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과 자체의 위력한 중공업토대에 의거하시여 주체적인 뜨락또르, 자동차 공업을 창설하심으로써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전반적 농촌기술혁명을 높은 단계에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길을 개척하시였다. 또한 수많은 농촌기계화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워주시고 농기계연구기관들과 설계기관들을 조직하시여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만들어내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현대적농기계들이 늘어나고 뜨락또르운전수대렬이 급격히 장성하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농촌기술혁명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1959년 12월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농기계임경소를 농기계작업소로 개편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당의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농업생산에서 농기계작업소와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전면적으로 높이며 협동농장들이 뜨락또르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시였다. 이것은 실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협동화이후 협동농장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며 농촌경리에 필요한 모든 기술설비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할수 있게 한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조치였다. 그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접근시키며 농촌경리기계화를 추진할수 있는 길을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밝힌 빛나는 모범이며 맑스-레닌주의리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탁월한 기여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뜨락또르운영체계를 세워주시였을뿐만아니라 1964년 2월 전국모범뜨락또르운전수대회를 소집하시고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위치와 그들앞에 나선 력사적사명을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해서도 육친의 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뜨락또르운전수들이 기운에도 밖에서 일하는것을 념려하시여 솜옷으로부터 털모자, 장갑, 겨울신발 그리고 고기와 기름을 비롯한 영양제에 이르기까지 보장하도록 일일이 보살피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극진한 배려속에서 오늘 우리 뜨락또르운전수들과 전체 농촌기계화일군들은 당이 농촌에 파견한 믿음직한 로동계급의 대부대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을 힘있게 떠메고나가는 수령의 붉은 기계화초병으로 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계농사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농촌경리기계화에서 거대한 변혁이 이룩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 그이의 우리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민들에 대한 육친적배려와 직접 결부되여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뜨락또르운전수대회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뜨락또르운전수들과 전체 농업부문일군들 앞에 나서는 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자기앞에 부과된 영예로운 임무를 옳게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자신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이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 농촌에 파견된 첫 로동계급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들이다》, 4페지)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혁명적세계관을 똑바로 세우고 투쟁의 앞길을 명확히 찾을수 있으며 수령의 충직한 전사로서 농촌기술혁명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농촌기계화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 특히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그이의 력사적인 보고와 신년사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금번 전국뜨락또르운전수대회에서 하신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깊이 연구하여 뼈와 살로 만들며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그이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심오히 연구학습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아 그들처럼 그이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뜨락또르운전

수들과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은 농민들 특히 녀성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위대한 혁명과업수행에서 자기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하여 뜨락또르의 작업조건을 잘 마련할것을 교시하시였다.

뜨락또르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마련하는것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 리용률을 높이며 종합적기계화를 전면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수령께서 가르치신대로 토지정리사업을 잘하는데 우선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농촌경리의 전면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은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0페지)

토지정리사업은 모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집약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물질기술적조건들과 가능성을 적극 리용하여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벼직파를 하는 논과 관수체계가 실시되는 2모작밭을 그리고 하기 쉽고 투자가 적게 드는 대상부터 먼저하는 방향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뜨락또르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마련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또한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를 더 많이 만들어 공급하는것이다.

우리 로동계급이 자력갱생하여 만든 뜨락또르는 만능이며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만 대주면 무슨 농사일이든지 다 할수 있다.

이 부문의 일군들과 해당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능률적인 련결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기계화초병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농기계작업소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들을 많이 만들어쓰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길을 잘 닦는것은 뜨락또르의 작업조건을 잘 보장하고 그 수명을 늘이며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구체적인 계획밑에 농촌의 도로를 전망성있게 정리하는데 달라붙어야 한다. 특히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많이 드나드는데는 포장도 하고 돌도 깔며 필요한 곳에 다리도 든든히 놓아 그것들이 마음대로 다닐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으로 농촌경리부문에서 뜨락또르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맞게 그 운전수대렬을 빨리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뜨락또르대수가 늘어나는데 따라 운전수대렬을 빨리 늘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뜨락또르운전수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들이다》, 11페지)

새로운 전망계획기간 더 많은 뜨락또르가 농촌에 생산공급되게 되는 실정은 뜨락또르운전수들의 대렬을 그 어느때보다도 늘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농업지도기관에서는 이에 상응하게 전문적인 양성기관을 통하여 더 많은 뜨락또르운전수들을 양성해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학교들에 실습용 뜨락또르를 몇대씩 주어 모든 농촌청년들이 기술학교를 나오면 누구나 다 뜨락또르를 마음대로 몰수 있게 하며 또 매개 군들에서는 자기 군에서 필요한 운전수를 군내청년들을 가지고 자체로 체계있게 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은 그 대렬을 늘이는것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뜨락또르운전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할수 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자질이 높아야만 고도의 세심성과 과학성, 책임성을 요구하는 농산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농촌기계화초병으로서의 높은 책임성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마치 교예배우가 무대에서 자기의 기술을 시위하듯 뜨락또르를 가지고 포전과 잇닿은 좁은 길이나 구배가 심한 길도 마음대로 다니면서 농산작업을 자유자재로 하여야 한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 학습을 강화하고 농기계에 대한 기술기능을 끊임없이 련마하면서 각종 비료와 농약의 특성과 그것을 쓰는 방법, 토양학에 대한 지식, 농작물에 대한 생물학적지식 등 여러가지 영농지식을 다방면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농촌기계화초병들은 당면하여 6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며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알곡증산의 커다란 예비는 밭관개를 실시하며 모를 일찍 내는데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밭관개면적을 빨리 늘이며 랭상모를 더 많이 내고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책임성을 높여 5월 25일까지 모내기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내기를 일찌기 끝내는가 못끝내는가 하는것은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농촌기계화초병들은 수령의 교시를 깊이 명심하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의 겨울철수리를 질적으로 끝내고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한데 기초하여 거름실기와 영농물자수송작업을 봄갈이전으로 끝내며 봄갈이작업의 시기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결정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농촌들에서 모내기를 5월 25일전으로 끝내며 특히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벼농사중심지역들에서는 모내기를 5월 20일전으로 어김없이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밭관개공사가 전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지고있다.

밭2모작은 그만큼 더 많은 품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두벌농사를 잘하는 문제도 결국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제때에 일을 솜씨있게 해제끼는가 못제끼는가에 달리게 된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밭2모작도입이 가지는 의의를 똑바로 인식하고 2모작농사에서 앞그루씨붙임을 제때에 잘하며 때가 되면 곡식을 말리 걷어들이고 뒤그루작물을 제철에 잘 심어 모두 응근 소출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뜨락또르용 기름을 극력 아껴쓰는것은 귀중한 외화를 절약하고 기름예비를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기계의 발동을 끄지 않고 오래 세워두거나 먼거리수송을 뜨락또르로 하는것과 같은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랑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밭갈이철이 눈앞에 다가왔다.

각급 당조직들과 농업부문일군들, 농촌기계화초병들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올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1971년을 또다시 만풍년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밝혀주신 공산주의농법창조의 보람찬 길을 따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6개년계획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

전 대 영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 사회주의공업화의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 6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39페지)

수령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총적 방향과 과업을 가장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강령적 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구상하시고 설계하신 6개년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그이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천재적으로 밝혀주신 사회주의하에서의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합법칙성에 관한 독창적리론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는것이다.

6개년계획에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1971～1976년사이에 공업총생산액을 2.2배로 늘이며 공업생산의 증가속도를 해마다 평균 14%씩 보장할것이 예견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실현된 지난 10년간의 공업부문 년평균장성속도를 훨씬 뛰여넘는 비상히 높은 천리마적속도이다.

6개년계획에는 또한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에 따라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비약적인 기술진보를 이룩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공업부문에서는 1.7배, 기본건설부문에서는 1.4배로 각각 장성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생산의 끊임없는 빠른 발전에 따라 6개년계획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과학과 교육, 문화의 보다 찬란한 개화발전을 이룩하며 대중소비품의 값을 50%이상 낮추고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획기적조치들이 취하여지게 될것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6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에는 그이께서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사회주의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의 합법칙성에 관한 천재적리론이 철저히 관통되여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결정적우월성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제침략자들의 격화되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최근년간 많은 자재와 자금을 국방건설에 추가적으로 더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온갖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견지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화의 전기간 공업생산이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또다시 10월말 현재 그 전해에 비하여 131%로 생산이 장성하는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는 생산의 높은 발전속도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것은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 없는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집중적발현이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합법칙성에 관한 천재적리론의 위대한 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1969년 3월 1일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합법칙성에 관한 천재적리론을 창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고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시였으며 그것을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다시금 이 로작에서 천명하신 탁월한 경제리론과 우리 혁명과 건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6개년계획의 웅대한 전망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휘날릴수 있게 하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예견하고있는 6개년계획은 무엇보다먼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제도와 혁명발전자체의 필연적요구로 된다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지 않으면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것이 사회주의경제의 목적이며 균형은 바로 이러한 높은 속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59페지)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의 끊임없는 혁신과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목적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경제건설의 첫시기나 사회주의건설이 멀리 전진한 시기에나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고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일데 대한 사회주의국가활동의 최고목적을 실현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로 되는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과 국방력의 강화,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사회문화시책의 실시와 임금의 체계적인 인상, 물가의 인하 등 중요한 정치경제적과업들의 해결이 경제발전의 속도문제와 직접 관련되여있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기 위한 투쟁은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혁명의 온갖 원쑤들과 기회주의자들의 반맑스-레닌주의적견해에 타격을 주고 사회주의의 영예와 존엄을 끝까지 지키

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주권을 쥔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앞에 지닌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 수행에 다같이 충실한 가장 중요한 표현의 하나로 된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 당으로 하여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장성의 비상히 빠른 속도를 계속 견지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금 혁명의 길우에 있다. 우리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맞선 상태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하고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이 중대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자면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이룩하는것은 먼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7개년계획기간에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자립적체계가 선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여놓았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려면 아직도 경제건설분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공업을 더 잘 정비하고 그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 마련된 현대적공업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38~39페지)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기간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민이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하나의 력사적단계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하였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우리 나라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튼튼한 물질생산적토대를 쌓으며 공산주의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이미 이룩된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의 점령을 위한 투쟁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하는것은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북반부혁명기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앙양을 예견하고있는 6개년계획은 현시기 우리 혁명과 건설의 근본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실제로 보장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다. 여기에 또한 6개년계획이 사회주의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의 합법칙성을 구현한 천리마의 계획으로 되는 과학적근거의 하나가 있다.

새로운 전망계획에 예견되여있는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물론 우리 인민경제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새로운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환경에서 이룩되는 비상히 빠른 발전속도이다. 오늘 우리 인민경제는 지난날과는 대비할수

없으리만큼 방대한 규모로 늘어났으며 경제발전의 매 1%가 대표하는 수자도 전과는 비할바 없이 커졌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건설이 진척되고 경제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이 제도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려나오는 생산장성의 항구적예비가 끊임없이 늘어나며 사회주의국가는 이에 기초하여 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계속 견지할수 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96페지)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한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과 기술발전의 무한한 가능성 특히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며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6개년계획은 바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규정하는 이 모든 요인과 가능성에 확고히 기초하고있으며 또한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더욱 높이 발휘시킬것을 타산하고있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실제로 충분하게 마련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에게 맑스-레닌주의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싸워나아가는 이상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인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6페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당이 일단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의 하나로 된다는 원칙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우리 인민을 항상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심에 있어서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타산하시는 동시에 나라의 먼 장래의 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시며 일단 정책을 세우신 다음에는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강철의 의지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나가신다. 당 정책수립에서의 수령의 천재적통찰력과 과학적예견성, 그 집행에서의 강의한 원칙성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언제나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며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사소한 편향이나 동요도 없이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기본담보가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받는 맑스-레닌주의당의 경제건설에 대한 옳은 지도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며 6개년계획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직접 이끄시고계시는 한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주의건설의 천리마적전진속도를 더욱 다그칠수 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97페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사회의 전체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되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되였다. 우리 인민은 이미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간고한 시련을 통하여 단련되였으며 어떠한 난관이라도 능히 뚫고나갈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날로 높아지고있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이 심화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고조될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경제관리와 생산조직, 로동조직과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개선과 혁신을 일으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속도를 더욱 빨리 다그칠수 있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인민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계획적지도가 강화되고 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높아져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한 토대가 더욱 큰 은을 나타내게 되며 축적과 소비간, 경제부문들간의 균형은 보다 째여지고 적극적으로 설정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됨으로써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할수 없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계속 높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장성의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져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 잘 째일수록 더욱 많아집니다.》(우와 같은 책, 496~497페지)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계획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께서 밝혀주신 정확한 방침에 따라 인민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계획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적조치들이 련이어 취하여졌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완전히 맞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확립되여 그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또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할데 대한 수령의 독창적인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전반적경제관리에서 국가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적지도가 더욱 강화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힘있는 경제력과 우리 인민경제에 숨어있는 거대한 예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사실상 오늘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지도를 강화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다 깐지게 꾸려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

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것만으로도 6개년계획기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공업총생산액의 거의 60%를 보장할수 있다. 만일 우리가 6개년계획기간 해마다 강재를 1%씩만 절약하여도 그것으로 2만대에 가까운 뜨락또르를 더 만들수 있으며 석탄소비를 1%씩만 절약하여도 8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다. 또한 6개년계획기간 해마다 전력소비를 1%씩만 낮추어도 그것으로 30만톤의 강철을 증산할수 있으며 세멘트소비를 1%씩만 절약하여도 4만 4,000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을 더 지을수 있다.

우리 당은 이러한 현실적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지도일군들의 기업관리수준과 지휘능력을 발전하는 현실에 빨리 따라세울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았다.

우리 당은 또한 6개년계획기간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보다 계획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년평균 국가기본건설투자총액을 지난 10년간의 그것에 비하여 2.3배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확대하고 6개년계획의 전기간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에서 진행할수 있게 하는 밑천으로 된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 공업부문내부구조를 더욱 완비하며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또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공업부문에서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한다는것은 무엇보다도 생산의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할수 있도록 이 부문 내부균형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정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공업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원료원천에 튼튼히 발붙일수 있게 함으로써 어떠한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생산의 안전하고 빠른 발전속도를 끊임없이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6개년계획기간 공업부문앞에 나선 이 중심과업들이 철저히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마련된 자립적공업체계의 위력이 더욱 충분하게 발휘될것이며 생산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할수 있는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적극적균형이 보다 공고하여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의 수행은 6개년계획기간 생산력발전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이룩할수 있게 하는 또하나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여지고 새 기술이 보다 더 새로운 기술로 바뀌여지며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기계화가 반자동화로 발전하며 반자동화가 자동화로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우와 같은 책, 497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열어주는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따라 기술이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기술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구현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계속 전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과정을 촉진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기술혁명강령을 어떻게 제기하고 인민대중을 어떠한 투쟁구호밑에 조직동원할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준 천재적인 맑스-레닌

주의적사상이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것으로서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전체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의 새로운 로선이며 새로운 투쟁구호이다. 이 로선, 이 투쟁구호는 이미 오래전에 낡은 착취사회의 질곡에서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더욱 커다란 포부와 희망을 안고 자신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혁명위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로운 보다 높은 명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 전투적기치로 된다.

3대기술혁명의 기치드높이 생산공정을 자동화하고 생산조직을 개편하여 명년 4월 15일까지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함으로써 6개년계획말 수준을 1.3배로 돌파할것을 결의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계급의 영웅적발기는 기술혁신을 강화하는데 오늘 얼마나 무진장한 생산예비가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에 따라 새로운 전망계획기간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우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짐으로써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고 모든 녀성들이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것이다. 또한 로동생산능률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나라의 전반적생산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될것이다.

* *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합법칙성을 구현한 6개년계획의 수행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를 더욱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되게 할것이며 우리 혁명력량을 불패의것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또하나의 높은 명마루를 점령하게 할것이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게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 질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적대진군은 대규모사회주의경제가 끊임없이 빨리 발전할수 없다는 수정주의적견해에 다시금 치명적인 타격을 주며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독립되고 부강한 새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싸우는 모든 나라 혁명적인민들에게 끝없는 힘과 용기와 승리의 신심을 더욱 크게 안겨주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새해 1971년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수행하는 첫해이며 우리는 올해부터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보람찬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전반적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 첫전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올해계획은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전기간 가장 높은 속도로 발전한 지난해보다 훨씬 장성된 매우 방대하고 보람찬 계획이다. 우리는 올해계획에 예견된 경제발전의 비상히 빠른 천리마속도로 계속 힘차게 내달려야 6개년계획의 전반적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첫 돌파구를 성과적으로 열어제낄수 있다.

지금 수령께서는 6개년계획의 첫해과업수행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100일전투》에로 우리 인민을 더욱 힘차게 부르시고계신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100일전투》의 불길을 더욱 높여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큰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인민경제의 첫공정인 석탄공업을 급속히 발

전시켜 그것을 다른 모든 공업부문에 확고히 앞세우며 철도운수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것이다.

우리는 올해에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를 다른 모든 부문에 확고히 앞세우면서 흑색야금공업, 기계공업, 전력공업, 광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수산업, 기본건설 그리고 농촌경리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물론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서는 난관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아서 뭉개는 곤난도 아니고 후퇴하는 난관도 아니며 전진하는 도상에 있는 곤난과 난관들이다. 곤난앞에서 실망할줄 모르고 난관앞에서 굴할줄 모르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나아가는것은 영웅적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과 전체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물리치고 계속 혁신, 계속전진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며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가르치신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질풍처럼 내달려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며 올해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는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특히 수령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와 그이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여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더욱 강화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올해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천리마적진군속도를 더욱 다그침에 있어서 우리의 지도일군들이 놓아야 할 역할은 자못 크다.

우리 일군들은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을 도와주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께서 회천땅에서 지펴올리신 새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를 적극 받아들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강화하며 로동행정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또한 《전당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를 간부들의 자질과 지휘능력을 한계단 더 높이는 해로 되게 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금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번영의 시대, 혁명과 투쟁의 장엄한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사는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답게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의 합법칙적인 길을 따라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질풍처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큰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여있다.

토지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

—토지개혁법령발포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손 전 후

오늘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토지개혁법령발포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철저히 수행된 토지개혁은 민족적부흥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가장 거대한 사변이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토지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주권을 쥔 로동계급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다.

토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장래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의 조성된 정세와 사회경제적관계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시여 주체적인 토지개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토지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였다. 이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위대한 기여로 된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철저히 수행된 토지개혁은 토지문제해결에 관한 수령의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의 력사적경험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토지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이며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력사적위업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토지문제해결의 전략전술적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토지개혁을 다른 모든 민주개혁에 앞서 수행할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지배하고있던 우리 나라 사회경제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토지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것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우리앞에는 농촌에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가장 절박한 혁명과업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배하고있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는 수백만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예속에 얽어매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구속할뿐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진보를 장애하는 질곡으로 되여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문제의 해결은 반제반봉건적민주혁명에

서 기본내용을 이루고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85페지)

토지문제는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가장 초미의 문제였다.

토지개혁을 먼저 실시하여야만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던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정치적열성을 비상히 높일수 있었으며 나라의 전반적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사회정치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었다. 또한 토지개혁을 먼저 실시하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고 빨리 발전시켜 민족공업과 전반적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었다.

토지개혁의 선차적수행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혁명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토지개혁을 먼저 실시하여야만 빈농, 고농을 비롯한 절대다수 농민대중을 로동계급의 편에 확고히 서게 하고 로농동맹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토지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것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토지개혁의 철저한 수행을 위한 원칙적인 방침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께서는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농촌에서 토지몰수대상과 분배방법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적력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몰수대상을 규정하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0페지)

토지몰수대상을 옳게 규정하고 토지몰수와 분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것은 적대세력과 동맹자에 대한 로동계급의 립장을 반영하는것으로서 토지개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해방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5정보이상의 지주토지와 계속 소작주던 토지는 모두 착취수단으로 리용되였다. 해방당시 북반부에서는 약 4만 4,000명의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있은 반면에 전체농가의 약 80%는 토지를 적게 가지고있었거나 전혀 가지지 못한 처지에 있었다. 그들은 수확고의 50~90%를 지주에게 소작료로 착취당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이러한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시여 토지몰수대상을 일본제국주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였던 토지의 전부와 5정보이상의 지주의 땅과 계속 소작주던 토지를 모두 몰수대상으로 규정하시였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경제적기초를 청산하며 반혁명력량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의 몰수와 분배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토지개혁을 단꺼번에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토지개혁의 철저성을 조건짓는 가장 중요한 혁명적방침이였다. 토지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단번에 진행하지 않고 몇번에 꺾어하는식으로 질질 끈다면 청산된 착취계급이 되살아나거나 그들이 반항

할수 있는 여지를 그만큼 남겨두는것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지난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오던 절대다수 농민대중을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할수 없게 한다. 이것은 결국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막대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혁명적방침은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없앰으로써 혁명의 원쑤들을 남김없이 소탕할수 있게 하는 한편 농민들을 땅의 확고한 주인으로,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로 되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토지개혁의 철저한 수행을 위하여 내놓으신 방침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분여되는 토지의 소유형태를 근로농민적소유로 규정한것이다.

수령께서 독창적으로 규정하신 토지에 대한 근로농민적소유는 그전시기에 있었던 사적소유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혀 새롭고 혁명적인 토지소유형태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민주주의제도하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류형의 토지소유형태로서 여기에서는 토지의 매매, 저당, 소작 등이 철저히 금지된다. 그리하여 이것은 토지개혁에 의하여 분여되는 토지를 다시는 착취의 수단으로, 상품으로 리용될수 없게 하며 농촌에서 부농경리의 장성을 억제하고 계급분화를 방지한다. 이 방침은 결국 토지개혁의 철저성을 보장하며 그 성과를 공고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의 철저한 수행을 위한 정확한 계급정책을 실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빈농과 고농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리고 중농과 동맹하여가지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그뒤에는 농업협동화를 실현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59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농민 각계층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토지개혁의 성과적수행과 로농동맹을 강화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빈농과 고농은 봉건적토지소유제도를 철폐하는데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중농은 그 계급적본성으로 하여 동요성은 띠고있었으나 그들 역시 식민지적, 반봉건적 착취를 당하였으므로 토지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농촌의 자본주의세력인 부농은 그 세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우리 당은 수령께서 밝혀주신 정확한 계급정책에 따라 빈농과 고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지주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중농을 쟁취하고 부농을 고립시킴으로써 지주계급을 철저히 청산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혁명이 치렬한 계급투쟁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인민정권의 독재적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토지개혁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을 예견성있게 마련하시였다.

토지개혁의 철저한 수행을 위하여 그 전제조건을 조성할데 대한 방침은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창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이다. 이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기여를 한 또하나의 모범으로 된다.

토지혁명은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이 투쟁에서는 로동계급과 그의 혁명적전취물인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지주계급과 그 앞잡이들의 반악적책동이 극도에 달한다. 따라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혁명적무력을 창설하여야 하며 인민정권의 독재적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혁명의 당면요구와 장래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시고 인민정권의 독재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도록 모든 독재기구를 창설하시고 그 강화발전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께서는 특히 항일무장투쟁참가자들을 핵심적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인민정권의 독재기구인 인민무력과 안전기관을 튼튼히 꾸리심으로써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농촌에서 빈농과 고농들로 구성된 농촌위원회를 조직하시고 그들이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에서 앞장서며 당의 독창적인 토지개혁방침을 철저히 집행하여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시였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토지개혁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조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또한 토지혁명을 낮은 형태로부터 높은 형태로 점차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이다.

수령께서는 토지개혁에 앞서 농민들을 3.7제를 실시하기 위한 투쟁과 당중앙에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서면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지도하시였다. 그리고 전국도처에서 군중대회와 군중시위를 널리 벌리도록 하심으로써 농민대중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토지혁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것은 농촌에서 심각한 계급투쟁인 토지개혁에서 그 담당자들인 농민대중의 정치사상적각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며 농민들자신이 지주계급을 청산하는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투쟁을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토지혁명강령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토지개혁이 불과 20일동안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수행되였다.

토지개혁의 결과 100만 325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였으며 그중 98만 1,390정보에 달하는 토지가 72만 4,522호의 고농과 토지없는 농민 그리고 토지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였다.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민들은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농촌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이것은 오직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토지개혁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성과적으로 관철하심으로써 이룩할수 있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해방후 우리 나라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우리 당앞에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특히 토지혁명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때까지의 맑스-레닌주의문헌에서는 그 해결방도가 뚜렷이 주어진것이 없었으며 이렇다 하게 참고로 될만한 경험도 없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 그리고 먼 앞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다른 모든 혁명과업에 앞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방침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바로 수령께서 제시하신 토지혁명수행의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이 있었음으로 하여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 독창적인 토지개

혁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몸소 진두에 서시여 정확히 령도하시였다. 여기에 또한 토지개혁의 력사적과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와 우리 나라 농촌의 사회경제적관계,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토지문제해결의 옳은 길을 밝혀주시였다. 수령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몸소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여 토지문제해결의 귀중한 경험과 업적을 쌓으시였으며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그를 집대성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토지문제해결의 명확한 길을 정식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투쟁시기에 천명하신 토지혁명강령과 그 경험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 력사적뿌리로 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하신 토지문제해결의 력사적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몸소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수령께서는 토지개혁에 앞서 직접 농촌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오래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농촌의 복잡한 토지소유관계와 계급적력량관계, 농민들의 숙원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주체적인 토지개혁법령을 손수 작성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을 그 실현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토지개혁과 같은 심각한 계급투쟁에서 로동계급과 그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그에 기초하여 농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당은 군중로선에 의거하여 농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였으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반동세력의 저항을 분쇄하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4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혁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시고 당단체들과 당원들의 핵심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창조적인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농촌에 우수한 선전원들과 수많은 로동자들을 파견하여 농민대중속에 토지개혁의 력사적의의를 깊이 침투시키며 농민대중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당은 또한 농촌의 빈농, 고농들중 우수한 사람들을 당에 적극 받아들여 당력량을 확대하였으며 농민조합을 비롯한 사회단체조직에 농민대중을 광범히 묶이세우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당은 정확한 통일전선정책을 실시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통일된 력량을 토지개혁수행에 조직동원하였다. 그리하여 당원들뿐아니라 각 정당, 사회단체에 망라된 광범한 조직군중이 당의 토지개혁방침관철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자 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시고 몰수한 부림소, 농기구, 종자 등 생산수단들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시였으며 중농들이 소유하고있었던 생산수단들을 나누어쓰도록 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도록 정확한 정책을 실시하심으로써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배려에 의하여 땅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 농민들은 해방된 조선의 첫봄을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증산투쟁으로 맞이하였으며 토지개혁의 성과를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환시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또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10~25%를 국가에 바치는 농업현물세법령을 발포하심으로써 토지개혁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시였으며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한층 높이시였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철저히 수행된 토지개혁의 승리적로정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우리 농민들에게 베풀어주신 그이의 뜨거운 배려와 크나큰 은덕, 고매한 덕성이 수놓아져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행된 토지개혁의 력사적승리는 민주주의혁명의 성과적수행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개혁은 조선사회의 락후성과 정체의 기본원인이였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조선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우와 같은 책, 70페지)

토지개혁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침체와 락후성과 빈궁의 깊은 근원을 없애버리고 농촌경리의 발전과 나라의 전반적사회경제발전에 넓은 길을 열어놓은 일대 혁명이였다.

토지개혁의 결과 우리 농민들의 사회계급적처지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지난날 착취와 억압에서 신음하던 우리 농민들은 땅의 완전한 주인이 되였으며 지주계급은 자기의 경제적지반을 빼앗기고 계급으로서 청산되였다.

토지개혁의 실시는 땅에 대한 우리 나라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고 농업생산력을 오랜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여 빠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는 완전히 청산되고 근로농민의 토지소유에 기초한 새로운 농업생산관계가 발생하였다. 농민들은 소작제도에 의한 착취와 가렴잡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였으며 수확고의 10~25%만 현물세로 물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과 정치적열성은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농민들의 높은 생산의욕과 당과 국가의 힘있는 지원에 의하여 농업생산은 모든 분야에 걸쳐 빨리 장성하였다.

일제침략자들과 지주계급의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우리 농민들은 충분한 식량과 여유량곡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개선할수 있게 되였다. 토지개혁후에 우리 나라 농촌에는 많은 새 집들이 일어서고 전기가 들어갔으며 각급 학교와 문화시설들이 빨리 늘어나고 농촌의 문맹은 없어졌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력사적락후성은 농민들의 생활, 영농방법, 문화, 풍습 기타 모든 분야에서 빨리 사라져갔다. 농업생산력의 빠른 발전과 농민생활의 향상은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주독립국가의 경제적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거대한 전변을 가져오게 한 토지개혁의 실시는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적민주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토지개혁의 결과 세기적인 숙망을 이룩하고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우리 농민들은 자기들에게 토지와 정치적권리, 자유를 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다. 이 위대한 력사적개혁을 통하여 농민들의 정치적, 계급적 각성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인민민주주의제도의 기초인 로농동맹은

새로운 정치경제적기초우에서 더욱더 공고화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토지개혁의 철저한 수행은 민주주의혁명과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촉진하였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한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토지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적협동화를 실현하는것은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하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농촌문제해결의 력사적과정이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요소를 청산하고 개인농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는데 있다. 토지개혁의 철저한 수행은 바로 농촌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토지혁명이 철저히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의 대상인 부농은 이미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였으며 토지개혁후에도 그 장성이 억제되였다. 토지개혁의 실시는 또한 농업협동화운동을 반대하는 사회적세력을 약화시킨 반면에 근로농민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시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사회주의혁명에 유리한 계급적력량관계를 조성하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을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의 실시가 남조선혁명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통일된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될것이며 남조선 민주력량을 더욱 강화하게 될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34~35페지)

토지개혁이 실시됨으로써 일어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력사적인 전변은 남조선농민들의 토지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남조선혁명력량의 장성에 커다란 작용을 주었다.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은 지주의 착취와 예속을 벗어던지고 삶의 참된 행복을 찾은 북반부농민들의 생활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더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토지개혁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방침,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남조선에서 토지문제해결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토지문제해결에 대한 창조적사상과 독창적인 방침은 국제적으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개혁의 결과는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동방의 여러 나라들중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북조선의 토지개혁은 식민지적, 봉건적 압박과 착취에 신음하고있는 동방 각국 인민들과 농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여주었으며 그들이 나아갈 길을 비쳐주는 등대로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16페지)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토지혁명이였다. 이것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동방 각국 인민들과 세계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며 그들에게 끝없이 귀중한 경험을 주는 혁명적사변이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실시한 토지개혁의 력사적 경험과 업적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토지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토지개혁의 원칙을 정확히 세우고 토지몰수 대상과 그 분배방법을 옳게 규정하며 철저한 계급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그것은 농민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고 인민정권의 독재적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옳은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력사적경험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토지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할 때 피로써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할수 없게 되며 토지개혁의 철저성여부는 그 이후의 혁명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토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토지개혁의 력사적경험은 식민지적, 봉건적 예속을 벗어던지고 혁명을 계속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지난날 우리 농민들은 땅을 위하여 오래동안 투쟁하여왔으며 토지혁명을 위하여 많은 혁명선렬들이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 농민들이 다루고있는 땅에는 혁명선렬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09폐지)

토지개혁의 력사적위업의 승리는 이 땅우에 찬란한 결실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토지개혁이 실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스물다섯해동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세기적인 비약과 혁신이 이루어졌다.

수령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빛발아래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6개년계획기간 농촌경리분야앞에 나서는 새로운 전투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수령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기간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토지개혁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룩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을 수호하며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피우며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전진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농업부문근로자들과 전체 인민들은 당면하여 년초에 진행한 발판개공사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새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하며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에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남조선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라 필 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의 정세발전과 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심오히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며 각계각층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는 문제를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제시하시고 투쟁을 통하여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할데 대한 가장 혁명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독창적인 방침은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원칙적립장과 혁명적신념에 기초하고있으며 남조선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그러므로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장성강화하는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남조선현실에서 반혁명세력을 고립시키고 혁명을 주동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여야 할 필연적요구를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가장 혁명적인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제때에 물리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8페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충분히 마련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전략에서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이며 혁명승리의 필수적요구이다.

사회혁명은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새 제도를 세우기 위한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간의 가장 치렬한 계급투쟁이며 그의 승리는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함으로써만 가능하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혁명의 승리를 바라는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세력을 종국적으로 타승하기 위해서는 적들을 요정낼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는것은 혁명의 준비기에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성과적으로 물리치며 결정적시기에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혁명을 준비하는 단계는 곧 혁명력량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무시로 되는 반혁명적공세를 동반한다. 또한 혁명적대사변을 맞는 시기는 반혁명세력과의 최후의 판가리싸움을 벌리며 평상시에 수십년 걸려도 이룩할수 없었던 거대한

력사적변혁들을 단숨에 이룩하는 결정적시기이며 따라서 원쑤들의 발악도 극도에 이른다. 오직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해나가야 적들의 인상적인 공세를 물리칠수 있으며 혁명의 결정적시기에 적들의 필사적반항을 짓부시고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것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장래전망, 계급적력량관계, 혁명운동발전에서 대중투쟁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전면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투쟁을 통하여 장성강화할데 대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결속이 촉진되며 혁명의 핵심대렬이 늘어나고 혁명조직들의 전투력이 강해집니다.》(우와 같은 책, 8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장성시킬데 대한 방침은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분렬된 조건에서 혁명의 승리를 촉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전략이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자신이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한데 기초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능히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할수 있도록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는것은 오늘 남조선혁명앞에 나선 중요한 전략적과업이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조건에서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남조선인민들이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구현하여 실제투쟁과정에서 자기의 진지를 하나하나 구축해나감으로써만 이룩될수 있다.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키울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주객관적조건을 성숙시킬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방침이며 남조선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강화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길이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만일 적들의 폭압이 심하다 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포기한다면 새로운 혁명력량을 키울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준비된 혁명력량마저 보존할수 없게 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대중적투쟁을 통해서 혁명력량을 키울데 대한 방침은 바로 혁명력량의 준비문제를 계급투쟁의 실천속에서 주동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원칙을 밝혀주고있다.

혁명력량을 장성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대중투쟁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을 촉진한다는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떠한 혁명운동에서나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이 더 조직화되면 될수록 인민대중은 더욱 큰 힘을 내게 됩니다. 사실상 계급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군중은 혁명투쟁에서 큰 역할을 놀지 못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될것이며 마침내는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게 될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39페지)

반혁명을 고립시키며 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이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

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도 없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도 없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한다는것은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 관점과 립장, 태도와 방법을 체득시켜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것이며 궁극에 있어서 그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나서는 인민대중의 의식화과정은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은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촉진되고 완성된다. 인민대중은 실천투쟁의 체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되며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은 공고화되고 완성되여간다.

혁명적실천은 대중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실천과 결부됨으로써만 커다란 물질적힘을 나타내게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미제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과 남조선사회의 부패상, 근본모순을 옳게 인식하게 되며 마침내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증오하는데로부터 부패하고 모순에 찬 미제의 식민지제도와 군사파쑈독재를 때려부시고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하려는 사상적각오를 굳게 다지며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하게 되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의 시련을 통하여 혁명적의지를 단련하고 혁명에 대한 관점과 립장, 태도를 세련시키고 완성해나감으로써만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할수 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기 위하여 원쑤들의 총칼의 위협도, 단두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남조선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문제는 그들을 의식화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대중을 조직화한다는것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에 한결같이 조직동원할수 있는 하나의 체계화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은 산만한 군중을 가지고서는 할수 없으며 군중의 조직된 력량에 의해서만, 대중자신의 투쟁조직을 가질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 조직화되지 못한 대중은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될수 없으며 조직된 반혁명을 타승하려면 반드시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광범한 대중적투쟁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한다.

투쟁을 통하여 기본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의 기본요구이다.

기본군중은 억압자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반혁명의 발악적 본성과 자신의 단합된 힘의 위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며 조직적결속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이와 함께 대중투쟁은 기본군중을 결속하는 좋은 계기로 되며 대중은 투쟁과정에서 적들과 효과적으로 싸울수 있는 각종 형태의 조직을 뭇게 된다. 원래 투쟁자체가 군중의 발동을 전제로 하고있는만큼 군중의 절박한 요구를 정확히 내세우고 투쟁전술을 옳게 세워나간다면 기본군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투쟁조직을 쉽게 혁명적군중단체로 발전시킬수 있는것이다.

대중투쟁은 기본군중의 조직화과정을 촉진할뿐아니라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뿐아니라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계층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다같이 고통을 겪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군중들과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광범한 계층을 묶어세워 공동투쟁을 적극 벌리며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각계각층 군중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을 깊이 깨닫게 하고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며 실제체험을 통하여 공동투쟁과 행동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을 내올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할수 있게 한다.

남조선에서 대중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은 또한 혁명의 핵심대렬을 늘이며 혁명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간고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골간을 키운것처럼 남조선혁명의 지도핵심도 간고한 투쟁을 거쳐서만 준비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90페지)

당원들과 혁명적지도핵심은 오직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만 배출되고 육성된다.

당원들은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세련시키고 끊임없이 완성해가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체득하게 되고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단련된다. 혁명적리론은 혁명적실천에 기초하고있으며 혁명적실천에 복무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당원들은 투쟁과정에서 혁명운동에 대한 지도경험을 쌓으며 리론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참말로 우수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광범한 군중단체들이 조직되고 작은 규모의 경제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규모의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적핵심이 자라나게 되며 혁명대렬은 끊임없이 확대강화되게 된다.

또한 당조직을 비롯한 모든 혁명조직들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실천투쟁을 통해서만 불패의 조직으로 장성강화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기 대렬을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적핵심들로써 질적으로 꾸릴수 있으며 그의 조직성과 전투력을 높이고 단련성을 보장할수 있다. 투쟁하지 않는 조직은 지도능력을 키울수 없다. 투쟁속에서 세련된 조직만이 지도능력을 가진 공고한 조직으로, 원쑤들의 어떠한 탄압에도 견딜수 있는 위력한 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다.

지난 기간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더욱 단련되였으며 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장성하였다. 특히 전후시기 진보당과 사회대중당의 활동, 4.19인민봉기와 그후 투쟁과정에서 피의 교훈을 찾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오직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탁월한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 지하당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남조선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출현은 바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인것이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의 지도밑에 진행된 매국적《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6.3봉기와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의 8월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수많은 투쟁속에서 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이 더욱 촉진되고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의 대렬이 자라나게 되였으며 당은 끊임없이 단련되였다.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실천적경험은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도,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다같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 문제도 대중투쟁을 널리 벌리며 그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옳게 해결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운동에 대한 풍부한 실천적지도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신데 기초하여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 대중투쟁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그에 대한 옳은 전략전술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발전시키는 과업이 긴급하면 할수록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옳은 전략전술적지도를 보장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9페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중투쟁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전략전술적원칙에서 옳게 지도하는것이다.

대중투쟁은 언제나 복잡한 정세속에서 진행되며 여기에 인입되는 인민대중의 처지와 준비정도는 각이하다. 옳은 전략전술적지도가 보장되여야만 대중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킬수 있고 혁명력량의 장성과 혁명운동발전을 힘있게 촉진할수 있다.

만일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하지 않고 혁명의 복잡한 내외정세를 신중히 평가함이 없이 모험주의적인 투쟁을 벌린다면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축적하는데 엄중한 손실을 주게 될것이며 반면에 혁명이 간고하다 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혁명력량을 준비할수 없고 혁명도상에서 부닥치는 어려운 고비를 타개할수 없게 될것이다.

남조선에서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며 혁명력량을 장성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좌우경적편향을 다같이 경계하면서 조성된 정세와 모든 주객관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기초우에서 대중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당면한 모든 투쟁을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전개하고 있는 당면한 모든 투쟁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면한 투쟁을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혁명의 전략적과업해결에 당면투쟁을 복종시킬데 대한 전략전술의 근본요구를 구현한것으로서 혁명의 준비기 대중투쟁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혁명에서 기본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이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진압하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당면한 모든 투쟁의 정치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그를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당면투쟁이 대중의 정치경제적인 부분적요구를 해결하며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을 강화할뿐아니라 혁명의 전략적목표인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그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되는것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장성강화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전술적원칙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을 잘 참작하여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선택하며 원쑤들의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들을 능숙히 리용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적인 구호를 옳게 제시하여 혁명로선을 잘 규정하는것이다.

투쟁구호는 혁명발전의 현단계와 먼 장래까지도 포함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의 정치적 목적과 과업,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수단과 행동방향 등 투쟁로선을 집약적으로 밝혀준다.

당은 투쟁구호를 통하여 자기의 정치적요구를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대중은 투쟁구호에서 투쟁 목적과 방법을 명백히 알고 혁명에 의식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투쟁구호를 옳게 내세우는것은 혁명군중에 대한 당의 동원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투쟁구호를 옳게 작성제시하기 위한 원칙적요구를 밝히시면서 대중투쟁에서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에 맞는 과학적인 투쟁구호를 내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투쟁구호를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에 알맞게 내세우는것은 대중투쟁에 대한 지도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혁명운동을 곧바로 전진시킬수 있게 한다. 또한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제시되는 투쟁구호에서는 대중투쟁에 참가하는 모든 계급계층들의 다양한 요구중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절박한 요구를 투쟁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투쟁구호가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대중자신의것으로 접수될수 있으며 조직동원자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투쟁전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정확히 선택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시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 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89페지)

조성된 정세하에서 투쟁 형태와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대중투쟁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대중의 혁명기세가 아무리 높다하여도 투쟁 형태와 방법을 옳게 선정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달성할수 없으며 반혁명을 타승할수 없다.

투쟁이 전개되는 구체적환경과 적아간의 력량관계, 혁명군중들의 의식수준 등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옳은 투쟁 형태와 방법을 세워야만 원쑤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격할수 있으며 투쟁에서 이룩하려는 목적을 쉽게 달성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투쟁형태의 선택을 위한 원칙적요구를 밝히심과 함께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양한 투쟁 형태와 방법을 배합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것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배합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혁명투쟁은 무엇보다먼저 정치투쟁이며 온갖 형태의 투쟁은 결국 정치적문제를 해결하는데 귀착되여야 한다. 정치투쟁은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정치적자유를 쟁취하며 반동통치제도를 쓸어버리고 인민의 정권을 세우는 등 혁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다.

경제투쟁은 근로자들의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혁명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나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혁명운동을 점차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투쟁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대중투쟁을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와 결부시킴으로써 근로대중을 투쟁에로 쉽게 끌어들이며 그들의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은 서

로 다른 지위와 특성을 가지고 혁명발전에 다같이 기여한다. 그러므로 혁명대렬을 늘이며 혁명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두가지 형태의 투쟁을 잘 배합하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경제투쟁을 광범히 벌리며 그것을 정치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미제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철저히 전변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고는 극도에 이르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면한 생활처지의 개선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투쟁에 적극 끌어들이며 그들을 각성시켜 혁명대오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합법 및 반합법 투쟁과 비합법투쟁을 결합하는것은 남조선에서 원쑤들의 폭압에 대처하여 대중투쟁을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도로 된다.

만일 합법적조건에만 매여달리고 비합법적준비를 갖추지 않거나 제한된 합법투쟁만 벌린다면 적들의 불의의 반혁명적공세앞에서 혁명력량을 보존할수 없으며 대중투쟁을 전략적요구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릴수 없다. 반대로 투쟁이 비합법적토대우에서 진행되는 경우에 합법활동의 여지를 보지 않고 합법적가능성을 리용하지 않는다면 혁명력량을 장성시킬수 없고 혁명운동을 광범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발전시킬수 없다.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옳게 결합함으로써만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혁명운동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적들의 어떠한 반혁명적공세앞에서도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끊임없이 장성시켜나갈수 있는것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이 두가지 투쟁형태를 배합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폭력투쟁이 없이 그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주권을 쥘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403페지)

오늘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이 저들의 지배권을 순순히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진보적력량을 압살하기 위하여 반혁명적폭력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오직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수 있다.

폭력투쟁은 적들내부에 심각한 동요와 혼란을 조성하고 적들의 폭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엄호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을 적극 추동한다. 특히 그것은 인민대중을 급속히 각성단련시키며 반혁명세력을 결정적으로 타격하고 인민의 정권을 쟁취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그런데 아직 정세가 폭력적인 진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중자신도 폭력적진출에 준비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대중투쟁이 흔히 비폭력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이것은 광범한 군중을 투쟁에 끌어들이고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투쟁을 높은 폭력투쟁에로 준비시키는 전제로 된다.

만일 정세를 고려함이 없이 폭력투쟁만을 절대화한다면 대중을 투쟁으로부터 리탈시키고 무장한 적들앞에서 혁명력량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좌경모험주의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모든 경우에 비폭력투쟁만을 절대화하고 폭력투쟁을 거부한다면 유리한 정세마저 적극 리용할수 없게 되며 적들의 반혁명적공세앞에서 대중을 무기력하게 하고 혁명을 후퇴시키는 우경투항주의에 굴러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두가지 투쟁형태를 능숙히 배합하여야 한다.

실로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을 결합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대중투쟁에서 좌우경적편향을 다같이 경계하고 그것을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의 길로 이끄는 탁월한 지도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적내부의 모순과 약점의 존재형태와 그 성격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대중투쟁에 그것을 능숙히 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내에는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 통치자인 미제상전의 신임을 얻으려는 그 주구들사이의 모순, 미제와 그 주구들사이의 모순 그리고 놈들의 신식민주의통치의 취약성으로 인한 허다한 약점과 혼란 등이 뒤엉켜있다. 반동통치배내부에서의 모순과 대립은 괴뢰정권에 참여하기 위한 정치적 파벌, 분파들 사이의 모순, 미일독점자본과 결탁하여 더 많은 경제적리권을 얻으려는 착취자집단사이의 알륵과 추악한 경쟁에서 표현되고있다. 요즘 남조선괴뢰지배층내부에서의 대립은 괴뢰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악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박정희괴뢰도당과 그 반대세력사이에서 더욱 첨예화되여가고있다.

물론 원쑤들내부의 모순과 약점들은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비본질적인 모순이다.

비록 비본질적인 모순이라도 투쟁에서 그것을 옳게 리용한다면 적들을 약화시키고 피동에 빠뜨릴수 있으며 혁명의 객관적정세를 보다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될것이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장성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은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여기에는 혁명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남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하며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자체가 주동이 되여 수행할데 대한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립장과 원칙이 구현되여있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장성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혁명의 전기간에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투쟁의 무기로 되며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귀중한 재부로 된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속에서 더욱 각성단련될것이며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짓부셔버릴수 있는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날것이며 반드시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제 3 호 (루계 348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1년 3월 1일　　발행 • 1971년 3월 5일

ㄱ—14100　　값 5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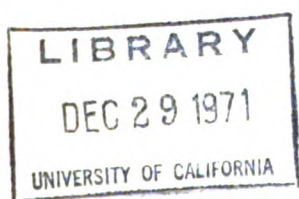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근로자

제 4 호 (34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인 조국해방투쟁행정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활동력사는 바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그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오신 빛나는 혁명력사이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토대하시여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을 창건육성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일대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펼쳐주시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으시여 오늘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고계신다.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도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발전시키시여 현대의 가장 악독한 제국주의두목 미제의 내리막 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혁명적폭풍우의 시대를 휘몰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현시대의 세계혁명의 근본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계신다.

어제날 세계력사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인민은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기에 오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민족의 태양을 맞이하게 되고 그이께서 혁명의 장도에 오르시여 이 땅우에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밝아온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영광의 나날을 무한한 감격속에서 돌이켜보는 전체 조선로동당원들과 4천만 조선인민은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영원히 받들어 대를 이어 꽃피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1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 이는 우리 당과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이며 끝없이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며 모든 승리를 담보하는 확고한 밑천이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행복이다.

혁명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혁명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내고 가장 정확한 길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다.

혁명전통을 거부하거나 말살하게 되면 혁명은 전진을 멈추게 되며 그 명맥은 끊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계승문제는 혁명을 계속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원칙적문제이며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갈라놓는 기본척도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혁명전통을 거부하는자들이 례외없이 혁명의 배신자들이며 기회주의자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진정으로 혁명하는 당, 혁명하는 인민은 그 나라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로동계급의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무성한 나무에는 깊은 뿌리가 있듯이 위대한 당에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다. 깊이 내려진 억센 뿌리를 가진 나무만이 사나운 폭풍속에서도 끄떡없이 무수한 가지를 뻗으면서 싱싱하게 자라나며 주렁진 열매를 맺는것처럼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당만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나아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난 영광스러운 당이며 위대한 혁명투쟁에서 검열되고 세련된 불패의 당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02~103페지)

우리 당은 창건된지 4분의 1세기밖에 되지 않지만 결코 나어린 당이 아니다. 우리 당은 깊고도 영광스러운 력사를 가진 세련된 당이며 가장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은 오직 유일한 혁명전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을뿐 그밖에 어떤 다른 전통도 모른다.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전통은 선행한 모든 유산의 단순한 총화가 아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뿌리로,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는 혁명적유산이다.

그러한 혁명전통은 오직 혁명승리의 앞길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자기의 우수한 령도자를 가져야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사회발전법칙의 지식과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으로 무장되여야 하며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하며 동맹자를 전취하며 혁명의 후비군을 동원하며 리용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과 그 수령들에 의하여 수행되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이지만 그들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으로써는 결코 력사를 전진시킬수 없으며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령도가 없이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의식으로 무장될수도 없고 조직된 력량으로 결속될수도 없다. 다시말하여 수령의 령도사상과 지도리론,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없이

는 인민대중은 암중모색하게 되며 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는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전통이 형성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수령만이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한다. 로동계급의 수령만이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위한 유일한 중심이 되여 그들을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워 혁명승리에로 인도한다.

따라서 혁명운동의 승리의 력사는 곧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혁명력사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오직 조선혁명의 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기전까지는 그리고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혁명투쟁밖에서는 결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될수 없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났던 의병투쟁을 비롯하여 그후 독립군운동, 애국문화정치운동 등이 있었고 1920년대초부터 초기공산주의운동도 벌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없었던 탓으로 하여 옳은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질수 없었고 많은 희생을 내면서도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승리의 앞길이 열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당의 깊고 억센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였다.

진정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극히 가난하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열렬히 싸운 력사상 그 류례를 모르는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모님의 애국주의교양과 몸소 겪으신 시련에 찬 체험, 정열적인 학습을 통하여 원대한 뜻을 키우시면서 혁명의 천재적수령으로,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성장하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15살의 어리신 몸으로 혁명의 장도에 오르시여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하였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길을 따라 독자적으로 조선혁명승리의 앞길을 개척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개시와 더불어 혁명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새 기원이 열리였으며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력사가 시작되였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승리의 력사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이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름을 떠나서 우리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이의 혁명력사를 떠나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의 력사이며 가장 위대한 공산주의적혁명가의 력사이며 가장 탁월한 인민의 령도자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가장 심오하고 비상히 폭넓은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창시하신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그이께서 창시하신 리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로동계급이 수행하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와 분야를 포괄하고있다. 거기에는 전략적방침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실천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남김없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이와 같이 그이께서는 천재적인 지략과 비범한 예지로 혁명과 건설이 절박하게 그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인류의 정신적재부를 비상히 풍부히 하시였으며 실로 백과전서적이며 전체 포괄적인 정연한 사상 및 리론 체계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구상하시고 작성하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을 동원하시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시여 실천에 옮기시였으며 현명한 령도로써 승리에서 승리에로 계속 혁명을 힘있게 이끄시여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바로 그러기에 그이께서는 현대의 민족적 및 사회적 모순이 복잡하게 엉켜져있었고 세계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을 사소한 로선상 착오나 정책상 편향도 없이 줄곧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실수 있었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는 또한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끝없이 넓은 포옹력,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풍모와 덕성 그 모든 것을 한몸에 체현하고계시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그토록 영광스러운것이며 고귀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이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혁명적재부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리론을 확립하시고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심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초석을 마련하시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의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그이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그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가장 높은 형태의 대규모적인 반제민족해방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그것은 단순한 무장투쟁이 아니라 대중의 정치, 경제적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고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은 정권도,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 강도 일제와 국내반동 및 혁명대렬안의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타승한 가장 영웅적인 투쟁이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무

장한혁명력량이 일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눕히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끈 빛나는 혁명전쟁이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조선혁명에서뿐아니라 세계혁명발전에서도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다.

항일무장투쟁은 그 지도사상에 있어서, 그 형태와 규모에 있어서, 그 목적지향성과 조직성에 있어서, 그 간고성과 장기성에 있어서 세계혁명운동력사에서 일찌기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1920년대말에 이르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비롯한 세계혁명운동은 종전에 비할바없이 전세계적규모에서 급속히 확대되여갔으며 여러 나라들에서의 혁명운동은 민족국가 단위로 각이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진행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적응한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수립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의 새로운 지도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리론이 제시되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이 작성되였으며 당창건, 인민혁명정부수립, 근로단체조직 및 반제민족통일전선결성에 관한 정연한 과학적인 리론과 귀중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세계혁명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된 최초의 혁명투쟁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혁명투쟁이였다. 그것은 세계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고무함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후비군으로부터 세계혁명의 2대력량의 하나로 전환시키는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대두하던 국제파시즘의 중요한 축수를 아세아에서 꺾어버리고 국제반파쑈운동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참으로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자랑으로 되며 조선인민의 혁명력사뿐아니라 현대인류사를 장식한 위대한 혁명투쟁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이와 같이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항일무장투쟁력사를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혁명하는 인민들의 무한히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활동력사를 따라배우려는 열망이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수십개의 연구소조들과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만아니라 우리 시대, 20세기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민족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 모든 인민들의 수령이시며 태양이시다.》,《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이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 고귀한 업적은 세계혁명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이러한 고귀한 혁명전통은 전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가장 곧바른 혁명의 길을 따라,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2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조국해방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당을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킴에 있어서 무한히 귀중한 혁명적내용들로 가득차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항일유격대의 사상체계를 계승하며 그 우수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계승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66페지)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 기치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승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고귀한 경험과 업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9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의 사상체계와 그리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이 담겨져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의 사상체계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전반을 관통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투쟁시기에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과 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모두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을 표시해주는 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에로 인도하는 우리 혁명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일뿐아니라 세계혁명운동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은 그 휘황한 앞길을 개척하여나갈수 있는 불패의 사상적기치를 가지게 되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우리 혁명의 사활적요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필연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1920년대의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바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진행되였다는데 있습니다.》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는 조선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조성된 객관적정세는 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더우기 항일무장투쟁이 정권도,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는 조건하에서, 혁명투쟁에 필요한 크고작은 모든것을 오직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였던 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진행되였던것으로 하여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는 가장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에 있어서 온갖 기존리론이나 기존공식에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로선과 방침들을 천명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혁명로선-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그리고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방침 등은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것으로서 그이께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시고 발전시킨것이다.

주체의 확립은 시종일관 이를 반대하여 나선 내외의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첨예한 투쟁속에서만 가능하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자주성을 잃고 남에게 아부굴종하는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종파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반대배격하시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승리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은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고수하기 위한 투쟁행정이였으며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따라 힘차게 전진한 자랑찬 투쟁로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철저한 반제사상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독립도, 로동계급의 해방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도 오직 치렬한 반제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 철저한 반제사상에 기초하시여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오직 무장투쟁으로써만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다는 가장 철저한 반제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조선인민은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청원이나 평화적시위, 파업이나 소작쟁의와 같은 투쟁만으로써는 결코 민족적해방을 달성할수 없었다.

조국해방을 위한 조선인민의 민족적숙망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철저한 반제사상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철저한 반제사상은 온 세계에서 제국주의의 아성을 종국적으로 짓부실 때까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반드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

신,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집중적발현이다.

불멸의 업적으로 아로새겨진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로정은 혁명에 대한 그이의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빛나는 력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직 혁명의 리익,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항상 첫자리에 놓으시였으며 자신의 모든것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요구라면 한몸의 위험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만난을 헤치시면서 전인미답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여 혁명투쟁을 줄곧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신 간고하고도 준엄한 혁명의 길은 오직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찬란한 투쟁로정이며 혁명에 대한 그이의 무한한 충실성은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모범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되였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숭고한 공산주의적 혁명정신과 풍모를 따라배운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일편단심 수령께 충실하였다. 항일유격대내에서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게 되였다.

실로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사상체계는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대를 이어가면서 소중히 간직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인 조국해방투쟁행정에서 우리 인민과 전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쌓아올리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마침내 일제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조선혁명과 세계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초석이며 혁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인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으로부터 조선공산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와 당사업경험, 인민정권건설과 그 사업경험, 근로단체건설과 그 사업경험, 혁명무력건설과 군사활동의 경험, 통일전선운동과 그 사업경험 등 조선혁명의 가일층의 발전과 종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고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시였으며 당사업의 기본원칙들과 고귀한 당사업경험들을 창시하시였다.

이것은 해방후 그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이 견고한 토대우에서 지체없이 창건되고 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 혁명과 건설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갈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인민정권건설의 기초와 인민정권사업경험, 대중단체건설의 기초와 그 풍부한 사업경험, 혁명무력건설의 기초와 군사활동의 경험 등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확립과 우리 혁명력량의 강화발전을 위한 확고한

밑천으로 되였다.

나아가서 이 풍부하고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은 당건설, 국가건설 및 혁명무력건설, 근로단체 및 통일전선 사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전략전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킴으로써 세계혁명운동발전에도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는 또한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담겨져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공산주의자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고 몸소 그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불장군이란 말 그대로 단독적인 로력이나 열망만으로써는 안된다. 인민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싸울 때만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인민에게서 배우고 인민을 잘 교양하고 조직하여 옳게 발동시킨다면 어떤 일이건 못해낼것이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혁명적군중관점은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관점이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며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관점이다.

김일성동지께서 확립하신 이 군중관점은 로동계급의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을 가장 심오하게 체현하고있는 진실로 혁명적인 군중관점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과 립장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혁명적군중관점에 관한 완벽한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공산주의적 사업 방법과 작풍의 사상리론적기초를 확고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 군중관점에 기초하시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 설복과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 원칙,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는 원칙,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하는 원칙 등 혁명적사업방법의 가장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겸손성과 소박성, 인간성과 문화성, 혁명가적기풍, 이신작칙, 원칙적단결과 혁명적동지애, 혁명적의리 등 인민적사업작풍의 위대한 전형을 이룩하시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위대한 모범은 그이의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의 발현이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인민들과 혁명동지들을 한품에 안아키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체현하고계셨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인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자신의 한몸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혁명동지들과 유격대원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였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력사에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도 많지만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돌려주신 그처럼 고매하고 끝없이 자애롭고 뜨거운 사랑

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구현된 결과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되고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동지관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으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명도의 혁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그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것이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빛나는 혁명투쟁,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뿐아니라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도 본질적이며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된다.

3

혁명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해나가는 문제는 혁명을 계속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에 우리의 오늘의 승리가 있다는것을 대중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행하고있는 조선혁명은 수입해온것이 아닙니다. 혁명은 수출하는 법도 없고 수입하는 법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공산주의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선혁명이 있습니다.

항일투쟁에서 단련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없었더라면 해방후에 우리 당을 창건할수도 없었을것이고 민주주의적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지도 못하였을것입니다.》 (《김일성선집》, 제5권, 507페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조국해방투쟁시기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불과 스물다섯해밖에 안되는 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와 몽매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켰다.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 땅우에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찬란한 민족문화와 철벽의 자위력을 가진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이 건설되였다.

지난날 나라 잃은 민족으로 갖은 수모를 당하던 우리 인민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사람으로 태여난 긍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영명하신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찬란한 성과는 일찌기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한 혁명적변혁이다.

이 위대한 변혁, 그것은 오직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견결히 고수하고 발전시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더 없는 영광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혁명전통을 계승하며 당의 투쟁경험을 더욱 풍부히 하며 당이 이루어놓은 투쟁업적을 공고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1페지)

《우리는 후대들도 반드시 우리의 사상을 계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우리의 사상을 계

승하지 않는다면 그때의 당은 벌써 조선로동당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하는것은 바로 그것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옹호보위하는것으로 되며 수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당이 수령께서 마련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가, 안시키는가 하는것은 우리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며 혁명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오직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것을 대대손손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우리 인민을 영원히 수령의 혁명위업의 충실한 계승자로 만들수 있다.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 복잡성은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계승발전시킬것을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간고한 투쟁을 예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항일빨찌산들이 백두밀림에서 싸우던 그런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9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도 혁명도상에 있으며 앞으로도 간고한 투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하고있는 세계제국주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이룩해야 하며 세계혁명의 앞장에 서서 혁명투쟁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하여 어떤 난관앞에서도 동요없이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바로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령께 끝까지 충실하며 혁명적지조를 지키는 백절불굴의 공산주의자, 혁명투사의 산모범을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양육성하신 항일혁명선렬들에게서 찾아볼수 있다.

혁명전통계승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혁명대렬에 부단히 보충되고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진행되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더욱 절실합니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집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4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혁명의 후계자들을 튼튼히 키워 대를 이어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을 종국적승리에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뿐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이 투쟁은 한두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며 대를 이어 수행해야 할 장기적이고 간고한 혁명투쟁이다.

따라서 혁명의 젊은 세대들을 혁명전

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것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앞날을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혁명전통이 거부되고 그것이 계승되지 않을 때는 특히 혁명적 단련과 세련이 부족한 새세대들속에서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에 권태와 동요를 일으키며 투쟁을 기피하는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세대들이 혁명의 대를 굿굿이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며 혁명은 변질의 위험성을 면할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의 진정한 시원을 열어놓은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힘의 원천이다.

이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우리의 새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갈 때에만 그들은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며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내고 온갖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을 끝까지 옹호관철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계승과 관련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전통을 거부하는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하는 문제이다.

수정주의자들의 반동적 본질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것은 혁명의 뇌수인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무엇보다먼저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을 없애버리기 위해 온갖 비렬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수정주의자들이 혁명전통을 유린말살하는것은 혁명을 거부하는 그들의 근본적립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수정주의진흙탕속에 빠지게 되면 근로자들의 건전한 혁명의식은 마비되고 부패타락한 자본주의사상의식과 생활양식이 휩쓸게 되며 수령이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은 위험에 빠지고 혁명은 대가 끊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명전통을 거부하는 수정주의자들의 반동적책동에 예리한 눈초리를 돌리며 그 본질과 수법을 똑똑히 꿰뚫어보고 그 어떤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수정주의적요소가 절대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내부에서 생겨나지도 못하게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수정주의사상이 발붙일수 있는 부르죠아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그릇된 사상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생활에서 얻은 체험은 혁명전통교양을 반드시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거의 다 파란곡절을 겪어보지 못하였고 해방후 20년동안 고이 자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어야 합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줄수 있는 유일한것은 지난날 혁명가들이 어떻게 혁명활동을 하였는가 하는것입니다.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런것을 대주어야 일군들의 사상의식을 더 단련할수 있고 그들이 혁명가의 기풍을 가지게 할수 있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

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억세게 키우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고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가장 힘있는 수단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우리 당 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의 하나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서 기본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심오하게 연구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여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뼈와 살로 만들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실천과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그 결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온 나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해 전례없는 혁명적정열로 들끓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3대기술혁명과업을 기어이 실천하고야말 뜨거운 결의로 가슴불태우고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안고 명년 4월 15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오늘의 이 벅찬 현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교양된 우리 인민의 가장 높은 사상정치적수준과 정신도덕적풍모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은 위대한 물질적힘을 낳고있으며 우리 사회의 전진운동을 강력히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혁명전통교양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론박할 여지없이 실증하고있으며 그것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　　　*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그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과 인민에게 마련해주신 한없이 고귀한 혁명의 밑천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참으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며 행복이며 자랑이다.

동시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진정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도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위력한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이 완수되고 공산주의가 다 될 때까지도 결코 낡은것으로 될수 없다.

그것은 나라와 세기를 넘어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며 비상한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홰불로 그 찬연한 빛을 온 누리에 뿌릴것이다.

그것은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과 더불어 영생불멸할것이다.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보고와 신년사에서 내세우신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6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 《100일전투》로 들끓고있으며 수령께서 몸소 회천지구에 나가시여 지펴올리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가 전국에 타번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전국선동원및5호담당선전원열성자대회가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시고 그이의 세심한 지도하에 진행된 전국선동원및5호담당선전원열성자대회는 언제나 중대한 혁명과업을 앞두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시는 그이의 탁월한 령도예술에서의 또하나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심오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요구를 정확히 통찰하시고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실뿐아니라 탁월한 령도예술과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심으로써 그것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혁명이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방대한 혁명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속에서 정치선동사업을 강력히 벌리심으로써 부닥친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앙양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력사적임무가 나서고있다.

당앞에 나선 이 력사적임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 발양시키기 위한 대중정치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이러한 객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전국선동원및5호담당선전원열성자대회를 마련하시고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될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 사회주의건설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혁명수행에서도 계급투쟁을 동반한다는 위대한 사상을 더욱 풍부히 하시였으며 대중정치선동사업의 내용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심오히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 밝히신 이 위대한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또하나의 새로운 기여로 되며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대중정치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촉진하며 모든 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래년 4.15전으로 앞당겨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일으켜야 한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과정에서 대중정치선동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에 대한 독창적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빛나는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입니다.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결국 군중을 많이 전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와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은 자기 대렬을 강화하는 한편 언제나 광범한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2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대중을 의식화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중정치선동사업은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첫공정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하여 혁명투쟁에 적극 발동시키며 그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자연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대중정치선동사업이 가지는 의의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더욱더 커진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오직 광범한 대중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건설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대중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나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해서나 모든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을 떠나서 그 어떤 혁명과업수행에서도 성과를 바랄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대중정치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광범한 대중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침투시켜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사회주의는 자체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선 새로운 방대한 혁명과업과 관련하여 대중정치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근본적인 변혁들과 특히 6개년계획수행의 첫돌격전에 들어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을 깊이 통찰하시고 기술혁명수행에서도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한 정치선동사업이 필요하며 계급투쟁이

동반되여야 한다는 창조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모든 사회혁명이 그러한것처럼 자연을 변혁하는 기술혁명도 대중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수행되는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과정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도 혁명의 담당자들인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대중정치선동사업, 온갖 낡고 보수적인것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않고서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다는것을 밝혀주신것이며 계급투쟁에 대한 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신 창조적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혁신 그 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입니다. 뒤떨어진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4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도대체 있을수 없으며 기술혁명도 포함한 모든 사회적전진운동은 오직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계급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진다.

현실은 당에서 새 로선이 나올 때마다 그 관철을 방해하는 동요분자, 소극분자, 보수분자들이 생긴다는것을 보여준다. 어떤 혁신운동이든지 새로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적극분자가 있는 반면에 소극분자가 있는것이다. 특히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이 어렵고 방대할수록, 우리의 투쟁과업이 보다 심각할수록 낡은것, 보수주의적인것이 더욱 집요하게 반항해나선다.

기술혁명은 그자체가 벌써 이와 같은 낡은것, 침체한것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더우기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운 3대기술혁명은 이미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공업화가 실현된 기초우에서 더욱 높은 단계에서의 혁신을 위한 심각한 투쟁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우리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아직 누구도 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대담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불피코 소극성과 보수주의, 사대주의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한다.

기술혁명수행에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는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낡고 침체한것, 비로동계급적이며 비혁명적인 요소들을 짓부시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적극성과 대담성, 그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불러일으켜야 할 기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관련되여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이 내세운 3대기술혁명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힘있게 촉진하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결정적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과업이다. 이 과업의 수행은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산활동과 경제생활뿐아니라 정치사상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며 의식령역에서의 심각한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이 력사적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어떻게 개변하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대중정치사업, 계급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지 않고는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도 없으며 사회주의적생산을 옳게 관리운영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기술혁명수행에서도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근로자들의 높은 정치적각성과 계급적관점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근로자

들의 높은 사상의식이 바로 기술발전을 추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기술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나 혁명과 건설의 전반적사업을 령도함에 있어서나 반드시 자기의 본성에 따라 대중정치사업, 계급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지혜를 발동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공산주의자들은 생산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불러일으킬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몸소 탁월한 실천적모범을 수많이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였던 5개년계획수행의 첫시기 바로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의 심장속에 혁신의 불씨를 심어주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인 천리마의 대진군을 불러일으키시였고 주을아마공장에서 일어난 한점의 불꽃을 발견하시고 전국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확대발전시키심으로써 기술혁신의 새로운 발전의 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실로 그이께서는 청산리와 대안, 룡성과 희천에 대한 현지지도를 비롯하여 온 나라의 방방곡곡, 공장과 광산, 농장과 어촌을 찾으시여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지혜를 심어주시고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우리 나라가 력사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위대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는 과정에서 창조된 그 모든 기적적성과들의 하나하나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인민을 찾으시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신 불멸의 사상으로 하여, 탁월한 령도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과정에서 쌓으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우리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인민대중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하지 않고 무슨 묘안을 자꾸 생각해내려고 해도 안됩니다. 혁명이나 건설에서 무슨 별다른 묘한 수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묘한 요행수를 찾아내려고 헛되이 노력할것이 아니라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5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일군들이 직접적인 생산자들의 지혜를 발동시키며 그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최대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직접적인 생산자들인 로동자, 농민들의 힘과 지혜에 대한 굳은 믿음에서 출발하신것이다.

직접 기계를 다루는 로동자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로동에서 새로운 산 경험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하고 생산을 더 내겠는가에 대하여 밤낮으로 머리를 쓴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그들은 기술을 혁신할데 대한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은 바로 생산자들의 이와 같은 생신한 발기를 적극 지지하고 그것을 대중적운동으로 조장발전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중적영웅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특히 보수주의와 경험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은 보수주의와 경험주의, 사대주의 등의 낡은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생산자들의 지혜를 대담하게 불러일으킬 때 놀라운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리의 로동계급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고있으며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대담하게 실천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기술혁신을 전면적으로 벌리기 위해서는 광범한 생산자들의 지혜와 대중적영웅주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직접적인 생산자들과 기술자, 과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근본적이며 첫째가는 사업으로 된다는 창조적사상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힘있는 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투쟁에서 이 위력한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대중정치선동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동원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대중정치선동사업의 기본을 명시하여주시였다.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기본은 광범한 근로자들을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5페지)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대중정치선동사업의 기초이며 기본이다.

대중정치선동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상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며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대중정치선동사업은 오직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을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교양할 때에만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은 대중정치선동사업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매 시기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해석침투시키며 그들이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칠 드높은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끝까지 옹호관철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기어코 당에서 주는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질 때 그들은 참으로 무궁무진한 힘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할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을 박차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완수해낼수 있다.

현시기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힘있게 관철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운동을 저애하는 소극성, 보수주의, 경험주의, 사대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고 광범한 근로자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사상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

여야 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방대하고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체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이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보수주의와 신비주의, 소극성을 불사르고 그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사상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한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천지구기계전사들속에서 지펴올리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함으로써 3대기술혁명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6개년계획을 빛나게 실현하며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에로 광범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며 대중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높은 계급의식과 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또한 광범한 근로자들을 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그리고 미일반동의 2중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을 끝없이 증오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오와 정치적각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들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것이며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낼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3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자기가 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자각하고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동원되였을 때 그들은 참말로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된다.

전체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은 근로자들앞에 제기된 당면한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계급교양을 더욱 힘있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더욱 헌신적으로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은 반드시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4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광범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대중적영웅주의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훌륭한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본보기가 있어야 신념이 생기고 선전선동사업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을 감동시킬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며 그들을 영웅적투쟁에로 고무하는 산 모범으로 된다.

전체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수령께서 제시하신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끝없는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불요불굴의 투지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의 생동한 모범으로 근로자들을 힘있게 감화시킴으로써 그들이 부닥친 난관을 용감히 뚫고 맡은 과제를 2배, 3배로 넘쳐수행하며 항상 혁명적생활기풍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명년 4월 15일까지 완수 및 초과완수하는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로 광범한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중정치선동사업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 이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더욱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전당을 발동시켜야 하며 이 사업을 군중적사업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6페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대중정치선동사업도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되여야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대중정치사업은 몇사람의 선동원이나 선전원들의 힘만으로써는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없다.

전체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은 자신들이 대중정치선동사업에 앞장서는것은 물론 모든 근로자들이 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적극적인 집행자로 되게 할 때 대중정치선동사업은 가장 실속있게 진행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양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설복, 교양, 개조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참을성있게,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군중속에 들어가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군중이 깨달을 때까지 철저하게 해설설복하며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지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의 곤난한 문제를 성심성의 해결해주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나가도록 끝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18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설복하고 교양하고 또 설복하고 교양하면서 끝까지 참을성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한번 교양해서 안되면 열번, 백번, 천번, 이렇게 참을성있게 교양한다면 열번 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과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극소수의 적대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를 물론하고 다 교양개조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고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실천적모범은 몇백마디의 말보다도 더 위력하다. 이것은 우리의 선동원들, 5호담당선전원들의 사업경험이 잘 보여주고있다.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 로농통신원들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집단의 앞

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나가며 자기 사업을 항상 깊이 연구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산 모범으로 보수주의, 소극성을 짓부셔버리면서 집단을 대중적혁신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 로농통신원들은 특히 자신들이 먼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당 제5차대회보고를 매 문제, 매 구절, 매 글자에 이르기까지 깊이 연구하여 그 진수를 파악하며 수령님의 모든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보고의 사상을 근로자들속에 쉬운 말로 해석침투시키며 그것을 제때에 실천활동에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은 학습과 생활, 혁명과업수행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뒤떨어진 사람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동지적으로 따뜻이 도와주며 끊임없이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다 선진분자, 적극분자의 대렬에 들어서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제기된 혁명과업의 요구에 맞게 이 사업을 제때에 필요한 대목에 적응한 내용을 가지고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대중정치선동사업의 기본임무가 바로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는것만큼 제기된 혁명과업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의 기동성을 보장하는것은 이 사업에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더우기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데 따라 새로운 복잡한 과업이 련이어 제기되는 오늘의 조건에서 대중정치선동사업의 기동성을 보장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대중정치선동사업을 제때에 들이대기 위하여서는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이 전반적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당정책에 민감하며 높은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제때에 조직하며 거기에 알맞는 대중정치선동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중정치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사업에 대한 각급 당조직들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책임일군들을 이 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다.

당조직들은 대중정치선동사업을 당위원회의 첫째가는 사업으로 틀어쥐고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 로농통신원들의 대렬을 더 잘 꾸리며 매시기 대중정치선동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정확히 가르쳐주며 우수한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주는 한편 대중정치선동사업에 지도일군들을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위대한 선전가, 선동가로서의 모범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그 모범으로 이끌고 계신다.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모범과 가르치심을 심장에 아로새기고 자신을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로 철저히 준비하며 항상 대중정치선동사업에 솔선 책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대중정치선동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체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창조적열성과 혁명적자각성을 최대한 발양시킴으로써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것이다.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의 완전한 실현

박 수 동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전당의 철석같은 통일단결을 완전히 실현한 위대한 승리를 만족스럽게 총화하시였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의 완전한 실현, 이것은 그이께서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찬란한 업적들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투쟁의 빛나는 결과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0페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의 통일단결을 완전히 실현한것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이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확고히 령도할 강유력한 혁명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조류도, 종파도 없다.

전당에 오직 하나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다.

우리 당이 이룩한 이 통일단결은 전체 당원들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열화같은 흠모, 끝없는 충성심에 기초한 가장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통일단결이다.

실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혁명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그이의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가슴속깊이 새기고 수령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그이와 영원히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보위할 철석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또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확고히 받아들이고 주체사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치려는 열렬한 지향으로 불타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바로 그 무엇으로써 막을수도, 억누를수도 없는 전체 당원들의 높은 의식성과 자각성에 토대한 것이기에 위대한것이며 불패인것이다.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

의 통일단결이 완전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들도, 외부의 기회주의자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유력하고 권위있는 당으로,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경향들과 사상요소들이 배겨낼수 없는 세련된 전투적조직으로 되였다.

당의 통일단결이 튼튼해지고 그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됨에 따라 대중속에서 당의 위신과 영향력은 전례없이 높아지고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사회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길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발휘하고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며 공산주의에로의 힘찬 전진을 위한 믿음직한 밑천이다.

참으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가장 공고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며 일찌기 우리 혁명력사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없었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　　　*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요구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의지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입니다. 만일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행동상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유일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 당에는 언제나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18페지)

탁월한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당대렬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원래 당이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된것이며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조직이다. 탁월한 수령은 당의 사상의지의 유일한 체현자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은 이러한 통일단결의 사상적기초이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을 실현하지 못한 당은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통일적으로 움직일수 없다. 그러한 당은 사상적혼란과 무질서와 동요성을 면할수

없으며 전투적기능과 강한 령도력을 나타낼수 없고 이색분자, 우연분자, 적대분자들의 침투와 그 파괴책동을 막아낼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해치려는 제국주의반동들과 수정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자들이 무엇보다도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고 날뛰면서 특히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유일중심인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으며 그 영향력을 약화시켜보려고 온갖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하는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은 일정한 력사적기간에 걸쳐 원칙적이고도 날카로운 당내투쟁을 통하여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과 적대되는 온갖 반당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극복청산하고 수령의 유일적인 혁명사상에 기초한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실현하게 된다.

실로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매개나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이것을 더욱 웅변적으로 실증해준다.

원래 우리 나라가 일제놈들의 간악한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망국노의 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은 중요하게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로써 전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영명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의병운동과 민족운동이 실패한것은 그것이 옳은 지도사상을 가지지 못하였고 단결을 이룩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도 종파분자들의 극심한 파쟁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로동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당이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탁월한 수령과 유일적인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함으로써 사대주의와 외세의존 사상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의 《령도권》을 위한 파벌싸움을 극복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당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대중운동에 대한 옳은 령도를 보장할수 없었으며 나중에는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 존재마저도 유지할수 없었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오직 탁월한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야만 조국과 민족의 안전과 번영도, 인민의 자유와 행복도, 혁명의 승리도 바랄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모든것은 탁월한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고 그의 혁명사상을 기초로 하여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며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요구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인류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대오가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

의당건설리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당원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당의 조직적의사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굳게 단결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만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당건설의 모든 원칙들과 당활동의 제반문제들을 관통하는 기본원칙임을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초석을 새롭게 마련하시였다.

이 리론에 의하여 비로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옳게 실현할수 있는 기초가 튼튼히 닦아지게 되였다.

특히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은 오직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당안에서 온갖 반당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을 철저하게 진행할수 있게 하며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자각적이고 의식적이며 가장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유일하게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오늘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된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탁월한 리론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이께서 장구한 기간 전개하여오신 간고한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기간에 걸친 불굴의 정력적인 투쟁을 통하여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완전히 실현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대오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을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로 보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투쟁시기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확고한 통일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지도사상과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그것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정치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공산주의대오안에서 온갖 기회주의사상조류들과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미시였다. 그리하

여 항일유격대원들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속에 주체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시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실로 항일선렬들과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히시고 조선혁명을 줄곧 승리에로 인도하여주신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령도자로 모신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쳤으며 그이께 충성을 다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투쟁시기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통일을 이룩하신 고귀하고도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전당의 확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당 활동의 내외적환경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우리 나라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음모 책동을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 기회주의가 머리를 쳐들고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방해하였고 사상적혼란을 일으켰다.

한편 당안에 기여든 각양각색의 반당분자들이 우리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집요하게 날뛰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그것을 관철하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청산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을 정확히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상전선에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였던 고질적인 반당종파분자,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 분자들과 그 사상여독을 극복청산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종파투쟁이 우리 당 건설에서와 당의 조직사상적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 로동운동에서 종파의 여독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의 튼튼한 맑스-레닌주의적조직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력사적인 과업이 오늘 우리 세대의 당원들에게 부과되였습니다.》 (《김일성선집》, 제5권, 247~248페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혁명운동에 헤아릴수 없이 커다란 해독을 끼친 종파오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것은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업이였다.

종파분자들은 당창건초시기부터 당을 반대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들의 더러운 종파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에 도전하여나섰다. 이자들은 당의 모든 정당한 로선과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나섰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지어 이자들은 당

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엄중한 반당반국가적음모까지 서슴없이 꾸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당원대중을 발동하시여 반당반혁명종파도당의 음모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그 사상여독을 극복하기 위한 진당적인 사상정치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1956년 8월 전원회의와 1958년 3월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오물을 숙청히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그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였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질적인 종파분자들을 당대렬에서 쓸어버리시였을뿐아니라 당 제4차대회이후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과 그 사상여독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안에 숨어있던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은 혁명의 길에서 이미 오래전에 변절한 혁명의 배신자들이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격화되고 외부로부터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침습하여 들어오게 됨에 따라 그리고 혁명과 건설이 더욱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날카로와짐에 따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놓은 반당반혁명분자들이였다.

이자들은 수령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헐뜯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으며 양봉음위의 방법으로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의 집행을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 또한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널리 퍼뜨려 우리 당을 수정주의의 길로, 우경투항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추악한 배신자들의 음모책동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단호히 폭로분쇄하시였으며 당의 통일을 좀먹던 온갖 경향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자들이 퍼뜨린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여독을 명백히 밝히시였으며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날카롭게 벌려 그것을 철저히 뿌리빼도록 하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리도록 하시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남에 의존하며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철석같은 통일단결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종파분자,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 분자들과 그 사상여독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로력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앞에 난관과 시련이 겹쳤던 어려운 시기 몸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공격과 음모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줄기차게 전개하며 그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 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는 한편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09페지)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청산하는것과 함께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모든 당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체계를 정연하게 세우시고 그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령도의 혁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뼈와 살로 만들어 그것을 자로 하여 사업하고 생활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은 수령의 유일적령도와 당의 행동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는 기본담보이다.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며 그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형식주의적으로 대하며 그 집행을 태공하거나 중도반단하는 일체 현상들과 날카롭게 투쟁하는 기풍을 세웠다.

이렇듯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오랜기간에 걸친 불굴의 투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이 완전히 실현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완수되였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놓여있다.

당면하게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 벅차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

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11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안에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것은 앞으로도 우리 당이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할 당사업의 총적과업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정치사상공세가 강화되고 아직도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한다면 반당적인 사상조류가 또다시 당안에 침습할수 있고 당안에서 잡종당원이 생겨날수 있으며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약화시킬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근 반세기에 이르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더 단련하여야 한다.

또한 사상투쟁의 무기를 날카롭게 세워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조류도 당안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며 당안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사소한 불건전한 사상요소라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철저히 극복청산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은 혁명적실천활동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이룩될수 있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당사상교양사업을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키워나갈수 있으며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조직규률을 지키는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하며 그이의 유일적령도밑에 한몸과 같이 움직일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규범에 따라 당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며 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고 당안에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조직규률을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당안에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특히 2중적규률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전당이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규률만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이 어떤 기회주의적 잡종도 생겨날수 없고 배겨내지도 못하는 세련되고 단련된 강철의 전투적전위부대로, 영원히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학교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강령적교시

김 수 득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6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빛나게 초과완수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발표 열돐을 맞이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는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 교육 사상과 리론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주체적교육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고전적로작들을 통하여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후대교육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학의 근본원리, 교육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사회주의하에서 학교의 위치와 역할 등 교육분야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주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학을 새롭게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에 담겨져있는 천재적교육사상과 리론, 방침과 방법들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혁명과 건설에서 학교가 노는 거대한 역할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후대교육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새세대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들로 더 잘 키우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에서 우리의 학교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 주체적립장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후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는 옳바른 길을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학교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고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산주의건설자를 키워내는데 있습니다. 공산주의사상과 결부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있기때문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5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고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산주의자를 키워내는데 있다고 하신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에는 그이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주체적립장, 로동계급의 계급

적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교육에서의 주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 사상과 리론의 혁명적진수를 이룬다.

교육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천재적교육사상은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의 순결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한 위대한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교육리론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영생불멸의 교육사상이다.

교육에서의 주체는 학교로 하여금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혁명가,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키워내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훌륭히 복무할수 있게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확고히 무장한 조선의 공산주의자, 열렬한 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고 세계혁명에도 실제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천재적교육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밝히시면서 사회주의교육과 부르죠아교육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생산수단과 주권이 인민의 손에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은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지만 주권과 생산수단이 소수 특권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은 부르죠아지의 리익에 복무한다. 따라서 교육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사회주의교육이 참으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계선이 쭉 갈라진 교육,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을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위한 교육으로 될수 있다.

교육에서 주체확립과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교육사상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죠아교육리론과 온갖 기회주의 교육리론의 침습으로부터 맑스-레닌주의 교육 사상과 리론의 순결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한 위대한 교육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서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 교육사상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주체적교육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에서 천명된 교육사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하에서 학교의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힌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는 사람들의 일생에 있어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빨리 발육하고 성장하는 청소년시기의 교양을 맡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가정교양과 사회적 교양이 필요하지마는 보다 중요한 책임은 교원들에게 있습니다. 교원들이 잘 교양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청소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되는가 못되는가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우와 같은 책, 42~4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가정교양, 사회교양, 학교교양 중에서 학교교양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가정교양, 학교교양 및 사회교양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하나의 통일적과정을 이루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가정교양, 학교교양, 사회교양은 모두가 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수령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하나의 전일적과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새세대들은 어려서부터 가정, 학교, 사회 교양을 통하여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공산주의적세계관을 끊임없이 형성발전시켜나간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것은 학교교양

이다. 학교는 바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빨리 발전하는 시기의 청소년들을 맡아 체계적으로 교양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러므로 학교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공산주의적세계관의 기초를 확고히 닦아주어야만 그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을 심오하게 분석하시면서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학교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높아진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사회에서나 할것없이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있어서 학교교양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공산주의사회가 가까와지면 질수록 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맡고있는 학교의 임무는 더욱 커집니다.》(우와 같은 책, 4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직접 맡고있는 학교교육기관들이 사상문화혁명의 중요한 무기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이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진척되고 나라의 사상문화혁명이 심화발전함에 따라 학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외부에서 기여드는 반혁명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할뿐아니라 생산력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사상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게 된다. 또한 혁명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과 낡은 생활양식을 완전히 뿌리빼고 온 사회에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된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학교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낼것을 요구한다. 학교교육기관들이 나라의 사상, 문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새세대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길러내야만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인민경제를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해야 할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의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육사상은 대를 이어가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혁명적립장, 주체적립장을 정확히 반영한 교육사상으로서 맑스-레닌주의 교육사상발전에서 탁월한 기여로 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학교교육의 목적과 사명,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공산주의적교육 방침과 내용,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그전 사회에서와는 달리 새로운 교육 방침과 방법에 의하여 새 사회의 인간을 교양해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공산주의교양방침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서 의거해야 할 정확한 방침입니다.》 (우와 같은 책, 4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산주의적교육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건설자를 길러내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사회주의학교교육의 목적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교육의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교육에서 공산주의교양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과학기술교육을 옳게 결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학교교육사업에서 사상교양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후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필수적요구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으며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후대교육사업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이에 과학기술교육을 결합시켜 진행하여야만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지식을 성과적으로 습득할수 있게 하며 소유한 지식을 가지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도록 할수 있다.

과학과 기술은 자연과 사회 발전의 객관적법칙과 원리를 연구하는것으로서 사람들은 그것을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계급적 관점과 립장을 가진다. 로동계급의 관점과 립장에 튼튼히 설 때라야만 자연과 사회 발전의 객관적법칙을 가장 정확하게 습득할수 있으며 그것을 자연을 개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옳게 적용할수 있다.

그러므로 새세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며 그들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이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것으로 되게 하자면 무엇보다먼저 공산주의교양을 확고히 앞세워야 하며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공산주의적교육방침은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이 정치사상적자질에 있으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혁명할 각오를 가질 때라야만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을 유물변증법적견지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훌륭히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수 있다는데 기초하고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학교에서는 다만 일반지식, 순수 과학기술만 배워주어야 하며 유년, 소년 시기에는 정치사상교양이 필요없다고 설교하는 기회주의적궤변에 대한 결정적타격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후대교육에서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밝히시고 공산주의교양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근본으로 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의 사상을 계승하고 우리가 내세운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유일사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후대들을 교양하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후대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다.

또한 학생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보위하고 수령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혁명

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도록 할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들에서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만을 알게 하고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 생활과 활동을 진행하는 품성을 가지도록 하며 수령을 절대화하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은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더욱 절실하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 그이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명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전면적으로 체득시켜야 한다.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령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게 하며 그들처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살며 싸워나가도록 가르쳐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생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과 함께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후대들을 인민을 사랑하고 동무들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며 국가와 인민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개인의 리익보다 인민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동지들과 인민을 먼저 생각할줄 알게 하며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만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로동이 매우 신성하고 귀중하다는것을 깨우쳐주며 로동을 잘하는 관습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훌륭한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학생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과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새세대들에게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 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인식시켜야만 그들이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조국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견결히 지키고 그것을 더욱 륭성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청소년학생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의 현재를 사랑할뿐아니라 미래를 사랑하고 새것을 사랑하며 낡은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할 때 그들은 더욱 훌륭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리상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참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교에서 후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무장시킬뿐아니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키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부터 지덕체가 다 갖추어져야 한다고 한것이 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반드시 그들속에서 몸을 단련하는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건장한 체력은 혁명투쟁

과 부강한 사회건설의 기초로 되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자질로 된다. 학교에서 공산주의적사상교양과 현대적과학기술교육을 잘하는것과 함께 체육교육을 강화해야만 후대들을 지덕체가 다 갖추어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울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적새형의 인간을 키우는데서 체육교양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시고 우리의 학교들에서 체육교양은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적교육방침과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을뿐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우선 모든 교수를 당정책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모든 교수를 당정책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청소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 잘 무장시킬수 있게 할뿐아니라 사회주의학교교육의 전반적내용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며 교육교양사업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교육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교양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원칙과 방도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에서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학습하는것도 결국 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것입니다. 써먹을수 없는 지식은 아무소용없습니다.

옛날 서당에서는 경읽듯이 <론어>, <맹자>를 다 읽어도 편지 한장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와 같은 책, 50페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써먹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학생들에게 현실을 잘 알게 하며 배운 지식을 현실에 옳게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교를 실생활에 더욱 접근시키고 교육과 생산로동을 옳게 결합시켜야만 학생들은 책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으며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사회에 나가 옳게 써먹을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생들을 배운 지식을 옳게 써먹을수 있는 산사람으로, 정치활동가로 키움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학생들을 여러가지 정치활동과 사회적로동을 통하여 교양하는것은 그들을 미래의 정치활동가로, 공산주의건설자로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을 학교에만 붙들어두지 말고 어려서부터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에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은 자기들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사업에 참가한다는 높은 긍지를 가지게 되며 혁명을 하려는 의욕도 더욱 높이게 된다. 또한 그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현실을 더 잘알수 있게 되고 배운 리론을 현실에 훌륭히 적용할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들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을 강연, 해설, 기동선전대활동, 예술공연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앞에 출연시키며 위생근위대, 록화근위대, 끄마계획 등 과외활동을 널리 벌려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불후의 로작에서 또한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방법, 사상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구체적이고 작은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것을 해결하는 방법, 핵심을 키우고 확대하면서

그에 의거하여 전체를 교양하는 방법 등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재적으로 밝혀주신 이 공산주의적교양방법들은 그이께서 근 반세기에 걸친 혁명활동과정에서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인재육성의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사회관계의 기본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우리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의 정치사상적지향과 민족적특성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공산주의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으며 거대한 생활력을 낳고있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공산주의적교육교양의 제원칙과 방도들에 대한 천재적사상은 모든 후대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사회정치활동가로 교양육성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혀준 탁월한 교육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학교의 임무와 역할, 목적과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교원들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양자들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하며 혁명가로 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3페지)

교원들은 혁명의 후계자들을 키워내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으며, 자신들의 실지 행동과 모범으로 학생들을 교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모범에 깊이 감동되여 그 모범을 따르기 좋아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교원들에게 있어서 이신작칙은 거대한 교양적의의를 가진다. 교원자신이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할 때에는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훌륭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여도 학생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것이며 그를 존경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교원들은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된 혁명전사로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일상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하며 자기자신의 실지 행동과 모범으로써 학생들을 감화시켜야 한다.

교원들은 또한 사상문화혁명의 전초선에 선 사회적임무로 보아 누구보다도 먼저 자체를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교육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후대교육교양의 전과정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함으로써만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더 잘 키워낼수 있다.

3

오늘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사업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주체적교육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에 담긴 불멸의 교육사상과 더불어 그이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주체적교육방침에 의하여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인민교육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한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세

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육성할데 대한 주체적교육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교육건설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를 확고히 마련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후대들을 미래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의 위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에 나서신 초기부터 후대교육사업을 혁명사업의 중요구성부분으로 보시고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후대교육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여 주체적인 교육로선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건국초기에 모든것이 부족하고 해결을 기다리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전쟁의 가렬처절한 불길속에서도 학생들이 불편없이 공부할수 있도록 온갖 교육조건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전후 재더미속에서도 학교를 제일 선참 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교육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우리 나라에 가장 우월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도를 내오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혜택으로 로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학교에 다니고있으며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나고있다.

우리의 학교교육을 통하여 교양육성된 젊은 세대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많이 나감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은 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진 문명한 로력자들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으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공산주의적교육 사상과 방침에 따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가 더욱 발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마음껏 일하며 배울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는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교육사상의 찬연한 빛발아래 세기를 거쳐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린 문명한 나라로 되였으며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가장 훌륭한 교육제도의 본보기를 창조한 사회주의교육의 모범의 나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옳바른 교육방침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교육학이 더욱 완성되였으며 학교교육사업에서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서고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15페지)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교육분야에 철저히 구현한것으로서 교육을 조선혁명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가장 훌륭히 복무시킬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후대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교조주의, 사대주의, 기회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

교사상 등 온갖 낡은 사상이 극복되고 후대육성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교육사업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되고 조선혁명의 요구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으며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그이의 참된 혁명전사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당 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는 쓸모있는 혁명적인재로 자라나게 되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과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 사회주의하에서 학교교육의 계급적성격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학교교육사업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울데 대한 가장 혁명적원칙을 천명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시키시였다. 오늘 우리의 학교교육은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계선이 쭉 갈라진 로동계급을 위한 교육으로 되였으며 모든 청소년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철저히 지키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는 계급투쟁의 기수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교육분야에서 부르죠아적 및 기회주의적 교육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분쇄하고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적 교육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학을 새로운 토대우에서 더욱 완성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주체적교육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청소년학생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비상히 촉진되고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학교들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다방면적으로 습득시키고있으며 그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적 새형의 인간으로 더 잘 길러냄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교육분야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은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천재적교육사상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정연한 체계로 심화완성시키신 사회주의교육학의 자랑찬 결실이며 위대한 생활력의 발현이다.

우리의 모든 교육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교육사상을 교육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더 잘 키우며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사회주의교육강령을 빛나게 실현할것이다.

북청회의의 위대한 생활력

김 계 현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과수업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신 력사적인 북청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열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 앞에 조국의 모든 야산을 일구어 백과무르익는 과일동산으로 만들 대자연개조사업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의 첫해 전투를 벌리고 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북청회의 열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북청회의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조국의 강토는 실로 놀랄만큼 몰라보게 달라졌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 이름난 《과수의 나라》로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일제 통치밑에서 아이들이 앓아도 사과 한알 변변히 구할길 없었던 우리 인민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아래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일년내내 신선한 과일을 풍족하게 먹을수 있는 과수업의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놓았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한개 군이 몽땅 과수원을 이루고있는 세계1등급의 대과수농장을 비롯하여 가는곳마다에 수많은 현대적청춘과원이 펼쳐져있다.

우리 나라를 찾아왔던 외국의 한 손님은 우리의 대규모적인 현대적과수농장을 보고 《이것은 과수원이라기보다 대과수밀림이라고 부르는것이 옳겠다.》고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과수업은 력사적인 북청회의이후 새로운 획기적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전변은 결코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뿐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언제나 심려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과수업발전에 대한 원대한 구상과 육친적배려,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그이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은 위대한 전변이다. 그것은 우리 당 과수업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력사적인 북청회의가 가져온 찬란한 열매이다.

오늘 북청회의 열돐을 맞는 우리 인민은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이룩한 자랑찬 결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수령의 전사된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며 그이께 영원히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에서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나라의 자연을 혁명적으로 정복하고 개조할데 대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을 리용한다는것을 단순히 산열매를 따고 산나물을 뜯어먹는것으로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산을 일구어 과수원을 만들고 또 원료림도 조성하여 많은 과

실과 공업원료를 얻어내는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산을 잘 리용한다면 산은 벌판보다 못지않게 리로운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판이 적은것을 탓할것이 아니라 산을 더 잘 리용할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8페지)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산을 잘 리용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연을 잘 리용하며 그것을 정복하고 개조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체적립장에서 나라의 자연경제적조건을 최대한 효과있게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자원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행복한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다.

원래 자연을 정복하고 대담하게 개조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 혁명적일본새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과의 투쟁에서도 항상 혁명성, 대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느때나 일거리가 찾아오기를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되며 대담하게 일감을 만들고 찾아내며 자기 나라의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자연을 정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입에 떨어지는 사과를 기다리는식으로 일하여가지고는 결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오늘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건설되고있다. 조선사람이 조선땅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잘하는것은 세계혁명앞에 지닌 우리의 임무이다. 또 앞으로 온 세계가 다 공산주의사회로 된다하여도 조선사람은 조선땅에서 살아야 하며 산 설고 물 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수는 결코 없는것이다.

조선사람이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이 땅에 있는 자원을 알고 그것을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의 자연을 정복하여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청회의에서 제시하신 자연개조의 웅대한 방침은 혁명과 건설에 관한 그이의 이러한 근본립장을 철저히 반영한 독창적이며 가장 과학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은 특히 국토를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임으로써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대들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려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우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위대한 혁명과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만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31페지)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단순한 기술경제적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삼천리금수강산 그 어디나 백과주렁진 과일동산을 꾸리며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백년대계의 보람찬 사업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이다. 산은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므로 산을 잘 리용하여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국토를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하여 일치하게 념원하여왔다. 그러나 그들의 념원은 과거 착취사회에서 실현될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우리 세대 인민들에게 넘겨줄 그 어떠한 물질적재부도 창조해놓을수 없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있는 무진장한 재

부의 원천인 산을 잘 리용하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밑천을 마련하는 사업은 우리 세대앞에 나선 숭고한 위업이였다.

이 력사적위업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혁명의 천재적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나라의 자연을 혁명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심으로써 비로소 산 현실로 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지도하신 력사적인 북청회의의 커다란 의의가 여기에 있으며 이 회의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그처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나타내게 되는 주되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상 우리 나라의 과수업은 해방후 보잘것없는 로대우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해방전 우리 나라에 있었다는 과수원이란 불과 얼마되지 않았으며 그것마저 착취계급의 영리를 위한 략탈적재배방법으로 심한 상처를 입게 되였다.

그러나 북청회의이후 우리 나라 과수업은 전례없는 비약적발전을 이룩하였다.

북청회의이후 과수업발전에서 이룩된 가장 커다란 성과의 하나는 과수원의 지역적분포와 경리형태별 규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것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는 북부내륙지대의 관문이라고도 할수 있는 개고개를 넘어서부터는 과일나무가 자라지 못하는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북청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군중적투쟁의 나날에 종전의 낡은 《관념》은 깡그리 마사지고말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과수재배지역이 주로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여있던 이전날의 부족점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과실을 재배할수 없다고 하던 백두산기슭과 북부고산지대, 동서해안연선과 분계선일대에까지 새로운 과수재배지역이 생겨나게 되였다. 그뿐아니라 우리 나라에는 지금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친히 그 터전을 잡아주신 수도시민들에 대한 대규모과실공급기지—평양과수농장과 근 8,000정보의 과수면적을 가진 세계1등급의 과일군 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수많은 국영과수농장과 함께 한개 협동농장에서 500여정보의 과수면적을 가지고있는 황해남도 장연군 장연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모든 협동농장이 과수원을 가지고있다. 이밖에 또한 기관, 기업소, 각급 학교들이 가지고있는 과수면적이 방대한 규모에 달하며 농촌의 아담한 문화주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원과수가 많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과수업에서 실로 일찌기 없었던 일대 혁신이다.

과수업발전에서 이룩된 가장 커다란 성과의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에서 과수업이 사회주의농촌경리의 한개 부문으로 믿음직하게 전변된것이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에서 식민지적략탈을 강화하면서 산미정책일면만을 추구하여왔다. 일제는 알곡단작경리만을 강요하였으며 비옥한 우리 나라 농토를 모조리 파괴하였다. 이리하여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은 물론 농업생산이 매우 뒤떨어졌을뿐아니라 농촌경리 내부에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있었다.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이러한 락후성과 불균형은 해방후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정책에 의하여 극복되였으며 특히 북청회의이후 더욱더 개선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여 사회주의적과수업과 잠업, 현대적 축산업과 가금업, 공예작물 등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이 다같이 빨리 발전하는 다각적경리가 믿음직하게 창설되였다. 대규모사회주의과수업은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새로운 생산부문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였다. 과수업의 급속한 발전은 또한 우리 나라 군들에 과실가공기지를 창설하고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지방공업발전을 촉진하고 농민들의 현금수입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북청회의후 과수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기술혁명을 추진시켜 과수원비배관리를 기계화, 현대화하며 과수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과실이 열리는 면적은 해마다 빨리 늘어나고있으며 과실생산량은 계속 장성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 창설된 사회주의적 과수업의 이 모든 빛나는 결실은 자연을 개조하여 온 나라의 모든 야산을 과일산, 황금산으로 만들데 대한 수령의 독창적방침의 정당성과 위대성,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로 된다.

*　　　*

지난 기간 과수업발전에서 이룩된 찬란한 성과는 우리 혁명의 오늘과 래일뿐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면서 매시기 과수업이 나아갈 앞길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높으신 덕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국해방투쟁당시에 벌써 산좋고 물맑은 이 땅우에 착취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고 조국산천의 온금보화를 마음껏 개발하며 삼천리금수강산 어디나 백과주렁진 과일동산을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줄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의 어느한시도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 대하여 잊으신적이 없으며 그것을 앞으로 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련결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늘 대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만경대의 진달래와 대동강의 숭어, 가을이면 주홍빛 사과가 주렁지는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시였으며 하루속히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고 기름지고 살기좋은 조국강산을 마음껏 개발하여 인민의 재부를 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량수천자부근에서 적들로부터 로획한 조선사과를 보시면서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근거지에는 아직 조선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조선의 유명한 사과조차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소!

그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 사과라도 보내여 맛이라도 보게 하시오.…

수령의 이 말씀속에는 일제의 억압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과 어린이들을 생각하여 가슴아파하신 그이의 뜨거운 육친적사랑이 깃들어있다. 또한 그 말씀속에는 한알의 사과를 보시고도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일떠세울 새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설계하신 그이의 높으신 뜻이 담겨져있다.

그리하여 그이의 이 높으신 뜻은 항일유격대원들과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그대로 조국과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씨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조국광복의 영웅적성전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국산천을 개발하는 자연개조사업의 웅대한 구상을 더욱 무르익히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차게 이끄시였다.

어버이수령께서는 해방후 거의 빈터나 다름없는 우리 나라 과수업을 빨리 추켜세우시기 위하여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을 친히 찾으시여 나무없는 야산에 과일나무를 심고 집주변에도 여러가지 실과나무를 심어 백과주렁지는 풍요한 마을을 꾸릴데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그뿐아니라 그이께서는 벌써 이때부터 장차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선구자적역

할을 놀 국영과수농장을 신설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장차 우리 나라 과수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그 가렬한 불비속에서도 전승의 앞날을 확고히 내다보시면서 수많은 국영과수농장을 신설확장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친히 새로 조직할 국영과수농장의 터전까지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그뿐아니라 어버이수령께서는 우리 나라 과수업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수부문기술일군들을 예견성있게 양성하시였다.

우리 나라 과수업은 전후시기 특히 1957년 3월 함경남도 당, 정권 기관, 경제기관, 사회단체 일군들앞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전국의 야산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일굴데 대한 북청회의결정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투쟁속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온 나라가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자립경제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던 장엄한 시기에 국토건설과 농촌경리 분야에서도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우리 당앞에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였던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면서 몸소 험산준령을 넘어 머나먼 백무고원을 찾으시여 5호종합농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또한 우리 나라 각지의 관개공사장들과 간석지개간현장을 찾으시여 조국의 지도를 변경시키는 대자연개조사업을 직접 지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모든 고원들과 야산들과 간석지들을 일구고 수리화하여 농경지와 염전과 갈밭으로 만들뿐아니라 과수원을 꾸리며 풍치림이 숲을 이룬 지대로 되게 할것을 구상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협동화가 이미 끝나고 공업이 농업을 전면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힘이 마련되였으며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가 더욱 공고화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시고 1961년 4월에 북청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야산을 모두 일구어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할데 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 우리 나라에는 과수원을 만들만한 산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있는 이와 같은 산들을 우리가 다 일구어 과수원을 많이 만든다면 거기에서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할수 있는 큰 재부를 얻어낼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8폐지)

수령의 이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긴 전체 협동농민들과 로동자, 사무원, 군인, 학생들은 사회주의조국강토를 더욱 아름답고 부유하게 꾸릴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이르는곳마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야산을 일구고 공한지를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드는 전군중적투쟁을 벌렸다. 그리하여 한해동안에 2만~3만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하는 기적적성과들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이후 과수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일관하게 심려하시고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께서는 품이 많이 드는 과수작업의 기계화, 현대화를 위하여 우리 나라 과수원의 실정에 맞는 새형의 뜨락또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과 과수기계공장을 건설하며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공급량을 해마다 증가시키며 과수부문에 많은 제대군인들을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북청회의이후 과수재배지역이 온 나라를 포괄하게 되고 아직 우리 일군들의 과수원관리수준이

높지 못하였던 실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파수원비배관리에서 교조주의를 없애며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하나하나 명확하게 일깨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의 경사지과수원들에서 땅의 류실을 방지하며 과실나무의 모양만들기와 아지자르기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할수 있도록 본보기를 몸소 창조하시고 그를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과실생산에서 해거리현상을 없애며 매 과실나무마다 더 많은 과실이 열리게 하고 과실나무의 수명을 연장시키는것과 같은 과수업발전에서의 원칙적문제들이 주체성있게 독창적으로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대규모사회주의과수업이 창설된 새 환경에 맞게 과수원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또한 독창적으로 해결하여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과수부문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구현한 국가적지도체계와 사회주의적과수업경리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가장 우월한 형태인 작업반책임제를 창조하여주시였다.

수령께서 창조하여주신 작업반책임제는 과수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대규모사회주의과수농장을 가장 정확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생산조직형태이다 그것은 또한 이 부문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사상을 더 잘 키울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집단생활의 세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많은 과수원들을 현지에서 늘 지도하시면서 과일의 생산과 함께 그 저장과 가공, 수송 대책에 대하여, 매 과수농장의 전망과 일군들의 건강에 대하여 그리고 과일의 수종을 하나 배치하는데서도 인민들의 입맛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사시절 신선한 과실을 마음대로 먹을수 있게 할데 대하여 육친의 정으로 돌봐주시였다. 그뿐아니라 수령께서는 항상 우리 일군들에게 과일나무 한그루를 심어도 남반부의 헐벗고 굶주리는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생각하며 과수원하나를 꾸려도 통일될 조국의 래일을 생각하여 알뜰하게 정성껏 꾸릴데 대하여 간곡하게 타일러주시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그 어느 과수농장과 과실나무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 미치지 않은데란 없다. 거기에는 공화국 북반부인민만이 아니라 남반부인민들의 앞으로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대들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언제나 심려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이 깃들어있다.

오늘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야산을 일구어 얻은 수많은 청춘과수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에 마련된 자랑찬 창조물이며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로서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크나큰 밑천이다.

* *

우리 나라에서 대규모사회주의과수업을 창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은 빛나는 결실을 맺고있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청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꾸려놓은 과수원들은 이미 청춘기를 맞이하였다.

북청회의의 력사적경험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자주자립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전당과 전국이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 때 조국과 인민 앞에 얼마나 위대한 사업을 하여놓을수 있으며 만년대계의 재부를 창조할수 있는가를 확증하여준다. 그것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자각된 혁명군중의 힘은

얼마나 크며 사회주의하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예비와 잠재력은 얼마나 무진장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북청회의이후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는 단순한 수학상의 계산이나 공식만으로는 잴수 없는 기적적성과이다. 그것은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자주자립의 혁명사상이 자연개조사업에 구현되여 이룩된 성과이며 우리 당 군중로선의 위대한 결실이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북청회의에서 밝혀주신 자연개조사업의 웅대한 방침의 혁명적본질을 깊이 체득하여야 하며 북청회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을 더욱 대담하게 혁명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지금 농촌경리부문앞에 방대한 과업을 제시하고있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6개년계획기간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며 농촌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킬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발판개, 토지정리, 간석지개간 등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을 벌려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지난날 북청회의결정을 받들고 혁명성, 대담성을 발휘하여 나라의 자연을 개조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기적을 창조한것처럼 6개년계획기간 농업부문과 국토건설부문 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실현하는데서 다시한번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대담성, 용감성을 발휘하여 달라붙을 때 못해낼 일이란 하나도 없다.

과수부문에서는 무엇보다먼저 북청회의이후 큰 규모로 늘어난 현존과수원들을 알뜰히 가꾸어 그것이 모두 은을 내도록 하며 6개년계획말에 가서 과실총생산량을 80만～100만톤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북청회의이후 수많이 조성한 과수원들은 우리앞에 나타난 하나의 룡마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이 룡마를 잘 탈줄 알아야 한다.

과수업의 기계화,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금 있는 과수원들에서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우며 과일나무의 아지자르기와 모양만들기를 잘하며 병해충의 피해로부터 과일나무를 철저히 보호하여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수원들을 규모있고 아담하게 꾸리기 위하여 계단만들기, 배수로치기, 울타리만들기와 같은 사업을 널리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 있는 과수원을 잘 관리하는 한편 나무없는 산, 송충피해지, 휴경지들가운데서 과일나무가 잘 자랄수 있는 지대를 골라 새로운 과수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계획적으로 벌려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실의 생산과 함께 저장대책을 잘 세우며 과실가공사업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마다 더 많이 생산되는 과실을 저장, 가공할수 있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62페지)

우리는 과일생산이 빨리 늘어나는데 맞게 과일저장대책을 결정적으로 따라세워야 한다. 과수농장과 협동농장들에서 군중적운동으로 여러가지 저장시설을 마련하여 과일을 더 많이 저장하도록 하며 이르는곳마다에 과일과 남새가공공장을 많이 꾸려 과일과 남새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공업적방법으로 제때에 가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과수부문과 전반적농촌경리분야앞에 나선 과업을 잘 실현하자면 이 부문 일군들이 일을 더 짜고들어 지도사업과 관리운영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령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지도하신 북청회의의 커다란 의의의 하나는 그이께서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인민적사업작풍과 지도방법의 모범을 우리 일군들이

더 잘 배울수 있게 하여준데 있다.
수령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통하여 친히 군중로선을 구현한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의 모범,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한곳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는 사업방법의 모범을 다시금 생동하게 보여주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수령의 이러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거울로 삼아 그이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함으로써 자연을 개조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위업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이미 심어놓은 과실나무를 알뜰히 다루며 전반적국토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자기 향토를 사랑하며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상,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이 없이는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할수 없으며 후대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피땀을 흘릴수 없다.

대자연을 정복하자면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하며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야 한다.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지 않고는 공산주의사상,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할수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할줄 아는 수백만대중의 자각적로동에 의해서만 건설할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특히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사랑, 높으신 덕성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나라 과수업의 새 력사에 대하여 대를 이어 길이 전하여야 하며 한그루의 과일나무를 심고 다루어도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일하도록 모든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를 교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모두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신 우리 조국,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목숨으로 지켜내고 땀으로 꽃피운 사랑하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심어놓은 과일나무도 잘 가두지 않고 되는대로 버려두거나 땅이 패이고 논밭이 물에 패여내려가는것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가는것과 같은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농업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

북청회의 열돐을 맞는 오늘 우리 당원들과 간부들은 수령께서 이 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더욱 깊이 학습하고 뼈와 살로 만들며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더욱 커다란 앙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4천만 조선인민의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신 응 복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경모하면서 그이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4천만 조선인민의 유일한 령도자로 우러러모시면서 그이의 따뜻한 품에 안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자기들에게 항상 삶과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며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정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어버이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수령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충성의 표시이며 이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결정적인 힘의 원천으로 된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날을 따라 더욱더 높아가고있으며 수령께 충성다하려는 불같은 심정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신조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혁명의 천재적수령으로, 4천만 조선인민의 유일한 령도자로 우러러받들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자기들의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휘황한 래일을 내다보고 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야수적인 군사파쑈폭압속에서도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소리와 《김일성장군 만세》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자유와 해방의 위대한 구성으로 우러러보면서 그이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와 흠모의 정이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힘으로 급격히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는것은 수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충성심의 발현으로서 그들의 사상의식에서의 새로운 발전으로 된다.

원래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자기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며 자기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을 우러러모시며 수령을 열렬히 존경하고 흠모하는것은 그들의 계급적본성이며 혁명승리의 필수적요구이다. 로

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자기의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인류해방투쟁력사의 온 과정과 우리 나라 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이 증명하여주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여오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에게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는 4천만의 친어버이이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옹호보위하며 그이께 충성다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정신의 가장 높은 표현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서 기본핵을 이룬다.

60여년의 오랜 세월을 두고 외래침략자들의 강점하에서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여온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수령께서 창조하신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옳게 인식하게 되였다. 그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존경하며 흠모하는것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 끝까지 충직하려는 그들의 확고한 결의를 말해주는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진리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남조선인민대중의 가슴속에 깊이 파고들고있으며 그들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은 비상히 촉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투쟁과정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은 더욱 높아지고 혁명의 군중적지반은 튼튼히 축성되여가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김일성수상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기 위하여 싸우겠다.》, 《살아도 수령을 위해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해 죽는다.》는 철석같은 신조로 원쑤들의 악랄한 탄압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억세게 싸우는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수천수만의 혁명전사들이 자라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인 통일혁명당 조직들은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있으며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는 믿음직한 혁명력량이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있다.

이것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신뢰와 존경, 충성심이 남조선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기본을 이루게 되였으며 남조선혁명에서 실패와 우여곡절의 시기는 지나가고 혁명은 더욱더 성숙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은 온 남녘땅에 거세찬 대하처럼 도도히 흐르고있으며 위대한 수령의 영상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고있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남녀로소 할것없이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수령에 대한 흠모의 정이 차고 넘치고있으며 서울과 부산, 태백산기슭과 호남벌, 제주도에 이르는 모든곳에서 수령을 한없이 우러러받드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한 경모의 정이 뜨겁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

한한 존경과 흠모, 그이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사는 긍지와 자부심은 특히 혁명의 주력군인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가장 고귀한 사상감정으로, 굳센 의지로 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오늘 공화국북반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주권을 틀어쥐고 나라의 정사를 운영해나가는 가장 선진적인 인민의 나라로 된것은 김일성수상님의 탁월한 령도의 열매이다.》,《김일성수상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반부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다.》라고 하면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자기들의 자유와 해방의 기치로 바라보고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의 높으신 덕성과 고매한 품성에 깊이 감복되고있다. 남조선의 한 로동자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에 대한 존경과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김일성수상님과 같이 그렇게 로동자들의 생활을 걱정하시고 보살펴주시는 그러한 수령이 또 어데 있겠는가!

김일성수상님께서는 로동자들의 가정살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돌보아주고계신다. 수상님의 따뜻한 해빛아래 행복하게 살며 일하고있는 북반부로동자들이 부럽기만 하다.》고 하면서 《김일성수상님의 따뜻한 손길은 북반부의 그 어느 로동자에게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참으로 김일성수상님의 어비이사랑은 밝은 해빛처럼 온 나라를 비치고있으며 모든 로동자들의 가슴을 후덥게 덥혀주고있다.》라고 감동적으로 말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의 인간생지옥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를 가슴아파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육친적인 배려와 사랑은 실로 태양보다도 뜨겁고 한없이 넓고 크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로동자들의 심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뜨거운 충성으로 불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남조선의 한 광업로동자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수상님을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나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답게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용감히 싸워나가겠다.》라고 말하였으며 다른 한 로동자는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남조선인민이라고 하신 김일성수상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나는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의 결의를 다졌다.

로동자들과 함께 농민들 역시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품속에 안길 때에만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강에 흐르는 물을 산꼭대기에로 뽑아올려 산도 논으로 만든다니 이것이 천지개벽이 아니고 무엇인가, 관개수로가 한정없이 뻗어져있어 물걱정없는 북반부농민들은 정말 행복하다. 남조선농민들도 그와 같이 농사를 지을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남조선농민들을 잘살게 해주실 분은 오직 김일성수상님뿐이시다.》, 《우리도 김일성수상님의 령도를 받아야 땅의 주인이 되고 천석군이 될수 있다.》라고 자기들의 소박한 심정을 말하면서 영명하신 수령을 모시고 평생소원을 풀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포함한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존경, 신뢰의 정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오늘 미제의 식민지노예교육과 반인

민적문화정책 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언제나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희망과 용기를 얻고있으며 수령께서 밝혀주신 로선과 방침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살길을 찾고있다.

향학열에 불타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날로 개화발전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의 인민적인 교육제도아래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아무 근심걱정없이 씩씩하게 자라고있는것은 오직 《김일성원수님의 높고 깊은 은덕에 있다.》, 《어서 통일이 되여야 우리도 그이의 품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며 행복을 누릴수 있다.》, 《우리는 이북의 발전모습에 접할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고 통일이 멀지 않다고 느껴진다. 그러기에 이북은 우리들의 희망의 등대이다.》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며 존경하고있다.

남조선 지식인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서 혁명의 진리를 찾고 힘과 용기를 얻고있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내가 크게 감명받은것은 김일성수상님의 주체사상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사상이 오늘의 이북의 번영을 마련한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날 한시에 해방되였지만 이남에서는 공업이 파탄되고 망국차관의 빚더미우에 올라앉고있다.

이 판이한 남북의 두 현실을 보고 나는 김일성수상님의 령도와 이북의 정치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잘 알수 있었다.》라고 하였으며 다른 한 지식인은 《이북의 정치가 훌륭하다는것은 철저히 자주적이라는데 있다. 나는 이에 크게 감명하였다.

김일성수상님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경제건설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한 독창적인 리론이다.》라고 감명깊게 말하였다.

남조선 지식인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현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로, 《피착취계급과 피압박민족의 해방의 등대》로, 《남조선혁명의 필승의 홰불》로 칭송하면서 주체의 조국에서 태여난 긍지를 안고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싸워나갈 결의들을 한층 더 가다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는 원쑤들이 의탁하고있는 마지막아성인 남조선괴뢰군내의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 속에서도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남조선괴뢰군내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은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군술과 그이의 령도밑에 철벽의 요새로 다져진 공화국북반부의 위력에 감탄하면서 수령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그들은 《김일성장군님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시는 빨찌산의 명장이시며 진정 우리 민족의 영웅이시였다.》, 《지금 미국놈들이 무슨 신형무기니, 핵무기니 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전법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군대의 힘은 장비와 무기보다도 크게는 최고사령관의 주위에 모든 군인이 얼마나 굳게 뭉쳐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오늘 공화국북반부군대가 강대한 군대로 자라난것은 바로 김일성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군사전략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있기때문이다.》라고 긍지높이 이야기하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이렇듯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확고히 자리잡고있으며 그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민심의 추세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

렬한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남조선의 광범한 계층들속에서 급격히 높아지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은 더욱 심화발전되여 공개적이며 집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연구체득하며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이 조직적성격을 띠고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특히 지식인, 청년학생들 속에서는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불후의 로작들과 전기를 통하여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연구하고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흠모와 충성심을 더욱 두터이 하고있다.

근 반세기동안 오직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삼천리강토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를 따라배우기 위한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연구소조》들이 이르는곳마다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있으며 그이의 빛나는 혁명력사, 현명한 령도, 고귀한 경험과 업적, 고매한 덕성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을 찬양하며 소개하는 선전활동이 거리와 마을, 극장과 영화관, 학교들에서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이웃사람들, 친척친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을 기회만 있으면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어머님을 비롯한 수령의 혁명적가정과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활한 령군술과 탁월한 전술에 대한 이야기, 평양방송을 통하여 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의 발전모습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로로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늙은이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이라는 시에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이렇게 담고 있다.

《가.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신 수상님
나. 나라없는 설음안고 이국땅으로
다. 다정하신 부모님의 큰 뜻을 이어
라. 라침판과 같이 반일의 길 밝히시며
마. 마을마다 민중을 불러일으켰네·
바. 바다같이 깊고 넓은 지혜를 담아
사. 사시장철 긴긴밤을 지새우시며
아. 아침처럼 밝은 나라 구상하셨네
자. 자나깨나 조국광복 일편단심에
차. 차거운 백두밀림 주름잡으시며
카. 캄캄하던 우리 조국 빛내주셨네
타. 타향천리 십오성상 광복의 나날
파. 파란곡절 다 헤쳐 나라찾은 그이
하. 하늘의 태양처럼 영원히 빛나리
김일성장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강요한 《반공》선전에 동원된 남조선의 어느한 교원은 2,000여명의 군중앞에서 자기 한 개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연단을 수령의 현명한 령도아래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되고있는 찬란한 성과를 소개선전하는 혁명적연단으로 전변시킴으로써 군중을 무한히 감동시켰던것이다.

원쑤들의 총검이 숲을 이룬 그 엄혹한 조건하에서도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절대화하며 그이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널리 선전하는 이들의 대담한 행동은 공화국북반부와 같은 사회제도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는 남조선인민들의 일치한 지향을 반영한 참된 애국주의행동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가 남조선에 침투되고 그에 대한 연구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경모의 정은 한없이 두터워지고있으며 그이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며 싸우려는 그들의 투지와 신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드높아가고있다.

특히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신 전략전술적방침은 지난날의 혁명투쟁에서의 쓰라린 체험을 지니고있는 남조선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필승의 무기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수상님이시야말로 모든것을 가장 정확하게 통찰하고계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천재적인 사상가이시라는것을 보고를 학습하면 할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김일성수상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에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을 승리적으로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의 보검을 쥐여주시였다.》, 《수상님께서는 싸우는 우리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를 마련하시고 우리의 힘을 한없이 크게 하여주시였다.》라고 환희에 넘쳐 말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남조선도처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을 통일된 조국의 서울에 모시고 민족의 대향연을 베풀려는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숭고한 념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침략자도 없고 매국노도 없고 인민이 모두 주인으로 된 밝은 세상에서 북반부형제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려는 남녘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기 위하여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울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기발이 한나산마루에 휘날릴 그날까지, 우리의 삼천리 온 강로가 통일을 경축하는 승리의 축포소리로 들끓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환호의 만세소리로 뒤덮일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결코 투쟁의 기발을 내리우지 않을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지하와 산속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지어는 감옥과 교수대에서까지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것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경모와 흠모의 정이 얼마나 뜨겁게 타번지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며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그들의 결의가 얼마나 높아가고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그것은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그들의 확고부동한 신조로 되였을뿐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옮겨지고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서 결정적인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그이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갈 때만이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두터운 존경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부터 그들의 심장속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가장 숭고한 민족적감정이며 확고한 혁명적신조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홰불을 높이 추켜드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근 반

세기, 이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의 가장 빛나는 혁명투쟁력사이다. 이때로부터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영예와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시기가 시작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었고 민족의 앞길에 암흑의 장막이 드리웠을 때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15성상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시고 천대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에게 진정한 인민주권을 안겨주시였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조선혁명위업의 전국적승리에로 남북조선인민을 확고히 인도하고계신다.

그러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세계에 류례없는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조국해방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행복과 번영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못하고있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러모시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것은 그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체득하게 되였으며 특히 어버이수령께서 육친의 정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배려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데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그들에게 하루빨리 자유와 해방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며 남조선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조선동포들이 겪고있는 이 참경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4페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며 미제와 박정희괴뢰악당의 군사파쑈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하루빨리 구원하시려는 그이의 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다.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신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15후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조국이 분렬되고 남조선인민들이 놈들의 식민지학정밑에서 신음하게 된것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여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고 남녘동포들에게도 광명의 새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오시였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를 끊임없이 돌려오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

께서는 공화국북반부를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기지로 튼튼히 꾸리고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며 도탄에 빠진 남조선인민들을 하루속히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을 사회주의건설에 힘차게 조직동원하고계시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고계신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녘동포들을 순시도 잊지 않으시고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학교를 하나 세울 때에도 통일된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것을 예견하시고 그 규모를 정하시였으며 당과 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실 때에도 언제나 분렬된 조국과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여주심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그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격려하여주시는 한편 당면하게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며고 끊임없는 육친적배려를 돌려오시였다.

어버이수령께서는 남조선의 령락된 민족공업과 농촌경리를 부흥시키며 도탄에 빠진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제대책을 전면적으로 강구해주시였다.

수령께서는 식량과 의복을 비롯하여 전력과 석탄, 강재와 공작기계, 뜨락또르와 불도젤, 공장과 주택, 어로설비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의 민족경제와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데 필요한것이라면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였다.

실업과 빈궁, 기아와 질병의 나라에서 허덕이고있는 남녘동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심려와 보살핌은 우리 조국과 인민이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된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하였으며 우리의 형편이 넉넉할 때나 곤난할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깊고 뜨거웠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그처럼 가혹한 원쑤들의 파쑈폭압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탁월한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싸우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면서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고있는 것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열렬한 흠모의 정은 또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의 강력한 고무적힘과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밑에서 남조선인민들자신이 겪은 쓰라린 생활체험에 기초한 확고한 신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륭성발전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억압과 착취밑에서 허덕이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5페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부강하고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수령의 위대한 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민족문화를 가진 공화국북반부의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배우며 일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의 이 모든 찬란한 현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무서운 재난과 참을수 없는 고통

을 겪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와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을 한없이 동경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를 더욱 두터이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25년동안의 쓰라린 생활체험을 통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수 없으며 오직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나아가는 길만이 자기들의 사활적요구를 해결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침략기지로, 죽음과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미제국주의의 군사적부속물로 전락된 남조선경제는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처하여 민족공업은 여지없이 파탄되고 곡창지대로 이름났던 농촌은 황폐화되였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사라지고 온갖 패륜과 패덕이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으며 민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적불안은 날로 증대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였으며 700만이상의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거리와 마을을 헤매고있다.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미제의 전쟁정책과 파쑈정책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더욱 큰 불만을 자아내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실제생활체험을 통하여 부패한 남조선사회제도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끝없이 증오하고있으며 오직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도를 받아야만 북반부와 같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새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명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된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속에서 위대한 수령의 영상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는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안고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어떠한 간난신고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고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가 있고 조선혁명의 불패의 보루인 북반부의 위력한 혁명기지가 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규탄하는 모든 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의 견결한 지지성원이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줄기차게 싸워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와 현군사파쑈독재를 쓸어비리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반제반미투쟁전략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전략

허 담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반세기간에 걸쳐 언제나 철저한 반제적립장을 견지하시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반제투쟁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투쟁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여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강도일제를 타승하시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침략자들을 때려엎음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투쟁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반세기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두개의 제국주의를 타승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바로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반제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반제반미투쟁로선이 가져온 빛나는 열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견지하고계시는 반제투쟁의 가장 혁명적인 립장과 탁월한 전략적방침 그리고 그이께서 몸소 보여주신 반제투쟁의 실천적모범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여주고있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반제투쟁의 풍부한 경험과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시대의 반제반미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는 탁월한 전략적 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반미투쟁전략은 그이께서 시종일관 견지하고계시는 철저한 반제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그것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해서뿐아니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쳐나아가는데서 리론실천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9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다시금 뚜렷이 밝혀준것으로서

그이께서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날부터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제2차세계대전직후에 벌써 세계정세발전의 추세를 명철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현시대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혁명과 반혁명이 대립되는 두 세력간의 투쟁의 시대로 규정하시고 이 시대의 전진운동은 반제반미투쟁의 강화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직 철저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현시대의 복잡첩예한 정세와 제국주의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적인 과학적분석을 가하심으로써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서의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이에 기초하시여 미제국주의를 세계인민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규정하시였으며 그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원칙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후의 모든 사태발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미투쟁로선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오늘까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단하루도 침략과 전쟁 책동을 멈춘 때가 없다. 미제는 제놈들의 강도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벌려왔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금 예속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침략행위와 파괴활동을 감행하여왔다. 오늘도 놈들은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목적밑에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대륙,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서고있다. 그리하여 지구상에는 미제에 의하여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않고있거나 미제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다.

실로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이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에 주되는 공격의 창끝을 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이 얼마나 정당하고 혁명적인 투쟁전략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말하여주고있다.

제국주의는 결코 스스로 력사무대에서 물러가지 않으며 멸망에 가까와갈수록 더욱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따라서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인민들을 억압하며 략탈하는 한 인민들은 잠시도 반제투쟁을 멈출수 없으며 지구상에서 온갖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쓸어버리고 억압당하고 천대받던 모든 민족이 완전한 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발전의 특징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주되는 투쟁대상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도와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히 벌려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9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략을 철저히 간파하신데 기초하시여 제시하신것으로서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발전시켜 미제국주의를 성과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전략적방침을 구현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평

화》니, 《협상》이니, 《교류》니 하는 갖가지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이른바 《평화전략》에 대하여 떠들고있다. 그러나 놈들의 《평화전략》이란 끝 뒤집어놓은 전쟁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는 다름아닌 《평화》의 간판밑에 혁명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고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며 또한 《평화》의 미명밑에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반제적립장이 견결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상정치적공세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이 교활하고 흉악한 전쟁전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당파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력량의 전투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온갖 투쟁 형태와 방법을 다 배합하여 미제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그들의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한다.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세계의 모든곳에서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 불길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 모든 반제력량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게 될 때에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은 파탄을 면할수 없다.

오늘 미제는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으며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하려는 미제의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을 때려부시고 아세아와 전반적세계정세발전을 결정적으로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과 대만에서, 남부웰남과 라오스, 캄보쟈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발붙이고있는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며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모략을 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00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이 전략적방침은 오늘 전반적 국제혁명운동발전에서 아세아가 차지하고있는 중요한 위치와 역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속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의 빛나는 전통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어제날의 식민지대륙이였던 아세아는 오늘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가장 치렬한 투쟁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다.

아세아 여러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군사정치적패배를 거듭하고있는 미제는 이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하여 이른바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미친듯이 확대강화하고있으며 여기에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끌어들여 제놈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려고 악랄하게 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의 《웰남화》계획을 추구하면서 인도지나전역에 걸쳐 침략전쟁의 불길을 더욱더 확대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미군감축》이란 간판밑에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으며 전반적세계평화는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은 미제의 이 모든 흉악한 범죄적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의 길에서 함께 싸워이긴 력사적경험을 가지고있다. 조선과 중국 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워 승리하였으며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워이겼다. 인도지나인민들은 프랑스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싸워 승리하였으며 지금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허장성세하여도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굳게 결합되여 미제에게 공동으로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한다면 놈들은 배겨내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아세아에서 쫓겨나고야말것이다.

지금 조선으로부터 중국, 웰남, 라오스 그리고 인민적이며 반제적인 캄보쟈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걸쳐 반제반미공동전선은 어느때보다도 굳게 다져졌다.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이 강력한 단결의 위력앞에서 미제국주의는 공포에 떨고있으며 놈들의 아세아전략은 전면적으로 파탄되여가고있다. 이것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전투적단결을 강화하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짓부실데 대한 전략적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아세아에서의 미제국주의의 패배는 세계적범위에서의 반제반미투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게 할것이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더욱 빨리 앞당기게 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과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싸우는 아랍인민들,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인민들,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며 미제의 각을 떠야 합니다.…비록 적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이렇게 모두 함께 달라붙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의 각을 이르는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06～107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단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그렇기때문에 놈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힘을 합치는것을 방해하며 혁명력량을 하나하나 말살하는 전략으로 나오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전략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단결로써 대답하며 단합된 투쟁으로 놈들의 전략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련대성을 강화하여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을 치렬한 반미투쟁의 마당으로 만듦으로써 놈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고 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이러저러한 지역에 힘을 집중할수 없게 하며 매개 전선에서 인민들이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를 때려눕힐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명활한 투쟁전략이다. 이 전략적방침은 미제의 각개격파전략을 미제의 두족을 각개절단하는 전략으로 파탄시킴으로써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며 작은 나라 인민들도 사대주의를 버리고 주체를 세워 견결히 투쟁한다면 능히 미제국주의를 타승할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위대한 전략이다.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으며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무한히 고무되여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며 혁명과 사회주의 편에 서서 이 대륙들을 더욱더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무덤으로 전변시키고있다.

우리 인민은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한마음한몸이 되여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군사정치적으로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하나로 굳게 뭉쳐 견결히 일떠서 싸우는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오늘도 반미투쟁의 최전선에 서서 미제의 두족을 각개절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미투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 그리고 놈들의 거듭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린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미제의 그 어떤 위협공갈책동에도 결코 놀라지 않으며 놈들의 침략책동에 언제나 가장 단호한 대답을 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처할 확고한 결의를 다지고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거듭 호된 징벌을 가함으로써 놈들을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깊이 몰아넣고있다.

오늘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앙양되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국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있으며 안팎으로 곤경에 빠지고있다.

미제국주의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고 세계적범위에서 반미투쟁을 힘차게 벌리며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며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련대성을 강화하여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적방침은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지역에서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새롭게 앙양시키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더욱 촉진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반제반미투쟁전략에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그 앞잡이들과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9페지)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미제의 침략적인 세계전략과 미제와 그 동맹자들간의 호상관계 그리고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수행에서 그 동맹자들과 앞잡이들이 노는 반동적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데 모든 반동세력들을 끌어들이는것은 미제의 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수행하는데서 여러나라의 반동세력에 의거하고있으며 이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의 길잡이로 되고있다.

대표적실례로서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의 충실한 《돌격대》로 나서고있으며 오늘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침략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끌어들여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침략적결탁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일본은 아세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과 전쟁의 온상으로 되고있다.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이골이 난 일본군국주의는 교활하게도 미제의 아세아침략전략에 가담하는 대가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망상하면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있다.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과 일본군국주의자체의 해외팽창정책의 요구에 따라 일본에서는 침략무력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군국화와 파쑈화가 급속히 촉진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해외침략의 첫 공격대상으로 정하고 이미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이 뻗치였을뿐아니라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조선전선에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을 꾸미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평화》의 탈,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해나서면서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무마하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로 복무하면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고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힘있게 짓부셔버릴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침략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적인 미일결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켜야 합니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평화〉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국제무대에서 그들을 고립시키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는 그들의 책동을 철저히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할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0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미제가 아세아에서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돌격대》로 리용하기 위하여 패망한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키는 길에 들어서는 첫시작부터 그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놈들의 범죄적책동을 꺾어버리기 위한 정당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더욱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정세하에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일치한 행동으로 놈들의 침략야망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의 교활한 침략야망을 칠저히 발가놓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결탁을 결정적으로 짓부셔버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을 짓부시기 위하여서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 때 놈들의 해외팽창야망은 파탄을 면치못할것이며 미제의 침략정책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은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곳에서 미제의 침략적지반을 약화시킴으로써 그에 의거하여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제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파탄시킬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전략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시종일관 원칙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야망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모든 반제반미투쟁전략은 제국주의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탁월한 전략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전개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아주 해롭고 위험합니다.》
(《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135페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인민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며 혁명적인민들을 제국주의앞에서 무장해제시키는 엄중한 해독적작용을 한다. 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고 그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조장시키며 결국 놈들과 타협하고 혁명을 배반하는 길에 굴러떨어지게 된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외면하면서 오늘에 와서 제국주의는 이미 그 성격이 변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고있으며 반제반미투쟁을 포기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서 일으키고있는 침략과 전쟁의 불길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눈을 감으면서 제국주의자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반혁명적 책동인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승냥이의 야수적본성이 변할수 없는것처럼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도 절대로 변할수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였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그 침략적본성은 의연히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짓부시고 지구상에서 온갖 제국주의를 완전히 쓸어버릴 때까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견결히 싸워나가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함으로써만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에 대한 혁명적립장과 원칙적태도를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미제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결코 과대평가하여도 안됩니다. 지구상의 온갖 제국주의가 다 그러한것처럼 미제국주의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더욱더 죽어가고 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1~72페지)

제국주의를 과소평가하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험성을 정확히 볼수 없으며 반대로 제국주의를 과대평가하면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에 빠져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잃게 된다.

특히 제국주의를 과대평가하면 미제의 원자공갈정책에 겁을 집어먹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되며 결국 반제반미투쟁을 포기하고 미제와 타협하는데로 나가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력사적지위와 그 취약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누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는 진리를 밝혀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놈들은 결국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놈들의 강대성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반대로 그 취약성을 보여주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놈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반제반미투쟁전략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반제반미투쟁의 실천행정에서 보여준 빛나는 모범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여주고있으며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반제반미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 받들면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반미투쟁전략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더욱 굳게 단결하여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아갈것이다.

근로자 제 4 호 (루계 349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1년 4월 1일 발 행 • 1971년 4월 5일
ㄱ—14148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5 호 (350)

차 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그를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이것은 그이께서 근 반세기에 이르는 혁명활동행정에서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공적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강유력한 혁명적당을 건설하는것을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을 창건육성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알지 못하는 당건설의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장기적이고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확고히 마련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고귀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깊고도 억센 뿌리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제때에 우리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당을 그 어떤 모진 풍파도 용감히 뚫고나가는 강유력한 혁명적전위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을 령도하시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거창한 사업을 승리적으로 전개하심으로써 이 땅우에 창조와 변혁, 륭성과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언제나 가장 정당한 혁명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그를 빛나게 관철할수 있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쟁취할수 있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속에서 세련되고 혁명수행에서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것으로 하여, 세계혁명위업에 대한 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믿음직한 선봉대, 돌격대로서 높은 권위와 위신을 획득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을 창건육성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근 반세기에 이르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감회깊게 돌이켜보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이에 대한 끓어오르는 경모감에 휩싸여있으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1

인류의 걸출한 영재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장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때려부시고 피착취근로대중을 해방하는 무기이며 모든 혁명투쟁을 조직하고 령도하는 정치적참모부이다.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그것을 강유력한 전투적부대로 꾸리는 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사활적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무엇

보다먼저 맑스-레닌주의당창건문제에 가장 심중한 주의를 돌리시고 그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조선공산주의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그 력사적교훈,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이고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창건방침, 이는 조선혁명을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위업을 가장 올바른 길을 따라 실현할수 있게 한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이였다.

이 방침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주동적인 힘과 노력에 의하여 당을 창건할수 있게 한 철저한 자주적방침이였으며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경험에도 구애됨이 없이 오직 혁명의 리익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당창건문제를 가장 혁명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 창조적인 방침이였다.

참으로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으로 하여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사상에 물젖어 자체의 힘으로 당을 창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세력에 의거하여 당을 조직해보려던 그릇된 편향이 긴정적으로 극복되게 되였다. 또한 이때까지 당창건의 옳은 길을 찾지 못하여 암중모색하던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명백히 알게 되였다.

이 방침으로 하여 세계적규모에서 급속히 확대발전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대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새로운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그 조직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것은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제기된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일부 종파분자들이 말하는것처럼 우리 형편에서 지금 당장 당을 창건하자고 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와 혁명력량의 축적이 없이 즉시 당을 창건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집을 짓겠다는것과 같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심중하게 그리고 가장 정력적으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토대를 한걸음씩 축성해나가야 할것입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정수분자들을 공산주의자로 육성하여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꾸리는 문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공산주의자들을 우리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등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한 구체적방침들을 명시하시였다.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철저한 조직사상적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철저한 조직사상적준비가 없이 기존 맑스-레닌주의소조나 단체들의 단순한 통합으로 당을 창건한다면 그러한 당은 오랜 기간에 걸쳐 우여곡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 오직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춘 기초우에서 창건된 당만이 처음부터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될

수 있고 창건첫날부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정확한 지도리론과 전략전술도 없고 로동자, 농민 출신의 공산주의골간도, 대중적지반도 없이 종파분자들의 극심한 파벌싸움과 일제의 야만적탄압에 의하여 실패와 곡절만을 겪어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창건의 철저한 준비를 갖춤이 없이는 혁명적당을 창건할수도 없었으며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수도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당시의 혁명정세와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분석총화하시고 혁명적당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여 당창건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실로 당창건에 앞서 그 조직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출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반드시 걸쳐야 할 합법칙적로정을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준 독창적인 방침이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절실한 요구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현명한 방침이였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출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의 실현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는 사업이 아직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였으며 선행시기 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는 매우 심각한 투쟁이였기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일제의 류례없는 파쑈적폭압과 반혁명세력들의 발악적인 공격을 이겨내며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반혁명적인 사상조류들을 극복청산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여야 하였기때문이다.

이로부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행정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마련하는 사업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직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만 혁명력량을 장성강화시킬수 있고 당창건준비사업을 갖추어나갈수 있었다.

당창건준비사업은 항일무장투쟁,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만 무장한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앞에서 공산주의대렬을 튼튼히 보위하고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공산주의핵심을 길러내여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꾸릴수 있었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철저히 무장시켜 당창건의 사상적준비를 갖추는 문제도,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문제도 다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혁명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발톱까지 무장한 수십수백배의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는 피어린 투쟁속에서 대렬안에 끼여든 혁명의 원쑤들의 끊임없는 배신적공격을 물리치면서 당창건의 제반 준비사업을 훌륭히 진행하시여 마침내 우리 당의 억세고도 깊은 뿌리를 마련하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준비사업은 또한 기층당조직들을 내오고 확대발전시키며 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길을 밝히

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실태로 보아 당장 통일적인 당을 창건할수 없었던 조건하에서 밑으로부터 당조직을 내오고 당조직들을 통하여 공산주의적핵심을 육성하는것은 당창건의 조직적준비를 갖추는데서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당조직을 내오고 당생활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과 통일단결을 강화할수 있었으며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공산주의적핵심들을 빨리 육성할수 있었다.

이렇듯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조국해방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시였을뿐아니라 정확한 당생활규범과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당사업경험들도 마련하시였다.

우리 당은 바로 맑스-레닌주의당창건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가장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있었기에 해방후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하에서도 제때에 창건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의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속에서, 계급적원수들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며 종파주의, 지방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태여났습니다.**》(우와 같은 책, 286페지)

해방후에도 당창건의 앞길에는 허다한 난관들이 가로놓여있었다.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후 모든 반동세력을 긁어모으는 한편 혁명력량을 탄압하면서 공산주의대렬을 분렬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해방직후의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공산주의대렬안에 끼여든 각양각색의 종파분자들과 반혁명분자들이 또한 우리 당창건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한다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해방직후의 그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조건에서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은 오직 오랜 혁명투쟁에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한몸에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해결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여러 지방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그루빠들을 전면적으로 망라하고 맑스-레닌주의당건설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1945년 10월 10일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인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을 창건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준엄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건된것으로 하여 처음부터 가장 공고한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었으며 창건첫날부터 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열매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의 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였습니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힘있는 전위부대, 맑스-레닌주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아가게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86~287페지)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을 명시하시고 내외의 온갖 원쑤들과의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당창건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여오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그처럼 바라마지 않던 한결같은 념원의 빛나는 실현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 발전에서 력사적전환이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강유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은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첫출현이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우리 당의 창건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민족해방운동을 힘있게 고무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전위부대가 출현하였다.

2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이 장성강화되는 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우리 당은 준엄하고 시련에 찬 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나고 단련되였다.

우리 당앞에는 창건첫날부터 어렵고 복잡한 수많은 혁명과업들이 나섰다. 우리 당은 창건되자 곧 정권을 령도하는 당으로 되였으며 류례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였다. 당은 나라가 분렬되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환경에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과거 사회로부터 매우 뒤떨어진 경제와 문화를 물려받은 조건에서 새 사회를 일떠세워야 하였다. 또한 당은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을 반대하여 투쟁할뿐아니라 공산주의대렬안에 나타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반대하여서도 심각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은 그 어느 당의 력사에서도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준엄하고 시련에 찬 로정이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안팎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혁명을 줄곧 승리의 길로 이끌어왔으며 난관과 시련을 뚫고 자기의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공고화하였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천재적인 사상과 리론, 비상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겸비하고계시며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허물수 없는 위신을 지니시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실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조선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오늘의 강유력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 조선로동당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매 단계와 매 시기 언제나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을 기울이시였으며 당대오를 확

대하고 그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기초하시여 모든 혁명과업들을 실현하시는 일관한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창건당시에 벌써 당과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명확히 천명하시였으며 우리 당이 나아갈 가장 곧바른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창건초기에 머리를 추켜들었던 종파분자들, 지방할거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시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립각한 당의 조직규률을 튼튼히 확립하심으로써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철저히 옹호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시여 인민정권을 세우며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력사적임무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해방직후의 정세와 계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가장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당을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조선인민앞에 제기된 위대한 민주과업을 완수하는데서 가장 결정적인것은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참모부, 근로인민의 유일한 전투적선봉대를 꾸리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78페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중적당건설방침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당은 창건후 짧은 기간내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강력한 대중적정당으로 발전되였다. 이것은 제2차세계대전후 대중적당건설문제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정확히 해결한 빛나는 모범이였다.

대중적당으로의 발전은 당력량을 강화하고 혁명가들의 대렬을 더욱 늘일수 있게 하였으며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더 깊이 뿌리박을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혁명력량을 분렬시키려던 원쑤들의 책동을 결정적으로 짓부시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력량을 급속히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키면서 당핵심을 육성확대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당대렬의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따라세우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는 수많은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이 새로 자라났으며 당원들의 전반적사상의식수준이 빠른 시일내에 높아지고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조성된 혁명임무에 맞게 우리 당을 제때에 강화하여주시였기에 공화국북반부에 강력한 혁명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될수 있었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될수 있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대처하시여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를 취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시여 전체 인민을 원쑤격멸의 성전에로 빛나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전기간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무엇보다도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찾으시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친히 령도하시는 그 긴장된 나날에 몸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을 준비하시고 지도하시였으며 전시조건에서 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승리를 위한 전반사

업을 한몸에 맡으신 그 바쁘신속에서도 각지의 공장, 농촌들과 전선의 구분대들을 찾으시여 당세포회의도 지도하시고 로동자, 농민 그리고 군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었으며 그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쟁의 일시적난관앞에 굴복한 투항주의자들과 패배주의자들이 제때에 강한 타격을 받았으며 당을 와해시키려던 취소주의자들의 반당적책동이 폭로분쇄되고 당안에 오래 숨어있던 반당반혁명간첩도당들이 적발숙청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더욱 강력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자라났으며 전체 인민을 령도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놈들을 내리막길에 처박아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발전에 실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정전과 함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새로운 벅찬 혁명과업이 나섰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먼저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면서 미제침략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였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은 전후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이 과업들을 동시에 해결해나간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굴의 의지와 확고한 혁명적원칙성,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직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해본 경험이 없는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과 사회주의개조방침을 제시하시고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가장 곧바른 승리에로 이끄시는 전 행정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대렬의 통일단결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가장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과 혁명적열의가 높아진 결과 전후 짧은 기간내에 복구건설의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승리적으로 진척되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내외의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특히 우리 혁명의 일대 전환기에 처하였던 1956～1957년당시 내외의 원쑤들의 책동은 전례없이 격화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서는 수정주의가 머리를 쳐들고 이를 계기로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반공캄파니아를 대대적으로 벌렸다.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반동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당내에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을 공격하여나섰다. 이 추악하고 비렬한 무리들은 혁명앞에 조성된 복잡한 틈을 타서 우리 당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동적음모까지 꾸미는데 이르렀다.

이 어려운 시련과 난관은 오직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

시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혁명을 승리에로 전진시키시는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허물수 없는 권위와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서만 타개될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시는 한편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힘을 믿으시고 몸소 그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심으로써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공세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며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심으로써 력사적으로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고질적인 종파분자들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하시였을뿐아니라 국제적으로 대두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가장 원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며 적들의 반혁명책동을 반대하는 전인민적정치투쟁을 조직하시는 한편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을 일으키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기초축성의 력사적과업은 바로 이와 같이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당의 통일단결과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투쟁과정에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의식을 높이고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실로 전후의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크게 믿으시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으며 인민대중은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오직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갔다.

정책수립에서의 천리안의 과학적예견성과 천재적인 통찰력, 어떤 어렵고 복잡한 사태에서도 일단 세우신 로선과 정책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는 확고한 원칙성과 불굴의 의지, 한 문제를 푸시고는 련이어 다른 문제를 제기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오직 승리에로 쉽없이 밀고나가시는 혁명적전개력, 진정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은 준엄한 난관과 시련도,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도 다 이겨내면서 자기의 대오를 철옹성같이 강화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가 건설된 다음 우리 당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섰다.

사회주의기초가 건설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길은 그 누구도 밝혀준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길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진행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특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나라에서 거의 매일과 같이 새 전쟁 도발소동을 벌렸다. 한편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사상적혼란을 일으켰으며 당안에 숨어있던 수정주의분자들과 부르죠아분자들이 외부로부터 수정주의사상조류가 침습해들어오자 반당반혁명적음모책동을 감행하여 나섰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건설을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임무와 긴장된 혁명정세에 상응하게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빛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령도로 무엇보다먼저 부르죠아분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반동적 및 기회주의적 책동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하게 조직전개하시였으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내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철석같은 사상의지의 통일이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10페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이 완전히 실현된것은 우리 당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이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념원의 빛나는 실현이며 우리 당의 공고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한편 당활동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더욱 튼튼히 확립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개선강화하는 사업을 가장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선 첫시기에 력사적인 청산리현지지도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를 일반화하시여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당 및 국가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 사업에서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기본적으로 청산되고 모든 당조직들이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교양하고 이끌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당정책관철에로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국가, 경제, 문화 기관 및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지고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가장 성과적으로 움직일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과 전투력이 강화되고 그 령도적역할이 높아짐으로써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모든 로선과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급속히 추진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불과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완수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우리는 이미 어떤 원쑤들의 침공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강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혁명기지를 철옹성같이 다져놓았다. 오늘은 사회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되고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게 강화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에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가장 공고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부대로 강화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조선혁명수행에서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수행에서도 위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그 국제적권위와 위신을 비상히 제고하였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구현하였으며 국제적규모에서 반제반미투쟁을 발전시키며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탁월한 기여 그리고 우리 당의 높은 국제적위신과 권위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3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투쟁행정에서 로동계급의 당에 관한 새로운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다.

우리 당의 창건과 공고발전의 전로정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행한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발전시키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자랑찬 로정이였다.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본질을 더욱 명확히 밝히시고 당건설의 근본원칙과 당사업의 기본,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와 령도방법 등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새로운 원리들을 독창적으로 창시하시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에 관한 리론을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였으며 현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실천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창시하신 당에 관한 리론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초석을 새롭게 마련해준 위대하고 천재적인 리론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역할,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호상관계에 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당이 본질에 있어서 그 당을 창건하고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무기로 된다는 진리를 새롭게 밝혀주었다. 이것은 바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계급적조직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질을 가장 철저한 혁명적립장에서 뚜렷이 밝혀준 고전적사상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을 어떤 조직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당건설리론과 실천의 근본출발점으로 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이 문제에 대한 태도로부터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이 갈라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배신자들인 기회주의자들은 무엇보

다도 당의 혁명적본질을 거세하고 그 전투적기능을 말살하려고 책동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무기로 된다는 사상은 당의 혁명적인 본질을 가장 집중적으로 밝혀준 천재적리론으로서 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진수를 확고히 고수하고 발전시킨 탁월한 모범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의 지도사상을 실현할 각오가 되여있는 계급의 선진분자들로 결속된 선봉적부대이다.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는 로동계급의 수령이 계급의 지향과 요구, 혁명운동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제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과 리론을 실현해나가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력사적사명으로 된다. 따라서 수령의 사상과 그의 령도를 떠나서 맑스-레닌주의당의 창건과 공고발전에 대하여서도, 그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이러한 혁명적본질로부터 출발하여 당건설의 근본원칙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오직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칠석같이 통일단결되여야만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한가지 무기에 이런 포탄, 저런 포탄, 이런 탄약, 저런 탄약을 마구 쓸수 없듯이 혁명투쟁의 무기인 맑스-레닌주의당안에는 오직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있을수 있고 그 밖에 어떤 다른 사상도 있을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기초로하여,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야만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러한 당은 이색분자, 우연분자, 적대분자들의 침투와 그 파괴책동을 막아낼수 없으며 나중에는 사분오렬되여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게 된다.

실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모든 원칙들과 당활동의 모든 문제들에 관통되고있는 근본문제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천재적인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발전력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실천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의 당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실제적인 기초를 제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은 맑스-레닌주의당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당건설의 근본핵을 명백히 규정해주며 당활동의 총적방향을 과학리론적으로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리론이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 당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부인하며 약화시키려는 수정주의적리론의 부당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로동계급의 당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하여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준 불멸의 사상이다.

참으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과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 영원히 빛을 뿌릴 위대한 사상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에서 처음으로 정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의 활동원칙과 사업체계 특히는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선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대한 독창적

인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집권당의 활동원칙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문제는 선행한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에서 해명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은 당이 자기의 고유한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문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된 혁명가들의 산 조직으로 계속 강화발전하는가 못하는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인전대들을 옳게 움직여 당앞에 나선 정치경제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하는 문제가 바로 이에 달려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중대한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당사업의 기본을 명철하게 천명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기본사명과 정치적임무의 요구에 맞게 활동할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19페지)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에 둘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리론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에서 처음으로 당사업의 대상과 본질, 그 내용과 원칙 및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창조적리론이다. 이는 당을 수령의 사상을 신봉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그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준 탁월한 사상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시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관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당사업을 완전히 사람과의 산 조직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로동계급의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당을 강화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이는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시여 국가경제기관과 근로단체 등 인전대들에 대한 당적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완성하는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였다. 당위원회를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령도체계와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키잡이리론은 그이께서 처음으로 창시하신 전혀 새로운 당건설리론으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당적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확립하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관한 이 모든 사상과 리론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성과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그 고유한 사명, 당의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 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 가장 정확한 당건설리론이다. 이는 또한 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성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 전적으로 부합되

는 가장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이다.

뿐만아니라 이 모든 리론은 집권당에 나타날수 있는 당제도와 관료화경향,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기회주의 등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당사업실천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하는 천재적인 리론이다.

참으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의 근본원리와 그 구현방도를 정연하게 밝혀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의 전혀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그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일정에 오른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발전시키시였으며 당사업에서 나타난 기회주의적 리론과 편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맑스-레닌주의 당건설 리론과 실천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들에 천재적인 해답을 준 이 탁월한 사상과 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기하시고 전면적으로 해명하신 당에 관한 모든 새로운 리론과 더불어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대한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리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조선혁명과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진 믿음직한 전위부대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오늘 신심과 희망에 넘쳐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필승불패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는 칭호보다 더 고귀한 칭호는 없으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영예보다 더 높은 영예는 없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이 영예, 이 자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당의 가일층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수령님께서 우리 당앞에 내세우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 철석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119페지)

당안에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보장하는것은 우리 당이 자기 존재의 전기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사업의 총적과업이다.

모든 당원들은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이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에 대해서도 제때에 강한 타격을 줌으로써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일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과수부문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공고발전시키자

얼마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집행총화와 당 제5차대회에서 과수부문앞에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북청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높이 평가하시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며 과수업을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전원회의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북청회의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투쟁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나라의 커다란 경제적밑천을 마련하고 후대들에게 넘겨줄 훌륭한 재부를 이룩하여놓았다는것을 긍지높이 총화하였으며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과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더욱 커다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할 확고한 결의를 표시하였다.

*　　*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는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새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웅대한 자연개조사업을 벌림으로써 온 나라의 강산을 과일동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 북청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은 전체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였으며 그들을 대자연개조사업의 영웅적위훈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투쟁로정을 개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이 10년동안 북청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벌려온 우리의 투쟁은 매우 보람찬 투쟁이였으며 우리는 참말로 위대한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실로 이 기간에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는 놀라운 전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청회의결정관철을 위한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는 전례없는 세기적전변이 일어났다.

바로 10년전에 수령님께서 온 나라의 야산을 과일동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위대한 봉화를 지펴올리신 력사의 땅 북청군은 이 기간에 과수면적을 4배로 늘이고 과일생산과 과수원기술관리에서 전국의 앞장서나가고있다. 오늘 북청은 경사지과수원건설과 선진과수기술경험의 보급거지로서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자연개조의 홰불이 타오른 영광의 땅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북청땅에 지펴주신 자연개조의 위대한 봉화는 료원의 불길처럼 세차게 타번져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새로운 북청—믿음직한 과일생산기지들을 수많이 낳았다.

오늘 우리 나라의 국영과수부문에서는 근 8,000정보의 과수면적을 가진 세계 1등급의 과일군 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하여 한개 농장이 보통 1,000여정보의 과수면적을 가지고있다.

국영과수부문뿐아니라 협동농장들의 과수업규모도 전례없이 커졌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협동농장들이 과수원을 가지고있으며 그 규모에서 50정

보이상의 과수원을 가진 협동농장은 800여개, 100정보로부터 500정보까지의 과수원을 가진 협동농장은 70여개나 된다.

북청회의후 많은 기관, 기업소들과 학교들에서도 과수원을 새로 수많이 일구었으며 농촌지역의 집집마다에서도 정원과수를 널리 심어 그야말로 온 강토를 하나의 아름다운 과수원으로 전변시켰다.

전국방방곡곡에 과수원들이 새로 수많이 생겨남으로써 우리 나라의 과수면적은 해방전에 비하여 무려 33.3배로 늘어났다.

과수업의 수종배치와 품종구성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근로자들의 수요와 매개 지방의 기후풍토조건에 맞게 올과일과 늦과일, 여러가지 과일품종이 잘 배합되여 조성됨으로써 사철 신선한 과일을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북청회의이후 과일나무의 기술관리에서 낡은 경험주의와 교조주의를 마스고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과 과일나무의 특성에 맞는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기술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데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과수업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고 과수원의 기술경영관리가 개선됨으로써 과일생산량은 해마다 빨리 늘어나고있다.

과수업의 급속한 발전은 협동농장들의 현금수입을 늘이고 경제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특히 산간지대 협동농장들을 빨리 추켜세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오늘 많은 협동농장들의 년간수입가운데서 과수업에 의한 현금수입은 계통적으로 높아지고있다.

북청회의후 우리 나라 과수업은 생산과 저장,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빨리 발전하였으며 농업생산의 주도적부문의 하나로 믿음직하게 전변되였다. 과수업의 빠른 발전은 농촌경리의 전반적발전과 식료공업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일층 강화하고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을 더욱 높이게 하고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짧은 력사적기간에 대자연을 개조하여 과수업의 튼튼한 토대를 쌓고 온 나라를 과일동산으로 전변시킨 이 빛나는 승리는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이 승리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전당과 전국이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여놓을수 있는가를 보여준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북청회의이후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자주자립의 혁명사상이 자연개조사업에 구현되여 이룩된 승리이며 과수업발전을 위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열매이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리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육친적사랑과 고매한 덕성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백과주렁지는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면서 앞으로 해방될 조국땅우에 살기좋고 풍요한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며 삼천리금수강산을 아름다운 과일동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시자 곧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며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과수업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그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우리 나라 과수업의 장래발전을 위한

터전을 하나하나 꾸려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실 우리 나라에는 과수원을 만들만한 산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있는 이와 같은 산들을 우리가 다 일구어 과수원을 많이 만든다면 거기에서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할수 있는 큰 재부를 얻어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이후 그 결정관철을 위한 전당적, 전군중적 투쟁을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국도처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진 전군중적인 과수원조성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과수면적이 급속히 늘어나는데 맞게 주체적인 기술관리체계와 경영관리체계를 세워주시였으며 과수업의 빠른 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피시고 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가운데서도 자주 현지에 나가시여 과수원의 자리를 몸소 잡아주시고 산은 어떤 방법으로 일구며 과일나무는 어떻게 심고 수종은 어떻게 배치하며 계단은 어떻게 쌓고 길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생산되는 과일의 저장과 가공, 그 공급사업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세심히 가르치주시고 이 부문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그 어느 과수농장치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 배려와 손길이 미치지 않은데란 없으며 매 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과 후대들에게 더욱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깊이 심려하시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은덕이 깃들지 않은것이 없다.

우리 나라 과수업의 빛나는 발전력사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문화농촌건설과 대자연개조를 위한 그이의 위대한 구상이 활짝 꽃피여난 승리의 력사이며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그이의 부르심따라 힘차게 달려온 우리 인민의 창조와 혁신의 자랑찬 투쟁로정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와 그에 앞서 있은 북청회의 열돐기념 함경남도보고회에서 우리 나라 과수업의 더욱 빠른 발전을 위한 강령적과업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청회의결정을 받들고 지난 기간 우리가 건설하여놓은 수많은 과수원들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재부이며 앞으로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인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거나 만세만 부를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과수업발전에 계속 전국가적, 전인민적 힘을 넣어 북청회의 결정관철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것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

현시기 과수부문앞에는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에 따라 과수업발전에서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하는데 중심을 두면서 새로운 과수원을 더 많이 일구어 6개년계획기간에 과수총면적을 더욱 늘이며 과일생산량을 80만~100만톤에 이르게 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가 이 전망목표를 실행하게 되면 과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키고 농촌경리의 전반적발전과 경공업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하게 될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자부심과 긍지를 보다 높이게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강조하신바와 같이 북청회

의의 빛나는 승리를 더욱 공고발전시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이미 마련하여놓은 과수원을 잘 보호하고 알뜰히 꾸리는데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비탈진 과일밭들에 계단을 만들고 돌을 쌓아 과일밭흙이 비물에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벌방지대가 적고 산이 많기때문에 북청회의이후 주로 산비탈에 과수원들을 많이 조성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과일밭흙이 비물에 씻겨내려가는것을 막는것은 과수원건설과 높고도 안전한 과일생산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모든 지방들에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과수원을 잘 보호하고 알뜰히 꾸리는데 힘을 넣어 계단을 만들데는 계단을 만들고 돌을 쌓을데는 돌을 쌓으며 풀떠를 조성할데는 풀떠를 조성하여 비물에 땅이 씻겨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과수원건설과 관리에서 북청군 룡전리와 당우리는 이에 있어서 훌륭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모든 국영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북청군 룡전리와 당우리의 좋은 경험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국영과수농장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또한 늙은 과일나무를 계획적으로 갱신하고 빈그루메우기를 잘하여 모든 과수원들이 영원히 청춘과원으로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과일나무를 잘 키워 과일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과수원들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대규모사회주의과수업과 현대적축산업을 옳게 결합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과일생산지대들에 해당한 규모의 돼지목장들을 건설하고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더많이 받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과수원에 내여 해마다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수업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현시기 과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제5차당대회에서 내놓은 기술혁명방침에 따라 과수업분야에서도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대규모사회주의경리로 발전된 과수업을 기계화, 현대화하지 않고서는 방대한 면적의 과수원을 제때에 잘 관리할수 없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없으며 과수작업에서의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없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과업의 하나인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수작업의 기계화, 화학화, 현대화를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과수업에서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려면 먼저 포전정리를 잘하며 길을 잘 닦아야 한다. 그리하여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이 비탈진 과일밭을 비롯하여 아무 포전에나 지장없이 드나들게 하며 과일밭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작업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기계의 수리정비사업을 잘하고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여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과수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하여 크고작은 여러가지 형의 뜨락또르를 더 많이 생산하며 과수기계전문생산공장을 새로 내오고 종합적기계화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와 과일가공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과수원들에서 과일나무심기로부터 거름주기, 약뿌리기, 과일따기, 과일운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작업공정들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함으로써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한사람

당 관리면적을 훨씬 늘여야 한다.

봄과 가을에 가물이 심한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서 모든 과수원에 관수체계를 세우는것은 과일나무를 빨리 키우고 과일생산량을 끊임없이 높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국영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이미 농촌에 마련된 위력한 수리화체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과수원마다 물탕크도 만들고 양수기도 놓으며 지형조건과 과일나무의 종류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의 관수체계를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과일의 정당수확고를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과수원들에 소독탕크를 만들어 제때에 농약을 뿌림으로써 병해충을 철저히 막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과수업발전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공고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의 다른 하나는 과일의 가공과 저장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일가공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려 과일을 많이 가공하면 생산한 과일의 류실을 없애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게 할수 있으며 과일농장들의 수익성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가공을 잘하면 그것을 다른 나라에 팔아 외화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과일가공사업과 함께 과일저장사업을 늘어나는 과일생산에 따라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일생산량이 빨리 늘어나는데 맞게 과일의 가공과 저장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

모든 지방들에서는 지금 있는 과일가공공장들을 잘 정비보강하여 그 가공능력을 더욱 늘이는 동시에 새로운 현대적인 과일가공공장들을 건설하여 과일통졸임과 과일병졸임, 과일잼, 과일즙 등 여러가지 과일가공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국영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과일건조시설물을 잘 꾸리고 떨어진 과일과 허물진 과일들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 말린 과일과 과일가루를 생산하여 비닐주머니에 넣어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영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또한 과일생산규모에 따라 현대식랭동저장창고와 굴식지장창고, 반지상식저장창고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자연굴 등을 적극 리용하여 생산된 과일을 더 많이 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일의 가공과 저장 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과일포장재생산기지를 잘 꾸리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포장재가 없이는 과일가공시설과 저장시설물을 아무리 잘 갖추어놓아도 그것들이 은을 낼수 없다. 우리는 벼짚이 많이 나는 곳에 주름판지공장을 지으며 여러곳에 유리병공장들을 건설하여 거기에서 생산되는 주름판지와 유리병들을 농장들에 더 많이 대주어야 한다. 그리고 군마다 평양뽀뿌라와 같은 빨리 자라나는 나무를 많이 심어 과일상자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목재를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에서는 늘어나는 과일을 인민들에게 더 잘 공급하기 위하여 상업류통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과일의 수확기에는 여러가지 수송수단들을 옳게 배합하여 과일수송을 기동성있게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과수원을 잘 꾸리는것과 함께 과수면적을 새로 늘이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6개년계획기간 과수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모든 지방들에서는 과수가 잘되는 적지를 골라 새로운 과수원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과수면적을 늘이는데서는 사과나무를 위주로 하면서 앵두, 살구 같은 빨리 자라고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들며 사철 먹을수 있는 과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과수원조성에서는 특히 산을 벗기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과수원을 처음부터 알뜰히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앵두, 살구 같은 과일나무를 길가와 산기슭, 학교와 공공건물 주변에도 많이 심도록 하며 농촌지역의 모든 가정들에서 열그루이상의 정원과수를 심는 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또한 모든 농촌들에서는 밤나무에 대한 관리조직을 철저히 하여 더 많은 밤을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과수원을 더 많이 꾸리는데 필요한 묘목생산기지를 더욱 늘이고 새로운 전망계획기간 수종 및 품종 배치계획에 따라 과수묘목을 종류별로 정확히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수업을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더욱 높이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수부문의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당면한 생산실천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망적문제들을 옳게 배합하여 해결해나가야 한다. 과수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기술일군양성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 기술일군들의 대렬을 더 많이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과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과수부문의 당조직들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며 이 부문 지도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수립하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영과수농장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특히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과수부문의 가장 합리적인 생산조직형태이며 집단생활의 세포인 작업반책임제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과수부문에서는 또한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하여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과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하고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것이다.

과수부문당조직들은 이 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그이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과 북청회의 열돐기념 함경남도보고회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그이의 강령적교시와 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근 반세기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모두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과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보다 커다란 앙양을 일으키자!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자

우리 당의 총비서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최근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보건정책의 정당성과 그이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보건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뚜렷이 확증하였으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우리의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인민보건사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력사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이번 전원회의는 우리 나라에 창설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적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보건부문앞에 내세운 강령적과업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며 우리 나라 인민보건사업발전에서의 새로운 커다란 리정표로 된다.

우리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여야 할것이다.

⁂ ⁂

인민보건사업은 근로자들의 복리향상과 문화혁명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제도하에서 사람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64폐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이 가장 귀중한 보배로 되며 모든것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돌려진다. 착취와 압박, 기아와 빈궁이 영원히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전국가적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증진되며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은 빛나게 실현된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는 맑스-레닌주의당과 사회주의국가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궁극적목적도 바로 전체 인민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무병장수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자는데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보건사업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며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지식과 기술을 소유할뿐아니라 건강하고 문명하게 생활하도록 만들어야 온갖 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한 문화를 건설할수 있다. 또한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근로자들의 체력이 건장해야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될수 있으며 당앞에 나서는 모든 혁명임무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상응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적보건제도를 세워주시고 전체 인민이 누구나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에 창설된 가장 우월한 인민보건제도,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이 행복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크고 뜨거운 배려의 결과이며 그이의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전체 인민이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게 살 휘황한 앞날을 구상하시였으며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인민보건사업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15성상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인민보건제도를 수립할데 대한 주체적인 방침을 천명하시고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인민적보건시책을 실시하시였으며 그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인민보건건설을 위한 위대한 강령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무르익히신 인민보건문제해결의 위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 보건사업발전의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빛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후 곧 력사적인 민주개혁의 한 고리로서 보건의 민주화방침을 실현하시였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시기에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또한 전후 짧은 기간내에 전쟁이 인민들의 건강에 미친 후과를 철저히 가시는 한편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더 한층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적보건제도를 세워주시였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민보건사업발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독창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인민보건사업이 나아갈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적보건제도의 근본우월성과 사회주의제도확립이후 보건사업발전의 기본방향, 사회주의의학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보건사업의 사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적보건제도의 근본우월성은 바로 전국가적시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고 증진될뿐아니라 보건일군들이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환자치료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는데 있다는것을 천재적으로 해명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제도확립이후 보건사업발전의 근본방향은 사상혁명을 앞세워 치료예방사업에서 보건일군들의 창발성과 열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확립된 사회주의적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전체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철저히 복무하도록 하는데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의학과 부르조아의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은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예방의학이라는 천재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예방의학에 대한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리론적해명을 주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새롭게 제시하시고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주체적인 인민보건사상은 인민보건사업에서 맑스-레닌주의당과 사회주의국가가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보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근본문제들을 심오히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우리의 보건일군들속에서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힘있게 전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치료예방사업에서 정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시고 그 과학기술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령도하여주시였다. 이리하여 그이께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이미 전쟁시기부터 실시하여오던 무상치료제를 더욱 발전시켜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 보건사업발전의 명확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나라에 가장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를 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전국의 여러 보건부문 기관, 기업소들을 찾으시고 현지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친어버이심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전반적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수령님께서 친히 찾으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신 단위는 중앙의 큰 병원들과 의학대학들, 제약공장으로부터 산간오지의 진료소, 료양소, 인민약국, 탁아소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그 수를 이루다 헤아릴수 없으며 그이께서 보건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는 무려 2,000여차례에 달한다.

수령님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인민보건사업은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보건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531페지)

우리 인민은 오늘 외래약값은 물론 입원치료비로부터 료양봉사비에 이르기까지 지어는 료양소에 오가는 왕복려비까지 다 국가가 부담하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철저한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상태와 나라의 보건발전수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해방전에 비하여 26년이나 더 늘어났다. 지난날 모진 기아와 질병, 천대와 굴욕으로 하여 살아있는것조차 귀찮게 여기던 근로자들이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는것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생활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의 일관한 보건정책에 의하여 국가예산지출에서 인민보건사업비의 비중이 더욱더 높아지고 병원과 진료소, 료양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치료예방기관들과 보건일군들이 늘어나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더 빨리 개선되고있다.

또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예방의학적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은 더욱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지고 우리 나라는 발전된 위생방역망을 가진 문명한 나라로 전변되였다.

우리의 의학과학은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의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는 주체적인 의학과학으로 발전되였다.

해방전에는 아스피린, 핀세트 한개도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항생소의약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우리의 원료와 자재, 우리의 기술로 척척 만들어내는 강력한 의약품 및 의료기구 생산기지가 마련되였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일치하게 강조된 바와 같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이룩된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우리 혁명의 빠른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는 튼튼한 담보로 되며 우리의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는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밑에 진행된 이번 전원회의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커다란 성과에 토대하여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심화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인민보건사업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특히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강령적과업은 우리 나라에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적보건제도를 더 한층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보호증진시키며 모든 인민을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극진한 배려의 표시이다. 이는 우리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더욱더 믿음직하게 보장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욱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우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과업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보건부문앞에 제시하신 모든 과업이 인민보건사업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를 열어주는 사회주의보건의 강령으로 된다는것을 일치하게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을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심화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결정적고리는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36페지)

우리 당조직들이 인민보건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거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혁명과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인민보건사업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이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며 모든 보건부문기관들과 그 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하도록 당적인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보건기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의학과학기술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의학과학연구기관들을 더 잘 꾸리며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 농촌리에 이르기까지 보건

기관들을 더욱 강화할 구체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의학과학연구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보건일군들의 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오늘 우리의 의학과학부문앞에는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제기되는 의학과학기술문제들의 해결, 리병률이 비교적 높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 현대의학의 새로운 부문들을 개척하고 기초의학분야를 전망성있게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나서고있다. 또한 높아지는 요구에 맞게 보건일군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양성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우리의 의학과학기술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 의학과학연구기관들과 양성기관들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는 중앙과 지방의 의학과학연구기관들과 양성기관들을 더잘 꾸리고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며 연구사업과 양성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의학과학을 주체가 튼튼히 서고 우리 나라 현실에서 제기되는 의학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는 세계선진수준의 의학과학으로 빨리 발전시키며 의학교육의 질을 한계단 높이고 림상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유능한 보건일군들을 더 많이 길러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병원들을 잘 꾸리고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을 강화하며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고 모든 리에 아동병동을 꾸려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78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실현하며 인민보건사업의 전반적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병원들을 더 늘이고 그것을 현대적기술실비로 더 잘 꾸리며 농촌진료소를 병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자기 지방의 모든 원천과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도, 시, 군 병원들을 현대적설비로 꾸림으로써 가까운 몇해동안에 모든 병원들을 가장 선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병원들의 침대수를 더 늘이고 전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닦으며 새로운 전문병원들을 조직하여야 한다.

특히 농촌진료소들을 병원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는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농민들의 문화적락후성을 영원히 없애고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구현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기간내에 농촌리의 진료소를 병원화하여 여기에 각 전문과를 조직하고 구급침대를 비롯한 필요한 침대를 설치하며 특히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을 잘 꾸리고 조산원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농촌녀성들에게 100%의 해산방조를 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군에 소아과병동들 그리고 리에는 아동병동들을 더 잘 꾸림으로써 어린이들의 입원치료사업을 더 잘할수 있게 하며 리병률이 높은 어린이질병들을 결정적으로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또한 보건일군들의 정치사상적, 과학기술적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의학과학기관과 병원들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보건일군들의 정치사상적 및 기술실무적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나라의 의학과

학기술수준을 가장 선진적인 수준에로 올려세우며 림상실천에서 나서는 긴절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고 인민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는 보건부문학교교육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보건일군들을 더 많이 양성하는 한편 현직 보건일군들의 재교육사업을 강화하고 모든 보건일군들의 자질을 훨씬 높여야만 인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인민보건사업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강화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보건일군들속에서 혁명적학풍을 세우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자질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보건부문에서 과학토론회와 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보건일군들의 과학기술수준을 급속히 높이며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의학기술도 적극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건부문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며 우리 나라의 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각급 당조직들이 보건부문일군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일군들은 직업상 특성으로 보나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누구보다 먼저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하며 그것도 가장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합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55페지)

보건일군들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있다.

보건일군들을 통하여 우리 당의 보건정책이 실현되고있으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보건일군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면 사람들의 병을 더 잘 고칠수 있을뿐아니라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잘할수 있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보건일군들이 정성껏 인민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그들속에서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교양사업을 하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은 보건부문일군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보건일군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또한 모든 보건일군들로 하여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게 하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아 그들처럼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붉은 보건전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보건일군들속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하여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 공명출세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적극 벌리게 하며 그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인민보건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모든 보건일군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기초우에서 치료예방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의학과학기관들과 병원들을 더 잘 꾸

리는 문제도, 보건일군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그들의 자질을 높이는 문제도 결국은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근로자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증진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민보건사업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예방의학적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사업을 순전히 약만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예방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95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것, 이것이 곧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이며 모든 보건부문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위생선전사업을 광범히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위생지식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하며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리고 로동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로동조건을 위생문화적으로 더 잘 꾸리는것은 오늘 보건부문앞에 나선 가장 영예로운 과업의 하나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공업부문들과 작업장들에서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며 고열, 가스, 먼지, 습기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산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기 위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의학기술적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경리의 화학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는 조건에서 농업로동에 대한 위생보호대책을 강구하며 특히 농촌녀성들에 대한 로동위생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당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근로자들의 생활과 생산 조건을 위생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오늘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가꾸게 하며 모범위생군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가까운 기간에 모든 군을 2중모범위생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곳에 다 수도를 설치하고 농촌수도화를 완성하여야 한다.

식료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현실은 식료위생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식료공장들을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리며 식료품가공에서 식료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 당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방역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공장지구, 농촌 등 주민지구의 전반적 위생상태를 개선하며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보건부문일군들로 하여금 리병률이 비교적 높은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며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여 동물을 통한 각종 전염병의 발생을 철저히 막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체육을 생활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한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각급 당조직들은 보건부문일군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

에서 정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며 이미 실시하고있는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를 더욱 강화하고 병원들에서 전문화수준을 높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과적의료방조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을 더욱 반전시키고 그 품종을 늘임으로써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은이 더욱 진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또한 의료봉사사업에서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나라에 풍부한 온천과 약수, 감탕 등을 다양하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의 하나이며 학령전 어린이들을 모두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하여 키우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이다.

우리는 이미 있는 탁아소, 유치원들의 수용능력을 더욱 높이며 현대적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을 더 많이 건설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그들을 위한 훌륭한 양육시설을 갖추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하여 믿음직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키울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보건사업에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것은 이 부문앞에 나선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독불장군이라고 혁명은 대중을 떠나서 혼자서는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보건사업도 대중을 발동시키지 않고는 성과적으로 할수 없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97페지)

인민보건사업은 전체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이 발동되여야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사업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거리와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발전시키며 병원과 학교, 탁아소와 유치원을 늘이고 잘 꾸리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을 광범한 군중을 발동하여 대중적운동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인민보건사업에서 정권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모든 생산기업소들과 그 일군들의 지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병원에 대한 공급사업과 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기계공장들은 빨리 늘어나는 의료기구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가지 제품씩 맡아서 책임적으로 생산해주는 운동을 널리 전개하여야 하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보건기관들을 꾸리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사회적운동으로 더 많은 목욕탕과 문화후생시설들도 건설하며 병을 막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보건사업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전체 인민이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념원을 더욱 훌륭히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보건부문앞에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이 실현되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적보건제도의 우월성은 더욱 훌륭히 발양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온갖 질병이 근절되고 모든 사람이 더욱 행복하게 사는 문명한 나라로 전변될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며 우리의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획기적전환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남북의 애국력량은 단합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자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이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는 현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국방안을 토의하고 전민족이 힘을 합쳐 반미, 반일, 반박정희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것을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과 제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에게 호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호소문에 담겨진 구국방안과 새로운 제의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안을 구체화한것으로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남조선에서 새 전쟁및 재침 책동을 강화하고있는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고있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취해진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구국대책은 반제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계기로 될것이다.

남북의 모든 애국력량은 굳게 단합하여 현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공동투쟁을 세차게 벌려야 할것이다.

* *

오늘 우리 나라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매우 첨예하고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첨예하고 긴장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습니다.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한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괴뢰도당은 미일반동들의 이중의 앞잡이로서 자기 상전들의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9～70페지)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놈들이 악명높은 《닉슨주의》를 내걸고 《새 아세아정책》에 대하여 떠벌이면서부터 더욱 격화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새 아세아정책》을 떠들어대면서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더욱 강화하고 라오스와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략을 확대하는 한편 전조선을 삼키려는 침략목적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남조선은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며 1970년대의 《대결지점》은 《동

복아세아 특히 조선》이라고 제놈들의 침략적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새 전쟁 도발책동은 최근 이른바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이라는 기만극의 막뒤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감축》소동은 놈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기 위한것이 아니라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모략이며 조선과 아세아에서 손을 뗄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세계 인민들의 여론을 기만우롱하기 위한 범죄적인 책동이다.

사실상 《미군감축》의 간판밑에 최근시기 미제가 남조선에서 다그쳐온 무력증강과 새 전쟁 준비는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지난 모든 시기를 훨씬 릉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국본토에서 여러개의 전투비행대대들과 전술비행단, 해군함선들과 신형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또한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에게 10억딸라분의 군사장비까지 넘겨주면서 남조선괴뢰군의 이른바 《현대화》와 《향토예비군》의 《무장화》를 서두르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본토와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침략무력과 군수물자들을 아무때나 끌어들일수 있는 긴급수송체계까지 세워놓고 대규모적인 공수작전훈련을 계속하고있으며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간의 합동군사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실로 모든것이 미제의 전쟁정책수행에 복종되는 방대한 군수창고로, 새 전쟁 도발을 위한 군사련병장으로 화하였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제놈들의 범죄적인 계획이 진척됨에 따라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미제침략자들은 연 640여차에 걸쳐 무려 22만 1천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우리측 지역에 쏘아대면서 계획적으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도발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의 《미군감축》소동이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덜게 한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조성되고있는 새 전쟁의 위험은 놈들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이 강화됨으로써 더욱더 엄중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기여들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조선전선에 자기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을 공공연히 꾸미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03페지)

미제의 비호밑에 아세아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남조선에 대한 침투를 감행하고있을뿐아니라 군사적침투를 공공연히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범죄적인 《한일조약》을 방패로 삼아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가 퍼뜨리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감축》소동에 발맞추어 남조선을 《일본의 방위선》으로 선포하고 《한국을 방위할 방안을 연구》한다는 구실밑에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서두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일 《안보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조선에 간섭할수도 있고 이른바 《유엔군》의 이름을 도용하여 남조선에 파병할수도 있다고 떠벌이면서 우리 나라를 침략할 모험적인 《작전계획》까지 짜놓고있다.

간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군사적재침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로서 일단 유사시에 일본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군사분계선까지 단시간내에 대병력을 밀어넣을수 있는 《긴급수송체계》를 세워놓고 조선전선에 침략무력을 출동시킬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놈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고 《선제공격》을 운운하면서 각종 군사훈련을 빈번히 벌리고있으며 지어 《교류군무》라는 이름밑에 일본침략군의 골간부대를 남조선에 상주시킬 음모를 공공연히 꾸미는데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사실은 조선을 다시 삼켜보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극히 야심적이며 침략적인 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일본반동지배층의 침략적야망이 오늘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모험도 서슴지 않으려는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일침략자들이 서로 공모결탁하여 우리 나라에서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다그치고있는 오늘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그에 적극 추종하면서 상전의 전쟁정책집행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에는 일제의 번견이였고 그후에는 미제의 주구로 변신하였으며 오늘 미일제국주의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고있는 박정희와 같은 매국노들은 타도되여야 합니다. 그러한 세력을 그대로 두어두고서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수 없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371페지)

매국노의 족속에서 생겨났고 극악한 매국배족행위로 상전의 비호를 받으면서 잔명을 이어가고있는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하수인이며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남조선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이다.

매국노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가 미리 꾸며놓은 각본에 따라 《감군》소동을 벌리고있는 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며 남조선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미제의 전쟁정책수행에 송두리채 밀어넣고있다.

요즘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지령에 따라 전시비상동원체계를 더욱 완비하며 《후방예비사단》들을 전투사단으로 개편하고 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새로운 부대들을 편성하는 등 괴뢰군병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극악한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막대한 외자를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외국독점자본에 예속시키고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있으며 남조선도처에서 군용비행장과 로케트기지, 군용항만과 전략도로를 비롯한 군사기지들과 군수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놈들은 군사비조달을 위한 조세수탈을 강화하고있으며 토지와 산림으로부터 식량과 건물에 이르기까지 온갖 재부를 제멋대로 략탈하여 군사적수요에 충당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충실히 떠받들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스스로 《제2의 리완용》으로 자처하면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손때묻은 주구 박정희역적은 자기 상전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기 위하여 남조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서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를 지워버리고 지어 《남골당》이라는것을 세워놓고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갖은

살인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지숭에 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뼈다구를 긁어모아 놓고 《위로》하는 추태까지 벌리고있다.

추악하기 그지없는 만고역적 박정희악당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다못해 남조선청장년들을 남부웰남의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아 개죽음을 시키고있으며 《이민》이라는 이름밑에 수많은 남조선동포들을 구라파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노예로 팔아먹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군사깡패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침략자들의 전쟁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파쑈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있다. 간악한 박정희역적놈은 남조선을 살기어린 폭압망으로 뒤덮어놓고 수많은 파쑈악법과 폭압력량을 동원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는 인민대중과 애국적민주주의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고있다.

만고역적 박정희도당은 제놈들의 이 극악무도한 반인민적범죄행위를 《남침의 위협》, 《반공》의 넋두리로 《합리화》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의 대립과 반목을 고취하며 새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는 제놈들의 범죄적책동을 가리기 위한 기만술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정책에 충실하는것이 제놈의 잔명을 부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있는 매국노 박정희역적은 날이 갈수록 상전이 시키는대로 전쟁소동과 파쑈폭압에 더욱더 미쳐날뛰고있다.

모든 사실은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에서 미일침략자들의 전쟁과 침략 책동을 제거할수 없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이룩할수 없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오직 불행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정세는 미일침략자들의 공모결탁에 의한 무모한 침략책동과 미일침략자들의 더러운 개 박정희악당의 전주에 용납못할 매국매족적범죄행위로 하여 전례없이 긴장되여있다.

만일 이 험악한 사태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둔다면 헤아릴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남조선은 미일침략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완전히 굴러떨어지게 될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지고 남조선인민들은 2중, 3중의 압박밑에서 보다큰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될것이다. 원쑤들이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조건에서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는 격화되고 전쟁의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렬의 영구화와 전쟁,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하는 미일침략자들과 그의 충실한 주구 박정희악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단호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남북의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단합하여 현난국을 타개하고 하루빨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구국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을 근심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가능성도 다 리용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을 청산하고 나라를 통일하는 전민족적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64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래 새로운 한세대가 자라나도록 민족분렬의 력사는 의연히 지속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벌써 25년이상이나 국토량단

파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청산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것은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조선사람들의 최대의 의무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우리 인민은 미일침략자들과 매국노 박정희도당의 범죄행위로 하여 남조선이 놈들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되여가며 남조선에서 애국적민주력량과 광범한 인민대중이 가혹한 탄압을 받고 무참히 학살되고있으며 조국의 통일이 더욱더 지연되여가는것을 결코 허용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받고있는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굳게 단합하여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를 끝장내며 미일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공동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분렬과 그로 인한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을 뿌리빼기 위하여서는 이밖에 다른 출로가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을 결정적으로 때려부셔야 한다.

60여년간 외래침략자들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여온 남조선인민들은 자체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및 그 주구 박정희도당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재난과 고통밖에 차례질것이 없으며 남북이 갈라져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다는것을 절실히 깨닫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열렬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이룩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휘황한 래일을 내다보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정견과 신앙의 차이나 나라의 남북반부에 관계없이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단합하여 전민족이 들고일어나 미일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개별적인사들, 모든 애국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은 반제,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구국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더우기 극악한 박정희괴뢰도당이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관권》과 《금권》을 리용하여 협잡과 폭력으로 괴뢰대통령 《선거》를 감행하고 제놈의 장기집권을 강요하는 조건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대중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 박정희괴뢰도당을 꺼꾸러뜨리고 놈들의 파쑈테로통치를 결정적으로 뒤집어엎어야 한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인민의 정권이 서거나 애국적인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미제의 교활한 식민지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파탄시킬수 있으며 새 전쟁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전제를 마련할수 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혁명하는 인민들이 자신의 결정적투쟁으로써만 쟁취할수 있다.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근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서 오직 조국의 광복과 륭성,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일이며 우리 인민의 가장 숭고한 민족적임무이다.

금번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을 재천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놓은 8개항목의 구국방안에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민족내부문제를 우리 인민자신의 주체적력량에 의해 해결할데 대한 방도가 밝혀져있으며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단번에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 방도와 일련의 중간걸음을 거쳐 점차 완전한 통일에로 접근할데 대한 방도가 다같이 명백하게 제시되여있다. 방안에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건설적제의와 함께 분렬로 인하여 인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주의적조치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또한 방안에서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였으며 이밖에 조국통일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누구의 의견이라도 받아들여 호상리해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할것이라는것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일관한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종식시킬데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나라의 현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정당한 구국대책으로 된다. 따라서 그것은 남북간의 사회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적리익을 존중히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다.

최고인민회의가 제기한 구국방안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관한 우리 당의 근본립장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에 의하여 해결될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입니다.…우리는 일관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군대가 물러간 조건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6페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에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이 관통되여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고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원래 하나의 민족인 우리 인민이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적통일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철두철미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할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이며 내정문제이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관한 우리 당의 립장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조국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는 가장 원칙적이고 정당한 립장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가 조선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유린하거나 모독하는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견결히 싸우고있는것이다.

실로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민족적리익의 가장 철저한 대변자이며 옹호자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밑에 장구한 기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강도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광복을 이룩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투쟁하여왔으며 오늘 나라의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기지를 마련하고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고있는 애국투사들이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인민의 지상락원을 건설해 놓았다. 공산주의사상은 이미 북반부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 위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였을뿐아니라 그 거대한 견인력으로 하여 남조선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사상을 접수하고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한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내맡기며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자주적평화통일기운을 무마하고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계여론을 오도할 목적으로 이른바 《승공통일》과 《평화통일구상》을 떠벌이지만 그것은 천추에 용서할수 없는 매국노의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매국역적 박정희도당과는 통일문제를 론의할 여지도 없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일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의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애국적인사들, 제정당, 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은 구국과 민족적통일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반미, 반일, 반박정희 투쟁에 나서야 할것이다.

당면하게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에서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혁명력량의 급속한 장성을 바랄수 없으며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도 보장될수 없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련결시키는것이 필요하다. 광범한 대중적투쟁을 줄기차게 벌릴 때 인민대중은 더욱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여 마침내 어떠한 난국도 타개할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준비될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미일반동과 박정희괴뢰도당이 타도되고 인민의 정권이 서거나 애국적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게 되면 남북의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통일을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남북의 교류와 나라의 평화통일기운이 전례없이 앙양된 가운데 미일침략자들의 침략 및 전쟁정책과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날로 드높아가고있으며 학원의 모리화와 군사화를 반대하

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대중적성격을 띠고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의 파쑈통치와 전쟁정책에 대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다시 터지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식민지나라들에서 진보적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민족적 억압과 멸시를 받고있기때문에 반제사상과 민주주의적 혁명성을 가지고있으며 그들은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미제와 그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며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용감히 떨쳐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적들의 단압과 박해에 굴하지 말고 투쟁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의 운명을 그들과 련결시키면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원쑤들의 음흉한 책동을 반드시 짓부시고야말것이며 조국을 기어코 통일하고야말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4페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쑈통치는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놈들은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갖은 만행을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미제가 조작해낸 군사파쑈독재 그 자체는 식민지통치위기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제놈들의 지배를 더는 유지할수 없게 되였을 때 매달리게 되는 최후의 폭력수단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억센 투지를 꺾을수 없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이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폭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선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쳐부실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처지에 놓여있던 민족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해결할수 있는 슬기롭고 존엄있는 민족이다.

우리 인민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부강하고 자주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움으로써 조국통일의 강력한 기지를 꾸려놓은 위대한 인민이다.

오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으며 모든 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성원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우리 조선인민자신의 단결과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그리하여 남북의 4천만 조선인민이 다같이 통일된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행복하게 살 그날은 조만간 오고야말것이다.

통일은 빠를수록 좋고 분렬은 오래갈수록 불행하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력사적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최고인민회의가 내놓은 구국방안을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이 이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나서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놈들의 학정하에서 용감히 싸우는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청년학생들, 민주인사들과 모든 애국적인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성원을 보내고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일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매국역적을 쓸어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와 그 불멸의 업적

정 동 철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과 신년사에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전례없는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정열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국광복회창건 서른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을 단합하여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실현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과 장기간에 걸친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조국광복회는 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와 국제공산주의운동 특히 반파쑈인민전선운동발전에서 거대한 업적을 남기였다.

혁명의 탁월한 영재이시며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와 그의 확대발전과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오늘 영광스러운 조국광복회창건 서른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돌이켜보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가 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그 창립선언 및 규약을 발표하시였다. 또한 조국광복회 기관지 《3. 1월간》을 발간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조선혁명을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그이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로부터 무르익혀오신 원대한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력사적인 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조국광복회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통일전선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전선에 관한 창조적사상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문제의 하나인 동맹자에 관한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밝혀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목적은 일본제국주의를 증오하는 모든 반일력량들을 집결하여 단결된 힘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과 정견이 다르고 사상적으로 동요할수 있는 계층이라 할지라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인입시켜 교양개조하는 방법으로써 혁명에서의 그들의 중도반단성을 극복하여나가며 혁명의 동맹자로서 이끌어나가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사상은 력사상 일찌기 볼수 없었던 가장 광범한 혁명력량을 로동계급의 주위에 단결시켜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창조적사상이다.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모든 력량을 통일전선에 결속함으로써 강도일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켜 혁명승리를 보장하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대중전취문제는 맑스-레닌주의당이 자기 주위에 주로 로동계급의 압도적다수를 결속시키며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서 농민을 쟁취할데 대한 문제에 국한되여왔다. 그러나 혁명의 새로운 정세하에서는 이러한 기성경험과 리론만으로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울수 없게 되었다.

일제의 민족적압박과 식민지적략탈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들은 물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광범한 대중이 일제를 타도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그리하여 혁명의 사회적지반은 로동자, 농민의 테두리를 벗어나 매우 광범한 계급과 계층들을 포괄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혁명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반영하시여 계급적기초와 정치적견해가 같지 않는 광범한 사회적력량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통일전선을 이룩할수 있다는 독창적사상을 제시하시고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심으로써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규약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중에서 반일독립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회의 취지와 그 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남녀, 로소, 직업, 종교, 지방, 빈부, 당파 등의 차별없이 본회에 자원참가하여 본회의 회원으로 될수 있다.》

조국광복회 회원자격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규정은 계급, 성별, 직업, 년령, 신앙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적력량을 혁명의 편에 최대한 묶어세우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는 또한 통일전선문제를 일시적인 전술적문제로만 내세우는 종래의 리론과는 달리 주권전취후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문제로 보시는 그이의 독창적인 통일전선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종래의 리론이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을 놓고볼 때 통일전선문제는 부르죠아정부를 반대하는 각종 민주주의적당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태도문제, 민족부르죠아지와의 림시적동맹에 관한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관하게 당면한 공동의 원쑤를 반대할 목적에서 발기되였던 만큼 어디까지나 전술적성격을 띠지 않을수 없었으며 아직 광범한 혁명력량을

결속시켜 혁명의 전략적목적을 달성하는 로선으로까지는 제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성리론과 경험으로는 로동계급이 광범한 각계각층의 군중을 자기의 정치사상적영향하에 두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켜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혁명의 종국적승리에까지 이끌고나가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간의 일시적인 련맹이나 동맹, 전술적인 행동통일을 목적한 조직체가 아니였다. 조국광복회는 그 강령과 선언에 명백히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단계의 과업수행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것을 투쟁목표로 내세운 혁명적정치조직이였다. 따라서 조국광복회는 맑스-레닌주의당의 최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전략적단계의 전기간은 물론 나아가서 다음의 혁명단계까지 발전시킬것을 예견한 통일전선조직이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에는 로동계급이 광범한 각계각층의 대중을 자기 주위에 단결시켜 그들을 혁명의 종국적승리에까지 이끌고나가시려는 수령님의 통일전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일관하게 관통하고있다.

조국광복회는 또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동시에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혁명적정치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는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으로부터 해방할데 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유일적인 지도기구였다.

조국광복회는 당시 우리 나라에 로동계급의 정당은 물론 그 어느 계급의 정당이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가진 반일단체도 없었던 조건에서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진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이였다. 동시에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당이 없었던 조건에서 통일전선운동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며 전국적규모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유일한 혁명조직이였다.

이러한 사정은 조국광복회로 하여금 통일전선운동뿐아니라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 항일무장투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를 보다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 및 규약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뚜렷한 투쟁목표밑에 독자적인 조직체계와 조직형식을 가지고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조직사상적기초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은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모든 힘을 반일투쟁에 총동원할것을 호소한 위대한 문헌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선언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략탈정책과 야수적폭압통치를 준렬하게 폭로규탄하시였으며 전민족은 계급, 성별, 직위, 년령, 종교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일치단결하여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식을 내여 2천 3백만 대중이 일심동체가 되여 반일광복전선에 총동원할것을 호소하시였다. 선언의 매 문장, 매 구절마다에는 왜적에게 짓밟히고

있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며 전민족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려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질전한 반일애국사상이 충만되여있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조선혁명의 천재적인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불후의 천재적문헌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서재나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풍찬로숙하시면서 조국광복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여 위대한 조선혁명의 강령을 완성하시였다.

매개 조항이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내용으로 일관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1930년대전반기의 풍부한 경험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을 종합체계화하고 집대성화한것으로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강령이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의 기본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리해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그것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강령으로서 이 혁명단계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의 최저강령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담고있다. 동시에 이 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업수행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당면하게는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는데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반일대중을 총동원할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대렬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하나의 투쟁목표밑에 결속시켜 그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 튼튼한 기초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작성하시여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조국의 해방과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인민들을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면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기본조직원칙으로 삼고 여기에 통일전선운동의 요구를 밀접히 결합시켜 작성하신 조국광복회규약을 발표하시였다. 이것은 통일전선규약의 새로운 창시를 의미하는것으로서 통일전선리론을 보다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규약은 조국광복회의 조직과 활동에서 확고한 기초로 되였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공동강령의 기치밑에 유일한 원칙과 규범에 의하여 통일단결시키고 그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총동원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조직을 확대강화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규모에서 힘차게 벌릴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가장 정확히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선 조직의 명칭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사회주의계몽운동이 발전한 지역들과 민족주의운동이 발전한 지역들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곳에서는 조국광복회, 어떤 곳에서는 민족해방동맹, 또는 반일동맹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조직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조직을 급속히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하부조직들의 조직 형식과 명칭들을 지방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가르치심은 당시 우리 나라 사회계급관계와 혁명발전의 구체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반일의 기치하에 최대한으로 묶어세울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도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며 통일전선의 확고부동한 사회정치적기초로 되는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단결할수 있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을 조직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뿐만아니라 적들이 공인하는 합법적조직들과 단체들은 물론 더 나아가서 적들이 만들어놓은 반동단체들까지도 적극 리용하여 그속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며 하층군중들을 반일통일전선에 망라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침과 방도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후 그를 전국적판도에서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쟁을 전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이 하고있는 항일빨찌산투쟁과 함께 국내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핵심이 되여서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자그마한 반일요소일지라도 그를 규합해서 대중투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조직한 조국광복회를 국내에 뿌리박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남에도, 원산에도, 서울과 부산, 전조선에 그 조직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와 동강회의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진출시키시여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를 북돋아주시는 한편 백두산근거지에 의거하시여 조국광복회조직망을 전국적규모에서 급속히 확대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교양육성하신 우수한 정치공작원들을 전국각지에 파견하시는 한편 국내에서 활동하는 혁명가들을 자주 밀영에 부르시여 그들로부터 사업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으며 조국광복회조직망을 널리 확대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밑에 조국광복회조직망은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백두산혁명근거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혈맥처럼 조국의 방방곡곡에 급속히 뻗어갔다.

조국광복회조직은 여러가지 명칭을 띠고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와 남만, 동만, 북만 등 만주의 광활한 지역 그 어디나 할것없이 조선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그 하부조직이 결성되여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조국광복회는 창건후 불과 수개월동안에 벌써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그 산하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시민, 중소상공업자,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 애국적인 종교인 등 수십여만의 반일군중이 결속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회조직이 급속히 확대강화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성과적으로 조직전개됨으로써 조선인민의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이 꾸려지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은 일대 앙양을 가져왔다.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의 빛나는 실현과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오직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

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와 그 확대발전과정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혁명의 군중적지반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모든 반제력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국광복회는 통일전선운동과 무장투쟁 그리고 당창건준비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조국해방의 위업을 앞당길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우선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도적세력인 항일유격대를 더욱 강화하고 무장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조국광복회를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마련되고 무장투쟁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원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항일유격대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들은 항일유격대에 입대할것을 탄원한 수많은 애국청년들을 조직생활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더욱 단련시켜 파견하였으며 적들의 삼엄한 감시와 경계 속에서도 항일유격대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조국광복회 조직들과 회원들은 일제의 군사기밀과 적정을 탐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였으며 일제의 주구들을 청산하고 애국자들을 구원하는 등 항일유격대의 군사정치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능숙하게 조직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는 조국광복회 조직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자기 대오를 더욱 급속히 확대하고 그 전투력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는 또한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보다 전면적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할수 있게 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당이 없었던 조건하에서 혁명적인 강령과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있던 조국광복회는 조선공산당창건준비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국광복회를 거점으로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사업이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됨으로써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을 육성단련할수 있게 되였으며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앞으로 창건될 당강령의 기초로 되였으며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그 확대발전과정은 조선공산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위한 투쟁을 더욱 전면적으로 추진시키고 그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

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그를 확대발전시키심으로써 또한 전국적규모에서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된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이 꾸며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 련속적인 승리를 거두고 조국광복회조직망이 전국에 확대되여감에 따라 전체 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민족의 구성이시며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더욱더 깊어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련속적인 승리에 고무되고 조국광복회조직들을 통하여 그이의 직접적인 령도를 받게 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경모하게 되였으며 그이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조선혁명에서 처음으로 주체적력량이 전국적범위에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끝없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광복전선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해방투쟁의 승리를 더욱 앞당기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그 조직망을 확대강화시켜나가시는 과정에서 풍부하고도 고귀한 경험을 쌓아올리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반일통일전선운동의 경험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만 통일전선을 확고한 지반우에서 형성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옳은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전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울 때만이 주되는 적을 고립약화시키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경험은 또한 이 운동이 정확한 전술적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될 때 광범한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울수 있으며 통일전선운동을 전진하게 강화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주의자들의 무장조직들과 중간세력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상층과 하층을 엄격히 구분하시고 하층통일에 기본을 두시고 상층통일을 이에 밀접히 결합시키시였다. 또한 광범한 중간세력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들의 2중성을 통찰하시고 반일적측면은 조장발전시키고 동요성을 철저히 극복하면서 단결을 목적으로 단결과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의 능숙한 결합 및 통일전선대상에 따르는 군중공작방법 등의 풍부한 경험이 창조되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그를 확대발전시켜나가시는 행정을 통하여 통일전선운동에서 제기되는 허다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였으며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으심으로써 통일전선운동의 새로운 길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의

의를 가지게 될것이며 나아가서는 국제반파쑈인민전선운동의 일환으로서 크게 복무할것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심으로써 통일전선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이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우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며 남반부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반미구국통일전선의 기치밑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군중을 하나의 통일된 정치적력량으로 조직결속시킴에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는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진행된 세계최초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불길속에서 탄생한 영광스러운 통일전선조직으로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조국광복회는 국제반파쑈인민전선운동의 확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세계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었다. 이것은 현시기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위대한 본보기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통일전선운동의 확대발전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통일전선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탁월한 기여로 된다.

이렇듯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키시여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남기시였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와 그를 확대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 그리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담겨진 불멸의 혁명사상은 해방후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미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제시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짧은 기간내에 빛나게 실현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위력한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미제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철옹성같이 다지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숭고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남반부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강력히 형성하며 혁명을 힘있게 촉진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마련된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는 3대기술혁명수행의 힘있는 추동력

박 세 혁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또다시 희천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희천지구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곳 로동계급이 천리마진군의 앞장에 서도록 새 기술 혁신의 위대한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지교시에 끝없이 고무된 희천기계전사들은 그이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위대한 봉화를 높이 들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올해 공작기계생산계획을 8월 15일까지 앞당겨수행하며 명년 4월 15일까지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여 6개년계획말 생산수준을 1.3배로 돌파할것을 결의하였으며 이미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희천로동계급의 영웅적발기와 호소에 호응하여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과 모든 근로자들은 금년도 계획을 기한을 훨씬 앞당겨끝내며 6개년계획의 2년분 과제를 명년 4월 15일전으로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는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빨리 앞으로 달려나아가려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념원,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료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 있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희천의 붉은 기계전사들이 높이 추켜든 새 기술 혁신의 이 봉화는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전반적으로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는 기본열쇠로, 3대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희천땅에서 몸소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는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인민경제의 전반적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힘있게 벌리고 기술혁명을 한단계 더 높이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혁신운동이다. 이것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끊임없이 앙양되고있는 천리마대고조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의 대중적혁신운동이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가 3대기술혁명수행을 추진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현시기 우리 나라 기술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를 튼튼히 쌓은데 기초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에서 이미 이룩된 커다란 성과에 기초하시여 한단계 더 높은 기술혁명과업인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으시였다. 3대기술혁명과업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현대적인 최신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고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근로자들을 해방하기 위한 숭고하고 보람찬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7페지)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현하는것은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현하여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먼저 기계공업, 그중에서도 특히 공작기계공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기술혁명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문제가 중요하게는 기계공업의 발전에 달려있으며 도처에서 요구되는것이 기계설비이다.

새 기술 혁신의 봉화는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발전의 기초인 기계제작공업을 자동화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워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는데 요구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방대한 수요를 빨리 충족시킴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기술혁명의 실현을 전면적으로 힘있게 촉진하게 된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회천의 영웅적로동계급이 결의다지고 나온바와 같이 사실상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공작기계 1만대를 생산하여 6개년계획말 생산수준을 1.3배로 뛰여넘는다는것은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의 커다란 비약이며 기계공업의 력사가 아직 그 류례를 모르는 위대한 기적이다. 그뿐아니라 회천의 로동계급이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올린데 뒤이어 우리 나라의 모든 중요공작기계생산부문들에서 이에 적극 호응해나섬으로써 공작기계생산에서는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그리하여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수행의 앞길에는 새로운 보다 확고한 전망이 열려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가 3대기술혁명을 추진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며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아가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는데 있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이미 오래전에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였으며 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개건사업을 전면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그들의 어렵고 힘든 로동을 많이 덜어주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있으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 사이에도 차이가 많으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아직 가정적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로동을 헐하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로동으로 만들며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로 접근시키며 녀성들의 부엌과 가정일을 간편하게 하여

모두가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것은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절실한 념원으로, 일치한 지향으로 되고있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는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것을 짓부시고 우리 인민의 이 절실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의 과업을 가장 빨리 앞당겨수행할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지금 탄광, 광산, 철도운수, 화학공업, 경공업, 수산, 농촌경리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자기 부문의 특성에 맞게 기계화,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새 기술 혁신의 봉화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촉진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6개년계획수행의 첫전투에서 새로운 더욱 높은 속도를 창조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신것은 새 기술 혁신의 봉화가 일어날수 있은 결정적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을 통하여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혁명수행에서도 계급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사회를 개조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기술혁명도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과정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도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사상혁명,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않고서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다는것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계급투쟁을 계속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계급투쟁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나타낼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안일과 해이에 사로잡혀 경제건설과 기술혁명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자연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로동계급의 모든 혁명투쟁은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힘찬 투쟁을 벌리도록 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납니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도대체 있을수 없습니다. 혁명의 새로운 전진은 오직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8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은 곧 온갖 낡은것을 때려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다.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 적극과 소극과의 투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 총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 이것이 우리가 하는 혁명투쟁의 내용이다. 기술혁명을 포함한 모든 혁신운동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썩은것을 쓸어버리는 투쟁을 통해서만 발전할수 있는것이다.

현실은 어떠한 혁명운동에서나 동요분자, 소극분자, 보수분자들이 생긴다는것을 보여준다. 어떤 일이든지 새로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적극분자가 있는 반면에 소극분자가 있는것이고 선진분

자가 있는반면에 보수분자가 있는것이다. 그리므로 혁명의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쟁을 벌려 온갖 낡은것을 짓부셔야 한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할수 있은것도, 나라의 안팎의 정세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던 5개년계획기간에 천리마운동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일으킬수 있은것도 그리고 경제와 국방을 다같이 틀어쥐고 7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야 했던 그 어려운 나날에 천리마대진군을 계속할수 있은것도 역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한 결과이다.

희천의 로동계급속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가 일어날수 있은 결정적요인도 바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며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데 있다.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무엇보다먼저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 새로운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낡은 사상과의 치렬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 그리고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일으켜왔다.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는 사업, 많은 로력과 설비를 다른데 돌리고도 생산성을 20배로 높이게 한 앞치마가공자동흐름선의 제작, 종전에는 거의 12시간이 걸려서야 하나씩 생산하던 베트를 30명의 로력과 17대의 기대를 다른 부문에 돌리고도 40~45분에 하나씩 생산하여 무려 15배이상의 능률을 내는 베트가공자동흐름선의 제작, 생산성을 10배로 높인 대형물의 금형주조법의 완성, 년간 1만 2천톤의 모래와 6만공수의 로력과 4천 8백톤의 석탄을 절약하고 주물소재전조작업을 12시간으로부터 30분으로 줄인것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모든 혁신의 창조과정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것을 대담하게 짓부시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새 기술을 창조해나가는 심각한 투쟁과정이였다.

희천의 붉은 기계전사들은 이 투쟁과정을 통하여 수령님께 맹세다진 공작기계 1만대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확고히 마련하고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3대기술혁명수행의 넓은 길을 열어준 새 기술혁신의 봉화는 오직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예견성있는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일어날수 있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앞날의 사회주의적공업화와 기술혁명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시면서 이미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희천땅을 찾으시여 우리 나라 기계공업기지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기계전사들이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후에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하시기 위하여 친히 10여차례나 희천지구를 찾으시였으며 희천의 붉은 기계전사들을 오늘의 이 위대한 혁신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희천지구를 찾으시고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자동기계를 만들며 자동선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자동선이 첫 시작에 불과하지만 장차로는 모든 생산공정들이 이런 자동선으로 넘어가야 할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면 우리는 7개년계획이 끝난 다음에는 전면적자동화

구호를 들수 있을것입니다. 희천공작기계공장이 자동화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 나라 기술혁명발전의 앞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희천의 로동계급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이 자동화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도 기술도 다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발전시키는것입니다. 대담하게 연구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신비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4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희천의 로동계급을 찾으실 때마다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짓부시고 대담하게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자동화를 위한 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고무하여주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하시고 먼저 6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첫해전투를 힘차게 벌리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데 뒤이어 또다시 희천지구를 찾으시고 공작기계공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3대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주는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희천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는 지난 5개년계획수행시기 강선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공산주의적인 대중적대진군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신것처럼, 7개년계획수행시기 함흥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신것처럼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3대기술혁명을 다그쳐 나가는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실로 희천의 로동계급이 추켜든 새 기술 혁신의 봉화의 발생과 그 발전 과정은 언제나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시여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기게 하시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주시고 희천의 로동계급이 추켜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달려나가는것은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희천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면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자면 정치사업을 앞세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힘있게 벌리고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사업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광범한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에만 사회주의건설에서 진실로 대중적인 로력적앙양이 일어날수 있으며 진실로 대중적인 영웅주의가 나타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97페지)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이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불타게 하는것은 위대한 혁신과 기적을 낳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특히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의 매 문장, 매 구절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과 리론들을 철저히 침투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오직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수행에 몸바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집단적혁신운동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강조하는것은 혁신운동을 한사람이나 몇사람에게만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자는것입니다. 한사람뿐만아니라 많은 사람이 영웅이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39페지)

기술혁명을 빨리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도록 하며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기술혁신운동에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 이것은 기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새 기술혁신의 거세찬 진군을 막아나서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경험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을 대담하게 짓부시고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열렬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기술신비주의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없애고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자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로동에서 새로운 산 경험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면 일은 더 헐하게 하고 생산을 더 내겠는가에 대하여 밤낮으로 머리를 쓰게 되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기술을 혁신할데 대한 훌륭한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기술자들은 로동자들의 창조적발기를 적극 지지하고 그것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방조를 주어야 한다.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것도 역시 신비주의와 마찬가지로 기술발전을 가로막는다. 기술혁명이란 곧 현대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고 보급하는 행정이다. 기계자체가 과학이 발전한 결과에 나왔으며 과학을 떠나서는 기술혁명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근로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모두가 기술발전에 머리를 쓰며 이르는곳마다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기술발전의 기초인 기계공업부문에서 희천공작기계공장로동자들의 혁신적모범을 따라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하고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여 여러가지 공작기계를 비롯한 기계설비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계화,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에 필요한 현대적기술수단들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혼자서 할수 없다. 회천의 로동계급이 추켜든 새 기술혁신의 봉화가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 타번지게 하기 위해서는 철강재생산과 전기기계생산, 연료동력 부문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서로 돕고 힘을 합쳐 협동생산을 강화하며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생산지도에서 조직사업에 대하여 많이 말하지만 자재를 원만히 대주는것보다 더 중요한 조직사업은 없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페지)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안받침하는것은 대중적혁신운동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원료, 자재만 잘 대주면 생산을 얼마든지 더 높일수 있다.

생산과 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우로부터 생산현장까지 제때에 날라다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여 자재공급에 대한 세부계획화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소재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힘을 집중하여 소재를 충분히 앞세워 보장함으로써 모든 기대에 만부하를 걸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재공급사업과 함께 대중에 의하여 탐구된 새로운 발기와 생산적예비들을 남김없이 동원하며 그것이 제때에 생산실천에서 거대한 물질적성과로 나타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또한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더욱 규범화, 정규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수천수만의 근로자들과 기계설비들이 참가하는 현대적인 대규모협동생산에서 사람과의 사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계획화, 생산조직, 설비관리, 로동행정 등 경영활동의 모든 측면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규범화, 정규화하여 일치한 동작을 보장하여야 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달려나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작풍을 더욱 개선하며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천지구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후방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없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명심하고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며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부식물을 더 많이 공급하며 주택과 학교, 유치원과 탁아소, 각종 편의시설물을 더 잘 마련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몸소 회천땅에서 지펴올리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촉진하며 올해 계획을 금년 9.9절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명년 4월 15일전으로 기어이 완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

심 재 성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시면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천명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방법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26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장엄한 전진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침으로써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여 부닥치는 난관을 성과있게 극복하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할수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촉진하여야 할것이다.

* *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의 기본목적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가는 과도기에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소극분자를 적극분자로 만들고 뒤떨어진 사람이 한사람도 없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데 있습니다.》(《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443~444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적극분자로 만들며 그들이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하는 참다운 공산주의교양운동이다.

우리 당은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나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오직 광범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동할 때에만 가장 성과적으로 건설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바쳐 일하게 한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제1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발동시키는데서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의 결정적고리를 찾고있다.

이리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상과 도덕 분야에서는 물론 경제문화건설에서도 온갖 낡은것을 깃부시고 공산주의적인것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훌륭히 개조한다.

이 모든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훌륭히 실현하는 대중적운동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으로서의 커다란 힘을 가지는것은 우선 이 운동이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공산주의교양운동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의 로동계급이 창조한 근로대중의 훌륭한 공산주의학교입니다.》

(우와 같은 책, 143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대중적운동으로서 그것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의 요구를 훌륭히 관철하고있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은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꾸준히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자기의 부족점을 진실로 깨닫고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을 접수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설하고 설복하여야 한다.

천리마운동참가자들과 천리마기수들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작업반의 특성과 매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일반교양과 개별교양을 옳게 결합시키고있으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끌고나가고있다.

특히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사업의 내용을 이루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현실적조건과 구체적대상의 특성에 맞게 훌륭히 진행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이 가장 훌륭히 진행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긍정적모범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에서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가장 힘있는 방법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긍정감화교양에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실천적모범으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달라붙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적극분자, 선진분자로 훌륭히 개조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도 여기에 사상투쟁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있다.

사람들의 의식속에 깊이 박힌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는 사업은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사상교양과 함께 강한 사상투쟁을 요구한다. 바로 사람들의 낡은 사상은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 옳게 결합될 때 성과적으로 개조된다. 생산과 집단생활의 기층단위인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개별적대상의 실정에 맞게

사상투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리기주의, 개인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빨리 극복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작업반의 모든 성원들을 정치적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이 운동 참가자들이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며 비판, 투쟁, 개조의 방법으로 더욱 빨리 훌륭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자라날수 있게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으로서의 커다란 힘을 나타내게 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킨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특히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그 빛나는 열매를 보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14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훌륭한 형태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여 혁명가로 자라난다. 특히 집단로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낡은 사상 잔재의 해독성을 더욱 똑똑히 깨닫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되며 공동의 번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적극 일하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게 된다. 바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집단적로동과정에서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훌륭한 공산주의학교로 되고있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으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위력은 또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군중적운동으로 진행하고있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생산에서의 집단적인 혁신운동일뿐아니라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가장 대중적형태라는것은 이미 생활에서 뚜렷이 증명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144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열쇠는 대중을 발동하여 그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것이다. 모든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는 심각한 사상혁명과정으로서 그것은 오직 광범한 대중이 이 사업에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의식개조사업의 이러한 요구를 훌륭히 실현하는 대중적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며 공산주의도덕을 배양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투쟁하고있으며 집단의 교양과 도움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훌륭히 자라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인간개조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으며 이 운동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확대됨에 따라 인간개조사업은 군중적운동으로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으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위력은 이 운동의 발전행정에서 충분히 확증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지혜와 열성과 창조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촉진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9페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으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먼저 이 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공고화한데서 나타났다.

천리마작업반운동발전과정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이 더욱 활발히, 더욱 실속있게 진행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는 사업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속에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모든 문제를 수령님의 교시로 재여보고 그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현상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명령지시라면 그 어떤 사나운 풍파라도 뚫고 끝까지 관철하며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수령님의 참된 친위대, 결사대로 자라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과 함께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려는 투쟁각오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되였다. 그들속에서는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과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높이 발양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혁명적본질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똑똑히 깨닫고 수령님의 령도밑에 이루어진 이 위대한 혁명의 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되였다.

천리마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은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본성에 맞게 살며 일하려는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게 되였다.

이와 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치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화되였으며 각계 각층의 모든 군중이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우리의 혁명대오를 불패의것으로 강화하였을뿐아니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

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
(《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122페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점차 없애면 없앨수록 그들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바쳐 일하게 된다.

사람들이 혁명화되였는가, 못되였는가 하는것은 바로 그들의 실천투쟁, 혁명과업수행에서 나타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혁명화과정이 촉진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 혁명적대고조가 확고히 견지되였다.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면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락후한 것을 쓸어버리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함으로써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인민은 천리마의 힘찬 진군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전진시킴으로써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 생산장성속도를 계속 높일수 없다는 수정주의적궤변에 강한 타격을 주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리론의 정당성을 산 현실로써 증명하였으며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이와 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데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동하였으며 또 추동하고있다.

참으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화의 위력한 무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창조하시고 이 운동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과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앞당겨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6개년계획은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한 후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를 밝혀주는 위대한 경제건설강령으로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칠것을 요구하고있다.

6개년계획기간에 우리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 중대한 과업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다그쳐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일 때만이 성과있게 해결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은 생산력발전의 결정적담보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불러일으킬 때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성과있게 극복되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언제나 집단적혁신이 일어난다.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며 사상교양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치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사람과의 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힘을 넣어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오늘 천리마기수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450페지)

원래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우리 인민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현시켜 조국땅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내외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옹호관철하는 행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더욱 심화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운동참가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기본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을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때만이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반동사상의 독소를 막아낼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다.

또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야만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없는것은 찾아내고 있는것은 더 효과적으로 쓰면서 어떤 곤난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다.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철저한 옹호관철자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보위하는 참된 친위대, 결사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에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특성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집단주의정신으로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기풍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천리마기수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것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사업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단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또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천리마기수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살자》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사회주의적 질서와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데 앞장서도록 하며 천리마기수들속에서 창조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본보기를 적극 일반화함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천리마기수들로 하여금 자신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하며,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분조와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리를 혁명화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해야 한다.

오늘 천리마작업반운동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의 일부 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담하게 나가기를 두려워하는것은 소극성과 보수주의가 작용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귀신들과의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462페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와의 투쟁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3대기술혁명과업은 새로운 기술분야를 개척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다.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새롭고 복잡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그 관철을 방해하는 소극분자, 보수주의자들이 나온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경험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기술혁명에서도 계급투쟁을 해야 하며 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반드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귀신들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 계급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이 투쟁의 불길속에서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3대기술혁명을 더욱 추동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으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조직의 지도하에 근로단체들의 역할, 특히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당으로부터 위임받고있는 직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각급 직맹조직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세가지 중심과업을 전반적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특히 사람과의 사업에 모를 박고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각급 직맹조직들은 천리마기수들을 수령님의 붉은 전사로 만들며 그들 매개인이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로, 인간개조의 붉은 교양자로 되게 함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행동하는 붉은 대가정으로, 불패의 혁명대오로 전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직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건설행정에서 창조되는 근로자들의 새로운 발기, 새로운 싹을 적극 지지하고 보급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직맹조직들은 수령님께서 희천의 로동계급속에 지펴올리신 새 기술 혁신의 불화를 높이 추켜들고 모든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이 도처에서 낡은 기준, 낡은 공칭능력을 마스고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달려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여주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을 반대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구 일 선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인민들의 흉악한 공동의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전쟁확대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도지나에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미 수년간 남부윁남에서 야만적인 살륙전쟁을 벌려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마수를 캄보쟈와 타오스에까지 뻗침으로써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 전역에로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인도지나에서 미제침략자들과 인도지나인민들간의 투쟁은 날로 치렬해지고있다. 이 투쟁속에서 인도지나인민들은 계속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돌이킬수 없는 참패를 거듭하면서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는 남부윁남에 대한 제놈들의 군사적강점을 영구화하고 이 지역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음흉한 침략적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놈들은 이른바 전쟁의 《윁남화》라는 간판밑에 남부윁남애국력량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초토화작전》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의 다른 지역에로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해서 미쳐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얼마전 수만명의 미제침략군과 남부윁남괴뢰군 및 타이고용병들을 투입하여 라오스우파군대와 함께 남부라오스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침공을 새로이 감행하였으며 윁남비무장지대부근에서 전쟁을 확대하여나섰다.

미제는 타오스에 대한 대규모적인 침공으로써 파국에 처한 남부윁남침략전쟁과 나아가서는 인도지나전역에서의 전쟁국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윁남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이른바 전쟁의 《윁남화》계획과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악랄한 《닉슨주의》의 《효과성》을 《실증》하며 《시험》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미제가 타오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면서 앞으로 남부타오스전선이 놈들의 《윁남화》계획과 《사이공정권의 운명》을 건 《닉슨주의의 시험장》으로 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인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이와 같은 흉악한 야망밑에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은 얼마전에도 이른바 《대외정책보고》에서와 그리고 빈번히 벌려놓은 기자회견에서 북부윁남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할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인도지나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계속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남부윁남과 타오스에서의 전쟁확대책동과 때를 같이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윁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모험을 계속 강화하고있으며 캄보쟈에 대한 무력간섭을 더욱 악랄화하고있다. 놈들은 17도선 바로 남쪽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하고 바크보만에 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해적선들을 끌어들여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윁남민주공화국령토에 대한 지상과 공중으로부터의 포격과 폭격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엄중한 계단식 전쟁확대행위이며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과 1962년 제네바협정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미제의 새로운 침략전쟁확대책동으로 말미암아 인도지나에서 미제의 침략전쟁은 극히 위험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전쟁확대책동으로써 날로 높아가고있는 인도지나인민들의 반미투쟁을 압살하고 이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파탄되여가고있는 제놈들의 침략정책의 위기를 수습하며 인도지나와 아세아에 대한 강도적침략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오늘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격화되는 전쟁확대책동은 이 지역에 대한 놈들의 계획적인 침략책동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인도지나에 대한 침략야망에 혈안이 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벌써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제놈들의 지배밑에 넣으려고 온갖 악랄한 침략책동을 다 감행하여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과 아세아의 다른 지역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부웰남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야수적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왔으며 라오스에서 우파반동들을 사촉하여 라오스애국력량을 반대하는 범죄적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놈들은 지난해에는 캄보쟈에서 반동적군사정변을 조작하고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무력간섭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실로 인도지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침략과 전쟁 정책은 야수적이며 파렴치한것이다. 그러나 놈들의 횡포한 침략책동은 제놈들의 강도적침략본성을 온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을뿐 결코 인도지나인민들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인도지나인민들의 반미투쟁의 거세찬 불길에 의하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걸음마다 파탄되였고 놈들은 군사,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였으며 더욱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고 그 처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더 필사적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더욱더 발악하는것이다.

오늘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전쟁확대책동은 이것을 잘 말해준다. 인도지나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심대한 패배를 거듭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림으로써 인도지나에서의 저들의 위기를 수습하고 이미 철성판에 오른 제놈들의 운명을 구원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하게도 그 무슨 인도지나의 《평화》요, 《독립》과 《자주권》이요, 《미군철수》요 하면서 제놈들의 침략정책에서 그 무슨 변화라도 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실시하고있는 침략정책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또 달라질수도 없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침략성과 교활성이 더 강화되고있는것뿐이다.

승냥이의 야수적본성이 변할수 없는것

처럼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결코 변할수 없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지역에서 떠들어대고있는 《평화》에 대한 소동은 백일하에 드러난 제놈들의 강도적 침략정체를 가리우며 저들의 새 전쟁확대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적인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할 때마다 《평화》의 나발을 더욱 요란스럽게 불어대는것은 미제의 침략정책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조선에서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으며 오늘도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다.

전쟁미치광이 닉슨을 우두머리로 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인도지나지역에 끌어들여 침략전쟁을 강화하는 한편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남부윁남, 타오스, 캄보쟈의 괴뢰들을 적극 부추겨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침략책동에 적극 내몲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목적을 노리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야말로 오늘 인도지나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있는 장본인이며 인도지나인민의 민족적독립의 가장 흉악한 교살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며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확대 책동으로 말미암아 인도지나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인도지나와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로 하여금 더욱 굳게 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타격을 가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은 오늘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습니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윁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0폐지)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이 지역에서의 반제반미혁명력량을 더욱 위력한것으로 되게 하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불패의 힘을 낳게 한다.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에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할 때 인도지나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의 새 전쟁 확대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을 힘있게 파탄시킬수 있다.

일제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워 승리한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투쟁과 프랑스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싸워이긴 인도지나인민들의 반제투쟁의 력사적경험은 반제공동전선에 굳게 단합된 혁명적인민들의 위대한 력량앞에서는 그 어떠한 흉악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패배를 면치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윁남을 비롯한 타오스, 캄보쟈 인민들은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인 미제와 직접 맞서 피를 흘리며 용감하게 싸우고있다.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비단 인도지나인민들에 대한 침략으로 될뿐아니라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한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며 횡포한 도전으로 된다.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을 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이 지역에서의 민족적독립과

안전을 수호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의 전반적 평화와 안전도 성과적으로 지켜낼수 없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은 자기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정의의 투쟁인 동시에 아세아와 세계 평화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미제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세계혁명위업의 승리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혁명투쟁이다.

인도지나인민들이 이 지역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성과적으로 저지파탄시키게 될 때 미제의 종국적멸망과정은 더욱 촉진될것이며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에게는 더욱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것이다.

그러므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된다.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일치한 행동으로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때 인도지나인민들은 더욱 유리한 정세하에서 투쟁하게 될것이며 그들의 반미투쟁의 승리는 더욱 촉진될것이다.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미투쟁을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은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선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그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꾸준한 노력을 다 기울이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캄보쟈인민과 웰남인민,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인도지나인민들에 대한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있으며 그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은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으며 놈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 책동을 반대하여 긴장된 투쟁을 벌리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도지나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도지나인민들간의 전투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것은 오늘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확고한 뉴대로 련결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기 위하여 언제나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고있는 우리 인민은 지금 인도지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야수적인 전쟁확대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준렬히 항의규탄하고있으며 싸우는 인도지나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그들의 투쟁을 끝까지 지원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미제는 그 어떤 침략책동으로써도 우리 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지지성원속에서 싸우고있는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이 지역에서의 제놈들의 흉악한 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없다.

오늘 인도지나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의 각을 뜨는 반미구국투쟁에 더욱 용감히 떨쳐나서 미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놈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전면적으로 파탄시키고있으며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더욱 촉진시키고있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미 미제의 악명높은 《특수전쟁》과 《국부전쟁》을 파탄시킨 남부웰남인민은 《결전결승》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 반미구국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 미제침략

자들의 이른바 전쟁의 《웰남화》계획을 산산이 짓부셔버리면서 놈들을 계속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깊이 몰아넣고있다. 남부웰남인민과 인민해방무장력의 련속적인 타격에 의하여 지금 미제침략군은 파멸적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부 지역에 처박혀 모대기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락되고있으며 그 대렬은 날로 붕괴되여가고 있다.

영웅적북부웰남인민은 웰남인민의 위대한 수령 호지명동지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웰남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 및 건설하며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 한사람같이 일떠서 하늘과 땅과 바다로부터 감행되는 미제침략자들의 파괴전쟁을 걸음마다 파탄시키고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침략책동은 웰남인민의 투지를 더욱 굳게 하여주고있으며 웰남에서의 놈들의 군사,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을뿐이다.

지금 미제국주의전쟁두목들까지도 《웰남전쟁은 출로없는 전쟁》이라고 개탄하면서 웰남에서의 제놈들의 암담한 전망에 대하여 비관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영웅적웰남인민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진퇴량난의 궁지에 빠지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라오스와 캄보쟈 인민들의 거듭되는 타격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도지나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나라의 평화와 독립, 중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라오스인민은 특히 최근 미제침략자들이 라오스에서 감행하고있는 전쟁확대책동에 돌이킬수 없는 참패를 안기줌으로써 놈들을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있다.

라오스인민과 애국적무장력은 미제가 남부라오스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한 때로부터 한달 남짓한 기간에만 하여도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적군 1만 5천 400여명을 살상하고 496대의 적비행기를 쏘아떨구었으며 기타 수많은 전투기재들과 군수품들을 빼앗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이 침략의 발을 들이밀었던 남부라오스지역은 문자 그대로 놈들의 죽음터로 되였다. 미제어용출판물들까지 라오스에서 제놈들이 당한 참패에 대하여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인도지나에서 종말을 고한 《덴벤푸의 참패》를 련상시킨다고 비명을 올리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캄보쟈인민의 투쟁도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이 투쟁속에서 캄보쟈인민과 캄보쟈민족해방군은 날로 장성강화되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더욱더 고립되고 붕괴되고있다. 캄보쟈에서 해방지역은 날로 확대공고화되고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영향력은 인민대중속에서 날로 증대되고있다.

이와 같이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선 인도지나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정책은 인도지나의 모든 전선에서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으며 놈들은 지금 수습할수 없는 혼란과 심각한 군사정치적 위기를 겪고있다.

이 모든것은 인도지나인민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강해지고있으며 반대로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리면 달릴수록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그 무엇으로써도 이미 기울어진 운명을 구원할수 없으며 날로 앙양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거세찬 반미투쟁의 불길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싸워 승리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는 인도지나인민들은 오늘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더욱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그들간의 전투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은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공동선언의 전투적기치를 높이 받들고 힘을 합쳐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여 반미구국투쟁을 끝까지 벌릴데 대한 굳은 결의를 다지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에서 계속 침략과 전쟁을 확대하는 무모한 길로 나아간다면 놈들은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 떨쳐나선 인도지나인민들과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위대한 력량앞에서 더욱 큰 참패를 당하고야말것이다.

조선과 중국, 인도지나 인민을 비롯한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련속적인 타격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고 만신창이 되였으며 사면초가에 빠지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고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말살하고 뒤흔들리고있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지난 조선전쟁의 력사적인 경험과 오늘 인도지나인민들의 반미투쟁의 현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더욱 큰 참패를 당하게 되며 놈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게 된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지역에 눌러앉아있을 아무런 리유도 없다.

웰남문제는 반드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내놓은 10개항목의 전반적해결책과 8개항목의 보충적제안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라오스문제는 라오스애국전선의 5개 항목의 정치적해결책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캄보쟈문제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1970년 3월 23일에 발표한 5개항목선언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만약 미제침략자들이 인도지나인민들과 아세아인민들 그리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거듭되는 경고와 강력한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인도지나에서 모험적인 전쟁확대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놈들은 더욱더 큰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는 모든 강도적인 침략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이 지역에서 제놈들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군과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제 5 호 (루계 350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1년 5월 1일 발행 • 1971년 5월 5일

ㄱ—14196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6 호(351)

차 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스물다섯돐을 맞는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축 하 문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

오늘 조선소년단은 우리 당과 인민의 깊은 사랑속에서 자기의 창립 스물다섯돐을 기념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인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소년단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무어진 소년들의 혁명적인 공산주의적대중단체입니다. 조선소년단은 창립된지 스물다섯해밖에 되지 않지만 깊은 력사적뿌리와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첫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이 조직된 1926년부터 헤여도 조선공산주의소년운동은 45년이라는 자랑스러운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의 소년들은 거의 반세기동안 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나어린 혁명전사로서 대를 이어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소년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피어린 싸움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불사조로 자라났으며 우리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용한 투쟁으로써 나어린 혁명전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바로 그들이 자라서 우리 당을 세우고 공화국을 세우는데 기둥으로 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소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날소년동맹과 아동단의 붉은 기발은 해방후 조선소년단의 기발로 이어졌습

니다.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았으며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교양된 우리 소년들은 소년단생활을 통하여 견결한 젊은 투사로 자라났으며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때 우리의 슬기로운 소년단원들은 전선과 후방을 목숨바쳐 도왔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소년빨찌산을 뭇고 원쑤들과 용감하게 싸워 조선소년들의 용맹을 온 세상에 떨쳤습니다.

소년단생활을 거쳐 자라난 젊은 혁명투사들속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수많은 영웅전사들이 나왔습니다.

당과 혁명에 언제나 충직한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 《꼬마계획》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껏 도왔으며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사회주의전취물과 행복한 생활속에는 조선소년단원들의 고귀한 투쟁업적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당과 인민의 참된 아들딸로서, 나어린 혁명전사로서, 꼬마건설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있습니다.

조선소년단은 200여만의 우리 나라 소년들을 묶어세운 큰 혁명조직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소년단원들이 이처럼 훌륭하게 자라나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나는 지난 기간 조선소년단이 이루어놓은 자랑찬 성과를 높이 찬양하며 자기의 영웅한 투쟁으로써 우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우리의 귀여운 소년단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하는 길우에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더 많이 배우며 더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는 조선소년단창립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기회에 소년단원들에게 몇가지 부탁하려고 합니다.

첫째,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생활은 사람들의 정치적조직생활의 첫시작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를 위한 기초조직생활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여야 공부도 잘하고 혁명적단련을 끊임없이 쌓아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는것, 이것은 소년들의 가장 큰 영예이며 신성한 의무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원이 된 영예를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조직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소년단생활에 충실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에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처럼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소년단시절부터 그것을 빛내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소년단규약을 잘 알고 그대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소년단조직에서 주는 일들을 어김없이 실천하며 소년단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늘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생활하여야 하며 소년단조직에 튼튼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잘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조직생활을 통하여 좋은것은 본받고 그릇된것과는 투쟁하며 자기의 잘못을 털어놓고 비판하고 고치면서 늘 자신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단련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조직생활을 자립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모임을 열고 문제를 토론하여 결정하며 그 결정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버릇하여야 합니다.

둘째, 소년단원들은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학습은 학생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학습을 잘하여야 훌륭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학습열의를 높이고 학습규률을 잘 지키며 시간을 아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공부를 잘하여 모두가 다 최우등, 우등생이 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우리 말과 우리 나라의 혁명력사, 우리 나라의 지리를 잘 알며 과학기술지식과 문학예술지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풍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책보기를 좋아하고 책을 즐겨읽는 버릇을 붙이며 혁명적인 책,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학습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글 한자를 배우고 실험기구 하나를 다루어도 반드시 우리 나라의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도덕을 모범적으로 지키며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일상적으로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소년단원들은 모두다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가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준비되여야 합니다.

셋째, 소년단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일하고 배우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좋은 사회제도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이 행복한 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는 끝없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그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는 정신은 혁명선렬들의 간고한 투쟁과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나타납니다. 소년단원들은 책상 하나, 걸상 하나, 유리 한장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모든 비품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공장과 협동농장의 재산들과 극장, 영화관, 병원, 공원을 비롯한 나라와 인민의 모든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잘 보호하여야 합니다.

넷째, 소년단원들은 혁명의 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그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착취와 압박을 당하여보지 않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세대들입니다. 소년단원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 놈들의 통치밑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을 다 받으며 살아온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지주, 자본가계급의 착취적본성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소년단원들은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인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다시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날뛰고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주, 자본가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며 우리 인민의 공동재산을 해치려고 언제나 도사리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제때에 잡아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는 사회주의의 적극적인 옹호자로, 믿음직한 보위자로 되여야 합니다.

다섯째, 소년단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힘쓰는 집단주의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입니다. 어려서부터 동무들을 사랑하며 인민을 사랑하며 혁명조직과 집단을 사랑할줄 아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언제나 동무들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동무들사이에 서로 돕고 배우며 뒤떨어진 동무를 힘을 합쳐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또한 혁명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집단의 리익과 조직의 영예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리기주의를 반대하여야 합니다.

리기주의는 자본주의사상잔재입니다. 리기주의사상을 가지고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에서 살수도 없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자기것만 귀중히 여기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동무들과 집단을 위하여,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줄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 소년단원들은 아름다운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질서를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언제나 옷차림과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걸음걸이를 똑바로 하며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며 아름다운 말을 쓰며 선생님들과 웃사람을 존경하고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정직하고 겸손하여야 하며 학교와 사회의 모든 생활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목화근위대》활동을 적극 벌려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하며 거리와 마을에 록음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위생근위대》활동을 잘하여 언제나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집과 학교를 알뜰히 꾸리며 자기의 마을과 길들을 깨끗이 거두며 파리, 모기를 비롯한 해로운 벌레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일곱째,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사랑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껏 도와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재부와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다 로동에 의하여 창조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가장 보람차고 영예로운것입니다. 로동을 사랑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어려서부터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을 즐기며 부지런히 일하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언제나 자기 집일과 학교일을 성실히 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는것을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미워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좋은일하기운동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꼬마계획》활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껏 돕는 나어린 사회주의건설자가 되여야 합니다.

여덟째, 소년단원들은 사회정치활동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글뒤주》가 될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능력있는 정치활동가로 자라나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매 시기 제기되는 우리 당 정책을 잘 알고 과외시간과 방학동안을 리용하여 공장과 농촌, 건설장과 인민반에 나가 그것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설선전하며 사회정치적으로 유익한 활동들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풍부히 하고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가정과 인민반,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소년단원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 인민들과 소년들은 행복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생활하고있지만 남반부 인민들과 소년들은 아직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

치밑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많은 소년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소년단원들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불쌍한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미일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통일된 조국땅에서 남조선소년들과 함께 다같이 마음껏 배우고 즐겁게 뛰놀며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열째, 소년단원들은 세계 여러 나라 소년들과의 국제주의적친선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나라 소년들과 단결하며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의 모든 나라 소년들과 단결하며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없고 지주, 자본가계급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

조선소년단원들의 미래는 끝없이 넓고 밝습니다. 소년단원들의 앞길에는 통일된 조국,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조국의 새시대가 약속되여있으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락원이 펼쳐져있습니다.

행복한 새시대의 주인공들인 소년단원들에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에서 온갖 행복을 마음껏 누릴 크나큰 영예와 함께 그 락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갈 무거운 임무가 맡겨져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앞날은 바로 소년단원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자라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모두다 조선소년단의 기발아래 굳게 뭉쳐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더 잘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야 할것입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모든 소년단원들이 당의 믿음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김 일 성

1971년 6월 6일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폭풍같은 환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소리 장내를 뒤흔드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등단하시였다.)

친애하는 청년대표동무들!

친애하는 외국의 청년대표 여러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는 우리의 모든 남녀청년들과 우리 나라 전체 인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 지금 이 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외국의 수많은 젊은 벗들과 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성원속에서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당중앙위원회는 대회사업이 잘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대회사업의 성과를 축원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우리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였으며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는 용감한 젊은 투사들인 대회대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나는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청년대표들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무들!

조선청년운동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와 더불어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선청년들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첫 혁명적청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조직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거의 반세기동안 조선청년들은 우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

주의, 국내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으며 청년들은 준엄한 시련도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밑에 우리의 청년들은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냈으며 오직 혁명의 길을 따라 굽힘없이 싸워왔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젊은 공산주의혁명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찬란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우렁찬 박수)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항일혁명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났으며 그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전체 청년들은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제도를 창설하는 투쟁에서, 우리 조국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 위대한 건설사업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이 모든 빛나는 성과들에는 우리의 수백만 남녀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노력이 깃들어있으며 이 땅우에 마련된 사회주의의 위대한 창조물들은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조선청년들의 불멸의 위훈을 상징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하여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혁명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청년들의 정신도덕적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맑스-레닌주의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할줄 알며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려는 한결같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청년들속에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있습니다. 혁명의 시대에 사는 청년답게 투쟁하기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며 정치적조직생활에 충실하고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풍모이며 영웅적조선청년들의 혁명적기개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러한 좋은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며 커다란 자랑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을 훌륭히 키워놓았다는것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무들!

청년들은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과 청년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창설되였으며 이 제도하에서 우리 청년들은 행복하고 보람찬 새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그러나 혁명투쟁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았다고 하여 결코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도 나라를 절반밖에 해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인 미제국주의가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가 되살아나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습

니다.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에는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친미, 친일 주구들의 반동관료집단이 계속 둥지를 틀고있으며 반동적인 식민지파쑈통치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모든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혁명투쟁을 멈출수 없습니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집니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여 벌써 해방후 자라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할 때까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당신들,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있습니다. (장내를 뒤흔드는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의 청년들은 조국이 통일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한 다음에도 공산주의를 완전히 건설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또한 세계의 진보적청년들과 함께 전세계에서의 반제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야 하며 혁명의 대를 빛나게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청년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혁명화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꾸준히 따라배워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청년들은 행복하면 할수록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의 지난날을 잊지 말아야 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적본성을 잘 알고 원쑤들을 미워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사로청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청년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모두다 청년시절을 사로청조직에 들어서 보내고있습니다. 사로청생활은 사로청원들의 정치적조직생활이며 사상단련의 좋은 학교입니다. 청년들은 사로청조직생활을 충실히 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함으로써 사로청생활기간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전사가 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무들!

사회주의건설은 오늘 청년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나라는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간고분투하여 건설하여놓은 자립적인 사회주의적민족경제는 더욱더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고있으며 인민들의 물질적복리와 문화수준도 전반적으로 훨씬 높아졌습니다.(우렁찬 박수)

이제 우리의 투쟁은 더욱 힘있고 보람찬것으로 되였으며 우리앞에는 더욱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투는 청년들의 더욱 힘찬 로력투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는 로력전선에서 위대한 력량입니다. 당은 청년들의 힘과 재능을 믿고있으며 청년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청년들은 모두다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위대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6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채취공업과 농촌경리 부문 그리고 대자연을 개조하는 건설장들은 청년들의 보람찬 일터입니다. 지금 당은 이 부문에 큰 힘을 넣고있으며 청년들이 이 부문에서 더 큰 역할을 놀것을 바라고있습니다. 탄광과 광산, 림업과 수산, 농촌경리 부문 그리고 발전소건설장들과 간석지건설장들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진출하며 전군중적 운동으로 이 부문을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건장하고 혈기왕성하며 용감한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위대한 앙양이 일어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설뿐아니라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선봉대가 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기술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3대기술혁명은 현시기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의 하나이며 그것은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당이 내세운 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에게 크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영광스러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기술혁명의 선봉대가 되려면 현대적인 과학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생산과 건설에서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이 널리 도입되고있으며 그 역할이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이제는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우리 인민경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이 돌격대, 선봉대의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속에서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대중적행군을 조직하여야 하며 모든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청년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꾸준히 배우고 또 배워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져야 하며 자기가 맡은 부문의 기술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보수주의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있을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반대하며 낡은 기술기준을 타파하고 새 기술, 새 기록을 대담하게 창조하며 합리적인 작업방법과 능률적인 기계들을 창안해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의 지혜와 힘으로 하루빨리 모든 생산공정들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나라와 사회의 재부를 늘이는것과 함께 이미 창조하여놓은 재부를 애호관리하며 잘 보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나라와 사회의 모든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관리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 적들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것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며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떨쳐나서 사회주의조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튼튼히 지켜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청년들은 온갖 안일성과 권태증을 반대하고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모든 청년들이 원쑤들이 덤벼들면 그것을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우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인민군대와 경비대의 청년들은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며 전투정치훈련에 더욱 정력적으로 참가하며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함께 로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우리의 모든 남녀청년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군사훈련에 적극 참가하며 전쟁경험을 꾸준히 연구하여야 하

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체 인민과 함께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자기의 초소와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면서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혁명의 원쑤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안으로부터 해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적들의 파괴, 암해 책동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공장, 기업소, 철도, 항만을 비롯한 생산시설들과 문화시설들 그리고 협동농장의 모든 재산을 굳건히 지켜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동무들!

우리의 사로청원들과 청년들 앞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남조선청년운동은 전반적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한부분을 이루고있습니다.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운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려매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써 우리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였으며 조선청년의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혁명적기개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우렁찬 박수)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원쑤들의 야수적 탄압과 테로를 박차고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민주주의적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잘 싸우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지펴올린 반제, 반파쑈민주화 투쟁의 불길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벌써 석달동안이나 계속 세차게 타오르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쟁은 민족적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며 그들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용감한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민족해방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그들이 쌓아올린 고귀한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청년들이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타도하여야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파탄시켜야만 새로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당면하여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서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짓밟히고 파쑈적폭압과 전횡이 살판치

는 조건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진보도 있을수 없으며 청년운동이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진보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원쑤들의 온갖 파쑈적탄압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들의 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특히 청년학생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로동자, 농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그들과의 조직적뉴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이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결합될 때 그것은 더욱 위대한 힘을 나타낼것이며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모든 애국적인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들고일어나 싸울 때 남조선혁명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늘 남조선괴뢰도당이 횡포한 군사적폭압과 악랄한 수법으로 장기집권을 꾀하고있지만 지난날 리승만괴뢰도당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이자들도 멀지 않아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거족적항거에 부딪쳐 거꾸러지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우렁찬 박수)

공화국북반부청년들과 남조선청년들은 통일된 조국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자랑스러운 조선의 새세대들입니다. 남조선청년들은 하루빨리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들도 공화국북반부청년들과 같이 행복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청춘의 지혜와 재능을 꽃피워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공화국북반부청년들은 남조선청년들의 정의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북반부청년들의 신성한 임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남조선청년들의 불행한 처지를 한순간도 잊지말고 그들과 한 투쟁대오에 같이 서있는 심정으로 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생활하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남조선인민들과 청년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하고있으며 그 전도는 의연히 간고합니다. 그러나 남조선청년들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투쟁대오를 확대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지닌 자기의 숭고한 임무를 빛나게 실현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은 공화국북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서 그리고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의 열렬한 성원속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성스러운 위업은 기어코 성취되고야말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동무들!

조선청년들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진보적청년들의 투쟁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과 청년들이 민족해방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것과 함께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과의 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며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흉악한 침략자이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주되는 적입니다.

조선청년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이 투쟁에서 세계 진보적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청년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청년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에서 더 많은 국제적지지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오늘 미제국주의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있으며 특히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습니다. 미제에 의하여 아세아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세아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와 중국 대만에서, 남부웰남을 비롯한 인도지나에서, 아세아의 모든 곳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의 모든 나라 청년들과 더욱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청년들은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과 단결하여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야망을 결정적으로 꺾어버려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지금 이 대회에는 세계의 수많은 젊은 반제투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제투쟁에서 청년들의 국제적련대성의 뚜렷한 시위로 됩니다.(우렁찬 박수) 당신들은 우리의 청년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을뿐아니라 미제의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여주었습니다.(우렁찬 박수) 이와 같은 지지성원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여기며 당신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우렁찬 박수)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이 굳게 단결하며 서로 지지성원하는것은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인민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인민들과 청년들의 국제적단결을 방해하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 하고있습니다. 반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것을 철저히 파탄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위대한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그리고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세계의 모든곳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입니다.(우렁찬 박수) 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 전반적정세는 인민들의 혁명위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청년들은 전세계 진보적청년들과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청년들의 투쟁대렬을 더욱 튼튼히 결속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온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은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우렁찬 박수)

조선청년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청년들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청년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청년들과 단결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굳세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무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청년들의 영광스러운 혁명조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청년운동의 승리적전진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쌓아올린 빛나는 위훈과 업적들은 모두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앞으로의 강화발전과 조선청년들의 찬란한 미래도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우렁찬 박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여야 할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의 앞길에는 오직 빛나는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나는 우리의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서 자기앞에 맡겨진 영광스러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며 우리 혁명의 대를 믿음직하게 이어나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모두 일어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소리, 폭풍같은 환호,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프로레타리아 독재국가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주권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의 옳은 해결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오시였다.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의 주권전취와 그 공고발전에 관한 새로운 체계정연한 리론을 창시하시고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서 그를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개척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로동계급의 주권전취의 가장 혁명적인 방도를 밝히시고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인민정권의 깊고 억센 뿌리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에서도 제때에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그를 공고발전시키시여 우리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을 받으시는 국가수반으로서 우리의 국가를 가장 혁명적이고 공고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그것을 무기로 하여 이 땅우에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새 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지난날 자기의 주권이 없었던 탓으로 하여 갖은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조선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음으로 하여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조선사람으로 태여난 떳떳한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나서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따라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 굳은 신념을 안고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키고있으며 반제반미투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앞장에 서서 세계혁명승리를 다그쳐나가고있다.

참으로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혁명투쟁력사는 이 땅우에 가장 혁명적이고 공고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건설하신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이며 우리 인민에게 자주독립국가인민으로서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끝없는 혁명적자부심을 안겨주신 만대에 길이 빛날 자랑찬 혁명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함으로써 그이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고 무궁토록 번영케 할것이다.

1

전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권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몸소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행정에서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권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로동계급의 완전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그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은 낡은 통치기구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자기의 주권을 전취함으로써만 비로소 자신을 해방할수 있고 모든 근로인민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줄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주권전취문제, 프로레타리아국가창건문제는 오직 혁명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만이 혁명의 지도사상과 리론을 창시하고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조직된 력량으로 결속할수 있으며 착취자들의 통치기구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탁월한 수령은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과 임무, 계급적력량관계와 대중의 지향을 깊이 통찰하고 로동계급의 주권전취의 가장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또한 위대한 수령은 직접 혁명의 진두에 서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 력사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없이 승리한 혁명을 알지 못하며 로동계급이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한 실례를 모른다.

우리 인민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탁월한 령도에 의해서만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모든 혁명투쟁의 경험과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구체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적폭력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시고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주권전취의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적방도를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혁명적폭력은 주권전취의 기본방도이다. 로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

반혁명적폭력은 모든 착취계급에게 있어서 필수적수단이다.

조선에서의 일제식민지통치기구는 조선인민에 대한 가혹한 파쑈적폭압기구였다. 따라서 혁명적폭력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이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은 식민지나라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때려부시고 민족적해방과 주권전취를 위한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투쟁형태이다.

실로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주권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로선이다. 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독창적인 로선이며 반혁명적폭력에는 오직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싸워야 한다는 그이의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가장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로선이다. 그것은 혁명

정폭력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더욱 발전풍부화한것으로서 식민지나라 로동계급의 민족해방과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평화적방법, 의회적방법으로서 주권을 전취할수 있는듯이 설교하는 기회주의자들, 의회광신자들에게 결정적타격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전취를 위한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조국의 해방과 주권전취를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위대한 혁명전쟁이였으며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제국주의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고 정규군도 외부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상비적인 혁명무력,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투쟁속에서 그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시였으며 천재적인 전략전술로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마침내 일제식민지통치기구를 전복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혁명투쟁행정에서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고 주권문제해결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사회경제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 로선을 내놓았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페지)

주권을 세우기 위한 정확한 로선을 내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미리 막고 혁명을 올바른 승리에로 이끄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해당사회의 사회경제적형편과 계급들의 호상관계 및 소여단계에서의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부합되게 주권문제해결을 위한 로선을 정확히 내세워야만 그에 맞는 정권형태를 옳게 규정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에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현명한 로선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전적으로 맞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였다. 그것은 또한 국가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전혀 새로운 로선이였다.

선행한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로동계급의 국가주권형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콤뮨》과 《쏘베트》와 같은 일련의 주권형태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그에 상응한 정권형태를 요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로선을 제시하시고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심으로써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알맞는 정권형태를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 창조하신 이 정권형태는 우리 나라에 장차 세워질 인민정권의 원형이였으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세워야 할 정권의 본보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속에서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울줄 아는 단련되고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심으로써 인민정권을 창건하기 위한 혁명적골간

을 준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와 함께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혁명화, 혁명무력의 강화와 전인민적방위체계의 수립 등 정권운영의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이렇듯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고 인민정권의 억세고도 깊은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창건의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명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나라들에서 민주주의혁명을 거쳐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야 할 객관적필연성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창건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길을 거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는 전략적사상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건에서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로동계급앞에는 우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고 그에 토대하여 점차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야 할 력사적과업이 제기된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은 해당사회 계급관계와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부합되는 정권을 세워야 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거쳐서만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창건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민정권을 세우심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주권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에 대한 로동계급의 계급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시였으며 이 정권을 무기로 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수립의 제반조건을 튼튼히 마련하시고 이에 기초하시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공고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민의 강력한 자주독립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의 구현으로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주위에 굳게 뭉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4폐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나라에서의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이것은 참으로 장구한 기간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폐지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건설하여나아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으며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또한 전국적판도에서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준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공화국의 창건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광명한 새 생활을 창조하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일떠선 전체 조선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주권전취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피압박민족들에게 신심과 고무적힘을 주었다.

2

우리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에 기초하시여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에 관한 새로운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국가의 강화발전을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국가건설리론은 그이의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자주적인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리론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가장 높은 단계의 맑스-레닌주의적국가건설리론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국가건설리론은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의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우리 공화국이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공고한 로동계급의 국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할수 있게 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은 인류가 아직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이며 여기에서는 국가건설에서 풀어야 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된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서 로동계급의 국가를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선행한 맑스-레닌주의리론에서 해결되여있지 않은 문제이며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새롭게 풀어야 할 절박한 리론실천적문제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문제의 정확한 해결여부는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적립장을 계속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력사적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이 중대한 문제에 가장 원칙적이고도 혁명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는 전기간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혁명하는 모든 나라 당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국가건설에 관한 리론에는 국가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 사회주의국가의 력사적사명과 임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 등이 체계정연하게 전면적으로 해명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국가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는 국가건설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해결하는 근본초석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와 운명을 좌우하는 원칙적문제로 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수령, 당, 정권은 서로 떼여낼수 없는 하나의 전일체를 이룬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당 및 국가정권을 창건하고 령도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혁명과 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을 창시하며 이에 기초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인민정권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사명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38페지)

인민정권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며 인민대중을 로동계급의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무기이다. 그것은 또한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조직하고 보장하는 호주이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다. 그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이 땅우에 실현하는 무기이며 인민생활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배려를 실현하여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조직하는 호주이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며 그밖에 다른 어떤 사상도 있을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바로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창시하신 자주적인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리론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국가건설리론은 사회주의국가가 과도기의 전기간은 물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날까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견지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할 력사적필연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가 과도기의 전기간에 있어야 할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것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반드시 계속되여야 합니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15페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사회의 내부에 적대적요소가 있고 계급투쟁

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국가의 계급적성격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부인하는것은 계급적원쑤들에게 반혁명적책동을 강화할수 있는 자유를 주는것이며 혁명의 전취물을 말아먹는 행위로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한 다음에도 세계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하기전에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포기할수 없다. 세계혁명이 완수되지 못하고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는 제국주의침략의 위협을 면치 못할것이며 외부의 원쑤들과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을 면할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국가는 조락될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의연히 남아있어야 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사회주의국가앞에 나서는 임무와 과업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로 하여금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잘해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4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같이 잘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여야만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야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경제건설도 잘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 기술혁명은 낡은것과 새것과의 투쟁, 개인리기주의, 보수주의, 소극성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건설, 기술혁명을 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계급투쟁,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국가는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욱 깊이 확신시키고 그것을 수호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할수 있으며 계급투쟁, 사상혁명도 잘할수 있다.

만일 프로레타리아독재와 사상혁명, 경제건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여도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행정에서는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국가의 계급적본질과 력사적사명, 그 임무와 과업뿐아니라 국가활동의 원칙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 활동의 근본원칙을 력사상 처음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서 훌륭히 구현하여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나갈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0페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본질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그 사명과 역할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제국주의와 대치된 조건에서 민족국가단위로 수행된다.

정치적자주성이 없는 국가주권은 대내활동에서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길로 전진시킬수 없으며 대외활동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행사할수 없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반혁명적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지 않고서는 독립국가로서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물질적기초인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으며 민족들간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인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있다.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여야만 자체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외래제국주의침략을 막아내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으며 자기의 정치적독립을 유지공고화할수 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공고성과 그 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항구적으로 견지하여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지도적지침이며 로동계급의 국가활동의 유일하게 정확한 보편적지도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국가활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서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철저한 로동계급의 국가인 동시에 가장 인민적인 국가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계급적원쑤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한편 인민대중에게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함에 있어서도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인 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하에서의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어떻게 적응시키고 완성시켜나가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어떻게 완성하며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의 호상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

키시고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국가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확립하심으로써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로운 분야를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완성해나감에 있어서 유일하게 옳은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참으로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에 관한 리론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계급적본질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인 리론이다. 그것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내용과 형식, 독재와 민주주의, 사회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의 호상관계 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참말로 강화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명시한 위대한 사상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이 위대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에 관한 리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계급투쟁도 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도 잘하는 가장 혁명적인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로 될수 있었다.

3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시고 사회주의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그를 가장 혁명적이고 공고한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의 독창적인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혁명의 매 단계에서 우리 공화국이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 자기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신 직후 우리의 국가정권으로 하여금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철저히 진압하는 한편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짧은 기간에 자체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튼튼히 다졌기때문에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6페지)

우리 공화국은 창건후 두돐도 못되는 때에 악랄하고 흉악한 세계제국주의두목이며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미제국주의와 그를 추종한 15개 국가들의 무력침공을 받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어려운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내고 자기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불패의 힘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나날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친히 령도하시면서 전시의 조건에 맞게 우리의 국가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한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심으로써 미제를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공화국의 공고성과 불패의 위력의 시위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국가앞에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섰다.

그러나 우리 인민앞에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피해는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으리만큼 컸다. 도시와 농촌은 재더미로 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여지없이 파괴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여기에다 미제침략자들이 새 전쟁 도발에 미쳐 날뛰였으며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이 우리 혁명과 건설을 방해해 나섰다.

이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불굴의 의지와 대담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나라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고 우리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인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기술적개조에 앞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완전히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고 우리 공화국이 나아갈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반동공세와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이 격화되는 가운데서도 이미 내세우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면서 전당과 인민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확신성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국가정권이 놀아야 할 임무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인민정권을 공고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들을 취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계급투쟁이 더욱 심화되는 조건에 맞게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더욱 강화하시였으며 그의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더욱 높이도록 인도하시였다.

언제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시여 혁명을 자랑찬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혁명앞에 어려운 정세가 조성될 때일수록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바로 수령님께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시여 창조하신 대중적혁신운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92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운동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기도도, 내외의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공격도 다 산산이 부서버리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이리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이 념원하였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것을 위하여 목숨바쳐싸운,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진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 사회주의의 기초우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확고히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제는 전쟁의 혹심한 상처를 완전히 가시였을뿐아니라 튼튼한 자립적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새로운 조건에서 우리의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능을 더욱 높이시고 그에 의거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특히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심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을 가장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경제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우리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더욱 높이도록 하심으로써 나라의 정세와 주민구성이 복잡하고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사소한 편향도 없이 계급투쟁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더욱 공고히 하시였다. 오늘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고 전체 근로대중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이의 두리에 뭉쳐나아가는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결속되였다. 우리 사회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모든 인민이 혈연적으로 굳게 단결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정치적지반을 가지게 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심으로써 국가정권으로 하여금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임무를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건설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건설을 가장 올바른 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고 자기의 경제적지반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동방에서의 첫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본성, 변천되는 혁명정세에 맞게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공화국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 첨예한 정세하에서도 끄떡없이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키면서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어떤 원쑤들이 어느때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로 침공하여온다 하더라도 일격에 소멸할수 있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놓았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완성

하시였으며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선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국가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사회주의제도확립후 변천된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국가경제기관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우리의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맞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우리의 공화국은 승리와 영광, 창조와 변혁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걸어왔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는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로, 인민대중의 확고한 정치사상적통일과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불패의 자위력에 의거한 공고한 자주독립국가로 강화발전되여왔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국가를 가장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을뿐아니라 가장 민주주의적인 진정한 인민의 국가로 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뿐만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적생활을 보장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공화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화국기발아래 굳게 뭉쳐 간고한 혁명투쟁과 위대한 건설사업을 진행하여왔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페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가장 인민적인 국가사회제도를 세워주시고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인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국가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권과 나라의 모든 재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생산과 건설뿐아니라 국가관리와 경제관리, 과학문화의 발전에도 마음껏 참가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인민들의 모든 살림살이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직하며 계통적으로 늘이는 가장 선진적인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이 늘어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한 분배를 계속 늘여주시고 물가를 체계적으로 낮춰주시였을뿐아니라 농민들을 조세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가장 철저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도를 실시하시고 전체 인민들이 더욱더 많은 사회문화적혜택을 입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누구나 보람찬 일터를 가지고 능력껏 일하고 다같이 배우고있으며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 자녀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치료받을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잘 살고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륭성발전에서 자기들의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래일을 보고있으며 공화국의 모든 정책을 자기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그 수행을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다바쳐투쟁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을 통일하며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도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심려하여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

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불패의 보루로,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 무궁한 민족적번영의 기치로 바라보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도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다.

참으로 우리 국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정치에서 자주적이며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인민의 지혜와 재능이 활짝 꽃피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기상과 영예가 온 세상에 찬연히 빛나는 진정한 로동자, 농민의 국가로 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그 대외적기능을 높이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철저히 옹호하시는 기초우에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키시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시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 형제들과 벗들을 가지고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밑에 세계혁명의 앞장에서 나아가고있으며 그 국제적위신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가장 혁명적이고 공고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의 수행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 공화국을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한결같이 우러러보고있으며 따라배우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업적은 조선혁명력사에서뿐아니라 세계혁명력사에서 길이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 *

오늘 우리의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위대한 력사적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인 공화국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한줌도 못되는 적대분자들의 반항을 철저히 진압하는 동시에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다그쳐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더욱 굳세게 싸워나아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의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필승불패이며 그이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4천만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모두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궁토록 륭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반미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

우리 인민은 오늘 전세계적범위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앙양되고있는 환경속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맞이한다.

이 날을 맞으면서 전체 조선인민은 스물한해전 우리 나라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천추를 두고도 씻지못할 만행을 저질렀으며 오늘도 계속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금치못하고있으며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을 쓸어버림으로써 조국을 통일하며 세계혁명승리를 촉진시켜나가려는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지금으로부터 스물한해전인 1950년 6월 25일에 미제침략자들은 창건된지 얼마안되는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치우고 대륙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쳐보려고 망상하면서 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그러나 원쑤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3년간의 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무력침공자들을 여지없이 때려부시고 혁명의 전취물과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빛나게 고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의 강도적침공을 때려부심으로써 사회주의위업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9페지)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선 인민은 어떠한 간악한 원쑤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압박받고 착취받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이후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기세는 급격히 높아졌으며 미제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 더욱더 내리막길을 걷게 되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의 혁명적폭풍이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들에서 휘몰아치고있는 우리 시대의 반미투쟁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오늘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은 세계의 넓은 지역에서 타번지고있으며 반미투쟁대렬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반미투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이 투쟁의 대조류속에는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과 평화애호운동 그리고 민주주의운동 등 각이한 투쟁력량들이 망라되고있다.

참으로 반제투쟁력사에서 오늘처럼 광범한 인민대중이 떨쳐나선 때는 일찌기 없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아세아에서 가장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치렬한 투쟁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다.

바로 아세아에서 혁명적인민들과 미제침략세력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으며 이 투쟁속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종국적멸망과정이 촉진되고있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놈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참혹한 군사, 정치적 패배를 안겨준 우리 인민은 미제의 거듭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련속 강력한 타격을 들이댐으로써 놈들을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로 깊이 몰아넣고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격추사건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미제의 그 어떤 악랄한 도발책동도 우리 인민의 호된 징벌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하고있다.

오늘 반미투쟁의 최전선에 튼튼히 서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산산이 짓부셔버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과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위대한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으면서 남조선인민들은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원쑤들과 굴함없는 투쟁을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와 같은 혁명적진출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심각한 위기에 부닺쳐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과 때를 같이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반미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인도지나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이 계속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웰남인민을 비롯한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의 온갖 악랄한 전

쟁확대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면서 놈들에게 련속 심대한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놈들을 진퇴량난의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있다.

실로 아세아에서의 반미투쟁은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된 일본을 비롯하여 타이와 말라이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힘차게 전개되고있으며 여기에는 아세아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 인민들이 합류해나서고있다.

아세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미투쟁의 현실은 어제날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온 아세아인민들이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등장하였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계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아세아대륙인민들의 반미투쟁으로 말미암아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고 사면초가에 빠지고있다.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반미투쟁과 하나의 흐름속에 합류하여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또한 반미투쟁의 혁명적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된 이 지역 인민들은 미제의 온갖 악랄하고 교활한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거연히 떨쳐나섬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는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다. 그리하여 어제날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워오던 아프리카와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워오던 라틴아메리카는 지금 투쟁의 대륙으로 전변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미제의 침략적지반은 날이 갈수록 급속히 축소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들의 반전운동은 미국안에서도 대중적으로 일어나고있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더욱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있으며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흑인들의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밖으로부터뿐만아니라 안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있으며 수습할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있다.

이와 같이 오늘 세계인민들의 창끝은 날을 따라 더욱더 미제에게 돌려지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들이 반미투쟁의 폭풍으로 들끓고있다.

모든 사실은 현시기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였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오늘 반미투쟁이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고있는것은 바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야말로 력사상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략탈자이다.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자신이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요구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2페지)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제놈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흉악한 야망을 추구하면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하여왔다. 그리하여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받고있지 않는 나라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서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혁명적인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신생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한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가장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특히 아세아에서 가장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지역에 해외군사원조비의 대부분을 쏟아넣고있으며 여기에 숱한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해외침략무력의 3분의 2를 투입하면서 침략과 전쟁 정책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다.

해방후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야만적인 살륙전쟁을 감행한 미제는 오늘도 남조선에 계속 둥지를 틀고앉아 남조선을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변시켰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놈들은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군사적잠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있으며 조선에서 새 전쟁 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된 하나의 병영으로, 새 전쟁 도발을 위한 련병장으로 변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고 미제에 의한 새로운 침략전쟁의 위험은 날로 커가고있다.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강도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웰남에서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전쟁을 인도지나의 긴 지역에로 확대하였을뿐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침략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제놈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 남조선에서 벌리고있는 《미군감축》소동과 인도지나에서의 전쟁의 《웰남화》계획은 바로 놈들의 《새 아세아정책》의 중요한 한 고리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닉슨주의》에 따르는 《새 아세아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아세아에 대한 제놈들의 정책에서 그 무슨 변화라도 있는듯이 떠들어댐으로써 백일하에 드러난 제놈들의 강도적침략정체를 가리워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결코 아세아에서 물러가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횡포한 무력탄압에 의거하여 이 지역에 계속 눌러앉아있으려는것이라는것을 그대로 폭로하여주고있다.

놈들은 바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이른바 《감축》이라는 간판밑에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무력을 더욱 증강하고있으며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 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또한 놈들은 이른바 전쟁의 《웰남화》계획이라는 간판밑에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강화하고 라오스와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을 확대하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전쟁행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아세아에서 로골적인 무력침공을 벌리는 한편 《독립》과 《평화》, 《원조》의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침투하여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려 하고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 또다시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워 제놈들의 예속밑에 넣으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반동화한 군부

상층과 같은 우익계층들을 괴뢰로 내세워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고있을뿐아니라 신생독립국가들을 끊임없이 위협공갈하며 반동적인 군사정변을 빈번히 조작하여 진보적인 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움으로써 사실상 식민지, 반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있다. 최근년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 나라들에서 련이어 일어난 반동적인 군사정변은 바로 미제의 이와 같은 침략책동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경제원조》를 통하여 뒤떨어진 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며 이 나라들의 정치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다. 오늘 미제의 《원조》정책의 올가미에 걸려든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민족경제가 날로 파탄되고 정치적자주성마저 심히 유린당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실로 미제의 침략적야망에는 끝이 없으며 놈들은 흉악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리하여 제2차세계대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5년동안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침략과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은 날이란 하루도 없으며 놈들의 발길이 닿는곳에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란 없다.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야말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의 교살자이며 세계평화의 교란자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 보고》, 97페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침략과 전쟁이 없어질수 없으며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다.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그 모두가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 및 전쟁 정책과 련결되여있다. 세계인민들이 벌리고있는 그 어떤 투쟁도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제국주의식민지예속하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 그리고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 등 세계인민들이 벌리고있는 모든 형태의 투쟁은 사회주의의 주되는 원쑤이며 민족해방투쟁의 흉악한 교살자이며 세계평화의 교란자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 국제무대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해서도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놈들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당하고있는 나라들은 물론 평화와 민족적독립 그리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따라서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공동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가장 절박한 혁명과업으로 되며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는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현대제국주의의 우두

머리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와 다른 제국주의나라들간에는 모순과 알륵으로 하여 심히 대립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을 반대하며 자본주의세계의 전면적붕괴파정을 막아보려는 공통된 반동적목적으로 하여 서로 야합하고있으며 반혁명련합세력을 형성하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약화되고있는 제국주의반동들은 제국주의진영의 우두머리인 미제에 적극 의존함으로써 멸망에 직면한 저들의 운명을 부지해나가려 하고있다. 그리하여 현대제국주의체계전반의 운명은 바로 제국주의진영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련결되고있다.

지구상에서 온갖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은 곧 제국주의진영의 기둥을 잘라버리는 투쟁으로 되며 제국주의진영의 전반적붕괴파정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반제투쟁에 떨쳐나선 세계인민들의 창끝은 무엇보다도먼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세계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에게 돌려지고있는것이다.

이상의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의 불길이 날이 갈수록 세차게 일어나고있는것은 현시기 반제투쟁과 전반적세계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되며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고있다.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된 인민들의 반미투쟁은 침략과 전쟁 정책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로 몰아넣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고 그 처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더 필사적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9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본성은 죽을때까지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투쟁은 더욱 치렬하여지고있다.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내리막길을 걷고있고 그 종국적멸망이 가까와가고있으나 놈들은 의연히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저들의 강도적본성을 그 어느때보다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놈들은 아세아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벌림으로써 이미 칠성판에 오른 제놈들의 운명을 구원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결코 놈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취약성과 부패성을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놈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다.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 조성되고있는 정세는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로 하여금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미제를 반대하여 더욱 격렬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반미투쟁에서 제기되고있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과 탁월한 전략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미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숭미사대주의사상과 공미굴종사상, 대미의존사상을 반대하며 미제를 끝없이 증오하는 정신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을 종국적으로 타승할 때까지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

고 반제반미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추호의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 미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놈들과의 무원칙한 타협을 설교하는것은 인민들의 혁명적경각성을 무디게 하며 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오만무례해지고 횡포무도하여지게 하며 놈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부추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날카롭게 폭로하며 미제에 대하여 더욱더 랭랭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반미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 그로 인하여 국제무대에 조성된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히 벌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모든 반제력량이 인도지나인민들을 비롯한 싸우는나라 인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분렬된 나라들에서의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현시기 미제의 침략예봉이 가장 집중되고있는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을 좌절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힘있게 짓부시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침략정책의 충실한 《돌격대》로 복무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떠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모든 전략적방침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성과적으로 짓부시며 내리막길로 굳이 빠져들어가고있는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탁월한 전략적방침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이께서 내놓으신 반미투쟁전략은 오늘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으며 그것은 반미투쟁의 현실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미전략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언제나 반제반미투쟁의 최전선에 튼튼히 서서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짓부시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 확고한 결의를 다지고있다.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과 아세아나라인민들 그리고 세계혁명적인민들간의 전투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되고있으며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확고한 뉴대로 련결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우리 시대의 추세로 되고있는 인민들의 반미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이미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구원할수 없다.

날로 확대되고있는 인민들의 반미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야말것이며 반미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의 위대한 혁명위업은 종국적으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가정혁명화의 빛나는 전통

전 창 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분조와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리를 혁명화하여야 하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가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9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그이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깊은 력사적뿌리를 두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정을 혁명화하고 점차 그를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정혁명화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가정혁명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가정을 혁명화하는것은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1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 등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집단생활의 거점이며 사회의 세포이다. 따라서 온 사회를 혁명화하려면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혁명화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마을을 혁명화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화를 추진할수 있다.

가정은 혁명가의 성장발전과 세계관형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

타고난 혁명가란 따로 없으며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정과 사회에서 교양을 받고 계급적으로 각성되여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된다. 사람들은 성장과정에 학교나 사회에서 받을수 없는 교양을 가정에서 받게 되며 그것은 곧 그들의 성장발전과 세계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이 혁명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새세대가 참된 혁명가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크게 좌우된다.

또한 혁명가가 혁명투사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자기 가족과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할뿐아니라 남을 교양하고 혁명화하기 위해서도 우선 자기의 한 가정부터 혁명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혁명하는 사람과 가정은 서로 분리할수 없으며 이로부터 가정의 혁명화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가정을 혁명화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주권도,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간악한 일제침략자들과 국내반동 및 혁명대렬안의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15성상에 걸쳐 진행된 피어린 혁명투쟁이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은 그 간고성과 장기성에 있어서 세계혁명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준엄하고도 치렬한 계급투쟁이였으며 조선인민의 무장한 혁명세력이 일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눕히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끈 빛나는 혁명전쟁이였다.

이 성스러운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여 그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하였다. 이것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 반면에 일제와 그 주구들을 고립약화시킴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키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때문에 일제침략자들은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어버리고 그의 혁명적영향력을 막기 위하여 항일유격대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을 감행하는 한편 인민대중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온갖 합법적활동의 가능성을 여지없이 말살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여 그들에 철저히 의거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를 받음으로써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특히 적통치지역에서 대중을 각성시켜 그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사들의 활동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조건에서 가정혁명화는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비합법적인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침식을 같이하는 가족들의 의식적인 방조와 지지가 없이는 혁명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없다. 때문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혁명투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가정을 혁명화하여 가정내의 모든 성원들이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혁명을 위하여 생사운명을 같이 할수 있게 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의 구체적실정 등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가정을 혁명화할데 대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먼저 혁명가가 되고 다음에는 가족과 마을사람들을 혁명화해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자신이 철저히 혁명화될뿐아니라 대중의 한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의 세포인 가정부터 혁명화해야 한다. 가정을 혁명화함으로써 가정내의 성원들을 발동하여 그들이 속해 있는 혁명조직을 비롯한 모든곳에서 대중의 혁명화를 더욱 촉진시킬수 있다.

가정을 혁명화한다는것은 혁명가가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켜 온 가족이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우로, 혁명투사들로 결합된 붉은 가정으로 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모

든 가족들과 친척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반동적본질과 야수적본성을 똑똑히 깨닫고 놈들을 끝없이 증오하며 낡은 통치제도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가정을 혁명화한다는것은 또한 가내 성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부르죠아사상과 봉건사상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사상과 도덕에서 공산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켜 철저히 혁명화함으로써 그들을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은 자신을 혁명화하는 사업과 함께 혁명사업에 나선 남편들을 대신해서 집에 있는 어린이들과 늙은이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부녀회원들과 전체 녀성들이 혁명화되고 다음은 어린이들과 늙은이들까지 혁명화된다면 우리 유격근거지는 말 그대로 불패의 혁명성새로 꾸려지게 될것이다.…

혁명가의 활동은 자기 가족을 비롯한 인민대중과 동떨어져서 진행될수 없다. 혁명가가 자기 가정내에 혁명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두고 군중들앞에 나서서 그들을 혁명화할수 없다. 혁명가는 자기 가정을 혁명화하고 그 실천적 모범으로써 마을을 혁명화하며 나아가서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투쟁을 대중적지반우에서 급속히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정혁명화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을 따라배움으로써 자기 가정의 혁명화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가정혁명화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우리 혁명의 성격과 항일무장투쟁의 특성, 사회와 가정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마을과 집단, 대중을 혁명화할데 대한 위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가정혁명화의 방침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혁명가들이 자라났으며 주체적혁명력량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광범한 대중이 반일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앞당기게 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가정혁명화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그 경험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발전에서도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사회의 광범한 대중을 혁명화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 강력한 력량으로 적을 타승하며 사회의 각이한 계층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에까지 이끌어가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 주체적방도와 실천적모범을 보여주는것이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탁월한 기여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와 영웅적인 항일

무장투쟁시기 가정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몸소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정을 혁명화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청년학생들과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한 가정을 혁명화하시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온 마을을 혁명화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정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가정을 혁명화하는 사업은 결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목적의식적인 사업으로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사상교양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먼저 선전교양에 의하여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되고 혁명에 끌려들어가는것이며 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혁명투쟁을 시작하게 되는것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교양사업은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방향과 방도, 그 내용과 형식,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교양사업의 방향에 따라 항일혁명투사들은 가정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사상교양사업에서 무엇보다먼저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족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항상 승리의 길로 곧바르게 인도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조선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게 가정을 혁명화할수 없었다.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가족들에게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높이게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반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의 침략적 및 략탈적 본성을 인식하고 그와 결탁한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증오하고 놈들을 반대하여 싸우겠다는 혁명적각오가 없이는 혁명투쟁에 나설수 없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서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알맞는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어머니는 같은 피줄을 타고난 자식들이라도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막내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 그것은 형제간에도 그의 의식정도가 다르고 그의 취미와 성격, 년령등이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자기 가정내의 성원들의 준비정도와 그들의 성격과 특성, 년령, 가정내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인내성있게 교양함으로써 가정혁명화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했던 오중화동지는 부친을 교양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자기 가정과 친척들을 모두 혁명화하였다. 오중화동지의 부친은 자기가 헐벗고 굶주리며 잘살지 못하는것을 마치도 그 무슨 《팔자》탓으로 여기면서 아들의 혁명사업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오중화동지

는 조선사람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국땅에 와서까지 잘 살지 못하는것이 《팔자》탓이 아니며 이것은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착취계급때문이며 따라서 놈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고 부친을 인내성있게 해설하였다. 그리하여 부친이 혁명화되고 온 가족들이 혁명화되여 일가친척 30여명이 혁명의 길에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훌륭한 진사로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바치였다.

수령님께서는 진취성과 감수성이 강하고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과 낡은 봉건적도덕과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녀성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서도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정혁명화를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잘 결합하여 진행할데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손수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조직을 반동하시여 해설 및 담화 사업, 연극관람, 노래보급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하시였으며 야학, 로인조, 계를 통하여서도 가정을 혁명화하도록 하시었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인 소설을 비롯한 출판물과 선전문, 구두선전, 직관선전 등을 통해서도 혁명화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족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높아지고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훌륭한 혁명가들로 육성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족들을 실천활동에 인입하여 그들을 혁명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초부터 완성된 혁명가란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혁명투쟁의 세찬 폭풍속에서 자신을 더욱 단련하고 혁명화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실천적인 혁명활동을 통하여 더욱 공고해진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실천활동은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이 얼마나 확고히 섰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로 된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투쟁방침의 정당성을 더 잘 알게 되고 신심이 생기며 자신의 혁명활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혁명하는 사람들은 실천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혁명화정도를 검열받게 되고 자기의 결함을 뉘우치게 되며 그것을 고쳐나갈수 있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족들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혁명화하도록 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족들에게 투쟁과업을 주되 처음에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일부터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맡기도록 하시였으며 그 집행과정을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면서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항일혁명투사들은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삐라공작, 통신련락, 적정정찰, 물자구입, 감시근무, 유격대원호사업, 무기구입 등 단순하고 쉬운것으로부터 점차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정을 혁명화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서 또한 항일투사들의 가족들을 혁명조직에 광범히 인입하여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혁명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일본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찾자면 우선 나라를 사랑

하는 군중들을 묶어세워야 한다.…앞으로 청년들은 청년조직에, 소년들은 소년조직에,부녀자들은 부녀조직에 다 망라되여 일제와 계급적원수들을 반대하여 더 견결히 싸워야 한다.…

혁명가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강한 조직성에 있다.

혁명가는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조직성을 가져야만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그런데 혁명가의 조직성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강화된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혁명적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혁명하는 사람들의 사상수양과 조직적단련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게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족들을 혁명조직에 인입시켜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각종 대중단체들을 친히 조직하시였으며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족들을 혁명조직에 망라시킴에 있어서도 그들의 년령, 성별, 의식수준과 준비정도에 알맞는 혁명조직에 인입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핌 속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각종 반일혁명조직에 망라시켜 혁명적조직생활을 거쳐서 혁명화되도록 하였다. 그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 한편 조직에서 주는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실천활동을 통하여 강한 조직성을 가진 열렬한 혁명가로 육성되였다. 또한 그들은 혁명적조직생활과정에서 반로된 결함을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극복시정하고 집단과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가적품성을 키워나갔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정을 혁명화하시고 그를 본보기로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육성된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받들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바치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자랑으로 간주하였다.

가정이 혁명화되고 광범한 군중이 혁명화됨으로써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고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이 확고히 마련되였다.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빛나는 승리가 이룩될수 있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정혁명화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이 확고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혁명적재부이다.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이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오늘 우리는 남북이 갈라진채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다. 공화국남반부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은 침략과 전쟁 준비에 미쳐날뛰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우리앞에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분조와

작업반, 직장을 혁명화하며 그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가정혁명화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가계를 따라배우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매개 가정의 혁명화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수령님의 일가는 혁명적가정의 전형이며 귀감으로 된다.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은 오늘 4천만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가장 높은 존경을 받고있으며 그를 따라배우는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없는 영광으로, 기쁨과 자랑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을 따라배움으로써 우리 혁명의 뿌리가 어떻게 생겨났고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혁명가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더 잘알게 되며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된다.

또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따라배움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투쟁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의 빛나는 력사를 더욱 깊이 연구하여 거기에서 불보다도 더 뜨거운 애국심과 굽힐줄 모르는 혁명정신을 배울뿐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철저히 옹호하고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적가정을 따라배우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가정혁명화의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하며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수하며 당면하게는 래년 4월 15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어김없이 완수하여야 한다.

교원인테리들의 혁명화와 대학당위원회

리 광 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년 6월 19일 함흥시 대학교원들앞에서 우리 인테리들을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로 육성단련할데 대한 력사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교원인테리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과학연구사업과 교수교양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며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혁명적조직생활과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자질을 부단히 높일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함흥시 대학교원들앞에서 하신 교시를 비롯한 일련의 교시들과 천재적로작들에서 교원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이 력사적인 교시들에는 우리 인테리들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다같이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끝없는 배려가 깃들어있다.

우리 인테리들이 나아갈 길을 그처럼 명백하게 밝혀주신 수령님의 교시들은 모든 당조직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함흥의학대학당위원회는 교원인테리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에로 교원인테리들을 조직동원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붉은 인테리로 만드는데서 일정한 경험을 체득하였다. 이 행정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인테리혁명화방침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게 되였다.

*　　　*

교원인테리들은 후대들을 당과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육교양하는 혁명가이다.

더우기 우리 대학의 교원인테리들은 인간생명의 기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혁명임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므로 교원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철저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만드는것은 후대들을 당과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공산주의투사로 키우며 대학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혁명의 후계자인 청년학생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직접적담당자인 교원인테리들자신이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여야 한다.

교원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이다.

교원인테리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만 과학연구사업과 교수교양사업의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의 리익에 맞게 정확히 처리할수 있으며 높은 궁지와 혁명

적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울수 있다.

교원인테리들속에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 그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것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테리들이 당의 붉은 전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서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55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우리 인테리들이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 열렬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자신을 준비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는 지도적지침이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다.

교원인테리들에게 있어서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그이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공산주의적세계관확립의 첫째가는 요구로, 근본표징으로 된다.

혁명의 후계자들을 육성하는 교원인테리들이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당적주견을 가지고 사업을 능동적으로, 당과 수령님의 의도에 맞게 처리해나가는 공산주의적혁명가로 준비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인테리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고 과학연구사업과 교수교양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

지난날 일부 교원, 연구사들 속에서는 기술학습에 당정책학습을 앞세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결과 교수교양사업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관철할수 없었으며 특히 기술과목의 경우에 있어서 매 과목, 매 문제들을 가르쳐주는데서 그와 관련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의도를 잘 반영할수도 없었다.

이것은 교원들속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하고는 혁명사업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와 같은것은 교원들자신의 당정책학습에 대한 태도와 립장과도 관련되여 있지만 중요하게는 당위원회가 교원인테리들의 학습지도에서 당적요구를 끊임없이 따라세우지 못하는것과 관련되여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무엇보다도먼저 당정책학습을 앞세우지 못하는 경향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면서 학습규률을 세우고 학습에 대한 당적요구를 일층 높이였다.

대학당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교원인테리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하신 연설, 보고와 론문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하며 혁명과 건설의 각 부문에 주신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대학당위원회는 모든 교원들이 자체의 전망학습계획에 따라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담긴

사상의 본질을 보다 심오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주 통일적인 계획밑에 사상, 주제별로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지도강의 등 방법으로 학습을 방조하는 한편 강좌별로 수령님의 로작연구토론회를 실속있게 조직진행하게 함으로써 로작의 내용과 기본사상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부 교원들속에 남아있던 당정책학습에 대한 그릇된 관점이 극복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교원들속에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본질을 더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다.

교원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력사적인 교시와 로작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자기 분야에 주신 그이의 교시를 체계적으로 연구파악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대학에 주신 교시와 교육부문과 보건부문의 교시들을 연구반취하여 매 강좌와 연구실들에 비치하게 하였으며 강좌들에서는 그것을 부문별로, 내용별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사상수양과 교재집필 및 교수안작성에 적극 리용하도록 하였다.

이 모든 사업이 단순한 자질향상에 그치게 하지 않고 교원들자신의 사상과 견해에서 그릇된 검을 찾아내고 보건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며 강의안작성, 교재집필, 과학토론회 등 모든 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교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을 점차 극복해나가게 되였으며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게 되었다. 모든 교원인테리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모든 과목에 대한 교수가 진행되게 되였으며 대학내 전반적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되였다.

비단 사회과학과목 담당교원들뿐아니라 대학내 모든 교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모르고는 일보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정책학습을 제1차적요구로 제기하게 되였다. 또한 교원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유일한 자로 하여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검토한 결과 지난 시기의 잘못과 부족점들을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을 개작할 방도까지 명확히 알게 되였다. 이리하여 교과서, 참고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개작집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과학연구사업과 교수교양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킨 결과 우리 나라 자료에 근거한 의학교육의 모든 교수가 성과적으로 보장되였다.

이 모든것은 교원인테리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진정으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　　　*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원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6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당생활을 비롯한 모든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강한 혁명적조직성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당조직생활은 또한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용광로이며 혁명화의 학교이다.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여야만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제때에 알고 고칠수 있으며 맡겨진 혁명과업도 더 잘 수행할수 있다.

대학당위원회가 교원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서 얻은 모든 경험은 바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 그들을 혁명화하는 중요방도의 하나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대학내 일부 교원들속에서는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혁명화를 다그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데로부터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철저히 서있지 못하였다.

지난 시기 일부 교원들속에서는 조직생활과 조직의 지도와 통제에 대한 옳은 관점과 인식이 서있지 못한 경향들도 없지 않았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원인테리들을 더욱 혁명적으로 단련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조직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혁명적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였다.

교원인테리들이 혁명적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만 자기의 정치생활을 훌륭히 개척하고 혁명위업에 충실할수 있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당위원회는 교원들로 하여금 혁명적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규약상 요구와 생활규범을 엄격히 지키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며 생활의 철칙으로 삼도록 하였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교원인테리들의 자각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배합하는것이 필요하였다.

인테리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고 많은 교원들이 지난날 혁명적단련을 받지 못한 실정에서 그들의 자각성에만 맡겨두어서는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킬수 없었다.

그러므로 당위원회는 인테리들의 자각성과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사업을 짜고들어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동시에 혁명적조직생활에 불성실하게 참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극복하도록 인내성있게 사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신로동이라는것은 많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하는 로동이고 하루종일 일하여도 뚜렷이 나타나는것이 없기때문에 통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러한 사정은 인테리들속에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나타날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조건으로 되며 여기로부터 엄격한 규률밑에서 생활하기를 싫어하고 남의 통제를 받기를 싫어하는 인테리들의 좋지 못한 경향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362폐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진적으로 우리 대학의 실정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인테리들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인테리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조직해주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대학 교원인테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떨어져 개별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며 정신로동을 하는 직업상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그들스스

르가 일상적으로 자기들의 조직생활을 총화짓고 결함을 찾으며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다.

대학당위원회는 교원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가지였다.

협의회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월별, 주별, 일별로 되는 구체적행동계획을 세운 다음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집행하고 총화짓도록 하였다.

례컨대 학생강의, 학생지도, 교수안작성, 집필, 과학연구사업 등 월중에 벌이질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활동계획에 반영한 다음 그것을 강좌의 집체적토의에 붙여 확정하고 이를 당세포가 장악하고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 행동계획 실행정형을 가지고 강좌에서는 행정적으로 총화하고 당세포와 직맹,사로청 조직에서도 총화짓게 함으로써 모든 교원들이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조직의 통제속에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나타난 낡은 사상 잔재의 사소한 표현도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제때에 극복할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하니 교원들의 활동과 사업 정형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수 있었다. 어떤 교원은 당정책을 충실히 연구하지 못한데로부터 강의안을 당정책적견지에 튼튼히 서서 작성하지 못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었는가 하면 어떤 교원은 사사일로 계획에 예견된 학생지도를 뒤로 미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함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것이라고 하더라도 제때에 바로잡아주는것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당원들인 경우에는 당세포에서, 사로청원들과 직맹원들인 경우에는 해당조직에서 나타난 결함을 놓고 개별적 혹은 집체적인 방조를 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교원인테리들속에서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이 더욱 높아지게 되고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고 수양하게 되었다.

당위원회는 이와 같은 작풍을 모든 강좌와 당세포들에 일반화하고 심화시키나감으로써 교원인테리들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물어물 보내는 현상들이 일소되었으며 교재집필, 과학연구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 진도대로 쭉쭉 풀려나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부문에서 제도와 질서를 튼튼히 세우고 교원들이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부단히 강화하여 낡은 사상 잔재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것은 인테리혁명화에서 중요한 고리로 되었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데서 효과적인 방도의 다른 하나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것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비판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하는것, 이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6~67페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힌 낡은 사상과 관점을 없애고 새로운 사상관점을 가지게 하는 사상의식령역에서의 심각한 변혁을 의미하는것만큼 비판을 벌려 투쟁을 하고 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함이 없이 쉽게 이루어질수 없다.

대학당위원회는 비판과 자기비판에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교원들속에 깊이 침투시켰으며 비판에 대한 온갖 그릇된 태도, 례컨대 남을 비판하기 싫어하는 경향, 남에게서 비판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자신의 결함을 대중앞에서 스스로 비판하기도 싫어하는 경향들과 심각한 사상투쟁을 벌리였다.

그리고 직위여하와 학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교원들이 늘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보도록 하고 사소한 결함과 부족점이 나타나도 제때에 일깨워주게 함으로써 누구나 다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일하며 살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교원들은 수령님의 교시에 철저히 립각하여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게 되였으며 동지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하는 건전한 당생활기풍을 가지게 되였다.

이러한 과정에 누구나 매일아침 세수를 하는것처럼 늘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을 통하여 결함을 씻어내야 자신을 혁명화할수 있고 사업을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원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그들을 현실에 부단히 침투시켜 실천투쟁속에서 단련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항상 가르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테리가 자신을 혁명화하는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부단히 현실과 접촉하며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입니다. 인테리들은 로동자, 농민과 밀접한 련계를 맺고 그들에게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줄뿐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며 생산실천속에서 항상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테리들이 자신의 사상을 단련할수 있고 자기의 본신사업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36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교원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자면 그들을 생산현실에 침투시켜 군중속에서 배우고 자신을 단련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교원인테리들이 현지에 나가서 공장, 기업소들을 견학하며 실습과 생산로동에 참가하는것은 비단 현실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먼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벅찬 현실속에 구현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며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성을 심장깊이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위원회는 교원인테리들을 현실에 침투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대학행정과의 련계밑에 교원, 연구사들을 본신사업에서 떼여 도내 보건기관에 1년간씩 파견하는 사업, 광산, 농어촌에 파견하는 사업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였다.

지난해 한 연구집단은 광산에 나가 계획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희생성을 발휘하는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겠다는 깊은 각오를 받았다. 특히 그들은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교시를 제때에 어김없이 관철하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영웅적로동계급의 철저한 혁명적사상관점을 따라배워야 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집단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우리 로동계급의 건강증진을 위한 약제합성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이들은 온갖 주저와 동요를 물리치며 갱속에 들어가 로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어느 나라 의서에도 없는 약제합성연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혁명화가 무엇인지 말로 안다고 하여 혁명화되는것이 아니라 인테리들이 현실에 부단히 침투하여 군중과 밀접한 련계를 맺고 그들에게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며 그들에게서 허심히 배움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단련하고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본신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진리를 명백히 깨닫게 되였다.

교원들을 학생들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것은 현실에 부단히 침투시켜 실천

투쟁속에서 배우도록 하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위원회는 교원들이 학생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현실속에서 부단히 단련시키는 동시에 학생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온갖 정력을 쏟아붓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교원들이 자기의 과학연구사업에만 몰두하면서 방과후 학생지도는 게을리하며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식의 무책임한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이였다.

학생과외지도사업에서 나타난 그릇된 사상관점과 태도를 반대하는 인내성있는 투쟁을 벌린 결과 적지 않은 교원들은 학생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강의실과 기숙사에서 달을 두고 밤을 지새우며 지도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학급을 전원 우등,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하게 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대학에 주신 현지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직원학생들은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로동당시대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고상한 공산주의적미풍이 수없이 발양되고있다.

《의사가 되기전에 우선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인간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피와 살 지어 뼈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숭고한 공산주의적정신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전신 74%의 화상, 거기에 심한 타박상까지 입은 환자를 위하여 수백점의 살을 바치였으며 친부모의 심정으로 환자를 간호하여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수 없다면 생명을 구원한것을 비롯하여 감동적인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보건전사들은 뼈가 부서진 팔다리를 잇는것을 비롯하여 현대의학의 새로운 기법들을 수없이 창조하고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끊임없는 교양과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인테리들을 부단히 혁명화하여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울데 대한 수령님의 인테리혁명화방침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생활을 통하여 우리들은 당조직이 인테리들의 사업과 생활을 짜고들어 지도하고 또한 인테리들이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때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준비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대학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행정을 통하여 우리는 천리마대학의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대학 교직원학생들에게 돌려주신 두터운 신임과 끊임없는 보살핌속에서 이루어진 열매이다.

우리들은 수령님의 교시관철과정에서 달성한 초보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대학을 혁명화하여 교직원학생들을 당의 붉은 보건전사로 키움으로써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철도운수부문의 전투적과업

김 영 렬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그이의 신년사 그리고 그이께서 최근 희천땅에서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에 끝없이 고무되여 지금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교통운수 그중에서도 특히 철도운수앞에 더욱더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전당이 달라붙어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풀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철도운수를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킴으로써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기간 철도운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교통운수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6페지)

인민경제에서 교통운수 특히 철도운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철도가 앞서나가야 전반적인민경제가 다 잘 풀려나갈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철도의 신세를 지지않는 인민경제부문이란 하나도 없다. 철도가 잘 움직이는가 못 움직이는가에 따라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이 크게 좌우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철도운수가 노는 커다란 역할을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철도를 다른 모든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매시기 철도운수의 강화발전을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힘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며 특히 철도전기화를 비롯한 이 부문의 기술개건과 새 철길건설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7개년계획기간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7개년계획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850키로메터의 구간의 철도가 전기화되여 중요간선들에서의 철도전기화가 기본적으로 끝났다. 또한 운수설비들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철도의 내연화를 실현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7개년계획기간 철도망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새 철길건설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철도의 통과능력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송조직이 개선되고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가 철저히 세워짐으로써 무사고증송성과는 더욱 확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철도운수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붉은 수송전사의 대부대와 자체의 현대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철도운수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철길우에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자체의 지혜와 기술, 자재로 만든 전기기관차와 화차가 힘있게 달리고있다. 우리의 철도운수는 지금 1946년 한해동안에 실어나르던 량의 짐을 불과 16일 남짓한 사이에 나르고있다.

그러나 빨리 발전하는 현실은 그에 맞게 철도운수를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과업인 6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6개년계획은 이미 이룩한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과업이다. 이 기간 우리 나라에서 공업총생산액은 2.2배로 늘어나고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4%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될것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이룩되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이 기간 철도화물수송량은 1.7배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회천로동계급의 영웅적발기에 호응하여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명년 4월 15일까지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 눈부신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부문간, 지역간의 생산적련계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철도운수부문에서 새로운 더욱 큰 앙양을 일으키며 더 많은 원료와 자재, 설비를 제때에 어김없이 날라다줄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전당적, 전인민적인 관심을 돌려 교통운수 특히 철도운수를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우리가 더 빨리 달려나가며 천리마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6개년계획의 전반적고지를 성과적으로 앞당겨 점령하자면 올해의 첫 전투를 잘하여야 하며 올해 계획을 앞당겨끝내는가 못끝내는가 하는것은 철도운수부문사업에 크게 달리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철도운수를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는것은 올해 계획과 전반적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거세찬 천리마진군이 제기하는 필수적요구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철도운수를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침과 구체적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올해에 철도전기화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며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지금 있는 철도의 통과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철도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갈것입니다.**》

수령님의 이 교시는 현시기 철도운수부문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방침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먼저 철도전기화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것은 철도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된 오늘 철도운수부문에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중요한 기술개건사업이며 철도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철도전기화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필요한 기술적조건들을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빠른

시일안에 경량레루를 중량레루로 바꾸고 좋은 나무침목과 예비응력콩크리트침목을 깔아 철길의 강도를 높이며 역구내선을 더 늘이고 조차장과 기술역의 필요한 능력을 마련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중량화차를 많이 생산하고 전기화구간의 차굴과 철다리를 비롯한 구조물들을 빠른 시일안에 보수보강하여 지금 있는 철도의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높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시기 철도운수부문앞에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의 하나는 짐을 실고부리는 일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여러가지 능률적인 상하차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짐을 실고부리는 일의 기계화를 빨리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48~49페지)

짐을 실고부리는 일을 적극 기계화하는것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예로운 과업일뿐아니라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고 운수수단의 리용률을 높여 전반적인 철도수송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 철도수송에서 짐을 실고부리는 일의 거의모두는 공장, 기업소 전용선들에서 진행되고있다. 그러므로 이기에서 먼저 1~2년안으로 짐을 실고부리는 일의 기계화를 완성하는것이 중요하다.

전용선을 가지고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능률적인 상하차기계설비들을 많이 생산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석탄, 쇠돌을 비롯하여 꾸리지 않고 흘어진채 실는 짐을 많이 다루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한개 렬차분의 짐을 동시에 실고부릴수 있는 상하차기계설비들을 갖추어 그 능력을 빨리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장성에 따라 늘어나는 원자재들을 제때에 처리할수 있는 물자저장장과 창고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해놓은 제품들을 제때에 실어나르지 못하거나 공장에 들어온 원료와 자재들을 제때에 부리지 못하여 화차를 오래동안 미물러있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역들에서 짐을 실고부리는 일의 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필요한 기계설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상하차기계들을 자체로 만들어쓰는 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고 역주변에 있거나 철도를 많이 쓰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여러가지 상하차기계설비들을 만들어 역을 지원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철도에서는 이미 있는 기계설비들을 잘 보수정비하여 그 리용률을 적극 높여야 한다.

지금 있는 철도의 통과능력과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문제는 또한 차량의 생산과 수리를 잘하는것이다.

차량의 생산과 수리를 잘하는것은 철도운수의 기본수송수단인 차량들의 수를 늘이고 차종별구성을 완비하며 운전기재의 리용률을 높여 긴장된 수송수요를 풀며 사회주의철도운수를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차량의 생산과 수리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이미 있는 철도공장들에 살을 붙이고 불비한 부문들을 보강하여 가공능력을 높이는 한편 랭동화차를 비롯한 새로운 차량의 생산과 그 수리능력을 빨리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요한것은 차량부속품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강화하여 지금 있는 기관차, 화차들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

신바와 같이 운수수단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부속품의 생산 및 수리 기지를 꾸리는것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차량부속품 생산공장과 수리직장을 보강하고 새로운 부속품 생산 및 수리 기지를 조성하며 철도의 운영단위들인 기관차대와 객화차대들 튼튼히 꾸려 중소수리를 자체의 힘으로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철도운수를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철길작업을 기계화하며 철도운영을 자동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철길작업의 기계화와 철도운영의 자동화를 실현하는것은 이 부문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철도운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술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우선 철길작업의 기계화에 필요한 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소형모타카, 철길수리차, 종합다짐차를 비롯한 중소형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새 전망계획 기간에 철길작업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에서 자동화를 적극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동화를 해야 로력을 절약할수 있고 철도의 통과능력을 높일수 있으며 철도운행의 안전도 보장할수 있습니다. 자동화할수 있는 모든 곳에서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의 자동화는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된 조건에서 철도를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철도를 자동화해야 많은 로력을 절약할수 있고 철도의 통과능력을 높일수 있으며 철도운행의 안전성도 더 잘 보장할수 있다.

6개년계획기간에 전기화된 모든 구간에서 역구내의 자동화를 실현하며 통과능력이 절리고있는 일부 중요구간들에는 빠른 시일안에 구간자동화와 사령자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차에 자동신호와 자동정차 장치를 설치하며 철도의 통신체계를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 철도운수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기술개건사업의 하나는 철도 전기화와 내연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구배가 심하고 물동량이 많은 동부와 내륙지대의 일부 긴장한 철도지선들을 전기화하여야 한다. 특히 지금 진행하고있는 청진—현진사이의 전기화공사를 빨리 끝내며 마진까지의 전기화공사를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화하지 않을 서부지대의 구간들을 내연화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철도운수를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철도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철도과학연구사업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과학연구일군들을 튼튼히 꾸리며 과학연구설비를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철도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전문가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우리 나라 철도운수실정에 맞는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철도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비롯한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선진기술과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널리 창안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하며 기술학습과 기능전습을 짜고들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워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철도운수를 번천된 새

현실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그 통과능력과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새 철길건설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이천—세포사이의 철도건설을 다그쳐 동서해안을 련결하는 새로운 철도를 빨리 개통하도록 하는 한편 북부내륙지대의 동서부를 련결하는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새 철도 건설을 적극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6페지)

새 철도건설 사업은 통과능력을 높이고 철도망의 배치를 합리화하며 철도의 긴장성을 푸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동서부를 련결하는 철도가 하나밖에 없으며 이것이 철도의 긴장성을 가져오게 하는 주되는 원인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이천—세포사이의 철도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동서부를 련결하는 새 철도를 빨리 개통하도록 하여야 하며 북부내륙지대의 동서부를 련결하는 철도건설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황해남도일대의 좁은 철길을 넓은 철길로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새 철도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건설을 집중적으로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건설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며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은 공사를 담당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건설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지원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여기에서 특히 사로청원들이 청년돌격대를 무이 어려운 일에 앞장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도에서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인 질서를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에서 규률은 첫째가는 생명입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온갖 규률없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인 질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철도운수는 조직화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서는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인 질서가 특별히 요구된다.

철도운수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일군들이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규정학습과 실무동작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무규률적인 현상과의 강한 투쟁을 벌려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인 질서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집권화된 사령지휘체계를 세우고 사령원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있는 철도의 통과능력과 수송능력을 높이며 이 부문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자면 변천된 새 환경에 맞게 수송조직을 개선강화하고 철도운영을 보다 합리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량과 수송능력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며 그에 기초하여 수송계획을 품종별, 지역별로 세밀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역수송, 반복수송 등 불합리한 수송을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렬차운행과 배차조직을 개선강화하고 지난 기간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순환식집결수송과 기다림상하차를 비롯한 선진적수송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직통화물렬차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 수상운수 및 자동차운수와의 련대적수송도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현시기 철도운수부문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전당적, 전인민적 관심을 돌려 철도운수를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해설침투시킴으로써 그들모두가 철도운수사업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 도와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공업과 금속공업, 건재공업 부문을 비롯하여 철도와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협동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철도 전기화와 내연화, 기계화와 자동화, 새 철도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철도전기화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련관된 부문들에서는 중량레루와 좋은 침목을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현시기 철도운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인민들에 대한 봉사성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철도에서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철도운수의 신성한 의무이며 이 부문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중요한 표현으로 된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시기에만 하여도 철도에서의 봉사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수많은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철도에서의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일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더욱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그 관철을 위하여 계속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앞에 나선 전투적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며 철도운수를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철도운수부문 각급 단위의 지도일군들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 등 낡은 사업 작풍과 방법을 견정적으로 없애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또한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하여 로력을 극력 절약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은 특히 이 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와 올해 신년사를 비롯한 그이의 천재적로작들과 철도운수부문에 주신 모든 교시들을 깊이 연구하여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령님의 근 반세기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강화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끊임없이 따라배워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과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어떤 역경속에서도 철도수송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사는 혁명가답게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짓부시면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6개년계획수행의 중요고리인 철도운수부문에서 더욱 큰 혁신을 일으키자!

남조선혁명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적성격

최 길 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천재적으로 밝히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조선혁명발전의 특성과 남조선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남조선에서의 혁명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남조선혁명의 성격문제는 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과 직접 결부되여있는 근본문제로서 이에 대한 옳은 해명은 남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남조선혁명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적성격에 관한 사상은 남조선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전반적조선혁명발전의 요구를 통일적으로 고찰하신 유일하게 정확한 사상이며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키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면서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국토가 갈라진 조건에서 그자체가 남조선의 식민지반봉건적인 사회경제관계와 모순관계에 의하여 상대적독자성과 고유한 성격을 띠지 않을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남조선혁명의 성격에 관한 사상은 전조선혁명에서 남조선혁명이 차지하는 위치,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의 호상관계,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 등을 전면적으로 밝히신 지역혁명에 관한 심오한 사상으로서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에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은 그이께서 일찌기 조국해방을 위한 간고한 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종국적목적과 당면과업에 관한 전략사상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강도 일제를 물리치고 3천리 조국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새 사회를 건설할 원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로선에 대한 온갖 좌우경적경향을 극복하고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우리 나라 혁명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적성격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비로소 정확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전개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창시하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을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조성된 우리 나라의 정세와 남조선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시였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의 직접적계승이며 그 실현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과정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로선과 방침에 따라 힘있게 전진함으로써만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오늘의 저주로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수 있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7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예속된 전형적인 식민지반봉건사회인 남조선에서의 혁명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고전적인 정식화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을 때려부시고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자체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그것은 사회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사회혁명은 소여사회의 기본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보다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는 사회발전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이며 계급투쟁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맑스-레닌주의당과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광범한 대중이 적극 참가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여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다. 사회혁명의 류형과 성격은 그 혁명에서 어떤 기본모순이 해결되고 어떤 사회제도가 새로 수립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혁명의 류형과 성격을 규제하는 요인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해당사회 경제관계와 그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계급적모순관계인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남조선혁명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적성격에 대한 고전적정식화는 남조선사회의 식민지반봉건적성격과 그 모순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오늘 미제는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마음대로 지배하고있다. 남조선의 이른바 《정권》이란 미제가 총칼을 휘둘러 만들어낸것으로서 놈들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는 제놈들이 만들어낸 허수아비정권과 《원조》를 미끼로 하여 남조선의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이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 놓여있는 남조선에서 사회경제구조의 기본특징은 미독점자본에 예속된 기형적인 자본주의적관계가 도시를 지배하고 미제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유지보존되는 봉건적관계가 농촌을 지배하며 소상인, 수공업자들을 비롯한 소상품경리가 사회경제생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두 자본주의적관계와 봉건적관계가 인위적으로 결합되여 미제의 철저한 지배와 예속하에 놓여있다는데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사회는 그 《정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로 볼 때 통치자가 일제대신 미제로 바뀌였을뿐 의연히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남아있다.

이러한 식민지반봉건적사회경제체제는 그에 상응한 사회계급관계와 심각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낳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 있어서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 도시소부르죠아 및 민족

자본가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둘사이의 모순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33페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적수법에 의한 식민지지배와 착취관계의 반동적본질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남조선의 식민지반봉건적인 사회경제구조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에 대한 천재적인 해명으로 된다.

사회혁명에서 해결되여야 할 기본모순은 해당사회의 지배적인 생산방식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며 그에 상응한 계급들간의 모순이다.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은 두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하나는 미제와 남조선인민들간의 모순이며 다른 하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남조선인민들간의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반동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사회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남조선혁명앞에는 미제와 남조선인민들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함께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이 제기되고있다.

남조선혁명과업의 이 두 측면은 그 지위와 역할이 같지 않으며 주되는것은 미제와 남조선인민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민족해방의 과업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그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0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반동세력을 적극 비호육성하여 식민지반봉건적관계를 유지공고화하면서 인민들에게 이중 십중의 착취와 압박을 강요하는 최대의 착취자이며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학살하는 원흉이다. 또한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을 적극 부추기는것도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제국주의침략과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도 기대할수 없고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야만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들이 철저히 해결될수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는것과 함께 그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때려부시는것은 남조선혁명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며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있으며 그들의 비호밑에 남조선인민들을 억압하며 가혹하게 착취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80페지)

오늘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억제하고있는 중요한 사회경제적요인의 하나는 미제의 비호밑에 유지되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이며 그것이 의지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에 의한 식민지반봉건적착취제도이다.

남조선에 수립된 현군사파쑈독재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에 그 정치적지반을 두고있는 반동적인 권력통치로서 그것은 전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정치적으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총칼로 탄압하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극력 떠받들고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놈들의 식민지략탈정책과 군사기지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다.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과 략탈의 계급적지반을 이루고있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고있다.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면서 그 침략세력을 적극 부식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군사특무테로집단인 남조선의 현군사파쑈정권과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때려부셔야만 미제가 의거하고있는 식민지통치의 받판을 허물어뜨릴수 있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현군사파쑈독재의 본질과 그것이 남조선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파쑈테로통치기구에 들어앉아 미제를 떠받드는 반동관료배들과 그 파쑈통치를 반대하는것을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주요내용으로 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은 미제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끝장내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그러한 사회제도를 세우기 위한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의의 투쟁이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찾으며 오늘의 참담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규정짓는 모순관계의 기본내용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인민들간, 미제의 주구세력들과 인민들간의 기본모순이 해결되지 않는한 남조선사회는 견코 식민지반봉건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날수 없으며 그 어떠한 사회적진보도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사회발전의 객관적행정은 이 기본모순의 해결을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는 동시에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만 오랜 식민지통치로 인한 세기적인 락후성을 퇴치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갈망하는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민족적모순을 해결하는 민족해방의 과업과 계급적모순을 해결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은 하나의 혁명의 두 측면을 이루면서 호상 제약하며 추진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민족해방혁명과업의 철저한 수행은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해결의 결정적담보로 되며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의 해결은 민족해방혁명과업의 수행을 추진하며 그 성과를 공고히 한다. 특히 민족적모순을 해결하는 민족해방혁명과업의 철저한 수행은 남조선인민들의 계급적해방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된다.

두 혁명과업의 이러한 호상관계는 남조선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수행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그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의 수행과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사회혁명에서 민족해방의 과업과 계급해방의 과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통일적과정으로 수행될 때만이 그것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될수 있다.

남조선혁명이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조선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은 그가 해결하려는 모순관계와 사회경제적변혁의 내용으로 보아 필연적으로 로동계급의 령도를 요구하는 혁명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에로 곧바로 나아가는 혁명이다.

사회혁명에서 계급적령도문제는 혁명의 성격과 그 혁명에서 수행되는 정치경제적변혁의 심도와 혁명의 발전전망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사회혁명의 령도계급으로는 혁명수행에 가장 절실

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그 혁명에 참가하는 다른 모든 계급, 계층을 묶어세워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어갈수 있는 혁명적계급만이 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한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일부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이다.

남조선혁명의 동력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정식화는 혁명에 가장 큰 리해관계를 가지는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군중을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가장 광범한 동력을 가질수 있게 하는 탁월한 혁명력량편성방침으로 된다.

광범한 계급,계층을 포괄하는 남조선혁명의 동력구성에서 로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인민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이다.

남조선로동계급은 일찍부터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워온 조선로동계급의 한 부분으로서 어느 계급,계층보다도 혁명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정확히 령도할수 있는 혁명적인 계급이다.

남조선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일관한 사상은 남조선혁명의 본질과 계급적성격 및 그 전도를 명확히 밝혀주는 탁월한 사상이다.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사회의 혁명적개조는 로동계급의 령도여하에 달려있다.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령도가 보장되지 않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인입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반제민족해방의 과업도,반봉건과업도 철저히 수행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절박한 요구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옳게 실현해나갈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됨이 없이는 사회적변혁을 철저하게 수행할수 없을뿐아니라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여야만 자기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다른 모든 계층의 군중을 묶어세워 식민지통치기구를 때려부시고 인민의 정권을 세울수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보장하는데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는 결정적의의를 가지며 이것은 남조선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로농동맹을 핵심으로 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고 확고하게 령도하여 나가야만 혁명에서 항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다.

오늘 남조선의 로동계급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인 통일혁명당을 뭇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지나온 남조선혁명투쟁로정은 혁명적당의 령도가 혁명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얼마나 사활적문제로 나서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은 또한 로동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혁명단계의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계속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는 혁명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국토가 둘로 갈라져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뿐아니라 미제가 강점하고있는 남녘땅에 봉건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제도가 그냥 남아있는만큼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민족해방혁명과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계속 밀고나가야 하며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남조선혁명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할뿐아니라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한 정치경제적기초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는만큼 그것은 민주주의적성격을 띠는 혁명인 동시에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종국적해방을 위한 사회주의혁명과 직접 잇닿아있는 혁명이다.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식민지파쑈통치를 쓸어버리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사회주의혁명의 전제를 충분히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 또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 종래의 민주주의혁명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남조선혁명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으로 되는것은 이 혁명이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으로서 그의 통일적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기때문이다. 남조선혁명은 그자체의 수행으로 끝나는 하나의 고립된 혁명인것이 아니라 전국적판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현을 종국적목적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한 고리이다. 남조선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을수 있으며 전국혁명을 계속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분석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의 기본임무, 대상과 동력, 전략전술 등 혁명에 대한 이여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백히 밝히심으로써 남조선에서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인민민주주의제도에로의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에로 계속 이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남조선혁명의 성격에 관한 사상은 남조선인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위대한 전투강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는 남반부도 북반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에로 나아갈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발전의 필연적과정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3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거쳐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사회발전의 필연적과정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에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은 남조선사회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나 자기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을 개척해나가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그것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만이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력량을 동원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종국적으로 타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함으로써만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로 인한 사회의 기본모순을 가장 철저히 해결할수 있으며 온갖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려는 사활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마찬가지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끝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그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에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최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남조선혁명이 수행되여야 전국

적범위에서 민주주의혁명단계의 과업을 완수하고 통일된 조국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수 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은 실로 남조선혁명의 장래전망을 휘황히 밝혀주며 조선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로 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이 남조선혁명승리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기초를 지어줌으로써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준다는데 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계단을 뛰여넘을수 없으며 혁명의 현계단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6~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혁명의 성격에 관한 문제가 혁명의 발전단계를 정확히 설정하며 그에 따르는 혁명전략을 옳게 세우는 문제와 직접 결부되여있다는 혁명발전의 근본원리를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혁명의 전략은 소여단계의 혁명의 성격과 임무, 과업에 의하여 규정된다. 무엇보다도 혁명의 성격을 옳게 밝혀야만 혁명투쟁의 총적방향을 옳게 정하고 전략전술적제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고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천재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을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서의 주타격방향과 보조타격방향, 주력군과 후비군의 편성, 혁명의 폭력적방법, 대중투쟁의 형태와 방법, 당면과업으로서의 반파쑈민주화투쟁 등 전략전술적방침들은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의 구현으로 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 등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그에 기초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침투되여 그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고있으며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인도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보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과 탁월한 전략전술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철저한 반제적립장, 자체의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혁명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혁명적신념에 기초한것으로서 분렬된 나라에서의 지역혁명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처음으로 정연하게 체계화한것으로 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혁명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신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 내잔 커다란 공헌으로 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의 사회적제관계와 모순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

한 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사회혁명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권과 그 실현조건,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과 정권형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구체적 방도 등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혁명운동 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청산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그것이 다만 종주국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예비군의 지위에 머물러있던 시기에는 반제반봉건혁명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적성격을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없었다. 이것은 오직 철저한 반제사상과 계속혁명의 사상을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며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사회계급적 해방의 요구를 정확히 체현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풍부한 혁명투쟁경험을 쌓으신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과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에게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착취와 예속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완성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발톱까지 무장한 강대한 적을 상대로 하고있으며 그 앞길은 의연히 간고합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혁명가들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자기의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함으로써 결국에 가서 반혁명적폭력을 때려부실수 있는 강대한 혁명력량을 준비할것이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남조선인민들을 승리에로 이끌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05페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날로 강화발전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전쟁정책과 파쑈폭압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으나 놈들은 그 어떠한 발악으로써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대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때려부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제6호 (루계 351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1년 6월 25일 발행 • 1971년 6월 29일

ㄱ—14221 값 50전